

한국전쟁전투사

진천-화령장전투

(중서부지역 지연전)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머 리 글

본 전투사는 국군이 북괴의 기습남침으로 서울을 피탈당하고 한강방어선마저 지키지 못하여 수원 경유 평택으로 철수한 1950년 7월초에 평택 일원의 국군주력을 수도사단, 제1사단, 제2사단 등 3개 사단으로 통폐합하고 제1군단을 창설하여 7월 하순까지 중서부지역인 진천, 음성, 청주, 괴산, 미원, 화령장 일대에서 북괴군 제2 및 제15사단과 20여 일간 실시한 지연전 상황을 수록한 것입니다.

한강선을 돌파한 북괴군은 신속한 전진으로 험준한 소백산맥을 조기에 돌파하려고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국군은 때마침 참전한 미군으로 하여금 경부국도를 중심으로 한 서부지역을 담당토록 하고, 건제가 흩어진 주력을 3개 사단으로 재편성하여 중서부지역에서 적의 전진을 지연시키는 작전을 펼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1군단은 사력을 다하여 싸웠으며 비록 지면은 양보해야 하였지만 귀중한 시간을 얻어 전투력을 재정비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낙동강선에서의 방어성공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 전투사를 통하여 전선이 붕괴되어 건제가 흩어진 부대를 재편성하고 지연전으로 시간을 획득하면서 전투력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당시 국군이 어떻게 싸웠으며 특히 이 전투가 전략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는 재음미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상세하고 정확한 사료의 부족을 현지답사와 참전자들의 증언청취 등을 통하여 보완하는 데 노력한 나종삼 위원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1991년 12월 10일

국방부 전사편찬위원장 구 본 중

일 러 두 기

1. 이 책은 “한국전쟁전투사”의 속간으로서 1950년 7월에 실시된 제1군단 예하의 수도사단, 제1사단, 제2사단이 중서부지역에서 수행한 전투상황을 수록한 것이다.
2. 전투상황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수도사단이 수행한 진천 전투, 청주 전투를 먼저 기술하고, 제1사단이 수행한 음성 전투, 괴산-미원 전투, 화령장 전투를 기술하였으며, 일자별 주요 전투상황(전투일지)은 부록에 수록하였다.
3. 군사용어는 합동군사용어사전(합동참모부, 1980)을 기준하였으나 당시 사용된 군사용어중 없어진 용어는 그때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고, 용어의 개념이 변경된 용어는 새로운 용어로 표기하였다.

[예] 1. 없어진 용어: 주저항선

2. 개념이 변경된 용어: 사주방어 → 전면방어

4. 군대부호는 육군독도법 교범(야교 21-26)에 따라 표기하였다.
5. 주요지형이나 지점은 군사좌표(UTM좌표, 4계단 또는 6계단)로 표기하였다.
6. 참전장병은 당시 계급과 직책을 가급적 함께 수록하였으며 () 안에 임관기별과 예편계급 등을 기입하였다.
7. 연월일시는 다음과 같이 표기하였다.

• 연월일: 1950년 7월 15일

• 시 간: 오전 3시 30분 → 03:30

오후 3시 30분 → 15:30

8. 장, 절, 항은 공문서 표기 분류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예] 장…제1장, 제2장, 제3장

절…1, 2, 3

항…가, 나, 다

차 례

전투개요	1
------------	---

제 1 장 전투배경

1. 작전지역의 특징	9
가. 지 형	9
나. 기 상	11
2. 전선의 개황	12
3. 미 지상군 참전과 작전지역 분담	16
4. 육군의 재편성과 부대 전개	19
가. 육군주력의 재편성	19
나. 제1군단의 부대 전개	24

제 2 장 진천 전투

1. 진천실함	29
가. 수도사단의 진천 전개	29
나. 중산리의 첫 교전	33
다. 군단장의 지휘조치	35
라. 수도사단장의 재교체	36

마. 진천 실험	38
바. 장갑중대의 공격	40
사. 제20연대의 공격	42
2. 문안산-봉화산-양천산 선 공방전	44
가. 주저항선의 형성	44
나. 문안산 및 봉화산 피탈	46
다. 진천 탈환 작전계획	47
라. 봉화산 전투	50
(1) 제1연대의 공격	50
(2) 제18연대의 공격	54
마. 문안산 전투	58
(1) 제1차 문안산 전투	59
(가) 제17연대 제1대대의 공격	59
(나) 제8연대의 공격	62
(2) 제2차 문안산 전투	64
(가) 문안산 피탈	64
(나) 제1연대의 공격	65
(다) 제17연대 제1대대의 공격	65
바. 양천산 북방 전투	68
(1) 제20연대의 공격	68
(2) 제16연대의 공격	70
3. 철수작전	72
가. 수도사단의 철수계획	72
나. 북괴군의 재공격	74

다. 주력부대의 철수	76
라. 엄호부대의 철수	77
(1) 제17연대 제1대대의 철수	77
(2) 제20연대의 철수	78
마. 제2사단 제16연대의 철수	79

제 3 장 청주 전투

1. 오근장 전투	81
가. 방어준비	81
나. 청주시가전 작전협의	88
다. 오근장 전투 및 철수	91
2. 국사봉-고은리-431고지 선 전투	93
가. 방어준비	93
나. 제1일차 전투	96
(1) 고은리 전투	96
(2) 국사봉 전투	99
(3) 사단의 지휘조치	101
다. 제2일차 전투	103
(1) 제17연대의 공격계획	103
(2) 효촌리 전투	105
(3) 장암리 전투	109
라. 제3일차 전투	111
(1) 170고지 피탈	111

(2) 국사봉 기습전	115
3. 철수작전	118
가. 군단지휘조치	118
나. 주력부대 철수	120
다. 엄호부대 철수	123
라. 제8연대 철수	124

제 4 장 음성 전투

1. 음성주변전투	126
가. 제7연대의 음성전개	126
나. 무극리 공격전	132
(1) 기름고개 조우전	132
(2) 무극리 공격	134
다. 동락리 기습전	137
(1) 동락리 부근의 교전	137
(2) 제3대대의 용원리 공격	138
(3) 제2대대의 동락리 공격	141
(4) 전투결과	146
2. 음성 전투	149
가. 제1사단의 음성전개	149
나. 소여리 전투	157
다. 제7연대의 공격	160
라. 용산리 전투	163

마. 비산리 전투	165
3. 철수작전	167
가. 철수계획	167
나. 주력부대의 철수	169
(1) 제11연대 및 제12연대의 철수	169
(2) 제7연대의 철수	171
다. 엄호부대의 철수	171

제 5 장 괴산-미원 전투

1. 괴산 전투	173
가. 방어계획	173
나. 가장동 공방전	177
2. 미원 전투	182
가. 방어계획	182
나. 거리고개 공방전	185
다. 장갑소대의 미원 교전	190
3. 철수작전	193
가. 제1사단의 철수	193
나. 엄호부대의 강산리 교전	195

제 6 장 화령장 전투

1. 화령장 부근의 작전상황	197
-----------------------	-----

가. 북괴군의 작전기도	197
나. 군단 정보대 활동	200
(1) 제1군단 정보대 활동	200
(2) 제2군단 정보대 활동	201
2. 봉황산 매복전투	204
가. 제17연대의 이동	204
나. 상곡리 전투	207
(1) 제1대대의 공격준비	207
(2) 상곡리 기습전	209
(3) 잔적소탕	212
다. 동관리 전투	216
(1) 제2대대의 공격준비	216
(2) 적 치중대 격멸	220
(3) 동관리 기습전	222
라. 포격전	228
3. 갈령 공격전투	230
가. 제1사단의 화령장 전개	230
(1) 육군의 천선 조정 계획	230
(2) 제1사단의 화령장 전개	235
(3) 제1사단의 공격계획	237
나. 하송리 전투	239
(1) 제11연대의 공격계획	239
(2) 하송리 공격전	241
다. 장자동 전투	243

(1) 제12연대의 공격계획	243
(2) 장자동 공격전	245
4. 철수작전	250
가. 제1사단 철수	250
나. 제17연대 철수	253
다. 제1군단 사령부 이동	254

부 록

1. 전투일지	259
2. 참고문헌	264
3. 증언인명록	266

전 투 개 요

이 전투사는 북괴군의 남침 초기인 7월 5일에 신편된 국군 제 1군단 예하 수도사단, 제1사단, 제2사단 및 그 배속부대가 1950년 7월 5일부터 7월 25일까지 진천, 음성을 비롯하여 청주, 괴산, 미원, 화령장(상주 서북방)에서 전개한 북괴군과의 지연전 전투상황을 기술한 것이다.

국군은 북괴가 남침을 자행한 지 4일 만인 1950년 6월 28일에 서울이 피탈되자 한강 남안에 방어선을 형성하고 시흥지구전투사령관의 지휘하에 한강선을 방어하였으나 결국 북괴군의 도하를 저지하지 못하고 7월 3일에 방어선이 돌파되어 수원 방향으로 철수하게 되었다.

수원으로 철수중인 수도사단, 제1사단, 제2사단, 제5사단 및 제7사단과 기타 부대들은 잇따른 전투에서 많은 피해를 입었고, 한강 도하시 건제가 흐트러져서 혼성부대로서 전투를 하였으며, 한강선에서의 철수시 북괴군의 추격을 받아 지휘체제가 혼란되고 사기마저 극도로 저하되어 있었다. 이 철수부대의 전투력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이에 육군본부는 7월 5일부로 이 부대들을 수도사단, 제1사단, 제2사단의 3개 사단으로 통폐합하는 동시에 시흥지구전투사령부를 모체로 제1군단 사령부를 창설하여 중서부의 진천·음성지역을 방어하도록 하였다.

2 전투개요

이즈음의 전황은 서부전선에서는 국군주력이 철수 및 재편하는 가운데 참전을 결정한 미 지상군의 선두부대가 오산 북쪽의 죽미령에 방어진지를 구축중이었고, 중부전선에서는 국군 제6사단과 제8사단이 북괴군의 진출을 축차적으로 저지하는 중이었으며, 동해안에서는 제3사단 제23연대가 울진 부근에서 북괴군과 맞서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미 지상군이 투입됨에 따라 경부국도를 중심으로 한 서부지역은 미군이 담당하고 중부 및 동부지역은 한국군이 담당한다는 한·미간의 합의에 따라 육군본부는 수도사단을 진천에, 제1사단을 음성에 투입하고, 제2사단을 제1군단 예비로서 증평에 집결시킴으로써 한·미간에 전선이 조정되었다. 육군의 재편성 및 제1군단의 부대이동 명령에 따라 각 부대들은 이동하면서 재편성하였으나 장비의 보유수준이 낮은 것은 물론, 재편성 과정에서 타부대 병력과 낙오병의 흡수로 인해 소대장이나 중대장이 부하의 얼굴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군장병 개개인의 투지는 적개심에 불타 있었고 분산되었던 병사들은 원 소속부대를 찾아 복귀함으로써 전력은 점차 회복되어가고 있었다.

진천방어 명령을 받은 수도사단은 우선 제1연대를 진천에 투입하였다. 제1연대는 7월 6일에 진천 북방에서 적과 접촉하면서 철수중인 제6사단 제19연대와 임무교대하였으나, 이천에서 진천으로 남진하는 북괴군 제2사단을 저지하지 못해 8일에는 진천을 빼앗겼다. 사단주력인 제8연대와 제18연대는 8일 저녁때 진천 남쪽 5km의 여사에 도착하여 문안산-봉화산 선에 병력을 배치하였으나 북괴군의 공격을 저지하지 못하고 이 지역마저 빼앗기

고 말했다. 이에 사단장 김석원 장군은 반격으로 이들 고지들은 물론 진천까지의 탈환을 기도하였고 군단장은 제17연대와 기갑연대를 수도사단에 배속하고 제2사단의 2개 연대를 이 지역에 증원하였다. 이리하여 문안산과 봉화산을 중심으로 격전이 전개되었다.

7월 7일에 증평에 도착한 제1사단은 8일에는 제6사단 제7연대로부터 음성방어임무를 인수하였다.

이에 앞서, 장호원에서 남하하는 북괴군을 저지하기 위하여 음성에 투입된 제7연대는 7월 4일부터 북괴군과 교전을 개시하였고, 7일 아침에는 2개 대대가 음성 북방 8km 지점의 충청북도 증원군 신니면 문락리—용원리에서 북괴군 1개 연대를 기습공격하여 개전 이래 최대의 전과를 올렸다. 이 승리는 연일 후퇴를 거듭하고 있던 국군장병의 사기를 북돋아 주었고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 전공으로 제7연대장병은 국군 창설 이래 최초로 1계급 특진의 영광을 안게 되었다.

음성방어임무를 인수한 제1사단은 제7연대를 배속받아 전차를 앞세워 공격하는 북괴군 제15사단과 공방전을 전개하였으나 전투력의 열세로 인하여 점차 밀려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제1군단이 진천과 음성에서 분전하고 있을 때, 좌측의 경부국도에서 미군은 8일에 천안을 빼앗겼고 10일 아침부터는 진천 남서쪽 20km 지점의 전의에서 격전중에 있었으며, 우측의 제6사단도 8일에 충주를 잃고 수안보 선으로 물러났기 때문에 양측방 노출을 염려한 군단장은 10일에 수도사단을 청주 방

4 전투개요

향으로, 제1사단을 괴산 방향으로 각각 철수시켰다.

수도사단은 철수를 단행하여 청주 북쪽의 미호천 남안에 방어진지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이 하천은 도섭이 가능하여 장애물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쪽의 미군이 12일에 조치원을 포기하고 금강선으로 철수함으로써 사단의 서측방이 노출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괴군이 7월 13일 아침부터 미호천을 도하하여 공격을 감행하자, 수도사단은 09:00경부터 철수하여 청주 남쪽 8km인 국사봉(CR 6446, 282m) - 고은리(CR 6747) - 은행리(CR 7048)를 연하는 선에 방어진지를 편성하였다.

제2사단은 7월 10일에 진천에서 수도사단과 함께 철수하였으며, 청주 남쪽에서는 수도사단의 서쪽인 부강리(CR 5443) - 국사봉 선에 진지를 점령하였고, 제1사단도 7월 10일에 음성에서 철수를 단행하여 지연전을 펼치면서 괴산 방향으로 철수한 후 괴산·미원리(CR 7954)에 진지를 점령하였다.

이와 같이 제1군단은 미군의 금강방어선에 연결하여 부강리 - 국사봉 - 고은리 - 미원 선에 3개 사단을 투입하여 방어진지를 편성하였으나, 동쪽으로는 험준한 소백산맥으로 인하여 제2군단의 제6사단과 연결을 이루지 못하였다.

수도사단과 제2사단은 14일부터 맹렬히 공격하는 북괴군 제2사단과 격전을 벌였으나 16일에는 미군 담당지역인 서쪽의 금강방어선이 무너지고 동쪽의 제6사단도 문경의 피탈로 영강천 선으로 철수하는 상황에서 이날 아침에 수도사단 방어선의 중심부인 고은리 일대가 돌파되자, 군단은 제2사단을 보은 서쪽 15km의 회인에 재배치하고 수도사단은 보은으로 철수하도록 하였다.

이때, 제1사단은 1개 연대로 16일부터 괴산에서 남진하려는 북괴군을 거리고개 일대에서 저지하면서 주력부대는 미원 일대에서 방어 배치하고 있었다.

북괴군은 괴산 남방에서 제1사단을 공격하는 한편, 일부병력으로는 제2군단의 후방인 상주를 기습점령하기 위하여 속리산 동쪽의 산간도로를 따라 괴산-화령장-상주 방향으로 진출하고 있었는데, 제1군단에서는 이러한 적정을 전연 모르고 있었다.

한편, 제6사단이 이화령과 조령에서 격전을 벌이자 육군본부는 제1군단에 배속시킨 바 있는 제17연대를 16일 24:00부로 제2군단으로 배속전환하였다.

이에 제17연대는 17일 아침에 보은에서 정비중인 제1대대를 먼저 출발시키고 주력부대는 전투지역에서 철수하여 집결되는 대로 후속하도록 하였다. 제1대대가 차량행군으로 화령장 부근을 통과할 때에 시골노인 한 분이 길을 가로막으면서 “어젯밤에 북괴군이 상주 쪽으로 내려갔다”고 알려주었다. 대대장은 즉시 이들의 후속부대를 공격하기로 결심하고 화령장 동쪽 4km 지점인 경북 상주군 화서면 상곡리의 390고지 일대에 매복진지를 점령하였다. 얼마 후 북괴군 제48연대(-1)가 나타나 예측했던 대로 매복진지 정면에서 휴식을 취하자 제1대대는 이를 기습공격하여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였다.

제17연대장은 수색중에 생포한 북괴군 전령으로부터 후속부대가 이동할 예정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제2대대에게 이를 공격하도록 명령하였다. 제2대대는 화령장 북쪽 4km 지점인 상주군 화북면 동관리의 도로가에 2일 동안이나 매복하고 기다렸다가

6 전투개요

갈령을 넘어오는 북괴군 제15사단 제49연대를 기습공격하여 궤멸적인 타격을 가하였다. 이와 같이 두 차례의 매복공격에서 북괴군 제15사단에게 통격을 가한 제17연대는 제7연대에 이어 두 번째로 전장병이 1계급씩 특진하는 영광을 안았다.

한편, 괴산-상주 축선으로 진출하려는 북괴군의 기도를 알게 된 육군은 조우전을 하고 있는 제17연대의 제2군단 배속을 취소함과 아울러 수도사단을 이 축선에 투입하여 이 소백산맥의 협로로 진출하려는 북괴군을 격퇴하고 우측의 제2군단 제6사단과 연결을 도모하려고 하였으나 미 제8군의 전선조정 계획에 따라 기동계획을 수정하게 되었다.

국군이 지연전을 전개하고 있는 동안에 미 제24사단과 미 제25사단이 전개하고 7월 18일에는 미 제1기갑사단이 상륙하는가 하면 7월 14일에 일본에서 대구로 이동한 미 제8군사령부는 상주를 중심으로 그 이서지역은 미군이, 그 이동은 국군이 담당하도록 전선을 조정하였다. 이때는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군의 지휘권을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한 뒤여서 미 제8군사령관이 한국군도 지휘하고 있었다.

이러한 전선조정 계획에 따라 제1군단은 이 지역에서의 작전을 미군에게 인계하게 되었는데 수도사단은 7월 20일에 안동으로 이동하고, 제1사단은 춘양으로 이동하며, 제2사단은 해체하고, 군단사령부는 의성으로 이동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7월 20일 아침에 제17연대 제2대대로부터 기습공격을 받은 북괴군 제15사단은 다음날에는 갈령 일대에 병력을 전개시키자 육군은 화령장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춘양으로 이동준

비중인 제1사단을 화령장으로 이동하도록 하였다.

이리하여 미원지구에서 철수하여 22일에 화령장에 투입된 제1사단은 2일 동안 북괴군 제15사단과 공방전을 펼치다가 25일에 미 제25사단 제24연대에게 작전지역을 인계하고 제2군단으로 배속이 변경되어 함창으로 이동하였으며, 제2사단은 회인에서 황간 지역으로 철수하였다가 23일부로 미 제25사단 제27연대에게 작전지역을 인계하고 곧 해체되었는데 제16연대는 제8사단에 편입되고 제5연대와 제20연대는 해체되어 제1사단을 증강하였다. 그리고 제1군단 사령부는 작전지역을 미 제25사단에게 인계하고 예하부대가 이동, 해체 또는 배속 변경된 후인 25일에 안동으로 이동하여 제8사단과 수도사단을 지휘하였다.

한편, 대전공략에 참가하려 했던 북괴군 제2사단은 수도사단 및 제2사단과의 격전으로 진출이 늦어지자 보은-황간 방향으로 진로를 바꾸어 경부가도를 따라 작전중인 미군의 퇴로차단을 기도하였고, 음성과 화령장에서 통타를 당한 북괴군 제15사단은 병력보충과 훈련 등 부대정비를 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그들의 남진작전에 차질을 빚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거의 전투능력을 상실한 부대를 재편성하여 창설된 제1군단과 그 예하부대들은 7월 7일부터 25일까지 진천-청주-보은 축선과 음성-괴산-상주 축선으로 남진하려는 북괴군 2개 사단과 격전을 치르면서 그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가하였다.

이 기간중 제1군단은 미 제24사단과 협동작전을 펼치기는 하였지만 중서부지역에서 약 90km의 공간을 포기하면서 20일이라는 시간을 획득함으로써 성공적인 지연전을 수행하였다. 이 기간

8 전투개요

에 미군은 2개 사단이 추가로 전개하였고 국군도 전열을 정비하고 사기를 회복함으로써 전투력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이는 곧 낙동강 방어선을 형성할 수 있는 기초가 되었다. 이 전투는 여기에 가장 큰 의의가 있다 하겠다.

제 1 장 전투배경

1. 작전지역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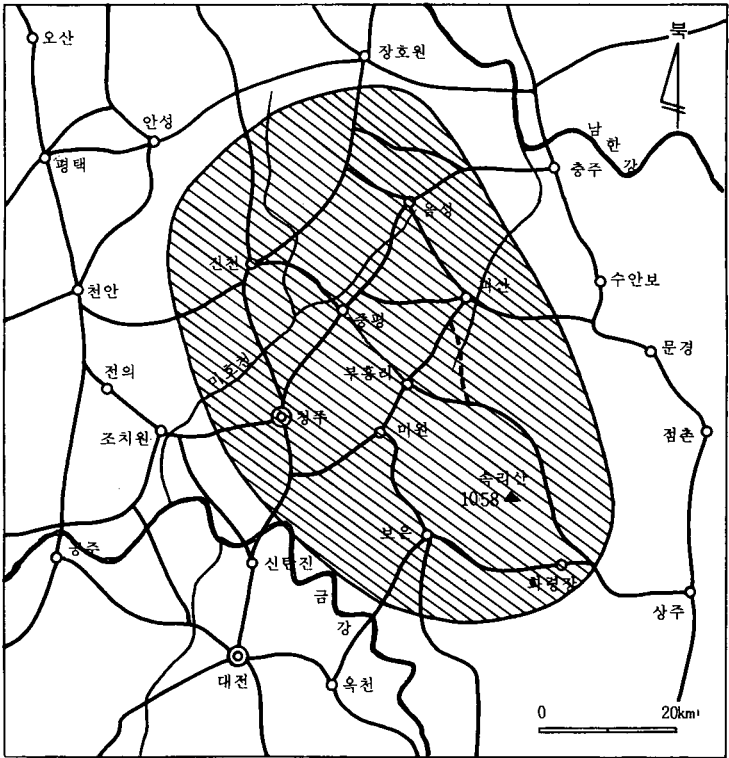
가. 지 형

국군 제1군단의 수도사단, 제1사단, 제2사단이 1950년 7월에 북괴군의 진출을 저지, 지연시킨 작전지역은 충청북도 진천, 음성, 청주, 괴산, 미원과 경상북도 상주군 화령장 일대로서 차령산맥과 소백산맥의 어간에 놓여 있는 지역이며, 고지대는 표고 400~800m의 많은 고지군과 계곡이 있어 기복이 심하고 삼림이 울창하나 저지대는 논·밭이 산재해 있을 뿐만 아니라 표고 100~200m의 구릉지대로서 기복이 완만하고 도로망이 발달되어 있다.

지역 내의 주요 감제고지로서는 진천지역에 만뢰산(CR 5279, 612m), 두태산(CR 7276, 598m), 문안산(CR 5877, 415m), 봉화산(CR 5977, 410m) 등이 있고, 음성지역에 가엽산(CR 8491, 710m), 부용산(CR 8093, 644m), 큰산(CR 8083, 510m), 금봉산(CR 8980, 482m) 등이 있으며, 청주지역에는 546고지(CR 7154), 547고지(CR 7344), 국사봉(CR 6446, 282m), 봉무산(CR 6145, 346m), 431고지(CR 7049) 등이 있고, 미원지역에는 대산(CR 8962, 648m), 최근산(CR 8063, 657m), 마등산(CR 8254, 546m), 국사봉(CR

요도 1

작전 지역



7749, 587m). 등이 있으며, 화령장 지역에는 속리산(CR 9944, 1058m), 구병산(CR 9835, 877m), 871고지(DR 0540), 봉황산(DR 0535, 740m) 등이 있다. 이들 고지에는 직경 10~15cm 정도의 소나무와 잣목 그리고 칙냉쿨 등이 우거져 있다.

작전지역에는 미호천이 진천 동쪽에서 북에서 남으로 흐르다가 남서로 꺾어져서 대전 북쪽에서 금강에 합류하고, 무심천이

청주시를 관류하면서 남에서 북으로 흘러 미호천에 합류하며, 보광천이 동에서 서로 흘러 증평 서쪽에서 미호천에 합류하고, 속리산에서 발원하는 속리천이 남에서 북으로 흐르면서 미원 남쪽에서 박대천이 되고 괴산 동쪽에서는 달천이 되어 충주에서 남한강에 합류한다. 그리고 작전지역 남쪽에는 금강이 동에서 서로 흘러 황해에 이른다. 금강을 제외한 이들 하천들은 우기를 제외하고는 도섭이 가능하다.

청주시는 충청북도 도청소재지로서 이 지역의 교육, 문화, 행정 및 교통의 중심지이다. 그리고 청주 북쪽 25km 지점에 진천, 청주 북동쪽 20km 지점에 증평, 증평 북동쪽 20km 지점에 음성, 증평 동쪽 20km 지점에 괴산, 청주 남동쪽 30km 지점에 보은이 있으며 이들은 교통의 중심지일 뿐 아니라 진천, 음성, 괴산, 보은 등은 군청소재지로서 지방행정의 중심지이다.

지역 내에는 이천-진천-청주-대전을 연결하는 도로가 남북으로 이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장호원-음성-증평-청주를 연결하는 도로와 음성-충주, 음성-괴산, 미원-보은-옥천, 증평-괴산, 청주-보은-화령장-상주를 연결하는 도로 등이 종횡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소백산맥에는 괴산-화령장-상주에 이르는 등의도로가 있다. 이외에도 많은 도로가 있어서 교통은 대단히 편리하다.

나. 기 상

1950년 7월 4일부터 7월 24일까지의 충청북도 청주 일대의 기

12 제 1 장 전투배경

상은 구름이 끼고 비오는 날이 있기는 하였으나 비교적 청명하였으며, 바람은 동남풍이 다소 불었고 기온은 최고는 섭씨 30.5도, 최저는 섭씨 20.7도, 평균 섭씨 24.7도였다.

기간중 광명제원은 다음과 같다.

광명제원 (1950.7.4 - 7.24)

(청추기준)

일자(음력)	요 일	일 출	일 몰	월 출	월 몰	기 상
1950. 7. 4(5.19)	화	05:17	19:52	22:29	08:49	청·운
6(5.21)	목	05:18	19:52	23:32	11:12	담·청
8(5.23)	토	05:19	19:51	00:18	13:30	담·우
10(5.25)	월	05:20	19:50	01:03	15:49	폐청
12(5.27)	수	05:22	19:50	02:42	17:39	담·우
14(5.29)	금	05:23	19:49	04:21	19:29	담·운
16(6. 2)	일	05:24	19:48	06:10	20:49	운·청
18(6. 4)	화	05:26	19:47	08:10	21:41	폐청
20(6. 6)	목	05:27	19:45	10:09	22:32	운·우
22(6. 8)	토	05:28	19:44	12:11	23:13	우·청
24(6.10)	월	05:30	19:43	14:14	23:54	폐청

2. 전선의 개황

1950년 6월 25일 04:00에 전 전선에서 일제히 기습공격을 개시한 북괴군은 T-34 전차를 앞세워 신속히 전진함으로써 개전 4일 만인 6월 28일에는 수도 서울을 점령하였다.

불의의 기습을 당한 국군은 후방지역에 산재한 예비사단의 전방전개를 위시하여 가용한 모든 전력을 투입하였으나, 상대적인 전투력의 열세와 적 전차를 저지할 무기가 없어 후퇴를 거듭하다가 서울을 실함당하고 적의 한강 도하를 저지하려는 목적에서 부대의 철수를 고려하지 않은 채 당시로서는 유일한 교량인 한강교를 폭파하였다.

한강교의 폭파로 인하여 한강 북쪽에서 전투중이던 국군주력은 야포, 차량, 박격포 등 중장비의 철수가 불가능하게 되자 겨우 소총 정도만을 휴대한 채 뗏목이나 거룻배를 타고 한강을 도하하였으며 그것도 도하 수단의 부족으로 소부대 단위 또는 개인별로 무질서하게 강을 건널 수밖에 없었다.

서울을 잃은 국군은 한강이란 천연장애물을 이용하여 적을 저지하기로 하고 소총 정도만을 가지고 도하한 병력을 규합하여 혼성 수도사단, 혼성 제2사단, 혼성 제7사단 등 3개 사단을 급편하고, 지휘기구로서는 시흥지구전투사령부를 창설하여 한강 남안의 영등포-노량진-흑석동-신사동 선에 배치하였다. 이때 서울 서북방에서 전투를 벌이다가 서울의 실함으로 행주나루와 이산포에서 한강을 도하한 국군 제1사단은 김포반도에 배치된 김포지구전투사령부의 엄호하에 시흥으로 철수하여 육본의 예비가 되었다.

북괴군은 서울을 점령한 제3사단과 제4사단으로 6월 29일부터 한강 도하를 시도하는 한편 제6사단은 김포반도로 진출, 영등포를 향하여 남동진하고 제2사단도 춘천에서 남서진하여 여주, 이천 방향으로 진출하고 있었다.

14 제 1 장 전투배경

북괴군 제3사단과 제4사단에 의한 첫날의 도하시도는 전력탐색, 진지교란 정도로서 끝났으나 다음날인 30일에는 전차포의 지원하에 도하작전을 전개, 제3사단은 한남동에서 신사동으로 도하하여 7월 1일에는 판교를 점령하였다. 김포반도로 진출한 북괴군 제6사단은 28일에는 김포비행장을 점령하고 7월 2일에는 소사-오류동 선까지 진출하였다. 6월 28일에 춘천을 점령한 북괴군 제2사단은 가평-청평-양수리 방향으로 진출하여 7월 2일에는 이천까지 진출하였다.

이와 같이 한강방어선이 서쪽과 동쪽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여의도와 흑석동에서 공방전을 전개하던 북괴군 제4사단이 7월 3일 새벽에 완전히 절단되지 않은 경부선 철교를 보수하여 전차를 도하시키는 데 성공함으로써 노량진 일대에 교두보를 확보하고 영등포까지 진출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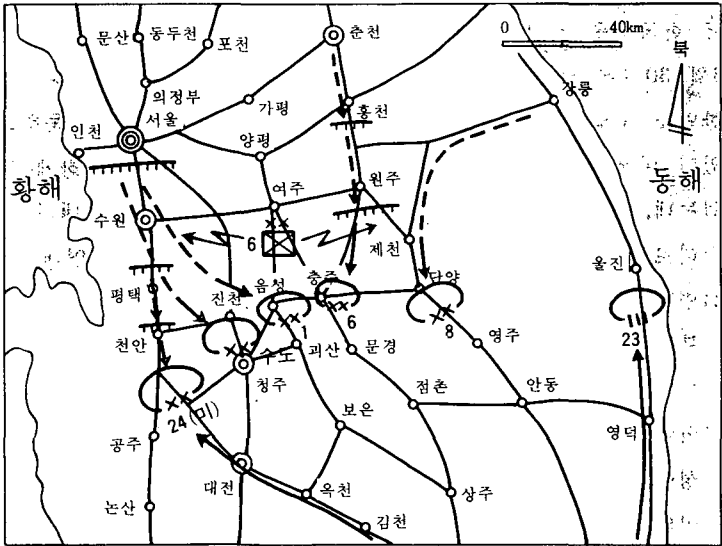
이와 같이 한강방어선의 중심부인 노량진이 돌파되자 시흥지구전투사령관 김홍일 소장은 7월 3일 아침에 예하부대에게 수원방향으로의 철수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군 주력이 한강선에서 수원으로 철수하고 있을 때, 중부지역에서는 제6사단과 제8사단이 북괴군을 지연시키면서 철수하고 있었고, 동해안에서는 제3사단 제23연대가 울진지역에서 적을 간신히 저지하고 있었다.

제6사단은 개전초에 춘천과 홍천 북방에서 북괴군 제2사단과 제12사단에게 심대한 타격을 가한 후 원주로 철수하였으며, 제천으로 철수하는 제8사단을 엄호하는 한편, 육군본부의 작전지시에 따라 7월 1일에는 제19연대를 이천에 급파하여 북괴군 제2사단

요도 2

전선의 개황 (7월초)



의 남진을 저지, 지연하도록 하였다. 제8사단이 제천에 당도하자 원주-단양 축선 방어임무를 제8사단에게 인계한 제6사단은 1개 연대는 충주방어에, 1개 연대는 음성방어에 임하도록 하였다.

제8사단은 개전초에 해상침투한 북괴군에 의하여 동해안 도로는 차단되자 삼척에 있던 제21연대를 내륙도로를 이용하여 강릉에 집결시킨 후 2개 연대로 강릉방어를 시도하였으나 이에 실패하자 육군본부 작전계획에 따라 대관령을 넘어 제천으로 철수하였으며, 7월 3일에 제6사단으로부터 원주-단양 축선의 방어임무를 인수하였다.

한편, 북괴군의 불법납침 보고를 받고 이미 해·공군으로 하여금 한국군을 지원하도록 조치한 바 있는 미국 대통령 트루먼은 6월 30일에 극동군사령관 맥아더 장군이 건의한 “미 지상군의 한반도 투입안”을 승인하였다. 이 승인에 따라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 사단중 미 제24사단이 맨먼저 한국으로 이동하게 되었는데, 제21연대 제1대대장이 지휘한 스미스특수임무부대가 선발대로서 7월 1일에 공수로 부산에 도착하였으며, 제34연대, 제21연대(-1), 제19연대 순으로 선편으로 이동하였다.

부산에 도착한 스미스특수임무부대는 육로로 북상하여 7월 4일에 평택으로 전개한 뒤 다음날인 7월 5일에는 오산 북쪽의 죽미령에 진지를 편성하였으며, 부산에 도착한 제34연대도 평택과 안성에 진지를 준비하였다.

이와 같이 미 지상군이 투입되자 육군본부는 건제유지가 곤란하게 되어 버린 육군 주력부대를 재편성하여 전투력을 회복하고 미군과 협동작전으로 지연전을 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재편성 및 재배치 문제를 서둘렀다.

3. 미 지상군 참전과 작전지역 분담

한국전쟁 발발후 미 지상군의 파견은 6월 27일에 맥아더 장군이 처치(John H. Church) 준장을 단장으로 하는 극동군사령부 참모장교 14명으로 편성된 조사반(survey party)을 한국전선으로 파견한 데서 비롯되었다. 이는 같은 날 맥아더 장군이 주한 미군

작전통제권을 부여받음을 계기로 주한 전방지휘 및 연락단(ADCOM: Advance Command and Liason Group in Korea)으로 승격되었다. 이 전방지휘 및 연락단은 한반도에서 전개되는 전황을 미 극동군에 보고하고, 미 군사고문단을 지휘감독하며, 한국군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조정하는 임무를 가졌으며, 7월 3일 대전에 도착한 미 제24사단장에게 그 임무를 인계할 때까지 약 1주일 동안 활동하였다.

한국에 도착한 처치 준장은 육군 총참모장 채병덕 소장에게 한강선 방어와 부대 재편성 문제 등을 조언하는 한편, 맥아더 장군에게는 “38도선을 회복하려면 미 지상군의 참전이 요망된다”라고 보고하였다. 처치 준장의 보고서를 접수한 맥아더 장군은 미 지상군 파견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6월 29일에 한국으로 비래하여 한강방어선을 시찰하였으며, 일본으로 귀환하여 “미 지상군의 한국파견”을 미국정부에 건의하였고 이 건의는 30일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다.

이리하여 일본 구주에 주둔중인 미 제24사단이 출동명령을 받았고, 선발대인 스미스특수임무부대가 7월 1일 부산에 공수이동함으로써 미 지상군이 한반도에 투입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육군 작전참모부장 정일권 준장은 미 육군 보병학교를 시찰중에 전쟁 발발 소식을 들었으며 “급히 귀국하라”는 명령을 받고 6월 30일에 귀국하였다. 귀국 당일, 대전의 대통령에게 호출당한 정일권 준장은 “7월 1일부로 소장으로 진급함과 동시에 육군 총참모장 겸 육·해·공군 총사령관”에 임명되어 육·해·공군 등 3군을 지휘하는 대임을 맡게 되었다. 33세란 젊은 나

이에 대임을 맡은 그는 곧 대전에 위치한 전방지휘 및 연락단장 처치 준장을 방문하여 미군의 지원강화, 한국군의 작전지도 및 재편성, 탄약과 장비 등의 긴급지원 등 많은 문제에 관하여 토의 및 협의함은 물론 장차 한·미간의 작전전개에 관한 사항도 광범위하게 다루었다. 7월 1일에 두 사람이 합의한 작전구상은 대략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한·미간에 합의된 최초의 작전구상(요지)

1. 한국군은 가능한 한 오랫동안 한강방어선을 지탱한다.
2. 상황진전에 따라 한국군은 경부국도 연변에서 적을 지연하면서 한국에 파견되는 미 지상군의 진출을 엄호한다.
3. 미 지상군이 투입되면 화력과 기동력이 좋은 미 지상군은 경부국도를 중심으로 한 서부지역을 담당하고, 한국군은 그 이동지역을 담당한다.
4. 한·미 양군의 최초 저지선은 방어정면이 가장 좁은 평택-충주-울진 선으로 한다.
5. 평택-울진 선에서 적을 저지하면 미 극동사령부의 계획에 따라 공세이전하여 적을 섬멸한다.

이와 같이 한국군 총사령관 정일권 소장과 미군의 전방지휘 및 연락단장 처치 준장이 합의한 내용은 본 전투가 전개되는 동안 한국군 및 미군의 작전수행에 기본지침으로 적용되었다. 이때의 상황에 대하여 정일권 소장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나는 7월 1일에 대전으로 가서 대통령에게 진급 및 보직신고를 한 후 하루종일 처치 준장과 여러 가지를 협의하였다. 이때 미 지상군의 선견대가 내한중이라 하기에 미군은 우선 평택—안성 선에 배치하고 한국군은 그 동쪽의 충주—울진 선에 배치하여 적을 저지하기로 합의하였다.”

4. 육군의 재편성과 부대전개

가. 육군 주력의 재편성

미군의 선견대가 부산에 도착하여 북상하게 되자 정일권 소장은 7월 2일에는 대전에 있던 제17연대를 평택으로 북상시키는 한편, 시흥지구전투사령관에게는 “미군이 전투전개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니 가급적 한강방어선을 오래 지탱하고 만일의 경우 지연전을 실시하면서 평택 부근에 집결할 준비를 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한편, 한·미간에 합의한 바에 따라 전선을 정리하고 부대를 재편성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7월 3일 아침에는 한강방어선이 무너져 육군 주력이 수원 방면으로 철수하게 되고, 4일 아침에는 북괴군이 수원으로 육박하자 정일권 소장은 참모부장(작전 및 행정) 김백일 대령*에게 부대의 재편성 및 재배치 계획을 완성하여 각 부대에 긴급히 통보하라고 하였다. 이

* 김백일 대령의 직책 : 행정참모부장이었으며 작전참모부장 정일권 준장이 도미할 때부터 작전참모부장을 겸무하고 있었다.

때 총참모장은 육군 주력의 일부부대로 발안장-안성 선을 방어하고, 제6사단 병력으로 안성-충주 선을 방호하면서 육군 주력부대를 재편성 및 재배치할 구상을 하고 있었다.

김백일 대령은 7월 4일 오후에 재편성 및 재배치 계획을 완성한 후 연대장급 이상 지휘관만을 평택군청에 설치된 육군본부 임시지휘소에 출두하도록 긴급히 지시하였다. 이곳에서 그는 지휘관이 도착하는 대로 군단편성 및 사단 재편성 계획과 새로운 보직을 알려주었고 지휘관들은 명령을 확인한 후 각기 부대로 복귀하였다.

이날 발표된 제1차 육군 재편성 계획안은 7월 5일 00:01부로 제1군단을 평택에서 창설하며 그 예하에 수도사단, 제1사단, 제2사단을 두고 제5사단과 제7사단을 해편하여 상기 3개 사단을 보강하는 내용이었는데,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차 육군 재편성 내용

(국본일반명령 제2호(1950.7.5) 및 육본특명 제9호)

1. 제1군단

가. 지휘관 : 소장 김홍일

나. 배속부대 : 수도사단, 제1사단, 제2사단

2. 수도사단

가. 지휘관 : 대령 이종찬*(준장 이준식. 동일부)

*수도사단장 이종찬 대령은 건강이 좋지 못하여 본인의 요청과 군단장의 건의에 따라 동일부로 육군사관학교 교장 이준식 준장으로 교체되었다.

나. 예하부대 : 제1연대, 제8연대, 제18연대

다. 편입부대 : 제3연대, 제9연대

3. 제1사단

가. 지 휘 관 : 대령 백선엽

나. 예하부대 : 제11연대, 제12연대, 제13연대

다. 편입부대 : 제15연대, 제22연대

4. 제2사단

가. 지 휘 관 : 대령 이한림

나. 예하부대 : 제5연대, 제16연대, 제20연대

다. 편입부대 : 제25연대

이상과 같이 제5사단 및 제7사단 사령부를 해체하고, 연대를 통폐합하여 재편성을 실시함으로써 육군은 수도사단, 제1사단, 제2사단, 제6사단, 제8사단과 기갑연대, 제17연대, 제23연대 등 5개 사단 및 3개 독립연대로 정비되었다.

※전쟁발발 당시의 사단별 연대편성(참고)

- 육본직할 : 기갑연대, 제17연대
- 수도경비사령부 : 제3연대, 제8연대, 제18연대
- 제1사단 : 제11연대, 제12연대, 제13연대
- 제2사단 : 제5연대, 제16연대
- 제3사단 : 제22연대, 제23연대
- 제5사단 : 제15연대, 제20연대
- 제6사단 : 제2연대, 제7연대, 제19연대
- 제7사단 : 제1연대, 제9연대, 제25연대
(제25연대는 6월 15일부로 제7사단에 편입되었으며 온양에서 부대이동 준비중 전쟁을 맞이하였다.)
- 제8사단 : 제10연대, 제21연대

군단편성의 필요성은 개전초부터 대두되었다. 격변하는 전황하에서 전후방의 8개 사단 및 2개 독립연대를 육군본부에서 전투지휘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어서 의정부 지역에 투입된 3개 사단을 통합지휘하기 위하여 6월 26일에는 의정부지구전투사령부를 설치한 바 있었고, 한강선에 배치된 3개 사단을 지휘하기 위하여 6월 29일에는 시흥지구전투사령부를 설치 운용한 바 있었다.

재편성시 김홍일 소장을 군단장에 임명하고 수도사단, 제1사단, 제2사단 등을 남긴 경위에 대하여 정일권 소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홍일 장군을 군단장에 임명한 것은 그는 사단급 이상 부대를 전투지휘한 경험이 있는 유일한 인물로서 전력, 식견, 인물이 그를 따를만한 사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시흥지구전투사령관으로서 한강선 방어에 공헌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인사였다. 수도사단을 남긴 것은 사령부 조직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언젠가 서울을 수복할 때를 위하여 이름을 남겨두어야 했기 때문이고, 제1사단을 남긴 것은 한강 도하시 일부부대가 분산되기는 하였으나 대대급 이상의 지휘조직이 존재했기 때문이며, 제2사단도 어느 정도의 지휘조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5사단과 제7사단은 완전히 지휘조직이 상실되었으므로 이러한 부대는 해체하여 재건사단에 보충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다.”

이와 같이 육군본부의 재편성 명령은 7월 5일부로 일단 하달되었지만 실제로 재편성이 이루어진 것은 그후 며칠이 지나서였다. 한강방어선에서 수원을 경유하여 평택으로 철수하는 과정에서의 부대상황은 연대는 연대대로, 대대는 대대대로 뿔뿔이 흩어져 철수했을 뿐만 아니라 지휘통신 및 연락도 제대로 되지 않는 실정이어서 예하부대에 재편성 명령이 단시간 내에 전달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관계참모나 지휘관이 예하부대의 위치를 수소문하거나 길에서 만나는 대로 명령을 전하는 상황이 여기저기서 연출되었다. 거기다가 각 부대는 7월 6일부터 평택에서 각 사단 담당지역으로 다시 이동을 하였으므로 이동중에 재편성을 하거나 이동 후에 재편성하기도 하였다.

한편, 제1군단장으로 임명된 김홍일 소장은 시흥지구전투사령부 참모요원을 주축으로 군단참모진을 구성하였는데, 군단특명 제9호(50.7.5)로 발령된 군단참모진은 다음과 같다.

제 1 군 단 참 모 편 성

- 참 모 장 : 준 장 유 재 홍
- 인사참모 : 대령 김 용 수
- 정보참모 : 중령 이 종 국
- 작전참모 : 대령 김 종 갑
- 군수참모 : 중령 이 창 일(7월 7일부로 대령 박병권으로 교체)

나. 제 1 군단의 부대전개

당시 육군으로서의 주력부대를 재편성하여 전투력을 회복한다는 것이 긴급한 문제이었으나 남침을 계속하는 북괴군을 저지하기 위한 작전의 수행은 이보다 더욱 긴요한 문제였다. 그러므로 육군본부는 재편성 문제로 인하여 작전에 어떠한 허점을 노출시켜서는 안되었으므로 개편명령을 하달하기 이전인 7월 4일 오전에 다음과 같은 요지의 육본 작명 제20호(50.7.5)를 하달하였다.

육본작명 제20호(요지)

1. 군은 공세를 준비하는 동안 일부병력으로 오산-안성-장호원-제천 선을 점령하여 재편성을 완료하고, 군주력의 진출을 용이하게 하려 한다.
2. 제1군단(배속: 제17연대)은 즉시 발안장-오산-안성 선에서 적의 남진을 저지하고 평택지역에서 부대를 재정비하라.
3. 제6사단은 즉시 죽산-장호원 선에 전개하여 이천에서 청주로 향하는 적을 저지하고 제1군단과 책응토록 하라.
4. 제8사단은 즉시 남한강 이동지역에서 남진을 기도하는 적을 제천 부근에서 저지하되 고립을 각오하고 고수에 임하라.

상기 작전명령과 개편명령이 모두 7월 5일부로 발효하게 되어 있으나 육군의 기본방침을 알고 있던 김홍일 소장은 상황이 급하므로 군의 방침대로 발안장-오산-안성 선에 병력을 배치하

여 적의 남진을 저지할 것을 결심하고 군단이 정식으로 창설되기 전이지만 7월 4일 오전에 군단작전명령 제1호(50.7.5)를 하달하였다.

제1군단 작전명령 제1호(요지)

1. 군단은 일부병력을 발안장-오산-안성 선에 배치하여 적의 남진을 저지하는 한편 주력을 평택 남쪽에 집결시키려 한다.
2. 수도사단장은 안성 북쪽에서 적의 남진을 저지하라.
3. 제2사단장은 발안장 부근에서 적의 우회를 저지 격파하라.
4. 제17연대는 오산 부근에서 남진중인 적을 저지하라.
5. 각 사단은 발안장-안성 선에 각각 1개 연대 규모의 병력을 우선 급파하라.
6. 각 사단장은 예하부대 병력을 7월 6일한 평택 부근에 집결시키고 군단에 보고하라.
7. 군단의 임시지휘소는 7월 4일 18:00 이후 평택의 북단국민학교에 둔다.

상기 명령에 따라 수도사단 제8연대(연대장: 중령 이현진)가 안성 북쪽 15km 지점의 송전리(오산 동쪽 10km)에, 제2사단 제20연대(연대장: 대령 박기병)가 오산 서쪽 15km 지점의 발안장에 진출하여 4일 하오에 진지를 점령하였다. 이때 제17연대는 대전에서 북상하여 이미 오산 남쪽 1.5km 지점에 진지를 점령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3개 연대는 오산을 중심으로 좌·우측에 배치되긴 하였지만 부대가 연결되어 배치되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다가 7월 5일에 오산의 방어진지가 무너지자 제8연대와 제20연대는 별 전투 없이 오후에 평택의 각 사단 집결지로 복귀하였고 제17연대는 죽미령 남쪽 도로변에 진지를 점령하고 있다가 북괴군 전차대의 포격을 받고 분산 철수하였다.

제1군단장 김홍일 소장은 7월 5일에 각 사단의 집결과 재편성을 독려하는 한편 참모를 파견하여 미 지상군 선발대인 스미스 특수임무부대의 전투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는데, 이 부대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북괴군의 T-34전차를 격파하지 못하여 전투개시 수시간 만에 진지를 돌파당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선발대가 참패하자 미 제24사단장 딘(William F. Dean) 소장은 최전선인 평택으로 달려와 평택-안성 선을 지탱하려고 진두지휘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7월 5일부터 미군이 경부국도 연변에서 전투상황에 들어가자 이날 하오에 육군본부는 육본작명 제23호(1950.7.6, 17:00)를 하달하여 제1군단에게는 부대이동을, 제6사단에게는 엄호 임무를 부여하였다.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23호(요지)

1. 적은 오산, 이천, 장호원 선에 진출하였다.
2. 미군은 평택에 진출하여 강력한 방어태세를 취하는 중에 있다.

3. 군은 주력을 이동하여 공세 이전하려 한다.
4. 제1군단은 다음 경로를 따라 7월 6일 24:00까지 이동완료 하라.
 - 가. A사단(수도사단) : 성환-임장-진천-오창(진천-청주 중간지점) (차량 수송) (집결지: 오창)
 - 나. B사단(제1사단) : 성환-조치원-청주-증평-음성(철도 및 차량 수송) (집결지:음성)
 - 다. C사단(제2사단) : 성환-조치원-청주-증평(철도 수송) (집결지:증평)
5. 제17연대는 7월 6일 12:00부로 제1군단으로부터 배속해제와 동시 육군예비가 되어 조치원에 집결하라.
6. 제6사단은 2개 연대 규모로 7월 6일 24:00까지 진천-음성 정면을 고수하여 제1군단의 이동을 엄호하고 사단지휘부도 동지역으로 이동하라.

육군본부의 이동명령을 받은 제1군단은, 수도사단은 진천에 진출하고, 제1사단은 음성에 진출하며 제2사단은 군단예비로서 증평에 집결하여 양개 사단을 증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제1군단의 이동은 7월 6일 아침부터 실시되었는데 각 사단은 이때까지도 예하부대의 위치를 확실히 파악하지 못한은 물론 예하부대를 완전장악을 하지 못한 관계로 우선 집결된 부대만을 출발시키고 미집결된 부대는 연락이 되는 대로 후속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재편성과 부대 이동명령을 동시에 수행하게 된 제1

군단 부대들은 이동하면서 재편성하였는데 일단 분산되었던 병사들은 원소속부대의 행선지를 수소문하여 이동중이거나 전투시에도 야영지로 모여들었으므로 병력수는 매일같이 늘어났다. 전투기간에는 전사상으로 인하여 병력수가 감소하여야 함에도 병력수가 늘어나는 현상에 대하여 육군본부는 허위보고라고 하면서 이를 믿으려 하지 않았다. 제1군단 예하 3개 사단의 병력현황은 다음과 같았다.

사단별 병력현황

수도사단	제 1 사단	제 2 사단	계
2,500명	4,000명	1,600명	8,100명

수도사단은 제6사단 제19연대가 진천 북쪽에서 북괴군 제2사단(사단장:소장 최현)과 접촉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 진천으로 이동하여 7일에는 전선을 인수하였고, 제1사단도 제6사단 제7연대가 음성 북쪽에서 북괴군 제15사단(사단장:소장 박성철)과 접촉하고 있는 동안 음성으로 진출하여 이 연대를 배속받아 음성방어에 나섰다. 그리고 제2사단은 일단 증평에 집결하였다가 수도사단이 제17연대와 기갑연대를 배속받아 진천탈환작전을 전개할 때 군단명에 의해 2개 연대를 진천지역에 투입하였다.

각 사단이 이동을 개시하자 성환에서 군단의 이동상황을 확인하고 있던 군단지휘부도 7월 6일 15:00에 청주로 이동하였다.

이리하여 제1군단은 재편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천지역에 수도사단과 제2사단을, 그리고 음성지역에 제1사단을 투입하여 북괴군과 공방전을 전개하게 되었다.

제 2 장 진천 전투

1. 진천 실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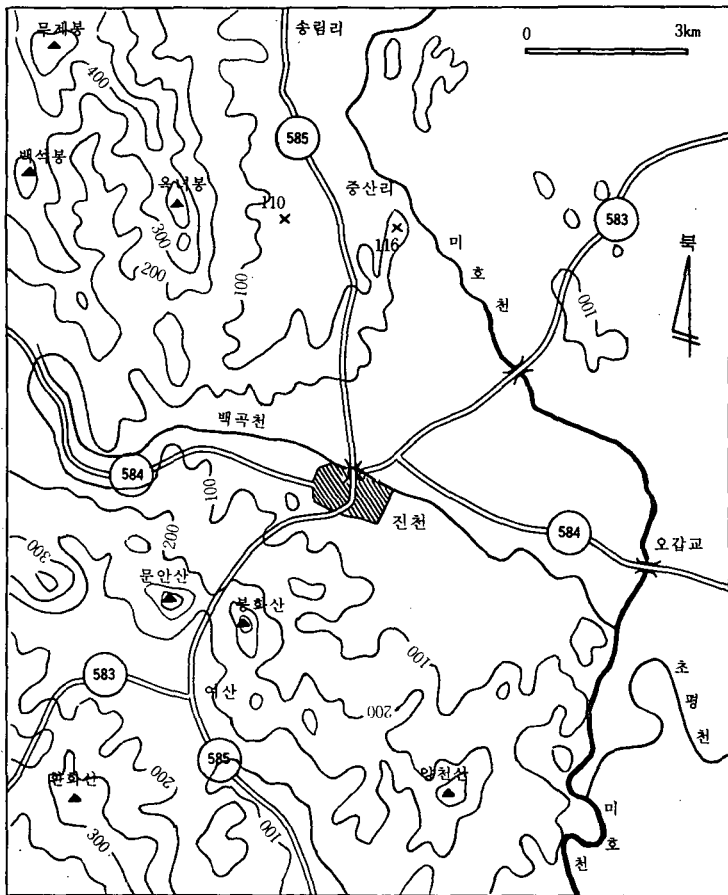
가. 수도사단의 진천 전개

충청북도 북서단에 위치해 있는 진천은 군청소재지로서 지방 행정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교통의 중심지이며 주변은 전답과 구릉지대이나 서쪽과 남쪽은 300~400m의 고지군으로 둘러싸여 있다. 진천을 통과하는 도로망으로서는 천안-장호원을 잇는 583번 도로, 성환-증평을 잇는 584번 도로, 이천-청주를 남북으로 잇는 585번 도로 등이 있으며, 주변의 주요 감제고지로서는 북서쪽의 옥녀봉(CR 5884, 456m), 무제봉(CR 5687, 574m) 백석봉(CR 5585, 468m), 서쪽의 만뢰산(CR 5279, 612m), 남쪽의 문안산(CR 5877, 415m), 봉화산(CR 5977, 410m), 양천산(CR 6374, 350m) 등이 있고, 하천으로서는 미호천이 진천 동쪽 5km 지점에서 북에서 남으로 흐르고 백곡천이 진천 북단에서 서에서 동으로 흘러 미호천에 합류한다.

7월 2일에 이천에 진출한 북괴군 제2사단(사단장:소장 최현)은 이곳에 투입된 제6사단 제19연대를 격퇴시키면서 585번 도로를 따라 남진을 계속하고 있었다. 북괴군 제2사단은 1947년 3월에 창설되어 공지협동훈련과 산악훈련까지 마친 훈련이 잘된 부대

요도 3

진천 부근의 지형



로서 개전 초기 춘천에 투입되었으나 국군 제6사단 제7연대로부터 심대한 타격을 받았었다. 이 부대는 그후 병력을 보충받아

12,000여 명의 병력과 전차 10대, SU-76 자주포 12문, 122mm 곡사포 26문, 76mm 곡사포 13문, 45mm 대전차포 43문, 120mm 박격포 12문 등을 장비하고 있었다. 북괴군 제2사단은 춘천 전투 실패로 사단장이 이청송에서 최현으로 경질되었을 뿐 아니라 아군의 공중공격으로 보급이 제한되어 사기가 저하되어 있었다. 춘천을 점령한 이 사단은 남서진하여 서울 동측방으로 진출하고 있었다.

국군 제1군단은 재편성이 채 끝나기도 전에 수도사단은 진천으로, 제1사단은 음성으로 전개하도록 하였는데, 수도사단은 7월 6일부터 일부부대를 곧장 진천으로, 다른 부대는 청주를 경유하여 진천으로 이동하였다.

제1연대(연대장:중령 이희권)는 한강선에서 철수하여 평택에서 부대를 수습한 결과 제1대대(대대장:소령 장태환. 특임7기. 대령 예편)가 비교적 전투력이 온존하므로 이 대대에 병력과 장비를 우선 보충한 다음 차량 20대에 분승시켜 진천으로 출발시키고 잔여병력은 부연대장 김황목 소령이 수습하여 출발하도록 하였는데 이때의 연대 전투력은 병력 800여 명과 81mm 박격포 4문뿐이었다. 제1연대는 제9연대(연대장:대령 윤춘근)를 흡수통합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제9연대의 소재파악이 안되어 통합을 하지 못한 채 사단의 선두부대로서 우선적으로 진천으로 이동하였다.

제8연대(연대장:중령 이현진)도 평택에 집결을 하였는데 병력은 약 1,000여 명이었으며, 도보행군으로 천안을 경유하여 7월 8일 늦게서야 진천 남방 4km의 여사에 도착하였다. 제8연대에서는 제2대대(대대장:대위 정승화)가 비교적 건제가 유지된 부대로서

전투력이 가장 강한 부대였으며, 제1 및 제3대대는 전투능력이 미약하여 재정비가 시급하였다.

제18연대(연대장:대령 임충식)는 열차편으로 청주로 이동한 다음 청주사범 부속국민학교에서 제3연대를 흡수통합하였는데 제3연대의 병력은 고작 500여 명뿐이었다. 이때 제18연대의 제1대대와 제2대대는 그대로 두었으며 제3연대의 병력으로 제3대대를 편성하였고 잔여병력으로는 비교적 전투력이 온존한 제2대대(대대장:소령 장춘권. 육사 2기. 소장 예편)에 우선 보충하였다. 이러한 관계로 제2대대는 병력이 600여 명으로서 전투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으나 제1 및 제3대대는 300~400명에 불과한데다 장비도 별로 없어서 전투력이 미약하여 경계근무 정도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당분간은 재정비에 주력하게 되었다.

7월 5일부로 육사교장에서 수도사단장에 임명된 이준식 준장은 부대를 파악할 여유도 없이 7월 6일에는 진천으로 달려갔으며 이곳에 진출한 제1연대를 진천 북쪽으로 배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단주력인 제8 및 제18연대가 도보행군과 재편성 관계로 집결이 늦어질 것으로 판단되자, 우선 적의 진출을 저지하여 시간을 획득한 후 주력이 도착하면 진천 남방의 동서로 연결된 횡격실 능선에 배치하여 공세로 전환하기로 결심하고, 각 부대에 다음과 같은 요지의 구두명령을 하달하였다.

수도 사단장 명령(요지)

1. 사단은 진천에서 적을 저지, 격멸하려 한다.

2. 제1연대는 진천 전방에서 적을 저지하고 명에 의하여 지연전을 실시하라.
3. 제8연대는 지체없이 봉화산을 점령하고 공격할 태세를 갖추라.
4. 제18연대는 지체없이 문안산을 점령하고 공격할 태세를 갖추라.
5. 사단 전방지휘소는 역리(CR 6073, 진천 남쪽 7km)에 둔다.

나. 중산리의 첫교전

7월 6일에 출발한 제1연대는 당일로 진천에 도착하였으며 제1대대장 장태환 소령은 제1중대장 윤홍정 중위에게 진천 북쪽으로 전진하여 적과 접촉을 유지하라고 하였다. 제1중대가 진천 북쪽 5km 지점의 이월면 중산리까지 전진하였을 때, 그곳에는 이천에서부터 적과 접촉을 유지하면서 후퇴하고 있던 제6사단 제19연대의 후위중대가 도로 좌측의 110고지(CR 602845)에 진지를 점령하고 있었다. 제1중대는 도로 우측의 116고지(CR 623844)에 진지를 점령하여 제19연대 후위중대와 함께 적의 남진하였는데 하였다.

제19연대(연대장:중령 민병권)는 제6사단장으로부터 “이천을 방어하라”는 명령을 받고 7월 1일 밤에 횡성에서 이천으로 이동하였으며 그 다음날에는 양평에서 이천으로 접근하는 북괴군 제2사단의 1개 연대와 격돌한 후 적과 접촉을 유지하면서 남쪽인 죽산-진천 방향으로 지연전을 감행하고 있었다.

저녁 무렵에 제1중대장 윤홍정 중위가 116고지에서 쌍안경으로 북쪽지역을 살펴본바 4km 북방인 송림리 부근에 1개 연대 규모의 병력이 집결중에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대대에 보고하는 한편, 전투준비를 갖추도록 하였으나 이날 교전은 없었다.

다음날인 7월 7일 14:00경, 송림리에 집결한 북괴군 제2사단 제6연대(연대장:대좌 김정)는 중산리 진지에 포격을 가한 후 행군대형으로 남하하기 시작하였다. 116고지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윤홍정 중위는 적군이 지근거리까지 왔을 때 사격명령을 내렸다. 도로 좌우측으로부터 기습공격을 받은 북괴군은 일단 뒤로 물러났으나 얼마 후에는 병력을 양분하여 1개 부대는 도로를 따라 남진하고 다른 부대는 도로 동쪽 1.5km에 있는 미호천을 따라 남진하였는데 이들은 116고지를 포위하려고 하는 것 같았다. 제1연대의 제1중대와 제19연대의 후위중대는 박격포도 없는 형편이어서 적에 비해 병력과 화력의 열세로 점차 위기에 빠져 들고 있었다.

이때 진천 북쪽 3km 지점의 125고지(CR 619830)에서 양중대의 전황을 주시하고 있던 제1대대장 장태환 소령은 중대장 판단에 따라 다음 진지로 철수하라고 하였다. 이에 제1중대장은 더이상 진지고수가 어렵게 된 20:30경에 2km 남쪽에 선정된 다음 진지로 철수를 명령하였다. 북괴군은 이날 더이상의 진출을 기도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항공정찰 보고에 의하면 전차를 동반한 2개 연대 규모의 적이 진천 북방 15km의 광혜원리에 집결중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북괴군 제2사단의 주력부대임이 후일 밝혀졌다.

다. 군단장의 지휘조치

제1군단장 김홍일 소장은 7월 6일 저녁 무렵에 수도사단장 이준식 준장으로부터 “진천 북쪽 9km 지점의 송림리 부근에 1개 연대 규모의 적이 집결중에 있다.”라는 보고를 받고서 비로소 인천에서 제6사단 제19연대와 격돌한 단대호 미상의 적 1개 사단이 진천에 접근하고 있음을 알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시작하였다.

군단장은 아직 재편성이 완료되지 않아 전투력이 미약한 수도사단으로서는 진천을 방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군단예비인 제2사단장에게 “수도사단을 지원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육군본부에 병력증원을 요청하였다. 제2사단장 이한림 대령은 제20연대장 박기병 대령에게 “수도사단을 지원하라”고 지시하고 제16연대장 문용채 대령에게 “수도사단 후방 지역으로 이동하라”고 지시하였다.

한편, 군단은 육군본부로부터 7월 7일부로 독립 제17연대(-1) (연대장:중령 김희준), 독립기갑연대(연대장:대령 유흥수) 그리고 신편된 제1포병단(단장:대령 신용균)의 포병 1개 중대(M-2 105mm 곡사포 4문)를 배속받아 이를 모두 수도사단에 재배속하였다. 이들 부대들은 다음날인 7월 8일에 수도사단에 도착하였는데, 제17연대(-1)는 7월 5일의 오산 전투에서 많은 피해를 입고 청주로 이동하다가 진천으로 진로를 바꾸었으며 본대에 앞서 제1대대가 먼저 도착하였다.

라. 수도사단장의 재교체

7월 7일부로 수도사단장이 이준식 준장에서 김석원 준장으로 갑자기 교체되었다. 김석원 장군은 전쟁전에 제1사단장으로서 송악산 전투 등을 치른 바 있었는데 북어사건으로 인하여 총참모장 채병덕 소장과 함께 예편되어 군에서 물러나 있던중 전쟁을 맞이하였다. 그는 정부를 뒤따라와 대전에서 의용군을 모집하고 있었는데, 이들에 대한 무장관계로 신성모 국방장관을 방문했다가 수도사단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고 현역으로 복귀하게 되었다.

김석원 장군이 현역으로 복귀한 데에는 여러 사람의 건의가 있었기 때문인데, 특히 초대 상공부 장관을 역임한 국회의원 임영신 씨는 “이 비상시에 인재를 묻어두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기울어진 전세를 회복시킬 수 있는 용자는 김석원 장군밖에 없습니다.”라고 대통령에게 건의하였다. (한국전 비사 하권).

이 인사에 대해 당시 총참모장이었던 정일권 장군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7월 5일, 불리하게 전개되는 전황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였는데 보고가 끝나자 장관은 종이 한장을 내밀었으며 거기에는 이승만 대통령의 친필로 ‘김석원 장군을 사단장으로 임명할사’라고 쓰여 있었다.”

한편, 김석원 장군이 현역으로 복귀시 김장군으로부터 “좀 도

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김웅조 씨도 중령계급으로 김석원 장군과 함께 현역으로 복귀하였는데 그는 수도사단 참모장에 보직되었다.

이렇게 되어 예비역으로 있던 김석원 장군이 현역으로 복귀함과 동시에 수도사단장에 임명되었고, 이준식 준장은 임명된 지 3일 만에 부대지휘도 제대로 해보지 못한 채 원직인 육군사관학교 교장에 복귀하였다가 7월 10일부로 유승열 대령의 후임으로 제3사단장에 전보되었다.

김석원 준장은 7월 7일에 현역으로의 복귀신고가 끝나자 대전에서 조치원을 경유하여 진천으로 직행했다. 그는 도중에 군인과 경찰관들이 피난민 대열에 섞여 있는 것을 보고 짊차에서 내려 몸에 지니고 다니는 일본도를 높이 들고 “국군장병과 경찰관들은 들으라. 내가 이번에 수도사단장으로 부임하는 김석원이다. 그대들은 생명을 바쳐 싸워야 하거늘 지금 그대들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 북괴군에게 쫓기어 바다속으로 뛰어들 작정도 아니거늘 총을 든 그대들의 후퇴로 우리의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돌아서라! 그리고 나와 함께 싸우자.”라는 요지의 일장훈시를 하였다. 김장군의 훈시를 들은 후퇴하던 군경들은 사기가 올라 발길을 되돌려 북으로 향하였고 그중에는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는 사람도 있었다.

여리의 사단사령부에 도착한 김석원 준장은 곧 작전회의를 소집하였는데 회의에서 참모로부터 “지원부대를 포함하여 사단주력이 다음날인 7월 8일 15:00 이후에야 도착할 것”이란 보고를 받고 제1연대장 이회권 중령에게 “사단주력이 도착할 때까지 어

던 난관도 극복하고 진천을 고수하라”고 명령하는 한편, 참모들에게 “사단사령부를 3km 북방인 여사(CR 585760)로 옮겨라”하고 명령하였다. 사단사령부를 여사로 옮기자 북괴군의 포탄이 사령부 주변에서 작렬하였다. 이에 겁먹은 미 군사고문들이 “사단장님께서 이렇게 최전방까지 나오시면 위험합니다. 만약에 무슨 사고가 생기면 사단지휘는 어떻게 합니까? 후방으로 물러가서 지휘를 하십시오.” 하면서 지휘소를 뒤로 옮길 것을 건의하는 것이었다. 이에 사단장은 “38도선에서 이곳까지 쫓겨온 병력들인데 후방에서 지휘하면 지휘가 잘되지겠소? 안됩니다. 지휘관이 후방에서 지휘하면 전선이 금방 무너집니다. 겁이 나거든 당신들이나 뒤로 물러가 있으시오.”라고 하면서 건의를 묵살하였다.

이때 김석원 장군은 전투지역 내의 학생, 청년 등 200여 명을 탄약 및 식사추진 등 전투군무지원 업무에 운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나선 부녀자들을 활용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철수시에는 이들을 모두 귀가 조치하였다.

마. 진천 실패

7월 8일 08:00경, 북괴군 제2사단은 진천 북쪽 2km의 전초진지에 대한 공격준비사격에 이어 공격을 개시함으로써 진천 점령에 나섰다. 북괴군은 전차의 지원하에 도로 좌측, 도로, 도로 우측 등 3개 방향으로 전진하였는데, 이들은 국군의 전투력을 알잡아 보았음인지 전투전개도 하지 않은 채 행군대형으로 전진하는 것이었다.

전초진지의 제1연대 제1중대와 제19연대 후위중대 등 2개 중대는 포격에 의하여 진지가 파괴되고 사상자가 속출할 뿐만 아니라 적의 많은 병력에 압도되어 제대로 싸워 보지도 못하고 진천으로 분산철수하여 원대로 복귀하였다.

전초진지를 돌파한 북괴군은 얼마 후에는 백곡천 제방을 따라 구축된 제1연대 진지에 약 30분간 공격준비사격을 실시한 다음 공격을 계속하였다. 이들은 진천 북쪽의 사리(CR 608809)와 서쪽 3km의 장관리 및 동쪽 1.5km의 성석리 등 3개 방향에서 백곡천을 도하하여 진천으로 진입하려고 하였다.

백곡천 남안 제방을 따라 진지를 구축하고 있던 제1연대 제1대대는 적의 포격과 기관총탄에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었다. 이와중에서도 적의 공격이 계속되자 대대장 장태환 소령은 81mm 박격포 진지로 달려가 최대속도로 사격하도록 하였는데 포신이 열을 받아 벌겍게 되면 물로 식혀 가면서 사격하였다. 박격포 사격으로 적의 공격이 잠시 주춤하자 병사들은 사기가 올라 제방 위에 몸을 드러내어 조준사격으로 적을 쓰러뜨리기도 하였다.

제1중대 제1소대장 김익규 중위는 탄약이 다 떨어진 자신의 카빈 소총을 버린 뒤 옆에 쓰러진 병사의 M-1 소총을 집어 들고 적을 조준사격으로 쓰러뜨리다가 적탄에 두부관통상을 당하여 장렬하게 전사하였다.

제2중대(중대장:중위 박규화)도 100여 명의 병력을 제방에 배치하고 있었는데 적이 백곡천을 도섭하려 하자 집중사격을 가하여 적의 기도를 좌절시켰다.

북괴군은 진천시가지 돌입에 실패하자 집중포격을 가하는 한

편, 전차의 직사화력으로 기관총진지를 파괴하기 시작하였다. 국군의 진지가 제압되자 북괴군은 곧 도하공격을 재개하였고 이를 저지하지 못한 제1연대가 잣고개로 철수함으로써 15:00경에는 진천읍이 북괴군의 수중에 들어갔다.

진천을 점령한 북괴군은 봉화산마저 점령하려고 화력지원하여 공격을 계속하는 것이었다. 진천시가지를 빼앗기고 이 고지로 물러난 제1연대 제1중대장 윤홍정 중위는 적의 지원화기를 제거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 생각하고 10명으로 특공대를 편성하여 적의 측후방으로 은밀히 침투해 들어갔다. 이윽고 적의 박격포 진지에 도착한 이 특공대는 수류탄 공격을 가하여 82mm 박격포 2문을 파괴하였고 뒤이어 중기관총 진지를 공격하여 중기관총 2정을 파괴하였다.

특공대의 활약으로 적의 기관총이 침묵하고 박격포 사격이 멎자 적의 공격기세가 둔화된 반면 아군의 사기는 높아졌다.(출처: 제1연대 전투상보)

바. 장갑중대의 공격

김석원 장군은 이날 오후에 사단에 도착한 기갑연대를 잣고개에 투입하고 장갑중대를 진천으로 공격시키려 하였다. 기갑연대 장갑대대 제1중대장 박용실 대위는 대전 소재 육군본부의 미 고문관으로부터 “본 차량은 전투용이 아니므로 수색용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쪽지를 받은 바 있었는데, 배속신고를 받은 사단장은 “장갑차가 수색용인 줄은 알겠으나 진천에 한 번 들어

가서 적을 유린하고 나오라”고 지시하였다.

장갑중대가 잣고개에 이르니 그곳에는 군단장 김홍일 소장과 기갑연대장 유홍수 대령, 그리고 장갑대대장 박무열 소령이 있었는데 장갑중대의 진천 공격에 대하여 이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대대장은 “진천에는 적 전차가 있는데 장갑차로는 전차와 대결할 수 없다.”고 하면서 장갑차의 공격을 반대하였으나 기갑연대장은 “현 상황에서 장갑차의 전술적 운용문제를 따질 때가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사단장 지시대로 장갑차의 공격을 명령하였는데 이때 군단장은 연대장의 조치에 동의하였다.

이리하여 해질 무렵에 3대의 장갑차가 진천을 향하여 전진하였는데 진천읍에 거의 도달할 무렵에 적 전차 3대와 북괴군이 길가에 있음을 발견하고 선제사격을 가하였다. 진천을 점령한 후 잣고개로의 전진을 준비하고 있던 북괴군은 기습적인 사격을 받자 뿔뿔이 흩어졌고 적 전차도 진천읍으로 긴급히 퇴각하였는데 이때 전차 1대가 움직이지 않고 서있었다. 장갑차의 엄호하에 병력이 적 전차에 접근하여 보니 시동이 걸려 있지 않았다. 아마도 북괴군 전차병들은 시동을 끄고 있다가 기습을 받자 시동을 걸려고 하였으나 시동이 빨리 걸리지 않자 다급한 나머지 전차에서 그대로 탈출한 듯하였다. 전차를 앞세운 적과 정면대결로는 승산이 없음을 알고 있는 중대장은 서있는 적 전차의 엔진을 파괴하고 철수를 서둘렀다. 중대는 철수중 적의 반전차총에 장갑차 2대가 피격되어 움직일 수 없게 되자 그 장갑차들을 포기하였다.

이때의 상황에 대해 군단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음성으로 진출한 제1사단으로부터는 보고가 잘 오는데 진천의 수도사단으로부터는 아무 소식이 없고 전화를 해도 사단장은 없다고 한다.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 사단지휘소에 갔으나 그곳에 사단장이 없어 잣고개까지 나아갔는데 그때 도로를 따라 2열중대로 올라오는 북괴군이 보였다. 진천의 방어선은 이미 돌파되었던 것이다. 나는 그때 고개마루에 진출해 있던 기갑연대를 좌우로 전개시켜 이들로 하여금 기관총을 쏘아 적을 저지하도록 하였다. 이 상황에서 3대의 장갑차중 2대가 적의 반전차총에 맞아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동안에 문안산과 봉화산에 병력을 배치하였는데 실로 위기일발의 순간이었다.”

사. 제20연대의 공격

제2사단장으로부터 “수도사단을 지원하라”는 명령을 받은 제20연대는 증평에서 진천지역으로 이동하여 봉화산 우측능선에 투입되었는데 당시 이 연대의 병력은 고작 600여 명에 불과하였으며 주력은 김한주 소령이 지휘하는 제1대대였다.

제20연대가 투입될 당시 잣고개에서 교전이 벌어지고 봉화산 우전방의 210고지(CR 6077)가 적의 수중에 들어갔는데 수도사단장으로부터 “원덕리의 210고지를 탈환하라”는 명령을 받은 제20연대장은 18:00에 공격하여 일몰전에 목표를 탈취할 계획을 세우고 공격준비를 서둘렀으나 공격준비가 늦어져 해질 무렵인 19:30에 공격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이 고지를 장악한 적이 완

강히 저항하였으므로 목표를 쉽게 점령할 수가 없었다. 제20연대 장병들은 야간공격으로 한차례의 백병전을 전개하였는데 상대의 머리를 만져보고 머리가 짧게 깎이었으면 적으로 단정, 대검으로 찌르고 발로 차고 하여 적진지 일각을 점령하였다.

그러나 목표를 완전히 점령하지 못하자 대대장 김한주 소령은 제1중대를 우회시켜 고지정상에서 버티고 있는 적을 포위하려고 하였는데, 이 중대가 이동중 적에게 발견되어 역으로 공격을 당하여 흩어져 버렸다. 제1중대의 김현경 상등병은 이동중 뒷병사가 따라오지 못하자 “이쪽으로 오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그때 적 진지에서 조명탄이 오르면서 기관총탄이 비오듯이 날아왔으며, 그는 순간적으로 땅에 엎드렸지만 엉덩이에 관통상을 당하였다. 김상등병은 위생병에게 응급치료를 받고 구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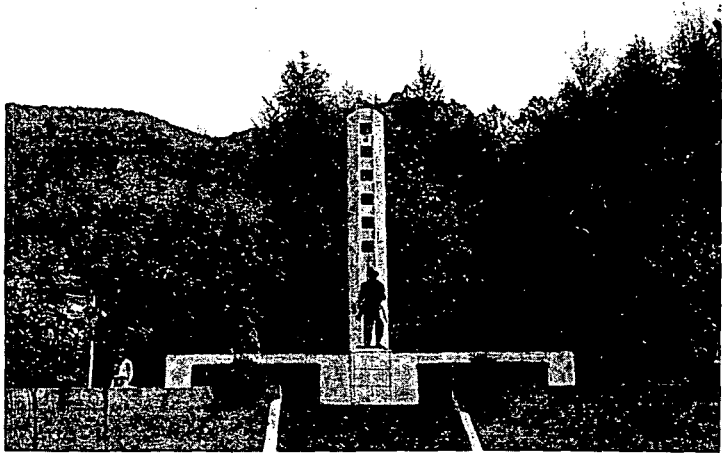
제20연대는 야간공격에서도 목표를 점령하지 못하고 오히려 역습을 받게 되자 9일 04:00경에 봉화산 동쪽 능선으로 철수하였다.

한편, 8일 저녁때에 제2사단 제16연대는 오창(CR 6266) 일대에서 진천-청주간 도로를 경계중에 있었고, 제6사단 제19연대(-1)는 진천 동쪽 6km의 오갑교(CR 667781) 일대에서 진천-증평간 도로를 경계하고 있었다.

2. 문안산-봉화산-양천산 선 공방전

가. 주저항선의 형성

제1연대가 진천에서 고전하고 있던 7월 8일 15:00경, 지원부대와 사단주력부대들이 사단전술지휘소가 있는 여사에 도착하고 있었다. 이에 사단장은 기갑연대를 잣고개에 투입하고 제20연대는 봉화산 우측능선(CR 6076)에 투입하며 사단주력은 문안산과 봉화산에 배치하여 이 선에서 적의 남진을 저지한 후 진천을 탈환하기로 방침을 정하였다. 그러나 제8연대의 도착이 늦어지자 제18연대병력을 우선 양고지에 배치하려 하였다.



< 진천지구 전적비 >

제18연대 제2대대장 장춘권 소령이 8일 저녁때에 대대 병력을 인솔하여 여사에 도착하자 김석원 장군은 소속을 확인한 후 “1개 중대는 이쪽 고지에 배치하고 1개 중대는 저쪽 고지에 배치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대대장은 “알겠습니다”라고 대답은 하였지만 사단장 지시대로 병력을 분산배치하기가 싫어 우물거리고 있던 차 연대장 임충식 대령이 당도하였으므로 “대대를 분산 배치하면 대대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그간의 경위를 설명하였다. 이에 연대장은 제2대대는 역리 부근에 집결대기토록 하고 그 대신 갖재편성되어 전투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제1대대(대대장: 소령 박사룡, 육사 2기, 1950.8.25 실종중 전사)를 사단장 지시대로 배치하였다.

이리하여 문안산-갓고개-봉화산 선에 병력이 배치됨으로써 외형상으로는 일련의 방어선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정상적인 방어편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인접부대간에 연결도 이루어지지 않아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더욱이나 연대-대대-중대간에는 유무선이 통하지 않아 모든 지시사항은 전령을 이용하거나 육성으로 전달하는 형편이었다.

한편, 이날 저녁때에는 제1포병단 제2중대(중대장: 대위 김찬복)가 신형포인 105mm 곡사포(M-2형) 4문을 끌고 사단에 도착하여 여사 북쪽 500m에 진지를 점령하였다. 이로써 사단은 미약하나마 포병화력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이를 본 병사들의 사기는 다소 높아졌다. 포병중대에 이어 제17연대 제1대대가 도착하였고 제8연대도 도착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사단은 간신히 주저항선을 형성할 수 있었다.

나. 문안산 및 봉화산 피탈

진천을 점령한 북괴군은 585번 도로를 따라 남하하려면 반드시 장악해야 할 문안산과 봉화산을 점령하기 위하여 진천을 점령한 여세를 몰아 잣고개를 공격하였다. 그러나 잣고개에 전개한 기갑연대가 완강히 저항함으로써 두 차례의 공격이 모두 실패하자 9일 날이 밝으면서부터는 포병지원하에 공격을 재개하는 것이었다. 이때에는 210고지를 공격하던 제20연대는 뒤로 물러나 봉화산 우측방을 점령하고 있을 때였다.

북괴군은 잣고개 뿐만 아니라 문안산과 봉화산에도 포탄을 퍼부었다. 적의 집중포격을 받아 진지가 파괴되고 사상자가 속출하자 주저항선에 배치되어 있던 병사들은 공포에 떨며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우세한 도보병력이 밀어닥치자 저항을 포기하고 명령도 없이 하나 둘씩 슬그머니 진지를 이탈하여 철수함으로써 문안산과 봉화산이 적의 수중에 들어가고 말았다. 그러나 제20연대는 진지를 고수하고 있었으므로 봉화산 동측은 국군이 장악하고 있었다.

이리하여 7월 9일 아침에는 중요지형인 문안산과 봉화산이 적의 수중에 들어감으로써 주저항선이 붕괴되었으며 수도사단은 방어진지의 중심부가 돌파되어 불리한 상황이 되었고 북괴군은 공격의 발판을 확보하게 되어 유리한 상황이 되었다.

다. 진천탈환 작전계획

문안산과 봉화산이 피탈되어 주저항선이 붕괴되자, “공격은 곧 최선의 방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단장 김석원 준장은 다음 진지로 철수하는 대신 병력을 수습하여 빼앗긴 문안산과 봉화산을 탈취함은 물론 진천읍까지 탈환하기로 결심하고 병력수습에 나섰다. 사단장은 적포탄이 작렬하는 잣고개 밑에까지 나아가 일본군도를 높이 쳐들고 “김석원이 여기 있다. 한사람의 병사도 이곳에서 물러날 수 없다. 사단장 명령 없이 철수하면 총살한다.” 하고 호령하였다. 철수하던 병사들은 철모에 큼직한 별을 달고 카이젤수염을 한 장군이 군도를 치켜들고 길 한복판에 서서 호령하는 것을 보고 뒤돌아섬으로써 점차 수습이 되었는데 이때 헌병들이 요소요소에 배치되어 철수병력을 되돌려 세웠다.

사단장은 병력이 수습되자 진천탈환계획을 군단장에게 건의하여 승인을 받았다. 군단장은 청주로 접근하려는 북괴군에게 일격을 가하여 진천을 탈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수도사단장의 계획을 승인하면서 수도사단지역에 이미 투입되어 있는 제2사단 제20연대를 수도사단에 배속조치하고 제2사단에게는 “수도사단의 동측방을 엄호하라”고 하였다. 이리하여 수도사단은 제2사단 제16연대와 협동공격으로 진천탈환작전을 전개하게 되었는데, 수도사단의 공격명령 요지는 다음과 같다.

수도사단의 공격명령(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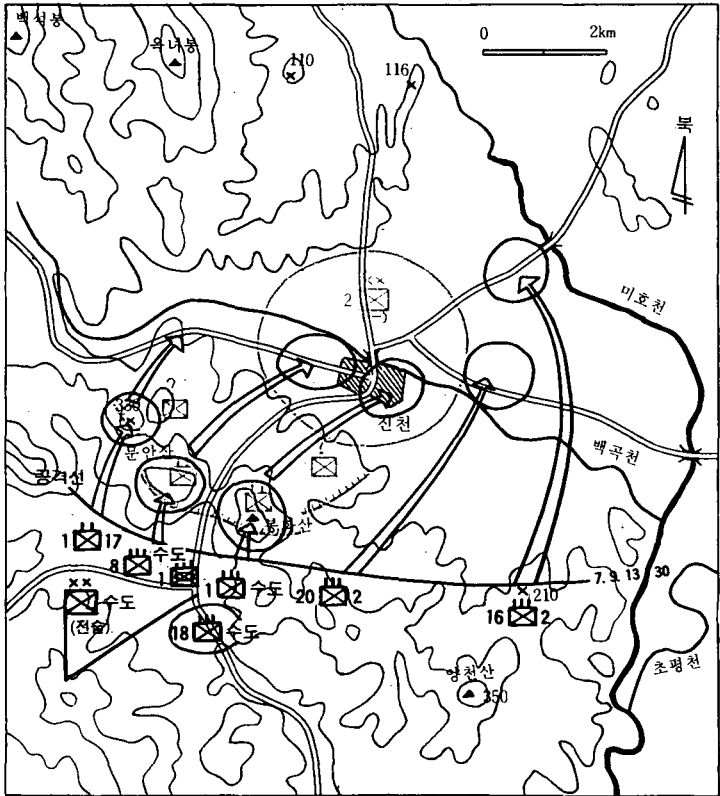
1. 사단은 7월 9일 13:30을 기하여 공격을 개시, 문안산과 봉화산을 점령하고 진천을 탈환하려 한다.
2. 공격간 제2사단 제16연대가 우측에서 협동공격한다.
3. 제 1 연대 : 봉화산을 점령하고 진천 동반부를 점령하라.
4. 제 8 연대 : 문안산을 점령하고 진천 서반부를 점령하라.
5. 제18연대 : 사단예비로서 제1연대를 지원하라.
6. 배속부대
 - 가. 기갑연대 : 잣고개를 점령하고 진천으로 공격하라.
 - 나. 제17연대(-1) : 사단의 좌측에서 공격하여 문안산 서쪽 고지를 탈취하고 적의 우회공격을 분쇄하라.
 - 다. 제20연대 : 사단의 우측에서 공격하여 진천 동측방으로 전진하라.
 - 라. 포병중대 : 사격지원의 우선권은 제1연대 및 제8연대에 둔다.
7. 공격개시선은 돌패기(문안산 남쪽 1km) - 사석리(봉화산 남쪽 1km) - 210고지(양천산 우전방 2km)를 연하는 선이다.

사단공격계획은 사단장이 직접 수립하고 작전참모는 이를 받아 썼으며 전투지경선 없이 부대별로 공격목표만 표시하여 하달하였는데, 이는 연대급 이하 지휘관에게는 전술지도가 없기 때문이었다.

이 공격은 급박한 상황에서 계획되고 인접부대와의 협조가 미

요도 4

진천 탈환 계획 (기동계획)



진한 상태에서 실시되었기 때문에 공격간에 부대가 뒤섞여 혼란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라. 봉화산 전투

진천 남서쪽 3km에 있는 높이 410m의 봉화산은 옛날에 봉화를 올리던 곳으로서 585번 도로 동편에 우뚝 솟아 있어 서쪽의 문안산과 더불어 도로는 물론 진천읍을 감제하는 지형이다. 이 산은 남북으로 뻗어 종격실로 되어 있으며 정상은 평평한데 약 10평 정도이고 정상의 남쪽은 완경사이나 그 밖은 급경사로 되어 있다.

봉화산은 최초 공격제대인 제1연대가 공격하여 점령하였으나 적의 역습을 저지하지 못해 물러나자 뒤이어 예비인 제18연대가 공격하여 이를 점령하였다.

(1) 제1연대의 공격

이번 작전에 있어 봉화산*의 탈취여부가 성패의 관건이 된다고 판단한 사단장은 제1연대장 이희권 중령에게 “새로 보급된 105mm 포로 사격지원을 할 터이니 결사대를 조직해서라도 봉화산을 점령하라”고 명령하였다.

제1연대 제1대대는 전날의 전투에서 상당한 피해를 입었으나 13:30에 제2중대(중대장: 중위 박규화)를 좌, 제1중대(중대장: 중위 윤홍정)를 우로 하여 공격에 나섰다. 제2중대는 100여 명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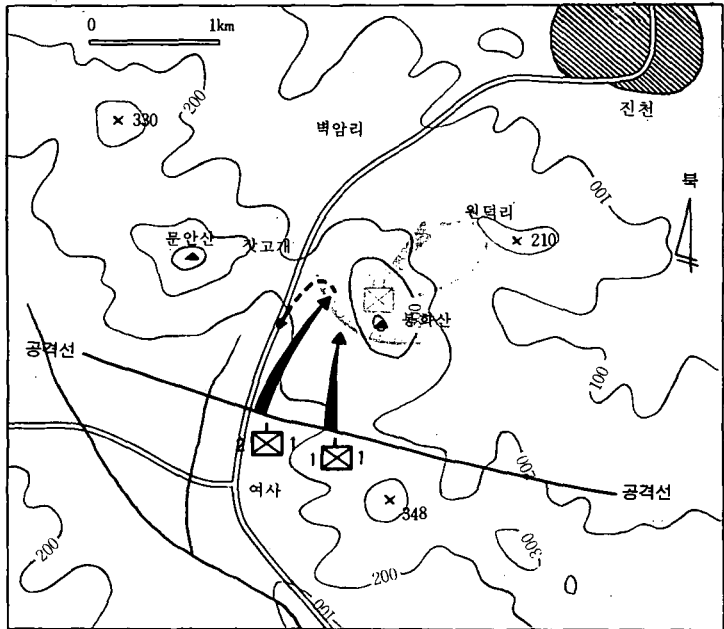
* 봉화산의 옛이름은 소흘산(所訖山)이다(진천군청 문화공보실 확인). 진천 전투시 장병들은 이 산을 소흘산으로 알고 있었고, 모든 증언자들도 소흘산 또는 소을산으로 증언하였다.

병력으로 대대의 구경 50기관총 지원하에 최초 도로변으로 진출하였는데 옆에서 기갑연대의 장갑차가 도로를 따라 공격하고 있어서 중대원의 사기가 솟구치게 되었다. 중대는 얼마쯤 지나 산정으로 방향을 바꾸었는데 공격개시 1시간 30분쯤 후에는 정상부근까지 육박하였으나 이곳에서는 급경사인데다 적의 저항이 완강하여 전진이 저지되었다. 중대의 공용화기로는 3정의 자동소총과 60mm 수형 박격포 2문이 있었으며, 박격포는 철모 위에 놓고 눈어림으로 쏘았는데 이들 화기들로서는 적 진지를 파괴하기엔 역부족이었다.

공격이 여의치 않자 대대장 장태환 소령은 81mm 박격포의 정밀사격을 명령함과 아울러 연대에 야포사격을 요청하였다. 이윽고 야포지원사격이 실시되었는데 대대장은 부대지휘를 하는 한편 야포사격유도에도 신경을 써야 하였다. 81mm 박격포탄과 105mm 야포탄이 봉화산 정상에서 작렬하기 시작하자 적을 완전히 제압했다고 판단한 대대장은 돌격명령을 내렸다. 오랫동안 공격다운 공격을 하는 병사들은 야포지원에 사기가 충천되어 과감한 돌격과 근접전을 전개하였으며 얼마 후에는 목표를 점령하였다.

고지정상에는 곳곳에 진지가 구축되어 있었는데 기관총진지에는 사수가 발목에 철사줄이 묶인 채 죽어 있었고 전화까지 가설되어 있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보아 북괴군은 이 고지를 사수하려고 했음이 분명하였다. 고지 주변에는 많은 시체가 유기되어 있었으며 전사자의 소총과 북괴군이 퇴각하면서 버린 권총, 쌍안경 등이 널려 있었는데, 이를 본 병사들이 진지강화는 뒷전으로

요도 5 봉화산 공격 (제 1차) (7.9 오후)



하고 전리품 수집에 열중하였다.

고지를 빼앗긴 북괴군은 30분쯤 후에 역습을 하였다. 북괴군은 일부병력으로 멀리서 깃발을 흔들고 함성을 질러 상대의 시선을 유도하면서 다른 병력을 은밀히 접근시켜 갑자기 기관총을 쏘고 수류탄을 던지면서 돌격하였다. 이에 전리품 수집에 열중하고 있던 병사들은 당황하였고 중대장이나 대대장이 진지고수를 명령하였지만 병력도 열세한데다 탄약마저 부족하게 되자 병사들은 고지를 이탈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하여 힘겹게 점령

한 봉화산을 어이없게 빼앗겼다.

제2중대장 박규화 중위는 흩어진 병력을 수습하면서 도로 쪽으로 철수하고 있었는데 이를 본 제8연대장 이현진 중령이 권총을 빼들며 “너희들이 철수하면 문안산을 공격하고 있는 우리 부대가 위험해진다. 철수는 절대로 안된다.”고 하면서 철수를 금지하였다. 이에 중대장은 “저희들은 탄약이 떨어졌고 병력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탄약만 보급해 주신다면 다시 공격하겠습니다.”라고 말하자, 제8연대장은 “탄약은 우리도 없다. 그러나 철수만은 안된다.”라고 하는 것이었다.

제2중대장은 속으로는 “자기 부하도 아닌데 명령한다.”고 하면서도, “그럼 다시 공격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공격하는 척하다가, 제8연대장이 보이지 않자 다른 통로로 철수하고 말았다.

한편, 제1연대와 병행공격하던 기갑연대는 585번 도로를 따라 진출하여 적의 산발적인 저항을 물리치고 잣고개를 점령하였으며 도보대대를 봉화산 서쪽에 배치하였다. 그러다가 적의 역습을 받고 저항다운 저항을 해보지도 못한 채 철수하고 말았다. 이때의 상황을 도보대대의 81mm 박격포 사수인 이해중 병장은, “이 전투에서 나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병사들이 상관의 눈을 피하여 슬금슬금 뒤로 물러났기 때문에 한때 제1연대와 혼합이 되었다. 그러나 삼거리(여사를 말함)에 딱 버티고 서있는 사단장의 위엄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또한 은은한 105mm 곡사포의 사격소리를 듣고는 마음이 든든해져 싸움터로 되돌아 갔다”고 말하였다.

(2) 제 18 연대의 공격

제1연대가 봉화산에서 물리나자 사단장은 사단예비인 제18연대에게 봉화산 공격임무를 부여하였다. 제18연대는 제2대대(대대장: 소령 장춘권)로 봉화산을 공격하였다. 이 대대는 제6중대(중대장: 중위 김정운)를 좌, 제5중대(중대장: 중위 손영진)을 우, 제7중대(중대장: 중위 양재민)를 예비로 하여 공격하였는데 제5중대는 능선을 따라 남에서 북으로 공격하고 제6중대는 사석리에서 봉화산 정상을 향하여 전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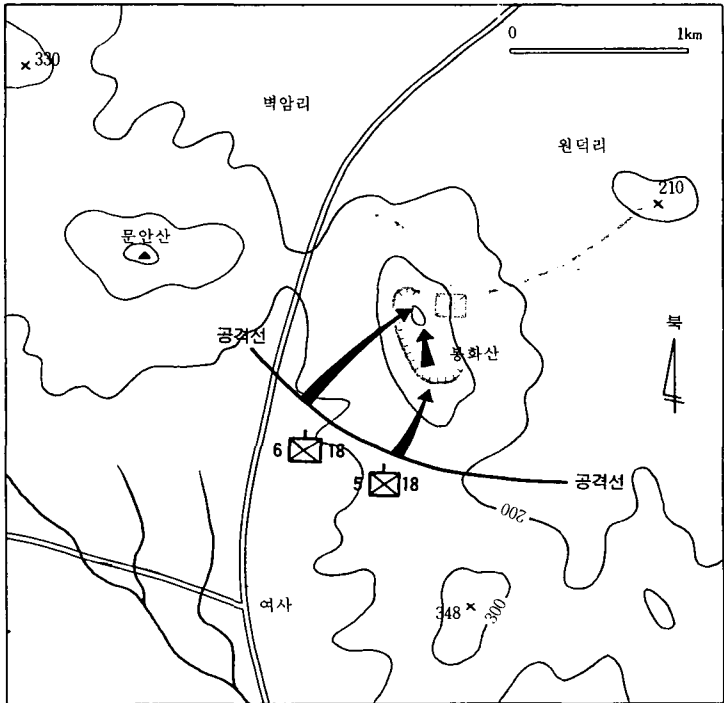
공격은 8부능선까지는 순조로웠으나 그 다음부터는 저항이 완강하여 둔좌되었다. 이에 대대장 장춘권 소령은 중화기 중대장 이용준 중위에게 “81mm 박격포로 적의 기관총을 제압하라”고 명령하고 제5중대장에게 “박격포로 기관총진지가 제압되거든 돌격하라”고 호령하였다. 이윽고 박격포 사격으로 적 기관총이 하나씩 파괴되어 가자 제5중대장은 돌격명령을 내렸다. 중대장의 돌격명령과 함께 전 중대원이 일제히 수류탄을 던지면서 돌격을 감행하여 정상 남쪽 300m의 중간목표를 점령하였다.

중간목표를 탈취한 제5중대는 최종목표인 정상을 향하여 공격을 계속하였다. 이때 전투경험이 없는 중대장 연락병이 탄약이 떨어지자 “중대장님 탄약이 떨어졌습니다”고 하면서 중대장에게 접근하다가 적탄에 맞아 전사하였다.

고지정상에서 버티고 있던 북괴군은 2개 방향에서 제5중대와 제6중대의 집요한 공격을 받자 점차 저항강도가 약하여져 갔다. 이를 간파한 제5중대가 능선접근로를 따라 돌격을 감행함으로써

요도 6

봉화산 공격 (제 2 차) (7.9 오후)



봉화산 정상을 점령하였다.

봉화산을 점령하자 대대장은 즉각 적의 역습에 대비하여 진지 강화를 서두르면서 탄약 재보급을 독촉하였다.

봉화산을 다시 빼앗긴 북괴군은 한동안 포격만을 계속하다가 조용해졌다. 그러나 한밤중인 10일 01:00경에 이르러 갑자기 치열한 포격을 재개하면서 역습을 감행하였다. 북괴군은 와-와-

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공격하였으며 제1과가 쓰러지면 제2과가 밀려왔다. 봉화산 북사면의 능선에 진지를 점령하고 있던 제6중대는 대대의 화력지원에 힘입어 적과 격전을 벌이고 있었다. 제6중대는 수류탄 공격과 근접전을 전개한 끝에 적의 공격을 세 차례나 격퇴하였는데, 적은 아침이 되자 많은 시체를 버리고 퇴각하였다.

적의 야간공격을 간신히 격퇴한 제6중대장 김정운 중위는 진지를 점검중 1개 분대의 적이 엄폐된 지형에서 코를 골며 잠들어 있는 것을 포로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모두 사살하였다. 이들은 아군의 저항으로 전진할 수도 없고, 임의로 철수하면 독전하고 있던 상관에게 처형될 것 같아 철수하지도 못하고 있다가 피로 때문에 잠들어 있었던 것 같았다. 제2대대의 우측에서 방어하던 제3대대도 적의 야간역습을 근접전투로 격퇴하였는데 아침에 약 10명의 적이 진지 전방에서 잠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사살하였다.

북괴군이 후퇴하자 제2대대장은 “이 기회에 공격으로 전환하여 진천읍으로 돌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고 공격을 건의하였으나 연대장 임충식 대령은 “지난밤의 격전으로 병사들이 피로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투력이 열세하여 진천읍의 점령은 곤란하다. 그 대신 적의 경계진지로 보이는 149고지(CR 6078)를 점령하여 적의 기습을 예방하자.”라고 하면서 이 고지를 점령하라고 하였다.

이리하여 제2대대장은 제6중대장에게 진천읍과 봉화산 중간에 있는 149고지를 점령하라고 명령하게 되었다. 제6중대장은 07:

00경에 일부병력은 진지에 잔류시키고 2개 소대만으로 149고지 공격에 나섰다.

그런데 제6중대가 목표 500m 전방에서 최종 공격준비를 하고 있을때 갑자기 잔류부대 쪽에서 교전하는 총성이 들려왔다. 이는 제6중대의 공격조가 진지를 출발한 사이에 북괴군이 다른 방향에서 은밀히 접근하여 제6중대 진지를 공격하였기 때문이었다. 결과적으로 진지강화 및 역습대비를 소홀히 하였음을 알아차린 김정운 중위는 병력을 되돌려 적의 배후를 공격하려고 하였으나 적탄에 복부 관통상을 당하여 쓰러졌다. 김중위는 연락병의 등에 업혀 겨우 안전지대로 빠져나왔다.

한편, 기습을 받은 제6중대 진지의 잔류병력은 적의 공격을 저지하지 못하고 뒤로 밀려나고 있었다. 봉화산 정상에서 제6중대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대대장 장춘권 소령은 본부중대 병력으로 급히 1개 소대를 편성하여 제6중대 진지로 달려갔고 대대 본부와 근접해 있던 부연대장 한신 중령도 권총을 뽑아들고 “후퇴하면 안돼!” 하고 소리치면서 고무신을 내던지고 맨발로 뛰어갔으며(한신 중령은 심한 무좀 때문에 고무신을 신고 있었음) 연대 인사주임인 이병형 대위는 구경50 기관총을 직접사격하여 밀려오는 적을 쓰러뜨렸다.

이와 같은 긴급조치와 독려에 힘입어 제6중대는 적을 격퇴시키고 진지를 회복하였다. 이리하여 봉화산을 확보하기는 하였으나 전투력의 열세로 인하여 진천읍을 탈환한다는 사단의 목표는 달성할 수가 없었다.

봉화산 전투시 제18연대는 다른 부대에 비하여 탄약을 많이

사용하였었는데, 그 이유를 대대장 장춘권 소령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전투에서는 무엇보다 탄약이 필요한데 이때 대대 병기장교인 이법노 중위는 81mm 박격포탄 1일 가용량이 100발이었으나 600발 이상을 사격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그 이유를 알아본즉, 영어를 잘하는 그는 조치원까지 나가서 미군으로부터 탄약을 얻어왔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릴 것이 없다’고 하면서 칭찬하였다.”

마. 문안산 전투

진천 남서쪽 3km의 문안산은 표고 415m의 우뚝 솟은 고지로서 585번 도로 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의 봉화산과 함께 이 도로를 통제할 뿐만 아니라 진천읍까지 감제하는 중요지형이다. 이 고지는 급경사를 이루고 있으나 정상은 넓고 다소 평평하다.

문안산은 제8연대가 공격하고 제17연대는 문안산 서쪽 고지를 공격하도록 계획되어 있었으나, 충분한 협조가 없었던 탓인지 13:30에 양 연대가 공히 문안산을 목표로 공격하여 제17연대가 문안산 정상을 먼저 점령하자 제8연대는 문안산 동록을 점령하였다.

문안산 동록을 점령하고 있던 제8연대는 동측의 기갑연대와 제1연대가 적의 역습으로 잣고개와 봉화산에서 물러난 후 제18

연대가 공격을 하여 봉화산을 다시 점령하였을 때 사단명에 의하여 1개 대대를 봉화산 서쪽에 재배치하였다.

북괴군은 7월10일 01:00에 봉화산에는 포병화력지원하에 야간 공격을 하였으나 문안산에는 화력지원 없이 은밀히 접근하여 기습공격을 감행하였으며, 이를 막아내지 못한 제17연대는 문안산을 빼앗기고 말았다.

문안산이 다시 피탈되자 “적이 증강되기 전에 이를 탈취하라”는 사단장의 명령에 따라 제1연대와 제17연대가 즉시 야간역습을 감행하여 제1연대가 문안산 정상을 탈환하고 제17연대는 문안산 북서쪽 1.5km의 330고지를 점령하였다.

(1) 제1차 문안산 전투

(가) 제17연대 제1대대의 공격

수도사단에 배속명령을 받은 제17연대(-1)는 제3대대의 진출이 늦어지자 먼저 도착한 제1대대(대대장: 소령 이관수)만이 공격에 참가하였다. 문안산 공격에 나선 제1대대는 제3중대(중대장: 중위 장익재)를 좌, 제1중대(중대장: 중위 김필상)를 우, 제2중대(중대장: 중위 한혁)를 예비로 하여 13:30에 공격을 개시하였다.

제3중대 제1소대장 윤종한 중위(육사8기, 중령 예편)는 중대장으로부터 “공격목표는 저 앞에 보이는 높은 산이고 공격개시선은 이 앞의 하천이다. 중대는 제2소대를 좌, 제1소대를 우로 하여 공격하며 소대간의 거리는 200m이다. 지금부터 공격하여 1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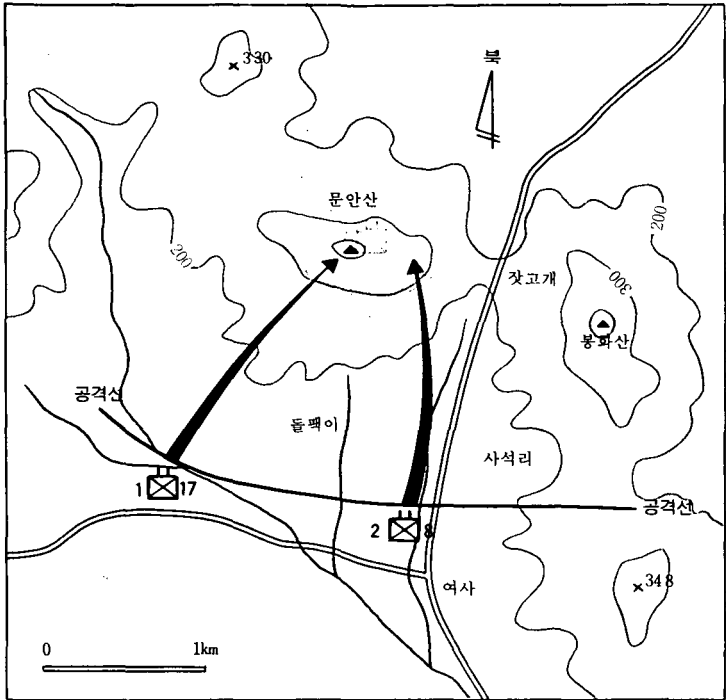
간 내에 목표를 점령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공격은 처음에는 순조롭게 진척되었으나 점차 저항이 완강하여졌으며 8부능선에서는 격렬한 전투가 전개되었다. 고지 위의 북괴군은 기관총과 수류탄 등으로 완강하게 저항하였고 제17연대 1대대 병사들은 81mm 박격포와 기관총의 지원하에 고지정상으로 육박하였다.

제2소대장 윤기주 소위가 공격 도중 부상으로 후송되어 제2소대의 진출이 늦어지기는 하였으나 제1소대장 윤중위는 이에 개의치 않고 공격을 선도해 나갔다. 그는 왼쪽 팔에 부상입은 것도 잊고 포복전진을 거듭한 끝에 거의 정상에 이르게 되었다. 윤중위는 정상 가장자리에서 수류탄을 던지고 있는 적병을 조준사격으로 처치한 후 돌격준비를 하면서 정상을 올려다본즉 그곳에는 부하를 지휘하고 있는 장교 한사람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윤중위는 북괴군 군관의 모습이 자신의 형님과 비슷하여 몇 번 망설이다가 조준사격으로 그를 쓰러뜨리고 순간적으로 돌진하여 신음하고 있는 군관을 확인 사살하였는데 나중에 자세히 보니 그는 자신의 형님이 아니었다.

윤중위는 군관을 처치하고 급히 부하들을 정상으로 오르도록 하면서 자신은 정상 서쪽 50m 지점에서 사격하고 있는 적의 기관총 진지로 포복접근하였다. 윤중위가 기관총 진지 10여 m까지 접근하였을 때 적 기관총 사수와 시선이 마주쳐 서로 노려보지만 있었는데, 이는 양측 모두 실탄이 떨어져 재장진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윤중위는 “너 이놈 실탄이 떨어졌지?” 하면서 짹싸게 실탄을 장진하여 그를 사살하였다. 이렇게 하여 17:00경

요도 7 문안산 공격 (제1차) (7.9 오후)



에 문안산 정상을 점령하였다.

문안산 정상을 점령하였던바 비교적 평평한 정상의 가장자리를 따라 개인호가 준비되어 있었으며, 호 주위에는 수류탄이 수북히 쌓여 있었을 뿐만 아니라 호 속에 배치된 병사들은 도망하지 못하도록 쇠사슬에 발목이 묶여 죽어 있었다.

한편, 우측에서 공격하던 제1중대도 고전하기는 제3중대와 엇

비슷하였다. 공격간 제1중대는 중대장 자신이 부상을 당한데다 소대장은 1명이 전사하고 1명이 부상당하였으며 병사들도 상당수가 손실되었다. 중대장의 부상으로 부대대장 안재징 대위가 중대를 지휘하기도 하였다.

문안산을 점령한 제17연대 제1대대는 우측에서 공격하고 있는 제8연대와 연결하고 진지강화를 서둘렀는데 좌측방에도 병력을 배치하여 적의 우회공격에 대비하였다.

(나) 제8연대의 공격

제17연대와 함께 문안산 공격에 나선 제8연대는 제17연대의 우측에서 제1대대(대대장: 대위 강정희)를 좌, 제2대대(대대장: 대위 정승화)를 우로 하여 공격하였다. 제2대대장은 사단 재편성시 대대장 고백규 소령이 부연대장으로 전보됨에 따라 제8중대장 정승화 대위가 대대 지휘를 맡았다. 신임 대대장은 제6중대(중대장: 중위 김복경)를 좌, 제5중대(중대장: 중위 안태갑)를 우, 제7중대(중대장: 중위 김봉준)를 예비로 하여 공격에 임하였다.

이때 사단장 김석원 장군은 예의 일본도를 빼어들고 “적은 1개 연대이고 우리는 1개 사단이다. 두려울 게 하나도 없다.” 하고 진두지휘하면서, 도로변에서 우물거리고 있던 병력들을 규합하여 봉화산 쪽으로 공격하도록 조치하였다.

사단장의 이 조치에 제2대대의 제5중대가 휩쓸려 들으로써 제2대대는 대대장도 모르는 사이에 부대가 양분되어 제6중대는 도로 서쪽에서 문안산을 공격하고 제5중대는 얼마동안 도로 동쪽

에서 봉화산을 공격하였다.

제8연대의 공격도 처음에는 순조롭게 진척되었으나 문안산 정상에 접근하면서부터 완강한 저항에 부딪쳐 공격이 둔화되었다. 이에 “우측의 제1연대는 벌써 봉화산을 점령하였는데 우리 부대만이 이렇게 쳐져서야 되겠느냐”고 하면서 빨리 전진하라는 연대장의 독촉이 빗발쳤다.

대대장은 중화기 중대장 김종민 중위에게 81mm 박격포로써 적을 제압하라고 명령하였고, 중대장은 박격포의 포신이 별경계 달아오르면 물을 끼얹으면서 사격을 하였다. 이때 사단의 105mm 포가 사격지원을 하였는데 포술이 신통치가 않았음인지 아군이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

김석원 준장은 적 포탄이 빗발치듯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2대대 81mm 박격포 진지에 나타나 “야, 이놈들아 적 포탄도 이 김석원이는 비켜 간다. 그러니 안심하고 쏘아라. 어디 나도 한번 쏘아보자.”라고 말하고는 포탄 몇 발을 포구에 집어넣어 발사하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그대들은 참으로 용감하게 잘 쏘는구나”라고 말하여 박격포 요원들의 사기를 돋구어 주었다.

사단장이 박격포 진지에까지 와서 공격을 독려한다는 소식이 전파되자 병사들의 사기가 충천되어 공격에 활기를 띠게 되었다. 이리하여 소대장의 돌격명령에 따라 병사들이 돌진하여 근접전을 치른 끝에 문안산 동록을 점령하였다.

제8연대는 얼마 후 우측의 봉화산을 제18연대가 점령하자 ‘봉화산 서쪽도 방어하라’는 사단장의 지시를 받고 제2대대를 봉화산 쪽으로 이동시켜 재배치하였다. 이렇게 되자 제8연대는 도로

를 중심으로 문안산 동쪽 8부능선에서 봉화산 서쪽 8부능선까지를 담당하게 되었다.

봉화산과 문안산을 빼앗긴 북괴군은 포격을 하면서 역습을 시도하였는데 제8연대는 잣고개로 향한 이들을 모두 격퇴시키고 진지를 고수하였다.

(2) 제 2 차 문안산 전투

(가) 문안산 피탈

문안산과 봉화산을 빼앗긴 북괴군은 7월 10일 01:00경에 빼앗긴 2개의 고지를 다시 빼앗으려 야간공격을 실시하였다. 이때 봉화산에서는 강력한 화력지원하에 공격하였으나 문안산에서는 무지원하에 기습공격을 감행하였다.

북괴군은 은밀히 침투한 후 경계병을 처치하고 갑자기 함성을 지르면서 돌격을 감행하였는데 문안산에 배치되었던 제17연대 제1대대 병사들은 이 불의의 공격에 당황한 나머지 뿔뿔이 흩어져 고지 밑으로 밀려남으로써 천신만고 끝에 빼앗은 고지를 어이없이 빼앗기고 말았다.

문안산 피탈보고를 받은 사단장은 “적이 재편성하기 전에 문안산을 되찾아야 한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병력손실이 많아지고 탈환하기도 힘들다.”고 하면서 즉각 공격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리하여 제17연대 제1대대와 예비로 전환된 제1연대가 문안산을 공격하게 되었다.

(나) 제1연대의 공격

제1연대의 주력부대인 제1대대는 하현달이 떠있는 으스름 달 빛을 이용하여 사석리에서 문안산 정상을 향하여 전진하였다. 제1대대가 7부능선에 이르자 정상 부근에서 병력을 재배치하는 듯한 인기척과 호를 파는 듯한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대대장 장태환 소령은 적이 대대의 접근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기관총 등을 앞으로 추진하여 8부능선에 전개가 끝나자 공격명령을 하달하였다. 이에 따라 전 대대원이 함성과 함께 사격을 가하면서 고지 위로 공격을 감행하였다. 그러나 고지 위의 적군이 수류탄을 던지고 기관총을 난사하면서 저항함으로써 공격은 둔좌되고 피아간에 사상자가 속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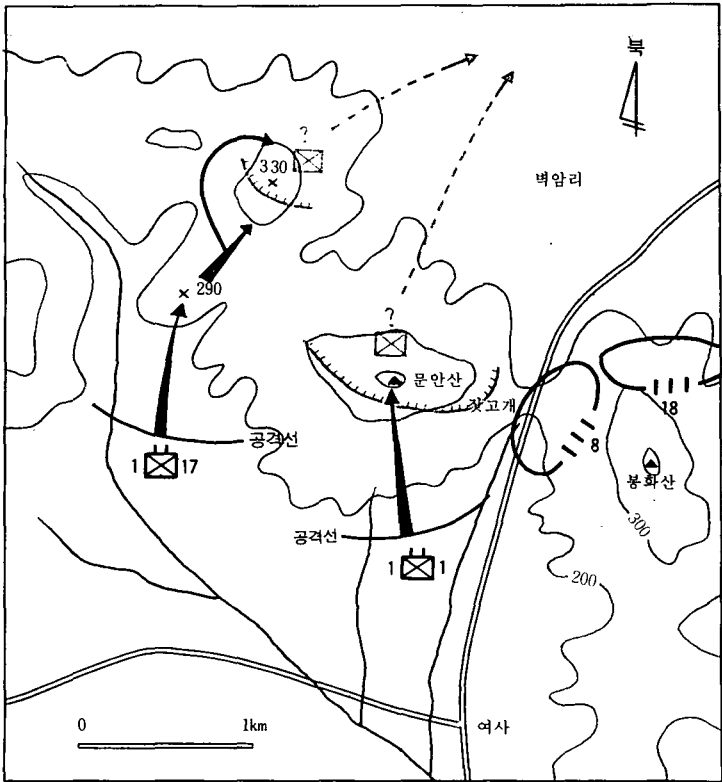
제2중대장 박규화 중위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궁리 끝에 대전차 화기인 2.36인치 로켓을 전방으로 추진하여 적 기관총 진지를 제압하라고 하였다. 이윽고 적 기관총이 침묵하자 사기가 충천하여진 중대원들은 중대장의 돌격명령에 일제히 정상으로 돌진하여 문안산을 점령하였다. 제1연대 병사들은 대한민국 만세를 힘차게 부른 다음 진지강화에 들어갔는데, 아침해가 솟아 오를 무렵에는 누가 꽃았는지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다.

(다) 제17연대 제1대대의 공격

문안산에서 밀려난 제17연대 제1대대는 병력수습이 끝나자마자 “문안산 서측 고지를 점령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제1대대는

요도 8

문안산 공격 (제 2 차) (7.10 새벽)



탄약보급이 끝나자 희미한 달빛을 받으며 문안산 좌측의 330고지(CR 5788, 문안산 북서쪽 1.5km)를 향하여 전진하였는데 밤나무골의 290고지(CR 571781)를 점령할 때까지는 아무 저항이 없었으나 능선을 따라 500m쯤 전진하자 330고지로부터 사격을 받았다.

대대장 이관수 소령은 즉각 전투대형으로 전개하도록 한 후 중화기 중대장 이흥근 중위에게 “빨리 목표를 제압하라”고 하였다. 제1대대장은 81mm 박격포 사격으로 목표를 제압하고 이를 점령하려고 하였으나 적은 물러나지 않고 완강히 저항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대장은 정상적인 공격으로는 목표점령이 어렵다고 보고 제1중대 화기소대장 백경섭 소위를 조장으로 하는 특공조를 편성하였다. 이때 백소위는 “대대장님, 저에게 병력 30명을 주십시오. 그러면 저 고지를 탈취하겠습니다.” 하고 건의하였다. 이때의 30명이란 1개 중대에 해당하는 병력이었다.

백소위는 특공조를 10명씩 3개조로 편성하여 목표 후방으로 우회한 다음 함성과 함께 수류탄을 던지면서 일제히 정상으로 돌격하였다. 대대장은 목표상에서 폭음이 들려오고 적의 사격방향이 변경되는 것을 보고는 백소위가 인솔한 특공조가 정상에 돌입한 것으로 판단하여 예하부대에 돌격명령을 하달하였다.

이리하여 제1대대는 양방향에서 치고받는 백병전 끝에 330고지를 완전히 점령하였으며, 날이 밝은 후 진지 주변에서 50구의 적 시체를 발견하였다.

이날의 근접전에서는 아군끼리 치고받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하였다. 이는 제17연대가 웅진반도에서 철수하여 대전에 있을 때, 당시 연대장인 백인엽 대령이 ‘게릴라전도 불사한다’는 각오 하에 전원 머리를 깎도록 한 바 있는데, 북괴군도 역시 머리를 깎았기 때문에 백병전시 상대의 머리를 만져보고도 피아를 구분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아침식사를 330고지까지 추진한 대대작전관 김희재 중위가 적 사살 50명, 81mm 박격포 3문을 포함하여 다수의 기관총과 소총 등의 전과를 연대에 보고하자 연대장 김희준 중령은 “빨리 노획품을 후송하라”고 독촉하였다. 이날의 전투에서 대대도 소대장 1명을 포함하여 전사 5명, 부상 10명의 피해를 입었다. 330고지를 점령한 제1대대는 제1연대에서 1개 중대를 배속받아 진지강화를 하면서 적의 역습에 대비하였다.

바. 양천산 북방 전투

(1) 제20연대의 공격

7월 9일 04:00경에 210고지에서 양천산(CR 6374, 350m) 좌측방으로 물러난 제20연대는 수도사단에 배속되어 진천 동측방으로 진출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런데 연대가 정면과 좌측방에서 계속 압력을 받고 있었으므로 (이날 아침에 좌측방인 봉화산이 적에게 피탈되었음) 연대장은 전투현장을 떠나 사단에 배속 신고하러 갈 수도 없어 그대로 부대를 지휘하고 있었다. 그러자 사단 헌병장교가 이곳 진지에 와서 “제20연대가 수도사단에 배속되었는데 신고하지 않음은 군기문란죄”라고 하면서 “체포명령이 내렸으니 사단까지 같이 가야겠습니다”고 하였다. 박기병 대령은 너무도 어이가 없었지만 부대지휘를 제1대대장 김한주 소령에게 맡기고 수도사단지휘소로 갔다.

제20연대장이 사단에 당도하자 참모장 김웅조 중령이 “사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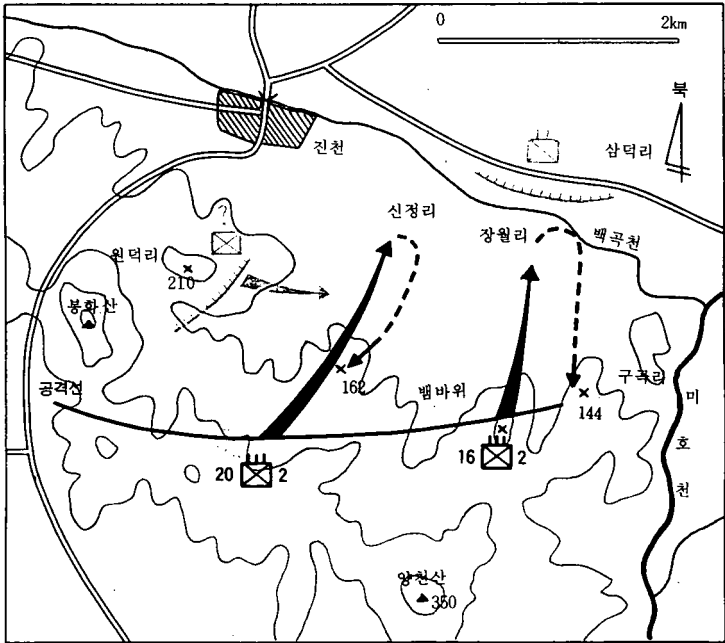
에게 정식신고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므로 박대령이 부동자세로 “육군대령 박기병은……” 하고 신고하는 중에 적 포탄이 사단사령부 주변에 작렬하는 상황이 벌어져 신고는 중단되고 모두 흩어졌다. 이러기를 3번이나 되풀이한 끝에 겨우 정식신고를 마치자 사단장은 “알겠나, 모이면 과녁이 된다. 그리고 귀연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 명령 없인 현 위치를 물러나서는 안돼.” 하고 엄명을 내렸다. 이에 대하여 박대령은 “고급장교가 되어 정식신고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신고를 마치고 생각해 보니 사단장은 해이되어 가는 군기를 잡아보려고 무진 애를 쓰는 것 같았으며 이는 곧 전투력으로 나타났다.”고 술회하였다.

박기병 대령이 급히 연대로 돌아와 보니 김한주 소령이 지휘하고 있는 연대병력은 210고지를 우회하여 신정리까지 진출하였으나 210고지에서 접근한 것으로 보이는 북괴군으로부터 측방공격을 받고 있었다.

이에 연대장은 포위될 것을 우려하여 162고지(CR 6276)로 철수할 것을 명령하였다. 제20연대는 162고지에 진지를 점령하였는데 주간에는 적의 포격으로부터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확장배치하고 야간에는 지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축소배치하였다.

연대는 이날은 더이상의 교전 없이 넘기었으나 다음날인 7월 10일 아침 한 차례의 포격에 뒤이어 1개 중대 규모의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그러나 연대는 이를 격퇴시키고 진지를 강화하는 한편 정찰대를 운영하는 등 적의 또다른 공격기도에 대비, 적정을 탐색하였다. 이날 16:00경까지는 적의 공격기도는 없었다.

요도 9 양천산 북방 공격 상황 (7.9 오후)



(2) 제16연대의 공격

사단으로부터 “수도사단의 동측방을 엄호하라”는 명령을 받은 제2사단 제16연대는 9일 아침에 행동을 개시하여 구곡리(CR 6576)로 진출하였으며 진천 동측방으로 진출할 계획하에 지정된 시간에 공격을 개시하여 14:00경에는 진천 남동쪽 3km의 장월리까지 진출하였다. 이때의 연대병력은 약 1,000명으로서 제3대

대를 좌, 제1대대를 우로하여 별로 높지 않은 야산에 전개하였다. 제16연대는 백곡천 북안의 삼덕리(진천 동쪽 3km)로 진출하기 위하여 제1대대가 제3대대의 엄호하에 눈·발을 가로질러 전진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적으로부터 집중포격을 받아 제1대대의 공격이 둔화되었으며 적 포탄은 제3대대 지역에도 작렬하였다.

적의 포진지 제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한 연대장 문용채 대령은 부연대장을 사단에 급파하여 포병지원을 요청하였다. 제16연대가 출동시 사단장 이한림 대령은 포병화력지원을 약속한 바 있으나 포병이 없는 사단장은 예하부대에 화력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적 포탄은 계속 날아오고 있으나 우군의 포병지원이 없는데다 얼마후에는 1개 대대 규모의 북괴군이 삼덕리에 전개하여 공격태세를 취하게 되자 연대장은 더이상 공격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철수명령을 내렸다. 이리하여 제16연대는 구곡리의 144고지(CR 6476) 좌·우측에 진지를 점령하고 적의 야간공격에 대비하였다.

북괴군은 야간공격은 하지 않았으나 10일 06:00경부터 제16연대 진지에 포격을 하는 한편, 삼덕리 도로에 전차 3대를 배치하여 전차포로 공격하였다. 제16연대는 16:00경까지는 도보부대의 공격은 받지 않았다.

북괴군은 진천의 문안산-소울산(봉화산을 전쟁 당시 소울산이라 하였음) 전투에 관하여 조선전사 제25권(북한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저, 1981.9.20)에서 “적들은 7월 9일부터 2일간에 걸쳐 집요하게 반돌격을 감행하였으며 7월 10일 하루에도 인민군 전투

원들은 10여 차례에 걸친 적의 반돌격을 물리치고……”라고 표현함으로써 국군의 공격으로 인한 격전이 있었음을 시인하였다.

한편, 수도사단이 진천에 전개할 때 진천-증평간의 도로를 경계중에 있던 제6사단 제19연대(-1)는 제2연대가 8일에 충주를 빼앗기고 수안보로 물러나자 지금까지의 엄호임무를 종료하고 7월 9일에 진천지역에서 철수하여 긴급히 수안보로 이동하였다.

3. 철수작전

가. 수도사단의 철수계획

제1군단 예하의 수도사단과 제2사단이 진천탈환작전을 전개하고 있던 7월 10일의 군단 좌우측 상황은 군단에게는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군단 서측에서는 경부축선을 담당한 미 제24사단이 천안을 빼앗긴 후 진천 남서쪽 30km의 전의에서 격전을 벌이고 있었으나 점차 남쪽으로 밀리고 있었고, 동측에서도 충주를 빼앗긴 제6사단이 음성 남동쪽 30km의 수안보에서 힘겨운 공방전을 벌이고 있었다. 이와같이 좌·우측 후방 30km 지점에서 전투가 전개되자 군단이 포위되는 것을 염려한 군단장 김홍일 소장은 7월 10일에 “제1사단은 적을 최대한 지연시키면서 괴산-미원으로 철수하고 수도사단과 제2사단은 청주로 철수하라”는 철수명령을 하달하였다.

군단의 철수명령을 받은 수도사단은 배속부대인 제17연대(-1)

와 제20연대의 엄호하에 16:00에 미호천 남안으로 철수하기로 하였는데, 사단 철수명령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수도사단 철수명령(개요)

1. 사단은 7월 10일 16:00를 기하여 현 접촉선에서 이탈하여 미호천 남안에서 적을 저지 격멸하려 한다.
2. 제1연대 : 사단의 제1제대로서 지대 내의 적을 격파하고 미호천 남안으로 철수하여 오근장역(CR 642618) 일대에 진지를 점령하라.
3. 제18연대 : 사단의 제1제대로서 지대 내의 적을 격파하고 미호천 남안으로 철수하여 입상리(CR 6564) 일대에 진지를 점령하라.
4. 제8연대 : 사단의 제2제대로서 지대 내의 적을 격파하고 미호천 남안으로 철수하여 정상리(CR 6360) 일대에 진지를 점령하라.
5. 제17연대(-1) : 사단의 제3제대로서 현진지에서 사단의 철수를 엄호하고, 의명 철수하여 주중리(CR 6558) 일대에 집결하라.
6. 제20연대 : 사단의 제3제대로서 현진지에서 사단의 철수를 엄호하고, 의명 철수하여 청주 영운동(CR 6553)에 집결하라.
7. 포병 제2중대 : 연막으로 사단주력의 철수를 엄호한 후, 제17연대와 제20연대를 지원하다가 의명 청주로 철수하라.

8. 각 부대는 철수간 기도비닉에 철저를 기하라.

상기와 같은 철수명령은 전령에 의하여 각 부대에 하달되었는데, 엄호임무를 맡은 제17연대 1대대와 제20연대에게는 철수명령이 하달되지 않았는데 행정착오인지, 고의인지 또는 전령이 임무수행을 못했는지 그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나. 북괴군의 재공격

수도사단이 철수를 서두르고 있을 즈음, 북괴군 제2사단장 최현은 두 차례에 걸친 문안산과 봉화산 공격의 실패로 585번 도로를 따라 청주 방면으로 남진하려던 계획이 좌절되자 “그 못된 놈을 또 만났다”고 투덜거리면서 주공을 진천 남동쪽으로 바꾸어 양천산 방향으로 공격하라고 명령하였는데 이는 북괴군 제2사단이 수도사단을 돌파하는 대신 포위하려고 한 것이다. 최현이 투덜거린 이유는 전쟁발발 1년 전인 1949년 5월에 개성 송악산 전투에서 최현 부대는 김석원이 지휘하던 제1사단과 싸워 패전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7월 10일 16:00경, 북괴군 제2사단은 군단 포병까지 동원하여 일부부대로 문안산을 공격하면서 주력부대는 진천 남동쪽의 신정리와 장월리로 진출하여 제16연대와 제20연대를 공격하였다. 그런데 북괴군이 전개하여 제16연대를 공격하면서 제20연대 진지로 육박하고 있을 무렵, 북괴군의 움직임을 포착한 미 전폭기 30여 대가 나타나 1시간 이상 맹렬한 공중공격을 가하였다.

이 공중공격으로 북괴군은 심대한 타격을 받아 한동안 공격이 중단되었으며, 수도사단은 이 기회에 점적이탈을 하였는데, 이날 수도사단이 미 고문관을 통하여 공중지원요청을 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날의 북괴군 상황에 관하여 당시 북괴군 제2사단 포병연대장이었던 임현일 총좌는 휴전직후 귀순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7월 8일부터 우리 제2사단은 진천에서 강적인 수도사단과 맞부딪치게 되었습니다. 제1차 공격에서 1개 대대가 전멸하다시피 됐고 제2차 공격에서도 막대한 손실만 입고 공격이 실패하자 사단장 최현은 연대장들에게 마구 욕을 하면서 ‘어떤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빨리 진격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때 사단은 군단 포병까지 지원을 받아 포격하였으며 전면(문안산 및 봉화산)에는 소수병력으로 견제 및 기만하고 사단주력은 동쪽으로 우회하여 국군의 후방을 차단하려고 하였습니다. 이 우회작전으로 국군 2개 연대는 포위할 줄 알았는데 국군은 결사적으로 함전하였고 때마침 미 항공기 30여 대가 날라와 1시간 이상이나 폭격과 기총소사를 하는 바람에 우리는 탱크, 야포, 병력 등 많은 손실을 입고 공격에 실패하였으며 국군은 이 틈을 타서 감쪽같이 빠져나갔습니다. 우리 제2사단은 정말 재수 없는 사단이어서 춘천에서 얻어맞고 진천에서 또 한번 당했습니다.”

다. 주력부대의 철수

7월 10일 새벽에 문안산을 점령한 제1연대는 진지를 강화하면서 적의 공격에 대비하고 있었는데 16:00경에 적의 공격을 받았다. 북괴군은 1개 대대의 병력으로 문안산 우전방인 벽암리에서 고함을 지르고 붉은 깃발을 흔들며 소란을 피움으로써 연대의 관심을 그쪽으로 유도한 후 주력은 다른 방향에서 은밀히 접근하여 공격하였다. 제2중대장 박규화 중위는 적이 소란을 피우자 대대장에게 포격을 요청하면서 그들의 행동을 주의깊게 관측하고 있었는데, 얼마 후에는 갑자기 진전에서 기습사격을 받게 되어 부랴부랴 방어태세를 취하였다. 곧이어 혼전이 벌어졌으며 제1연대 장병들은 혼신의 힘으로 버티었지만 이 와중에서 제2중대는 1개 소대 규모로 병력이 감소되었고 탄약이 떨어지자 전우의 시체에서 탄약과 수류탄을 회수하여 겨우 적의 공격을 저지하였다.

이 전투에서 제1중대장 윤홍정 중위가 적탄에 맞아 부상당했고, 제1대대장 장태환 소령도 중환으로 뛰어들다니면서 진두지휘하다가 대퇴부 관통상을 당하여 후송되었으며, 제2중대장 박규화 중위가 대대를 지휘하게 되었다.

가까스로 적의 공격을 물리친 제1연대는 철수명령을 받고 은밀히 문안산에서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제1연대와 제18연대가 문안산과 봉화산에서 철수하자 제8연대도 잣고개에서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제8연대는 대대별로 자체 엄호하에 철수하여 여사에 집결하였으며 이곳에서부터는 행군대

형을 갖추어 어둠을 이용하여 미호천 남안으로 철수하였다.

라. 엄호부대의 철수

(1) 제17연대 제1대대의 철수

제17연대 제1대대는 330고지에서 제1연대에서 1개 중대를 배속받아 엄천하에서 비지땀을 쏟으며 호를 파는 등 진지를 강화하고 있었다. 이때 대대장은 부대대장 안재징 대위를 대동하여 진지상태를 점검하고 있었는데 해질 무렵에 잣고개 쪽을 바라보니 북괴군으로 보이는 부대가 고개를 넘어 남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이에 대대장이 곁에 있던 부대대장에게 의견을 물었던바 그도 “적인 것 같다”고 말하였다. 이상한 예감이 든 대대장은 하사관 2명을 선발하여 “빨리 여사에 있는 사단사령부에 가서 상황을 확인하고 오라”고 명령하였는데 22:00경에 복귀한 이들은 “여사에는 적이 집결중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었다.

사단이 이미 철수하여 대대가 고립되었다고 판단한 대대장 이관수 소령은 철수할 것을 결심하고, “제1연대로부터 배속받은 중대의 엄호하에 조치원 방향으로 철수하라”고 명령하였다. 이때 배속중대장이 “왜 우리만 뒤에 남게 하느냐?”고 불평하기에 그 중대장을 겨우 설득한 후 야음을 이용하여 조치원으로 철수하였다.

제1대대는 다음날에 조치원에 당도하였는데 그곳에서 연대가

보은에 집결한다는 연락을 받고 다시 보은으로 향하였다.

이날의 상황에 관하여 이관수 소령은 “우리 대대는 사단이나 연대에서 아무런 철수지시를 받지 못하였다. 우리는 독단으로 철수하여 보은으로 갔는데 이 과정에서 엄호부대로 남았던 중대는 그후 어떻게 되었는지 모른다.”고 말하였다.

(2) 제20연대의 철수

제20연대는 162고지에서 10일 오전에 경미한 적의 공격을 저지한 후 진지를 계속 확보하고 있었는데 16:00경부터 적의 포격이 심해지더니 16:30경에는 연대의 정면 2km 전방인 신정리에 1개 연대 규모의 적이 나타났고 우전방인 장월리에도 1개 연대 규모의 적이 출현하였다. 17:00경, 장월리의 적이 전개하여 144고지의 제16연대를 공격하면서 그 일부가 범바위에서 연대의 동단 500m까지 접근하자 연대장 박기병 대령은 전투태세를 갖추라고 명령하였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B-26 및 B-29 등 우군 폭격기 30여대가 나타나 진천읍은 물론 신정리-장월리-범바위 선에서 이동하고 있던 북괴군을 폭격하였고 뒤이어 F-51 전투기가 와서 기총소사와 네이팜탄 공격을 계속하는 것이었다.

이 공중공격으로 신정리-장월리 선에 전개하고 있던 북괴군은 많은 피해를 입어 공격이 둔화되었다. 이처럼 상황이 호전되자 연대장은 야간전투에 대비하여 진지를 조정하고 경계조를 좌우측 계곡에 배치하였다.

어둠이 깃들자 북괴군은 병력을 수습하여 공격을 재개하였는데 일부병력으로는 정면에서 공격하고 일부병력으로는 계곡을 따라 양천산으로 진출하고 있었다. 계곡에 배치한 경계조로부터 적의 움직임을 보고받은 연대간부들은 “우리는 포위되었습니다. 사단주력이 철수한 듯하오니 연대장님께서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하면서 철수를 건의하였다. 그러나 사단장으로부터 “진지를 고수하라”는 엄명을 받은 바 있는 연대장은 “동요하지 말고 명령이 있을 때까지 진지를 고수하라”고 하면서 철수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일단의 적이 배후에서 “너희들은 포위되었으니 항복하라”고 소리치는 것이었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되자 포위된 것을 알게 된 연대장은 철수를 결심하고 우선 1개 중대로서 배후에서 소리치는 적을 향하여 공격하도록 하였다. 이윽고 돌과구가 뚫리자 연대는 양천산 능선을 넘어 남으로 철수를 강행하여 역리(CR 6073)로 빠져나왔으며 이곳에서 비로소 사단이 철수한 사실을 알고 청주를 향하여 철수를 계속하였다.

마. 제 2 사단 제 16 연대의 철수

제16연대는 작일 저녁때부터 144고지 일대에 진지를 확보하고 있었는데, 10일 16:00경 1개 연대 규모의 적이 연대의 전방 2km인 장월리에 출현하여 연대를 공격하는 것이었다. 연대는 전투력의 열세로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었으나 사단으로부터는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여 전세가 불리하게 전개되자 연대장 문

용채 대령은 지연전을 전개하기로 마음을 굳히고 있었는데 17:00경 아군의 폭격기들이 나타나 공격중인 적을 강타하게 되었다. 1시간 이상 계속된 이 공격에 의해 적의 전투대형이 와해되고 공격은 둔좌되었다.

이러할 즈음에 포병화력을 지원받기 위하여 사단에 파견하였던 부연대장이 복귀하여 사단의 철수명령을 전달하였다. 이 명령을 받은 연대는 곧 철수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기미를 알아차린 북괴군은 공중공격이 끝나자 부대를 수습하여 공격을 재개하였다. 이때 북괴군의 일부병력은 우전방인 장머리로 접근하고 주력부대는 좌전방인 범바위로 진출하여 연대를 포위하려고 하였다. 이에 연대는 범바위로 접근하는 적에게 집중사격을 가한 후 어둠을 이용하여 평산리(CR 6573) 방향으로 철수하였다.

이튿날인 11일, 연대는 연담리(CR 6571)에서 부대를 수습한 뒤에 제2사단 명령에 따라 장대리(CR 6266) - 화산리(CR 6509) 간에서 수도사단의 철수를 엄호하다가 08:30에 미호천을 건너 남으로 철수하였다.

제 3 장 청주 전투

1. 오근장 전투

가. 방어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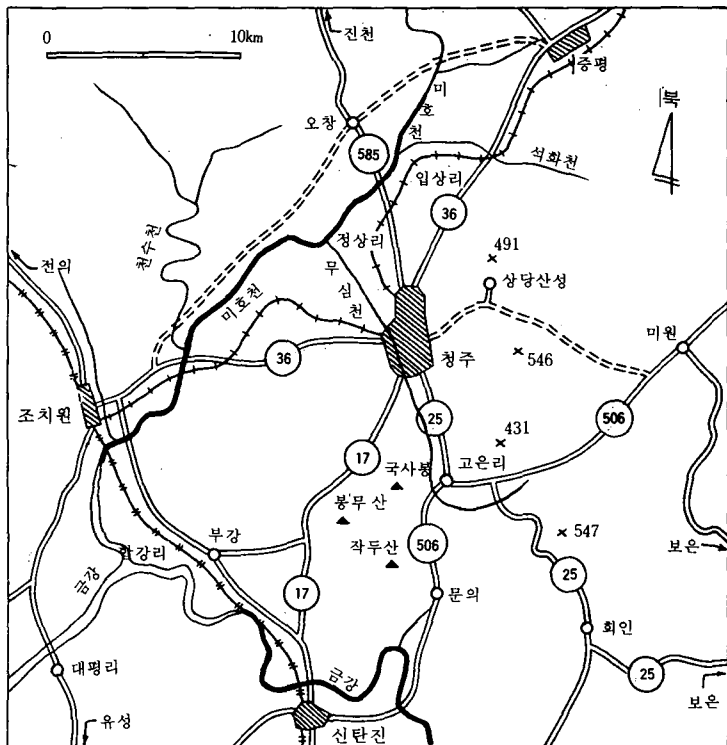
충청북도 도청소재지인 청주는 북·서·남 3방면이 평지이고 동쪽만 300m 내외의 고지군에 접한 지방행정 및 교통의 중심지이다.

청주를 통과하는 도로망으로서는 진천-청주를 연결하는 585번 도로, 청주-회인(CR 7438)-보은을 연결하는 25번 도로, 조치원-청주-증평-음성-충주를 연결하는 36번 도로, 청주-신탄진-대전을 연결하는 17번 도로가 있으며, 미원-고은리(CR 6646)-문의(CR 6640)-신탄진을 연결하는 506번 도로가 청주 남쪽 10km인 고은리에서 25번 도로와 교차한다.

지역 내의 주요 고지로서는 청주 동측에 491고지(CR 6958), 546고지(CR 7154), 남측에 431고지(CR 7049, 성무봉), 282고지(CR 6446, 국사봉), 346고지(CR 6145, 봉무산), 430고지(CR 6442, 작두산), 547고지(CR 7344) 등이 있다.

지역 내의 주요 하천으로서는 금강, 미호천, 무심천, 석화천 등이 있다. 금강은 덕유산 일대에서 발원하여 청주 남쪽 20km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다가 조치원 남쪽 10km 함강리에서 남서쪽으로

요도10 : 청주 지역 지형



굽어 공주 방향으로 향하고, 미호천이 북동에서 남서로 흘러 청주에 6km까지 근접하다가 조치원 남쪽 10km의 합강리에서 금강에 합류하며, 무심천은 청주시를 남에서 북으로 관류하여 청주 북서쪽 6km의 정상리에서 미호천에 합류하고, 석화천은 청주 북쪽 8km에서 동에서 서로 흘러 청주 북쪽 6km의 입상리에서 미

호천에 합류한다.

미호천은 하폭 20m, 수심 1~2m이고 유속은 완만하여 홍수기를 제외하고는 도섭이 가능하며 다만 하천이라는 심리적인 영향을 줄 뿐, 작전에는 커다란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 더구나 무심천과 석화천은 작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7월 10일 16:00경부터 문안산-봉화산 선에서 철수한 수도사단 주력부대는 이날 24:00경 미호천 남쪽의 북일국민학교(CR 649608)와 그 주변에 집결하였으며, 다음날인 11일 12:00경까지는 오근장역(CR 643619)을 중심으로 그 좌우측의 철로변을 따라 방어진지를 점령하고 진지구축에 들어갔는데, 수도사단의 방어진지 편성개요는 다음과 같았다.

수도사단 방어진지 편성(개요)

○ 제1연대

가. 사단의 중앙연대.

나. 오동리(CR 6361)-외하리(CR 6463)간을 점령방어.

○ 제8연대

가. 사단의 좌일선 연대.

나. 정하리(CR 6359)-정북리(CR 6360) 간을 점령방어.

○ 제18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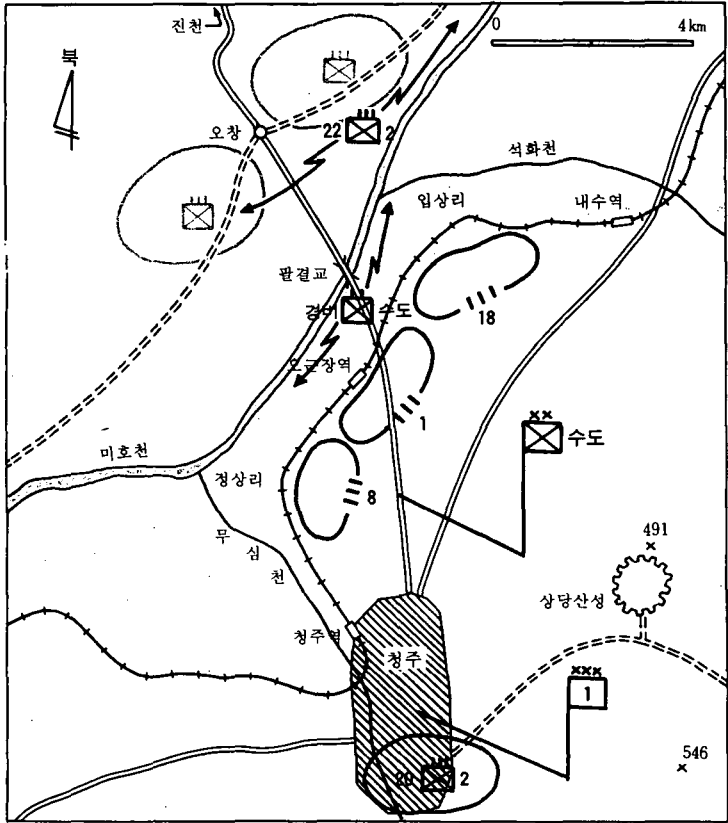
가. 사단 우일선 연대.

나. 입상리(CR 6563)-신안리(CR 6765) 간을 점령방어.

○ 제20연대

요도11

수도사단 진지편성 (7. 12)



- 가. 사단예비.
- 나. 청주시 영운동(CR 6553)에 집결대기.
- 사단경비대대
 - 가. 사단경계부대.

나. 팔결교(CR 640635) 좌우측의 미호천 남쪽 제방에서 경계임무 수행.

사단의 방어진지는 미호천 남쪽 제방에서 1~2km 떨어진 높지 않은 야산의 와지선에 편성되었으며 진지와 제방 사이는 논이었다. 사단은 이 방어진지에서 개활지에 노출될 적을 저지 격멸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진지는 평지나 다름없어서 지형의 이점이 별로 없는 진지였다.

한편, 수도사단이 철수하고 있을 때 제2사단(사단장 : 대령 이한림)은 군단장 명에 따라 미호천 북안에 경계배치를 하고 있었는데 제22연대*는 과정리(CR 6264) - 장대리(CR 6266, 오창 면소재지) - 화산리(CR 6569) 선에, 제5연대는 여천리(CR 6670) - 연담리(CR 6571) - 152고지(CR 6673) 선에 전개하여 경계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문안산 - 봉화산 선을 돌파한 북괴군의 주력부대는 전차를 앞세워 585번 도로를 따라 진천 - 오창(CR 6266) 방향으로 진출하고, 일부병력은 양천산(CR 6374) - 오창 방향으로 전진하였는데 11일 06:00에는 오창에 출현하여 제22연대 병력과 교전하게 되었다. 북괴군이 오창 일대에 진출하자 제2사단 병력은 접촉을 유

* 제22연대 : 국일명(육) 제2호(국군재편성계획 1950.7.5)에 의거 제1사단에 흡수 통합하게 되어 있었으나 그후 하달된 보류지시에 따라 통합을 하지 않고 제2사단의 통제하에 있었다. 제22연대는 그후 국일명(육) 제15호(1950.7.17)에 의거, 부대재편과 더불어 제2사단에 편입되었고 국일명(육) 제20호(1950.7.21)에 의거 원 소속인 제3사단에 복귀하여 영덕 전투에 투입된다.

지하며 08:00경 미호천 남안으로 철수하였다. 제2사단은 이날 조치원이 적의 공격을 받음에 따라 군단 좌전방에 배치되어 좌측방으로부터의 위협에 대비하였다.

한편, 북괴군 제2사단은 이날중으로 약 2개 연대 병력으로 추산되는 3,000여 명을 오창 북동 3km의 불당산(CR 6261, 246m)과 오창 남서 2km인 229고지(CR 6065)에 전개하여 진지를 구축하면서 도하준비를 하였다.

북괴군이 오창까지 진출한 것을 알게 된 수도사단은 제1군단에 항공지원을 요청한 결과 11일 08:30부터 F-51전투기 2개 편대(8대)가 오창 및 미호천 일대에 공중공격을 하였는데, 피아구별을 잘못된 이들은 09:40에는 수도사단 진지를 공격하기도 하였다.

수도사단은 군단지시에 의거 13:40에 사단전방의 미호천 교량인 팔결교를 폭파하였고, 14:00경에는 항공지원을 다시 요청하여 오창 일대에 집결하는 적을 재강타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수도사단은 이날(7월 11일) 한편으로는 진지를 구축하는 등 방어준비를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동안 급박한 전황으로 인하여 실시하지 못한 제1연대와 제9연대와의 통합작업을 실시하였다. 제1연대(연대장: 중령 이희권)는 국군재편성계획(1950.7.5)에 의거 북일국민학교에서 제9연대(연대장: 대령 윤춘근)를 흡수통합하게 되었는데, 제1연대장병으로 제1대대(대대장: 대위 유상재)를, 제9연대장병으로 제2대대(대대장: 소령 유항박)를 우선 편성하고 나머지 병력으로 제3대대를 편성하였으며, 이희권 중령이 연대장이 되고 윤춘근 대령은 사단 참모장이 되

었다.

이날 청주시는 군단사령부 외에도 수도사단, 제2사단과 수개의 연대지휘소 및 보급시설들이 여기저기 산재해 있을 뿐만 아니라 서전에서 분산 낙오한 많은 장병들이 속속 모여들어 시내에 매우 혼잡하였다.

7월 12일은 새벽부터 날씨가 흐리더니 오후에는 소나기가 내렸다. 적은 전날 두 차례의 공습으로 큰 타격을 받았으나 이날 10:00경부터는 정찰대를 파견하여 미호천의 도섭가능여부 및 도하지점을 탐색하였고 14:00경에는 화산리에 200고지 후사면에서는 도하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 1개 연대 규모의 병력이 집결하고 있었다. 적의 집결상황을 확인한 사단장 김석원 준장은 군단에 요청하여 가용한 105mm 곡사포 11문을 동원하여 집중사격을 가하였다. 이 포격으로 집결중이던 1개 연대병력은 800여명의 사상자를 내고 분산되었다. 이때의 광경을 수도사단에 배속되었던 포병중대장 김찬복 대위는, “관측장교 박승옥 소위는 얼마나 신바람이 났던지 파리가 약을 먹고 떼죽음을 당하는 것 같았다고 표현하였고, 나 자신도 오랫동안 적을 통쾌하게 섬멸하게 되어 처음으로 포병에 몸담은 것을 기쁘게 생각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적은 포격으로 인한 손실에도 불구하고 어둠이 깔린 21:00경에 또다시 도암리(CR 6365), 팔결교 및 석우리(CR 6262) 일대에서 도섭가능 지점을 탐색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아군 포탄세례를 받고 곧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나. 청주시가전 작전협의

이날(7월12일), 군단지휘소에는 제1군단장 김홍일 소장, 수도사단장 김석원 준장, 제2군단 창설* 및 작전협의차 이곳을 방문한 육본참모부장 김백일 대령, 제20연대장 박기병 대령 등이 청주시 고수여부에 관하여 협의를 하게 되었다. 이때 김석원 준장은,

“청주는 교통의 중심지이므로 적은 반드시 이곳을 통과한다. 만약 청주를 포기하면 적은 마음대로 포위나 우회작전을 할 수 있다. 적의 우세한 화력과 기갑력에 대항하려면 시가전 밖에 없다. 다소 병력의 손실을 보더라도 시가전을 전개하여 적을 청주시에서 저지하여야 한다.”

는 견해를 내세우며 시가전으로 청주를 고수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그외의 지휘관들은 시가전을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여 의견이 분분하였다. 이때 군단장은 말석에서 아무말도 하지 않고 있던 제20연대장 박기병 대령의 의견을 묻는 것이었다. 이에 박대령은,

* 제2군단 : 국일명(육) 제14호(1950.7.13)에 의거 1950년 7월 12일부로 제6사단 및 제8사단을 배속부대로 하여 경북 상주군 합창에서 창설되었으며, 7월 13일에는 육본참모부장 김백일 준장(50.7.12 진급)이 군단장에, 육본 인사국장 강영훈 대령이 참모장에 취임하였다.

“지금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부족하고 계속된 철수로 사기는 저하되어 있으며 심신도 몹시 지쳐 있습니다. 시가전은 특수전으로서 특수훈련을 필요로 하며 많은 희생을 각오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부대능력으로 시가전을 하기는 곤란합니다. 방어는 능선을 이용하는 것이 부하의 장악은 물론 지형의 이점을 이용할 수 있어 유리하며 장병들도 안심하고 싸워 줍니다. 지금은 미원리(CR 7954) - 피반령(CR 7243) - 마동리(CR 7040) - 문의(CR 6640) 선의 능선에서 방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여 청주시가전을 극력 반대함은 물론 미원-문의 선에서 방어하자는 의견까지 제시하였다. 이때의 상황에 대하여 박대령은 “조용하고 아름다운 교육도시인 청주시를 피바다로 만들고 싶지 않았다. 만약 그때 시가전을 벌였다면 목조건물이 대부분인 청주시는 불타고 수도사단은 포위되어 괴멸되었을 것이다.”라고 증언하였다.

군단장 김홍일 소장은 박기병 대령의 말을 들은 뒤 “청주시를 개방”하기로 결정하였는데 뒷날 이때의 심경을 다음과 같이 토로하였다.

“청주시는 시가전을 할 만한 가치가 없을뿐더러 청주를 고수하려면 좌측의 조치원을 방어해 주어야 하는데 이날 조치원이 적의 수중에 들어갔다. 그리고 청주는 북·서·남 등 삼면이 평지이고 동쪽에만 300m 내외의 산들이 있는데 청주시가

포위되어 남쪽으로 이어진 도로마저 차단된다면 시가전에 투입된 병력을 전부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어쨌든 병력이 거덜 나면 끝장이며 병력의 온존만이 후일을 기할 수 있으므로 청주시가전은 포기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청주 남쪽에서는 적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소신이었다.”

청주를 포기하기로 결정한 제1군단장은 이날 금강선으로 물러난 미군과 연결하여 청주 남쪽에 새로운 방어선을 구축하기로 하고 군단작전명령 제10호(1950.7.12)를 하달하여 철수준비를 하도록 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았다.

제1군단 작전명령 제10호(요지)

1. 군단은 일부병력을 이동하여 금강 남안으로 철수한 연합군과 연결하고 계속 적의 남진을 저지하려 한다.
2. 수도사단과 제2사단은 현선에서 적을 최대한 저지하고, 의명, 청주 남쪽 10km의 부강(CR 5443)－국사봉(CR 6446)－431고지(CR 7049) 선에 이동하여 제2사단을 좌, 수도사단을 우로 하여 이 선에서 적을 저지한다.
3. 제17연대(-2)는 수도사단과 행동을 같이하되 대전에서 출발예정인 제2대대는 군단예비로서 보은에 집결한다.
4. 제20연대는 7월13일 10:00부로 제2사단에 복귀한다.
5. 포병대대는 대대주력으로 수도사단과 제2사단을 지원하고 1개 중대를 7월 13일 10:00까지 제1사단에 배속한다.

6. 군단장은 7월 13일 18:00 이후에는 보은에 위치한다.

상기와 같은 군단명령을 받은 수도사단장은 관계참모로 하여금 이에 대한 준비를 하도록 하는 한편 예하부대에게는 경계강화 및 전투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하였다.

다. 오근장 전투 및 철수

북괴군 제2사단은 7월 13일 04:00경부터 공격준비사격을 실시하더니 30분 후에는 전차를 선두로 도하공격을 감행하였다. 적이 미호천에 접근하자 사단에서는 야포, 박격포, 기관총 등으로 맹사격을 가했으나 북괴군은 강행도하를 하여 제방으로 올라서고 있었다.

사단경비대대(대대장:소령 이기성)는 제2중대(중대장:중위 이동엽)와 제3중대를 남쪽 제방을 따라 배치하고 있었는데, 적의 야포 및 전차포사격으로 진지가 파괴되어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각 중대 정면에 1개 대대 규모씩의 적이 육박하여 오자 기관총과 소총사격으로 이들을 저지하려 하였으나 경비대대로서는 역부족이었다. 얼마 후 부대를 지휘하던 대대장 이기성 소령이 적탄에 맞아 전사하자 제2중대장 이동엽 중위가 대대지휘를 맡았다. 이중위는 밀려오는 적을 더이상 저지할 수가 없어 철수명령을 내렸다.

미호천 도하에 성공한 북괴군은 07:00경 2대의 전차를 앞세워

갖 재편성한 수도사단 중앙부대인 제1연대 진지로 접근하였다. 제1연대는 사단포병의 지원을 받으며 자체 가용화력을 총동원하여 약 2시간 동안 격전을 벌였지만 전투력의 열세로 적을 저지하지 못하여 진지가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이 전투에서 제3대대장 이철원 소령이 전사하자 부연대장 김황목 소령이 제2대대장에 임명되었다.

군단장 김홍일 소장은 이때 이곳에 나와 전투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는데 주저항선마저 무너지자, 이미 조치원이 적의 수중에 들어 있는 상황에서, 지형의 이점이 별로 없는 오근장 진지를 더 이상 고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수도사단장 김석원 준장에게 “10:00를 기하여 군단작전명령 제10호를 시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수도사단장은 “포병엄호하에 10:00부터 접적을 단절하고 고은리의 계획된 진지를 점령하라”는 철수명령을 하달하였다. 사단명령에 따라 사단중앙에 배치되었던 제1연대는 즉시 접적이탈하여 청주를 경유, 동일 16:00경 남일국민학교(CR 668481)에 집결하였고 20:00까지는 고은리 일대의 진지를 점령하였다. 사단 우일선인 제18연대는 접적 없이 있다가 철수명령을 받았는데, 적이 이미 제1연대의 진지를 돌파하여 남진하고 있어 청주로의 철수가 어렵게 되자 산간소로를 따라 청주 동쪽의 상당산성(CR 6958)을 경유, 20:00경에서야 은행리(CR 7047)에 집결하였다. 연대는 이곳에서 제1대대(대대장 : 소령 박사룡)를 370고지(CR 6948)에 배치하고 잔여병력은 집결, 숙영하였다. 사단좌일선 부대로서 비교적 청주시에 근접해 있던 제8연대도 접적 없이 있다가 철수

명령을 받고 청주시를 경유, 저녁때에는 270고지(CR 6346)-282고지(CR 6446, 국사봉) 일대에 진지를 점령하였다.

한편, 오근장 방어선을 돌파한 북괴군은 계속 진출하여 정오경에는 청주시를 점령하였다. 청주를 점령한 북괴군은 수색대를 파견하여 국군의 방어진지를 탐색하는 한편 공격을 계속할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다.

2. 국사봉-고은리-431고지 선 전투

가. 방어준비

오근장선에서 철수한 수도사단은 이날 저녁때에는 국사봉-고은리-431고지 선에 방어진지를 편성하였는데, 그 개요는 다음과 같았다.

수도사단 방어편성(개요)

○ 제1연대

가. 사단 중앙 연대.

나. 가산리(CR 6647)-고은리(CR 6747) 간을 점령방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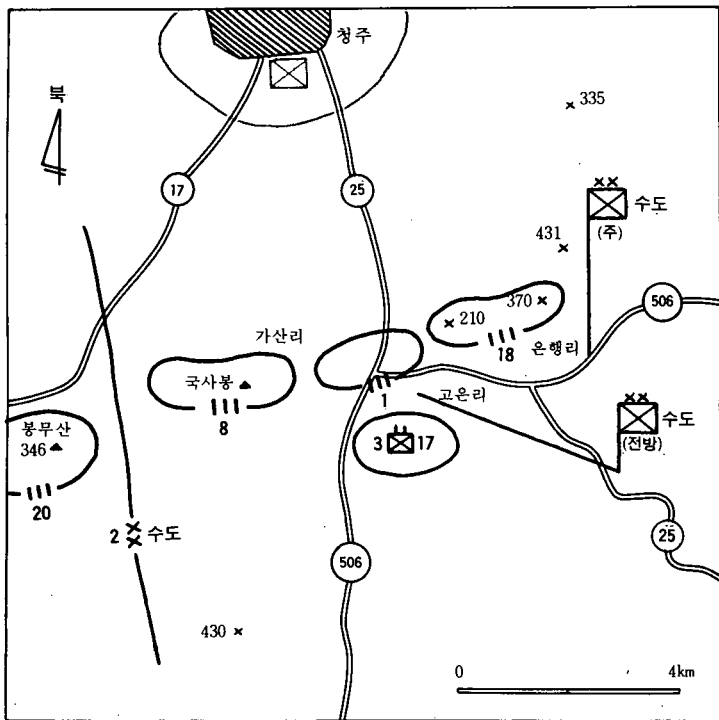
○ 제8연대

가. 사단 좌일선 연대.

나. 249고지(CR 6246)-282고지(CR 6446, 국사봉) 간을 점령

요도12

수도사단 진지편성 (7. 14)



방어.

○ 제18연대

가. 사단 우일선 연대.

나. 210고지(CR 6847) - 370고지(CR 6948) 간을 점령 방어.

○ 제17연대(-2)

가. 사단 예비.

나. 유관리(CR 6746)에 집결대기.

○ 사단지휘소

가. 주지휘소 : 은행리(CR 7047).

나. 전방지휘소 : 135고지(CR 6746).

각 연대는 이날(13일) 20:00경까지는 진지를 점령하여 방어태세에 들어갔으나 진지구축은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고 일부부대는 철수가 늦어져 진지점령을 하지 못한 채 숙영하기도 하였다.

제18연대(연대장 : 대령 임충식)는 오근장 진지에서 상당산성을 경유, 은행리로 철수한 까닭에 집결이 늦어져 제1대대(대대장 : 소령 박사룡)만을 370고지에 배치하고 제2대대(대대장 : 소령 장춘권)는 집결지에서 숙영후 14일 아침에서야 210고지(CR 6847, 태봉)에 배치하였다.

14일 아침, 제8연대(연대장 : 중령 이현진)는 282고지 북사면에서 대검과 민가에서 빌린 삽, 곡괭이로 진지를 구축하고 있었다. 이 무렵 이곳까지 진지구축상태를 확인하러 온 사단장 김석원 준장은 “만약 여기가 뚫리면 적에게 포위될 우려가 있으니 진지를 튼튼하게 구축하고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고수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병사들을 격려하였다. 이때 연대장 이현진 중령이 “연대의 실병력은 1개 대대 규모에 지나지 않으며 장비도 완전 편성시의 절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 넓은 정면을 막으려면 1개 대대가 더 필요하니 병력을 증원해 주십시오.”라고 병력증원을 건의하였다. 이에 사단장은 이날 아침 일찍 사단에 도착한 진주 독립대대(대대장 : 대위 박배근. 실병력은 1개 중대 정도임)를 제8연

대에 배속하였고, 연대장은 이를 제2대대(대대장 : 대위 정승화)에 재배속하였으며, 제2대대장은 이 부대를 대대 우측인 무심천 쪽에 배치하였다.

이와 같이 수도사단이 국사봉-고은리-431고지 선에 방어준비를 하고 있을 때, 사단좌측에서는 제2사단이 봉무산(CR 6145) 일대에서 방어준비를 하고 있었고, 우측에서는 제1사단이 미원(CR 7954) 일대에서 방어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제2사단 제20연대(연대장 : 대령 박기병)는 안심사(CR 5845)-봉무산(CR 6145) 간에 진지를 구축하고 있었고 제1사단 제11연대(연대장 : 중령 권동찬)는 은행리 동쪽 6km인 추정리(CR 7650) 일대에 진지를 준비하고 있었다.

나. 제 1 일차 전투

(1) 고은리 전투

14일 아침, 청주를 점령한 북괴군 제2사단은 정찰활동을 재개하여 아군의 방어진지를 탐색하다가 오후에 일부부대는 청주-고은리 방향으로 남진하고 다른 일부부대는 청주-부강(CR 5443) 방향으로 남서진하는 등 2개 방향으로 전진하였다.

이날 14:00경, 북괴군 선두부대는 4대의 전차를 앞세우고 도로를 따라 남일국민학교 전방 1km까지 접근하였다. 이에 사단의 105mm 야포와 제1연대의 81mm 박격포가 포문을 열었고 제18연대 박격포까지 사격에 가담하였으며 남일국민학교 동쪽의 제1

연대 경계진지에서는 기관총과 소총으로 사격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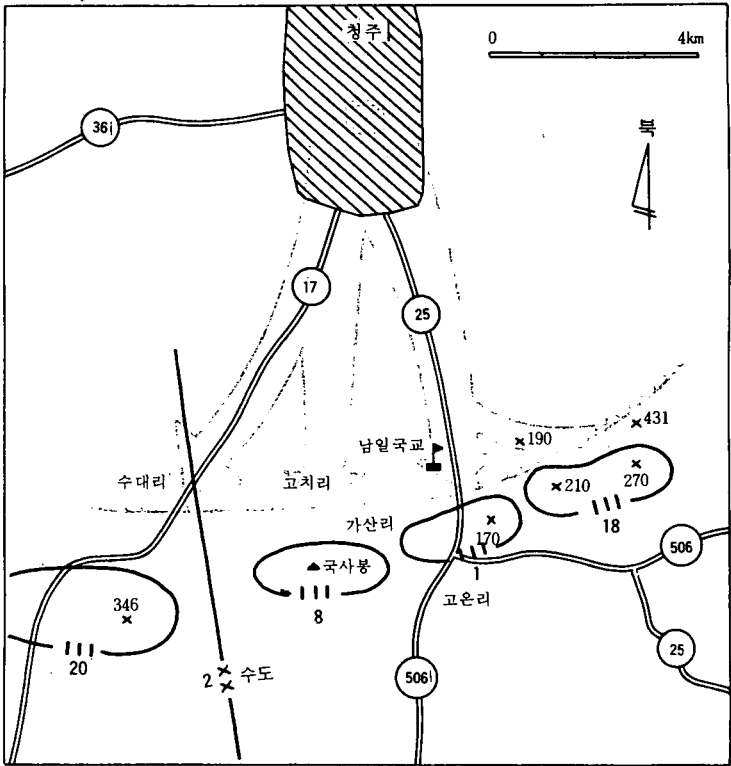
집중사격을 받은 북괴군은 얼마동안 전차포와 야포 및 박격포 사격으로 대응하였지만 치열한 사격하에서는 전진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한듯 도로 동쪽 1km의 25번 도로를 통제할 수 있는 190고지(CR 680490)를 점령하려고 하였다.

210고지에 있던 제18연대 제2대대장 장춘권 소령은 적이 전차를 앞장세워 도로를 따라 공격하자 중화기중대장 이용준 중위(육사 8기)에게 “적을 제압하라”고 명령하였다. 이에 이중위는 자신이 직접 능선 위에서 적 전차에 포탄을 유도하면서 사격지휘를 하고 있었다. 이중위의 사격지휘로 적 전차에 박격포탄이 집중되자 선두전차가 전진을 멈추었다. 그러자 후속전차들이 목표물을 찾은 듯 제18연대 제2대대를 사격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때 적 전차 포탄 1발이 이용준 중위가 있던 곳에 명중되어 순식간에 이중위의 모습이 없어졌다. 제2대대장은 이중위가 있던 곳 부근에서 TS-10 전화기를 쥐고 있는 손목만을 발견하였는데, 이로써 이중위는 사격지휘를 하다가 적 전차 포탄을 맞고 장렬하게 전사했음을 알게 되었다.

이와 같이 제2대대가 적 전차와 포격전을 전개하고 있을 때, 적이 대대의 방어진지 정면인 190고지를 점령하려 함을 알게 된 대대장 장춘권 소령은 제7중대장 우덕수 중위에게 “신속히 기동하여 앞산(190고지)을 점령하라”고 명령하였다. 이에 제7중대는 1km의 거리를 단숨에 약진하여 190고지를 선점하게 되었다. 그러나 제7중대가 각종 화력지원하에 공격하는 북괴군을 감당할 수 없어 고전하게 되자 상황이 불리하다고 판단한 대대장은 제7

요도13

북괴군의 공격 (7. 14)



중대장에게 “원위치로 철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190고지를 점령한 북괴군은 일부병력을 능선을 따라 동진시켜 이 지역의 요지인 431고지(CR 7049, 성무봉)를 저항 없이 점령하여 버렸다. 431고지는 사단방어진지를 감제하는 가장 높은 고지였으나 사단방어선의 맨우측에서 1km 가량 앞으로 떨어져 있어

서 제18연대는 이곳에 병력을 배치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다가 적이 431고지를 점령하자 그 중요성을 뒤늦게 알아챈 제18연대장은 이곳 남방 1km의 370고지(CR 6948)에 배치된 제1대대에 “431고지를 탈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공격명령을 받은 제1대대는 적이 진지를 강화하기 전에 105mm 야포와 81mm 박격포 지원하에 공격을 개시하여 이를 점령하였다.

밤이 되자 북괴군은 190고지에서 남서쪽으로 능선을 따라 진출하여 그 하단에 경계진지를 점령하고 있던 제1연대 제2중대를 공격하였다. 제2중대는 적의 야간기습을 받고 연대 주저항선인 170고지(CR 675474)로 물러섰다. 당시 제2중대 제1소대장이었던 박종희 중위(육사 8기, 대령 예편)는 “남일국민학교 옆 고지를 점령하고 있다가 밤에 기습을 받고 고은리로 철수했다”고 증언하였다.

제2중대가 철수하고 적이 남일국민학교 일대를 점령함으로써 제1연대는 500m 거리에서 적과 대치하게 되었다.

(2) 국사봉 전투

17번 도로를 따라 청주-부강 방향으로 남진하던 북괴군 제2사단 예하부대는 제8연대의 강력한 저항을 받고 병력을 전개하였는데 15:00경에는 수대리(CR 6147)-고치리(CR 6348) 선에 육박하고 있었다.

연대의 주력인 제2대대 장병들은 1개 대대 규모의 적과 사격

전을 전개하면서 진지를 고수하고 있었다. 그런데 제5중대장 안태갑(육사 8기, 준장 예편) 중위가 얼마쯤 교전하다가 우측의 진주독립대대 진지를 관찰해 보니 그들은 전투경험이 부족해서인지 주변에서 포탄이 마구 터지자 진지를 이탈하려고 하는 것이었다. 이에 그는 그들이 철수해 버리면 우측방이 노출되기 때문에 동대대로 달려가져 대대장 박배근 대위에게 “우리가 합심하면 저 정도의 적은 능히 격퇴시킬 수 있으니 병사들을 진정시켜 같이 싸웁시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힘을 얻은 박대위는 이탈하려고 하는 부하들을 독려하여 사격을 계속하게 함으로써 적의 전진을 저지하였다.

북괴군은 공격이 저지되자 소대규모의 돌격조를 편성하여 투입함으로써 근접전이 전개되기도 하였으나 제2대대는 이들의 공격을 모두 저지하였다. 제2대대장 정승화 대위는 적을 완전히 격퇴시키려고 진주독립대대에게 공격명령을 내렸으나 이들이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아 그 공격은 무위로 돌아갔다. 이에 대하여 정승화 대위는 “배속된 부대라는 것은 꾀만 부른다. 진주독립대대가 몇 번 공격을 시도하다가 그만두어서 공격은 실패하였다.”라고 말하였다.

전투가 약간 소강상태로 접어들자 제5중대장 안태갑 중위는 밤이 되면 적은 반드시 공격할 것으로 판단하고 “적이 야습을 감행한다면, 우리는 유·무선 통신망도 구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 각개 격파당할 우려가 있으니 국사봉으로 철수하여 밀집방어태세를 갖추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대대장에게 건의하였으나, 대대장은 “사단장이 강조한 선을 대대장 임의로 물러날 수

없다. 그대신 야간경계를 철저히 하라.”고 하였다.

밤이 되자 북괴군은 예측한 대로 박격포 사격을 하면서 공격을 재개하였으며 급기야는 수류탄전을 전개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안태갑 중위는 공격을 격퇴하기 위해서는 수세일변도의 방어만을 할 게 아니라 공세를 취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중대원들에게 “공격 앞으로!”를 외쳤으며 중대원들이 공격해나가자 그 자신도 몸을 일으켜 전진해 나갔다. 중대장이 진지를 뛰쳐나가자 제1소대장 김용건 중위가 그 뒤를 따랐는데 이때 적 포탄 1발이 중대장 주변에서 터져 중대장과 제1소대장이 동시에 쓰러졌다. 이때 중대 배치선 50m 후방에서 대대를 지휘하고 있던 대대장이 달려와 제5중대를 수습하고 공격해 오는 적을 가까스로 저지하였다. 부상을 입은 중대장과 제1소대장은 곧 후송되었는데 적을 격퇴하고 중대원을 점검해 보니 90여 명의 중대원이 30여 명으로 줄어들었다.

이날밤 북괴군은 많은 피해를 입고 공격에 실패하자 일단 뒤로 물러섰다.

(3) 사단의 지휘조치

적이 14:00경부터 전차를 앞세워 2개 방향에서 공격을 개시하자 사단장 김석원 준장은 군단에 항공지원을 요청하여 적의 공격기세를 분쇄하려고 하였으며 아울러 병력지원을 요청하였다. 이 결과 18:00경에 F-51전투기 1개 편대(4대)가 나타나 공격중인 북괴군을 강타하는 한편 후속부대로 보이는 청주에서 남하하

고 있는 1개 대대 규모의 적을 공격하였는데, 이동중인 이 부대는 많은 사상자를 내고 분산되었다. 그런데 이 전투기들은 피아식별을 잘못하고 제18연대 진지에 기총소사를 하는가 하면 제2사단 제16연대를 마구 공격하여 2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수도사단의 병력지원 요청을 받은 제1군단은 군단예비로서 보은에 대기중인 제17연대 제2대대(대대장 : 소령 송호림)를 수도사단에 배속 조치하였다. 이에 앞서 제17연대 제2대대는 정부와 육군본부가 있던 대전의 치안유지를 하다가 공주와 대평리의 금강변에 경계 배치되어 있던중 미 제24사단과 임무를 교대하고 작일(13일) 보은에 도착해 있었다. 배속명령을 받은 이 대대는 15일 08:00에 차량 행군으로 수도사단에 도착하였다.

이날(14일) 사단에서는 제1연대장과 사단참모장이 교체되는 인사이동이 있었다. 지난 11일에 오근장에서 제1연대와 제9연대의 통합시 이희권 중령이 계속 제1연대장이 되고 제9연대장이었던 윤춘근 대령은 사단참모장이 되었었는데 그후 선임인 윤춘근 대령이 연대장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이희권 중령의 “연대장 교대” 건의를 사단장이 수용함으로써 윤춘근 대령이 제1연대장에 새로 부임하고(육본명령은 7월 15일 부임) 이희권 중령은 군단 사령부로 전출되었다. 그리고 이 날짜로 사단장이 참모장 요원으로 요청하였던 제1사단 제11연대장이었던 최경록 대령이 사단에 당도하여 사단참모장에 보직되었다. 이러한 관계로 제1연대의 지휘체제가 다소 혼선을 빚기도 하였다. 사단장이 작전참모 요원으로 지명한 제1사단 작전참모인 김덕준 소령도 최경록 대령과 함

께 이날 사단에 당도하였다.

다. 제 2 일차 전투

(1) 제17연대의 공격계획

7월 15일 아침, 북괴군 제2사단은 전날의 공격에 이어 제1연대와 제8연대 정면에 포격하는 등 공격재개를 준비하고 있었으며, 약 2개 대대의 병력이 청주에서 남하하고 있는 것이 관측되었다.

이에 사단은 집중포격을 가하여 적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고 남하하는 부대를 분산시켰다. 그러나 분산된 적은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 10:00경에 공격을 재개하였다. 제1연대는 적의 공격을 받고 선전분투하였으나 점차 어려운 상황에 빠져들고 있었으며 좌측의 제8연대도 고전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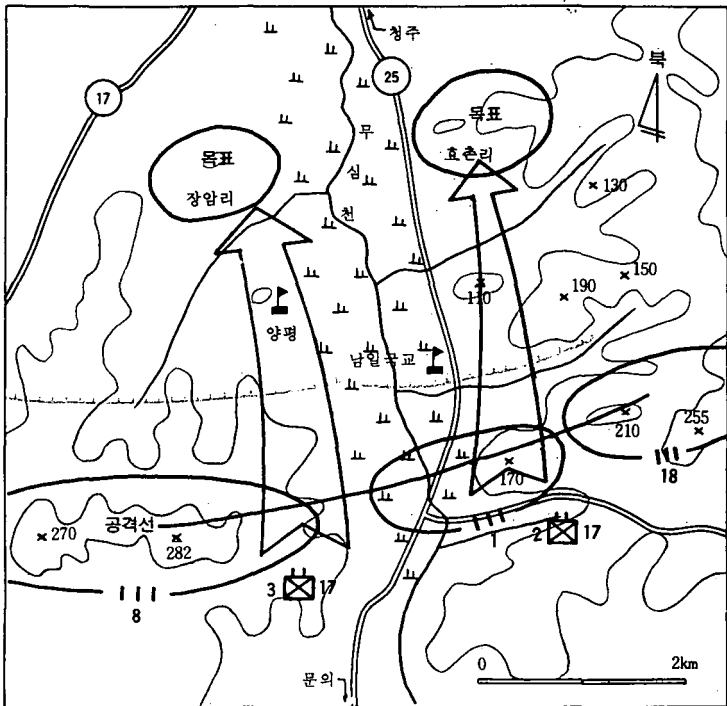
한편, 이날 08:00경에 제17연대 제2대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차량으로 도착하였다. 평소 방어보다 공격을 중요시하고 있던 사단장 김석원 장군은 제17연대 제2대대가 도착하면 제17연대(-1)로서 공세를 취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다.

제2대대장 송호림(육사 3기, 중장 예편) 소령이 사단장에게 도착신고를 하자 사단장은,

“마침 잘 왔다. 귀부대는 지금부터 공격하여 이곳(남일국민학교)의 적을 섬멸하고 청주 쪽으로 공격을 계속하라. 적의 규

요도14

제17연대의 공격계획 (7. 15)



모는 1개 중대다. 그러니 대대 주력은 정면에서 공격하고 1개 중대로서는 이렇게 우측방으로 우회공격하라.”

고 직접 공격명령을 내리면서 공격요령까지 지시하는 것이었다.

도착하자마자 사단장의 공격명령을 받은 제2대대장이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연대장 김희준 중령이 나타났다. 김희준 중령은

그간 사단장과 행동을 같이하고 있어서 그의 의도를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사단장으로부터 공격명령을 받은 바 있었다. 연대장은 제2대대장 송호립 소령과 제3대대장 오익경(육사 2기, 대령 예편) 소령을 불러 피아의 상황을 설명하고, 다음과 같은 요지의 명령을 하달하였다.

제17연대의 공격명령(요지)

1. 연대는 7월 15일 13:00에 제1연대와 제8연대를 초월공격, 적을 장암리(CR 6449)-효촌리(CR 6749) 선으로 격퇴시키려 한다.
2. 제2대대 : 연대 우일선으로서 제1연대를 초월공격, 효촌리를 점령하라.
3. 제3대대 : 연대 좌일선으로서 제8연대를 초월공격, 장암리를 점령하라.
4. 공격개시선은 282고지-고은리-210고지 선이다.

연대장의 공격명령을 받은 양대대장은 즉각 공격준비에 착수했으며, 주민들의 도움으로 만든 주먹밥으로 요기를 하면서 공격개시선에 전개하였다.

(2) 효촌리 전투

연대 우일선인 제2대대는 13:00에 105mm 야포와 81mm 박격

포 지원하에 제5중대(중대장 : 중위 이일수)를 좌, 제7중대(중대장 : 중위 조경학)를 우, 제6중대(중대장 : 중위곽성범)를 예비로 하여 제1연대와 제18연대를 초월공격하였다. 이때 대대장 송호림 소령은 정면으로 공격하는 제5중대와 예비인 제6중대는 자신이 직접 지휘하고 우측에서 우회기동하는 제7중대는 작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부대대장 이동호(육사 5기) 대위가 지휘하도록 하였다. 부대대장이 제7중대를 지휘하게 되자 원래 중대장이었던 조경학 중위는 화기소대장이 되었다.

제5중대는 박격포 사격지원하에 제1연대진지인 170고지(CR 675474)를 출발하여 남일국민학교를 향해 약진해 나갔으나 국민학교 못미처에 있는 소하천에 이르렀을 때 적 진지에서 기관총탄이 비오듯 날아와 소대장 1명과 10여 명의 병사가 쓰러지는 바람에 공격이 둔화되었다. 170고지에서 지휘하고 있던 제2대대장은 몇 번에 걸쳐 연락병을 보내어 “빨리 돌격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나 제5중대는 더이상 공격을 못하고 있었다. 이에 대대장은 예비인 제6중대장에게 “제5중대 쪽으로는 전진이 곤란하니 그 우측으로 공격하여 190고지를 점령하라”고 명령하였다.

대대관측소에서 제6중대가 공격하는 것을 확인한 대대장은 제5중대를 독려하여 공격을 계속하게 하려고 하였다. 대대장이 제5중대 지역에 달려가 보니 불과 200~300m 전방의 적진지에서 기관총탄이 무수히 날라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2대의 전차까지 사격에 가담하고 있어 도저히 몸을 일으켜 공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때서야 비로소 이곳이 적의 화력집중점이란 것을 깨달은 대대장은, 제5중대로서는 적을 고착견제만 하도록 하고 제6중

대로서 190고지를 점령하기로 결심하였다. 이리하여 대대장이 우전방을 살펴보니 제6중대도 진출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대대장은 제6중대의 공격을 독려하려고 기관총탄이 비오듯 하는 약 200m의 개활지를 구간약진으로 뛰어갔다. 대대장이 직접 전투현장에 나타나자 제6중대 병사들은 용기 백배하여 돌격을 감행하였으며, 이윽고 적의 저항을 물리치고 15:00경에는 목표인 190고지를 점령하였다.

제6중대가 190고지를 점령하자 이 고지의 하단부인 남일국민학교 일대에서 저항하던 북괴군은 포위되는 것을 피하여 북쪽인 효촌리 방향으로 철수하였다. 최초 목표를 점령한 제5중대와 제6중대는 효촌리 방향으로 공격을 계속했으나 치열한 적의 사격으로 1km 정도의 개활지를 횡단하지 못한 채 110고지(CR 673491)에서 진출이 저지되었다. 제17연대 제2대대가 남일국민학교 일대를 점령하자 제1연대 부대들이 진출하여 그곳에 병력을 배치하였다. 이에 관하여 제1연대 제2중대 제1소대장 박중희 중위는 “남일국민학교 옆 진지에서 있다가 밤에 기습을 받고 고은리로 철수했다가 그 다음날에 제17연대 어느 부대와 같이 공격하여 그 고지를 다시 빼앗았다.”고 합동공격이었음을 주장하였다.

한편, 제18연대 제2대대 진지인 210고지에서 공격을 개시한 제7중대는 190고지 동측의 152고지(CR 687492)를 경유, 별 저항 없이 효촌리 동쪽인 송암리의 130고지(CR 682498)를 점령하였다. 제7중대가 130고지를 점령하자 허를 찔린 북괴군은 아군이 진지를 강화하기 전에 이 고지를 탈환하기 위하여 역습하여 왔다. 대대 주력의 진출이 저지당해 고립상태가 된 상황에서 중대

가 적의 공격을 받게 되자 부대대장 이동호 대위는 방어구역을 할당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하기 위하여 “소대장들을 집합시키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때 화기소대를 지휘하고 있던 조경학 중위는 부대대장의 “집합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접근하고 있는 적을 저지하기 위하여 직접 기관총을 사격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대대장 지시에 따를 수가 없었다.

이동호 대위는 집결된 3명의 소총 소대장에게 적을 저지하기 위한 명령을 내리고 있었는데 이때 적 포탄 1발이 그곳에 떨어져 부대대장 이하 소대장 3명이 전사하였다.

이때 죽은 제2소대장 오성욱 소위는 결혼하여 부인이 있었는데 모대학 교수였던 그 부인은 “전쟁이 끝난 후 당시 소대장 전령이 찾아와 오소위가 묻힌 곳을 알려주어 그 현장에 무덤을 새로 만들어 주었다.”고 말하였다. (출처 : 조경학 중위 증언)

상기와 같이 일시에 부대대장과 소대장을 모두 잃은 조경학 중위는 자신이 중대를 직접 지휘하여야 했으므로 하사관으로 소대장을 임명하고 접근하는 적을 저지하려 했으나 더이상 130고지를 고수할 수가 없어 4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채 이 고지에서 철수하였다.

제2대대장 송호림 소령은 190고지 일대에 방어태세를 굳건히 하도록 한 후 자신은 19:00경 대대관측소로 되돌아왔다. 그런데 어둠이 깃들무렵 경계진지로부터 “적이 전차를 앞장세워 전진하려고 한다.”라는 보고를 받았다. 이에 대대장은 “경계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한 후 연대지휘소로 달려가 연대장에게 “적 전차를 저지시켜 주십시오.” 하고 건의하였다. 이에 연대장 김희준 중령

은 현상황을 사단에 유선으로 보고한 후 제2대대장에게 “사단장께서 적 전차를 조치해 주겠다고 약속했으니 대대장은 안심하고 낮에 점령한 진지를 사수하라.”고 하였다. 대대장은 연대장으로부터 “사단장이 적 전차를 저지시키겠다고 약속했다.”는 말을 듣고 대대로 돌아왔다.

(3) 장암리 전투

제17연대의 좌일선인 제3대대(대대장 : 소령 오익경)도 제8연대 제5중대와 진주독립대대 병력 약 100여 명이 진지를 고수하고 있는 국사봉 동쪽 능선에 전개하여 13:00에 제9중대(중대장 : 중위 한홍)를 좌, 제11중대를 우, 제10중대를 예비로 하여 공격하였다.

제3대대가 공세를 취하여 앞으로 나아가자 적은 양평(CR 6548) 방향으로 철수하였다. 그러다가 북괴군은 양평국민학교(CR 653486) 부근에서 야포 및 박격포 지원하에 완강한 저항을 하더니 급기야 전차까지 동원하여 공격으로 전환하였다.

이때 F-51전투기 2개 편대(8대)가 나타나 제3대대를 공격하는 적을 강타하였으며, 청주에서 남하하고 있는 전차 13대를 발견하여 이중 9대를 파괴하기도 하였다. 이 공중공격 결과 적의 공격기세가 약화된 반면 아군의 사기는 충천하여졌다. 그런데 이 전투기들은 제3대대 진지까지도 공격하여 대대보급소가 파괴되는 등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 이에 사단은 1개 대대로써는 양평리 일대를 고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19:00경에 제3대대에

철수명령을 내렸다.

한편, 제8연대장은 사단에 추가 병력지원을 요청하였는데 제17연대 제3대대 제10중대를 배속받게 되었다. 이날밤 20:00경, 제8연대에 배속명령을 받은 제10중대(중대장 : 중위 박남종)는 배속신고차 현위치인 무심천변에서 약 1km의 논을 지나 제8연대장이 있는 국사봉까지 가게 되었다. 이때 중대장은 화기소대장 유치문(육사 8기, 대령 예편) 중위에게 침병소대 임무를 부여하였는데, 유중위가 “적정도 모르고 깜깜한 밤에 화기소대가 어떻게 침병소대가 될 수 있습니까?” 하고 반대하므로 이번에는 제1소대장 최태영(육사 8기) 중위에게 침병소대장 임무를 맡기려 하였으나 그도 “우리 소대만 침병을 서야 합니까?” 하고 불평하였다. 중대장은 “그럼 좋다. 내가 앞장서겠다.”고 하면서 중대본부 요원을 이끌고 논둑을 따라 서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뒤를 따라 제1소대, 제2소대 순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때 후미의 화기소대는 우물거리다가 앞소대를 잃어버려 낙오하게 되었다. 화기소대는 무심천변으로 되돌아와서 밤을 새운 후 이튿날(16일) 아침 일찍 서쪽의 비교적 높은 곳으로 이동하여 주변의 지형과 아군의 위치를 확인하고서야 국사봉으로 향하였다.

국사봉의 제8연대 지휘소에 도착한 유중위는 그곳에 먼저 와 있는 중대장을 만났는데, 그는 풀이 죽어 있었다. 그 이유를 알아본즉 어제밤 길을 잘못 들어 중대가 적 진지로 들어갔으며, 적과 육박전을 벌인 끝에 겨우 분산 탈출하기는 하였으나 제2소대장을 포함한 10여 명의 부상자를 냈다는 것이었다. 제10중대는

화기소대까지 모두 집결이 되자 제8연대장의 지시에 따라 방어선에 배치되었다.

라. 제 3 일차 전투

(1) 170고지 피탈

북괴군 제2사단(사단장 : 소장 최현)은 진천, 청주를 점령하고 대전공격에 참가할 예정이었으나 청주 남쪽에서 전진이 저지되었기 때문에 예하부대들에게 “빨리 진격하라”고 독촉하고 있었다. 이에 북괴군은 청주 공격 3일째인 7월 16일에는 청주-고은리(CR 6747), 청주-수대리(CR 6147), 청주-관봉(CR 699511, 390m)-성무봉(CR 701491, 431m) 등 3개 방향으로 공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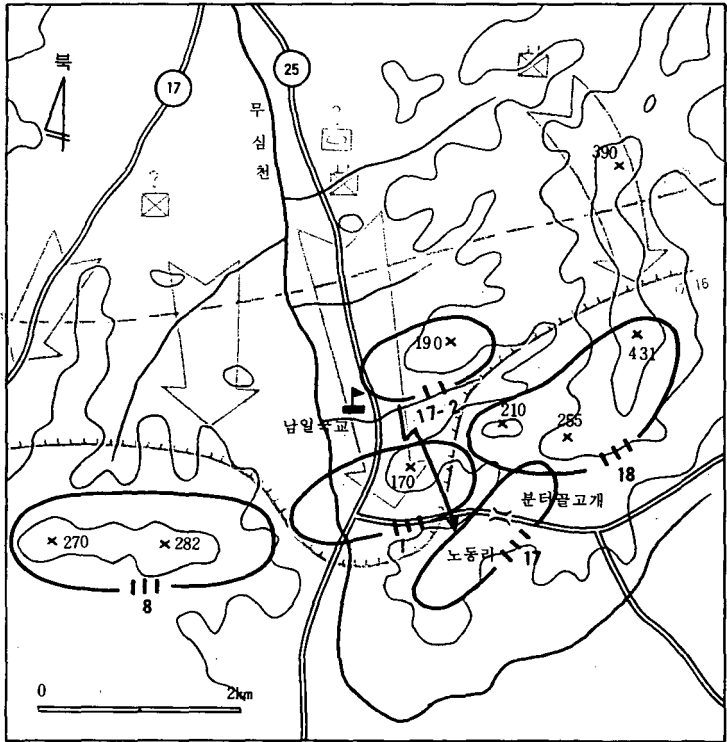
1개 대대 규모의 북괴군은 10:00경부터 청주에서 백운동(CR 6851)을 경유, 관봉으로 기어오른 다음 능선 접근로를 따라 성무봉으로 공격하였다. 성무봉을 방어하고 있던 제18연대 제1대대가 완강히 저항함으로써 격전이 전개되었으나 이들은 전차지원이 없는 북괴군의 공격을 능히 저지하였다.

전차를 동반한 또다른 1개 대대 규모의 북괴군은 같은 시각에 청주-고은리 방향으로 공격하여 190고지를 점령하려 하였다. 이 공격제대는 제17연대 제2대대의 완강한 저항으로 진출이 여의치 않자 전차 6대로 남일국민학교 부근까지 육박하면서 주변의 진지에 전차포를 쏘아대고 있었다.

지난밤에 제17연대로부터 “적 전차가 접근하면 조치해 달라”

요도15

북괴군의 공격 (7. 16)



는 건의를 받은 수도사단은 16일 아침 일찍이 57mm 대전차포중대(중대장:대위 허현)를 남일국민학교 부근에 배치한 바 있었다.

사단작전참모인 박경원(육사 6기, 소장 예편) 소령은 태봉(210고지)의 제18연대 관측소에서 대전차포중대를 통제하면서 전투의 진전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는 대전차포로써는 적 전차

를 파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개전초부터의 체험으로 알고 있었으나 이번에 배치된 57mm 대전차포는 대전에서 새로 보급받은 신형장비일 뿐만 아니라 지근거리에서 사격할 경우에는 적 전차를 파괴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그는 적 전차의 파괴가 병사들 사기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뿐만 아니라 방어 성공의 요체라 믿고 모험을하기로 하였다. 이리하여 대전차포 중대장에게 “위장을 철저히 하고 있다가 적 전차가 50m까지 접근했을 때 사격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군단에는 “사단요청시 즉각적인 항공지원으로 적 전차를 파괴해 줄 것”을 건의해 놓았다.

13:00경, 대전차포 중대장 허현 대위는 적 전차가 50m까지 접근하자 사격명령을 하달함으로써 4문의 57mm포가 불을 뿜기 시작하였다.

57mm포가 사격하자 적 전차도 응사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이때 사단의 요청에 의거 출격한 F-51전투기 편대가 나타나 기관총 사격과 함께 네이팜탄 공격을 하였는데 적 전차는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으며 불길에 녹아 내리거나 화재로 인하여 고철이 되는 것처럼 보였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병사들은 환성을 올렸고, 박경원 소령은 제18연대 작전주임인 고헌도(육사 3기, 중장 예편) 소령과 함께 만세를 부르고 서로 부둥켜안고 울음을 터트리기도 하였다. 그런데 불길이 꺼지고 조금 지나자 적 전차 6대중 1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으나 5대가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북쪽으로 도주하였다. 이때의 정경에 대하여 박경원 소령은 “맥이 탁 풀려 말문이 막혔다”고 말하였다.

공중공격으로 14:30경에 적 전차가 물러가자 진지가 폭로된

대전차포는 고은리 3거리 부근으로 철수하였는데 중대장 허현 대위는 적 전차와 교전시 애석하게도 전사하였다.

16:00경, 북괴군은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전차를 앞장세워 공격을 재개하였다. 이들은 그동안 190고지를 점령한 도보부대와 합세하여 25번 도로를 직접 통제할 수 있는 방어의 요지인 170고지(CR 6747)를 공격하였다. 이 고지에는 190고지를 피탈당하고 철수한 제17연대 제2대대가 제1연대와 함께 급편방어중에 있었다. 도보부대가 정면에서 공격하는 사이 적 전차는 과감히 전진하여 고은리 3거리에서 동쪽으로 돌아 170고지 후사면을 포격하였다. 그곳에는 대대관측소, 박격포 진지, 구호소 등 지휘통신 및 지원시설들이 있었는데, 전차포 공격으로 박격포 진지가 파괴되고 지휘체제가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제17연대 제2대대장 송호림 소령은 200m 거리에서 발사하는 전차포탄이 지근거리에서 폭발하자 대대지휘보다는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는게 더 급하여 차폐물이 있는 곳까지 200~300m를 뛰어가야 했다. 전차의 170고지 후방공격으로 제2대대는 무질서한 철수를 하게 되었고 많은 병사들이 살상당했으며 결국 17:30경에 170고지는 적의 수중에 들어갔다.

한편, 북괴군이 공격을 재개하자 사단은 군단에 항공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이곳에서 물러난 제1연대 및 제17연대 병력을 수습하여 노동리(CR 680460) - 분터골고개(CR 685470) - 시루봉(CR 693476, 255m) 선에서 적의 전진을 저지하려 하였다. 이때 사단에서 요청한 F-51전투기 편대가 나타나 공격하는 북괴군을 강타하였는데, 이들은 가끔 아군까지도 공격하여 많은 피해를 입히

기도 하였다.

(2) 국사봉 기습전

국사봉(282m)의 제8연대도 북괴군 제2사단 예하부대의 공격으로 고전하고 있었다. 제8연대는 장암리(CR 6449)-가산리(CR 6447) 방향으로 공격하는 북괴군에 대하여 예하대대와 배속된 진주독립대대로 저지하려 하였으나 이들 부대들의 전투력이 미약하여 점차 뒤로 밀리고 있었다.

14:00경, 연대장 이현진 중령은 더이상 뒤로 밀리면 방어거점인 국사봉을 내주어야 할 상황이므로 적에게 일격을 가하기로 하고 금일 아침에 새로 연대에 배속된 제17연대 제10중대에 공격명령을 내렸다. “적이 점령한 방어선 전방의 무명고지를 탈취하라”는 명령을 받은 제17연대 제10중대장 박남중 중위는 병력을 전개시켜 공격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때 이현진 중령이 이 중대를 방문하였으므로 박중위는 연대장에게 공격계획을 설명하게 되었다. 이때 200m 전방의 적 진지에서 기관총탄이 날라왔는데, 박중위는 하복부 관통상을 당하여 후송되었고 잠시 후에는 제3소대장 이기선(육사 9기) 소위도 부상당하여 후송되었다.

이리하여 제10중대는 지난밤에 제2소대장이 후송되었고 또다시 중대장과 제3소대장이 후송되니 장교로서는 제1소대장 최태용 중위와 화기소대장 유치문 중위 등 2명이 남았다. 이들 2명의 장교는 육사 8기로서 동기생이었는데 최중위가 군번이 빨라 선임이었으나 다리를 다쳐 절뚝거리고 있었다. 중대장의 유고로 중

대지휘 문제가 거론되었을 때 최중위는 유중위에게 “나는 몸이 불편하니 네가 중대를 지휘하라”고 하였으나 유중위는 “선임인 네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중대를 지휘하느냐” 하고 반대하자 최중위는 “그럼 내가 자리를 비켜 주겠다. 나는 후송하겠다.” 하고 중대를 떠났다.

이렇게 하여 화기소대장 이었던 유치문 중위가 중대지휘를 맡았다. 중대임무가 “공격”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유중위는 96명의 중대병력을 능선 후사면으로 약간 철수시킨 다음 3개 소대로 재편성하고 하사관을 소대장으로 임명하는 등 지휘체제를 먼저 구축하였다. 그리고 적의 박격포탄이 주변에서 작렬하는 가운데 다음과 같은 요지로 비장한 결의를 다졌다.

“내가 지금부터 중대장이다. 우리 중대는 공격명령을 받았다. 우리는 웅진반도에서 적의 기습공격을 받고 철수한 뒤 전투다운 전투 한번 못하고 여기까지 쫓겨왔다. 이제 대한민국 남아로서 싸울 수 있는 기회가 왔으니 우리 모두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칠 각오로 싸우자. 나는 너희들과 같이 싸우고 같이 죽을 것이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중대원들은 함성을 지르는 등 사기가 충천해졌다.

이와 같이 부대를 재정비하고 사기를 돋우는 데 시간이 걸려 벌써 어둠이 깃들고 있었다. 제10중대는 어둠 속에서 공격개시선에 전개한 후 중대장의 신호에 따라 일제히 함성을 지르면서 목

표를 향하여 뛰쳐나갔다. 제10중대는, 1개 소대는 목표 정면으로 공격하고 2개 소대는 목표 좌·우측으로 공격하여 포위형태를 취하였다. 지금까지 국군으로부터 야간공격을 받아 본 경험이 없는 이 북괴군은 기습적인 야간공격을 받게 되자 당황한 듯 “아군이니 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었다.

이에 중대장은 암구호로서 피아를 식별하기로 하고 “00”이라고 암구호를 물었다. 이날의 암구호는 아군은 “00” “77”이었고, 북괴군은 “자동소총” “벤또바꼬”이었다. 그런데 목표상으로부터 “벤또바꼬”란 답변이 나오자 유중위는 “적이다. 쏘라”고 명령하였으며 제10중대원들은 일제히 합성을 자르고 돌격사격과 수류탄 투척을 하면서 목표상으로 돌진해 들어갔다. 이에 적군들은 제대로 저항해보지 못한 채 섬멸되었다.

제10중대가 목표를 점령하고 보니 수많은 시체가 고지 주변에 널려 있었는데, 그 수가 1개 중대 규모를 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노획무기로서는 기관총 9정(수냉식 기관총 3정, 체코식 기관총 6정), 소총 67정이나 되었다. 이때 어떤 기관총 사수는 기관총 옆에 박혀 있는 말뚝에 발목이 묶여 있는 상태로 죽어 있기도 하였는데, 이는 적들의 비인간적인 독전상황을 설명해 주는 장면이었다. 제10중대의 피해는 전사 3명, 부상 3명 등 전과에 비해서는 매우 경미한 손실이었다.

유중위는 노획품을 연대로 후송한 후 진지를 확보하고 있었는데 02:00(17일)경, 연대로부터 “철수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중대는 전사한 전우를 현진지에 묻고 전 중대원이 묵념으로 그들의 명복을 빌어준 후 곧 공격을 시작했던 위치로 철수하였다. 제

10중대는 그후 제8연대를 따라 철수를 계속하여 보은의 모국민 학교에 집결하였다.

보은에서 사단장 방문시, 연대장 이현진 중령이 “이 중대가 어젯밤 혁혁한 전공을 세운 유치문 중대입니다.”라고 소개하니, 사단장은 “참 잘 싸웠다. 너희들같이 용감한 병사들은 참으로 훌륭하다.”고 칭찬하면서 “중대원 전원에게 훈장을 주라.”고 관계참모에게 지시하였다. 그러나 행정착오인지 어쩐지 훈장은 끝내 받지 못하였다. 제10중대는 보은에서 원대복귀하였다.

3. 철수작전

가. 군단 지휘조치

제1군단장 김홍일 소장은, 7월 16일 아침에 북괴군이 수도사단, 제1사단, 제2사단 등 군단 전 정면에서 공세를 취함은 물론 좌측방인 경부국도상의 대평리(CR 4537) 일대에서도 금강을 도하 공격하는 등 총공세를 취하자, 항공지원 요청을 하는 등 적의 공격을 저지하는 데 안간힘을 쓰는 한편, 전세의 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었다.

이날 군단 우전방 부대인 제1사단은 거리고개(CR 8560)에서 북괴군 제15사단의 공격을 저지하였으나 군단 중앙부대인 수도사단은 국사봉과 190고지(CR 6748)에서 북괴군 제2사단과 격전을 벌이고 있어 언제 방어선이 돌파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군

단 좌전방 부대인 제2사단도 봉무산(CR 6145)에서 역시 고전하고 있었다. 그리고 금강 남안에서 방어하고 있던 좌측방의 미 제24사단 제19연대는 대평리 일대에서 미명에 감행한 북괴군 제3사단의 도하공격을 저지하지 못하고 부대가 지리멸렬되어 유성쪽으로 철수하고 있어서 군단 좌측방이 노출되었다. 또한 7월 14일에 공주에서 금강을 도하한 북괴군 제4사단은 미 제24사단 제34연대를 격파하면서 논산으로 남진하고 있었다. 이로써 군단 좌측방에서는 북괴군이 대전을 서쪽과 남쪽에서 포위할 태세를 취하고 있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군단장은 비교적 접적이 경미한 제2사단을 제20연대장이 주장한 바 있는 염티재(CR 7035)-547고지(CR 7344)의 험준한 횡격실 능선에 재배치하여 대전의 미 제24사단과 전선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는 한편, 격전중인 수도사단은 보은으로 철수시켜 군단예비로 전환하려고 하였다. 이때 군단은 육군의 유일한 예비대인 “제17연대를 7월 16일 24:00부로 제2군단으로 배속전환한다.”라는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47호(50.7.16)를 접수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요지의 군단작전명령 제12호를 하달하였다.

제 1 군단 작전명령 제 12 호(요지)

1. 군단은 일부병력을 이동하여 대전으로 철수하는 연합군과 연결하고 계속 적의 남진을 저지하려 한다.
2. 제1사단은 현임무를 계속 수행하고 의명, 국사봉(CR 7749,

- 587m)－마동산(CR 8254, 546m) 간을 점령 방어하라.
3. 제2사단은 문의(CR 6640) 북방에서 적의 진출을 저지하다가 야간이동하여 군단 좌일선 부대로서 17일 06:00까지 염티재(CR 7035)－547(CR 7344) 간을 점령 방어하라.
 4. 수도사단은 현선에서 철수하여 7월 17일 12:00까지 보은에 집결하고 군단예비가 되어 차후 명령을 대기하라.
 5. 제17연대는 육본계획에 의거, 7월 16일 24:00부로 배속해제와 동시 제2군단에 배속한다.

상기와 같은 군단명령에 따라 문의(CR 6640)에 지휘소를 두고 있던 제2사단은 즉각 행동을 개시하였다. 사단예비로서 문의 남서쪽 2km 덕유리(CR 6439)에 있던 제16연대(연대장:대령 문용채)는 문의 북동쪽의 210고지(CR 6642)－225고지(CR 6945)에 전개하여 적의 남진을 저지하다가 그 뒤쪽의 피반령(CR 7243)을 점령하여 고은리－회인(CR 7438)을 연결하는 25번 도로를 통제하게 되었고, 제5연대(연대장:대령 김동빈)는 200명도 못 되는 병력을 회인 서쪽 2km의 묵재(CR 7238)에 배치하여 문의－회인간의 산간 소로를 담당하였으며, 봉무산(CR 6145) 일대에서 적과 치열한 교전을 벌인 제20연대(연대장:대령 박기병)는 사단지휘소가 위치한 회인에 집결하여 사단예비가 되었다.

나. 주력부대 철수

군단의 철수명령을 받은 수도사단장 김석원 준장은 제17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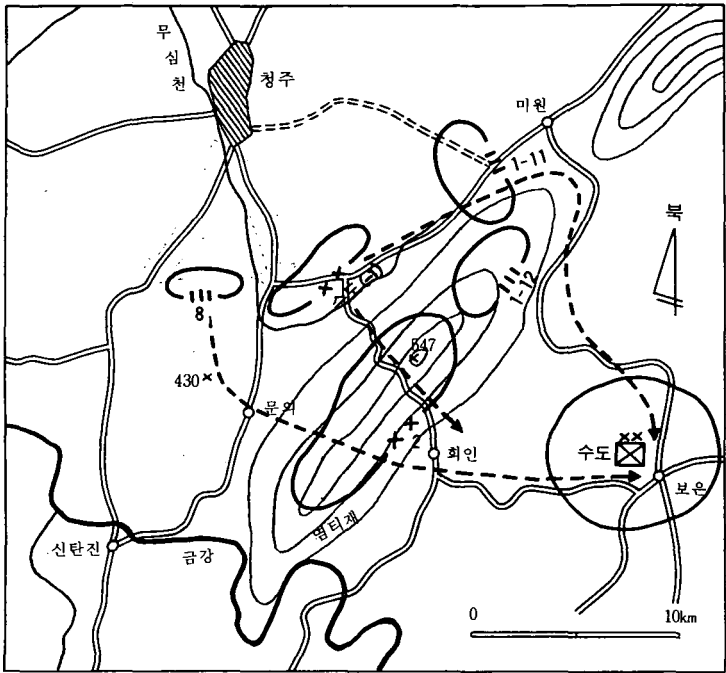
의 엄호하에 제1연대와 제18연대를 비교적 평탄한 통로인 미원 경유 보은으로 철수시키고, 제8연대는 방어선의 중앙부인 고은리의 170고지가 피탈되어 사단주력과 분리된 점을 감안하여 연대 계획에 따라 보은으로 철수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사단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철수명령을 하달하였다.

수도사단 철수명령(요지)

1. 사단은 군단의 전선조정계획에 의거, 당면한 적에게 타격을 가한 후 16일 19:00에 철수하여 17일 12:00까지 보은에 집결하려 한다.
2. 제1연대 : 사단 제1제대로서 미원 경유, 보은으로 철수하여 풍취리(CR 8739)에 집결하라.
3. 제18연대 : 사단 제2제대로서 미원 경유, 보은으로 철수하여 이평리(CR 8638)에 집결하라.
4. 제17연대(-1) : 사단주력의 철수를 엄호한 다음 제3제대로서 보은으로 철수하여 제2군단에 배속한다. (배속해제시간 : 1950.7.16. 24:00)
5. 제8연대 : 현선에서 적에게 타격을 가하고, 의명, 보은으로 철수하여 교암리(CR 8236)에 집결하라.
6. 사단사령부 및 직할부대 : 제1제대로서 미원 경유, 보은으로 철수하라.(집결지:수한)
7. 포병중대 : 제1 및 제2제대의 철수를 엄호하고 의명, 군단으로 복귀하라.

요도16

수도사단 철수상황 (7. 16~17)



8. 각 제대는 철수간 기도비닉에 유의하라.

이와 같은 사단의 철수명령에 따라 제1연대는 항공기의 공중 지원과 포병중대의 엄호사격 및 연막차장하에 19:00경부터 접적 이탈하여 미원 쪽으로 철수하기 시작했으며, 그 뒤를 이어 제2제대인 제18연대가 출발하였다. 그런데 이 철수는 적의 강압하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무질서하고 혼잡하였으며 지휘통제하에 있는

병력은 고은리-미원-보은으로 철수하였지만 분산되거나 낙오되어서 지휘통제를 벗어난 일부병력은 거리가 가깝기는 하나 험한 고개를 2개나 넘어야 하는 고은리-회인-보은 통로를 이용하기도 하였다. 이때 미원 쪽에는 제1사단이 배치되어 있었고, 회인 쪽에는 제2사단이 병력을 배치중이었다.

다. 엄호부대 철수

한편, 제17연대 제2대대는 170고지에서 물러난 후 병력을 수습하여 18:30경에는 분터골고개-255고지(CR 6947) 간에 급편진지를 점령하여 적의 진출을 저지하고 있었다. 제2대대장 송호림 소령은 19:00경에 연대장 김희준 중령으로부터 “제2대대는 분터골고개 남쪽에 있는 제3대대와 합동으로 사단의 철수를 엄호한 후 야음을 이용하여 보은으로 철수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에 송호림 소령은 분터골고개 일대에서 적의 진출을 저지하다가 사단주력이 거의 철수하자 다음 능선이 있는 구말미(CR 6946)로 철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런데 철수명령을 받은 병사들이 위험지역에서 빨리 벗어나려고 개인별로 뛰어나가는 등 심히 무질서한 철수를 하였다. 이때 F-51전투기 2개 편대가 나타나 공격하였는데 피아를 구분 못한 전투기들은 적 전차 및 적 공격대열과 철수하는 제17연대 제2대대까지 공격함으로써 적의 공격이 둔화되었음을 물론 제2대대도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이윽고 해가 저물어 어두워진 후 대대장은 병력을 수습하여

도보로 출발시키고 차량 1대에 박격포, 구경 50 기관총, 경기관총 등 중장비와 박격포 포탄을 싣고 부상자, 중화기요원, 대대본부요원 등 30여 명을 승차시킨 후 대대장도 이 차량에 탑승하여 보은으로 출발하였다. 그런데 이 차량이 야간이동중 운전병의 수면부족으로 인한 운전부주의로 차량이 하천으로 굴러 뒤집히는 바람에 승차인원중 12명이 압사당하는 불행을 겪었다. 대대장은 이 사고를 겨우 수습하여 이튿날인 17일 10:00경에서야 보은에 도착하였다.

라. 제 8 연대 철수

제8연대는 적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국사봉만은 어떤 일이 있어도 고수하여야 한다는 결의 아래 때로는 공격을 감행하는 등 어두워질 때까지도 치열한 전투를 전개하고 있었다. 그런데 야간에 적의 일부부대가 예광탄을 쏘면서 연대 우측방인 고은리-문의 도로를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었고 또 다른 부대는 연대 좌측방인 청주-부강 도로를 따라 내려가고 있었다.

이를 확인한 연대장 이현진 중령은 부연대장 고백규 소령에게 “우리 연대는 적에게 포위된 것 같은데 사수하라고 지시한 사단장의 명령없이 철수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다. 그런데 다음날(17일) 04:00경, 연락병으로부터 쪽지에 쓴 사단장의 명령을 수령하였는데, 거기에는 사단장 친필로 “사단은 16일 19:00를 기하여 철수하니 귀연대도 같은 시각에 보은의 교암리(CR 8236)로 철수하라.”고 쓰여 있었

다. 연대장은 사단의 철수명령을 받고서야 연대의 좌우측 부대는 철수명령을 받고 이미 철수했고 자신의 부대만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급히 철수를 서둘렀다. 이때 연대장은 적이 이미 통과한 고은리-문의 도로를 피하고 국사봉-작두산(CR 6442, 430m)-문의-목재-회인-보은 경로를 택하여 철수하기로 하였다.

제8연대가 철수를 개시하였을 때에는 먼동이 터오고 있었는데 문의까지는 도로 서쪽의 능선을 이용하였으며, 문의-회인 구간은 산간 소로를 이용하였다. 제8연대는 문의-회인 간에 있는 목재를 넘을 때 이곳에 이미 배치된 제2사단 제5연대를 만났는데, 제8연대 장병들은 그때에 비로소 안심하게 되었다. 제8연대는 17일 오후에서야 집결지인 보은 서쪽 3km인 교암리 국민학교에 도착하였다.

이와 같이 17일에 보은에 집결한 수도사단의 병력은 48% 수준이었는데, 이는 같은 날의 제1사단 57%, 제2사단 55%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출처: 미 제8군 정기작전보고)

수도사단은 보은에서 2일간 준비를 한 후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55호(1950.7.19)에 의거, 제1연대는 함창으로, 제18연대는 예천으로 그리고 제8연대와 사단사령부는 안동으로 이동하였다.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55호는 제6장에)

제 4 장 음성 전투

1. 음성 주변 전투

가. 제 7 연대의 음성 전개

충청북도 북서부에 위치하고 있는 음성은 군청소재지로서 지방행정 및 교통의 중심지이며 주변에는 400~500m의 많은 고지군이 있는 분지와 같은 도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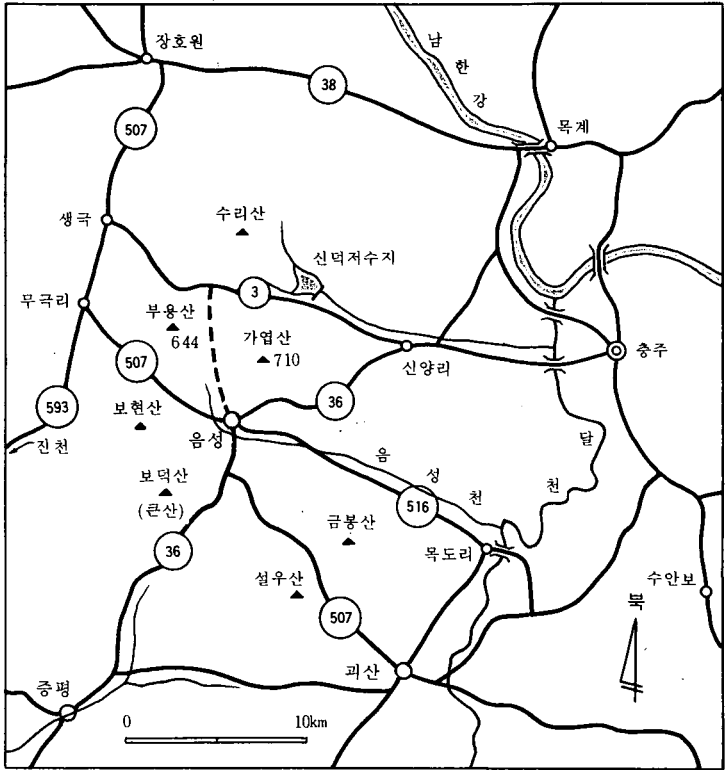
음성을 통과하는 도로는 충주-음성-청주를 잇는 36번 도로, 장호원-무극(CR 7594)-음성-괴산을 잇는 507번 도로, 음성-목도리(CR 9880)-괴산을 잇는 516번 도로 등이 있고, 음성 주변에는 장호원-무극-진천을 잇는 593번 도로가 음성 북동 10km 지점을 지나며, 장호원-생극(CR 7698)-충주를 잇는 3번 도로가 음성 북쪽 7km 지점을 통과한다.

음성 주변에는 가엽산(CR 8491,710m), 부용산(CR 8093, 644m), 보현산(CR 7888, 507m), 보덕산(일명 큰산, CR 8083, 510m), 가막산(CR 8583, 510m) 등의 주요 감제고지들이 있으며 음성천이 부용산과 가엽산에서 발원하여 음성 시내를 관류한 후 남동쪽으로 흐르다가 괴산 북쪽에서 남한강의 지류인 달천에 합류한다.

중동부 및 동부전선을 담당한 북괴군 제2군단은 개전후 춘천과 홍천을 점령하고 제2사단은 가평-이천 방향으로, 제12사단

요도17

음성 주변의 지형



은 홍천-원주 방향으로 진출시키고 군단예비로 있던 제15사단을 원주-장호원의 방향으로 진출하도록 하였다.

북괴군 제15사단(사단장:소장 박성철)은 1950년 3월에 회령에서 증공군 출신으로 구성된 3개 대대와 민청훈련소 3개 지대를 통합하여 창설된 부대로서 10,000여 명의 병력과 장갑차 20대,

122mm 곡사포 12문, 76mm 곡사포 28문, 45mm 대전차포 36문, 120mm 박격포 18문, 82mm 박격포 88문, 사이드카 30대 등을 장비하고 있었으나 개전 3개월 전에 창설된 관계로 훈련이 부족하여 전투력이 비교적 약한 부대였다.

개전 당시 이 부대는 북괴군 제2군단의 예비로서 화천-춘천-홍천으로 진출하다가 원주에서 제1선 부대로 투입되어 7월 3일에는 장호원에 진출하고 그 다음날에는 음성 방향으로 남하하고 있었다.

한편, 개전후 3일 동안 춘천을 방어하던 국군 제6사단 제7연대는 6월 28일에는 춘천에서 물러나 홍천-횡성 방향으로 철수하다가 7월 1일에 횡성을 빼앗기었다. 다음날, 연대는 “제8사단의 철수를 엄호하라.”는 사단명령에 따라 원주 남쪽 14km의 가리파고개를 점령하여 제8사단의 평창-제천으로의 철수를 엄호하였는데, 이때 제2대대는 충주로 먼저 철수하였다. 제7연대(-1)는 적의 공격을 격퇴하면서 가리파고개를 하루동안 지탱하다가 7월 3일에 제8사단 제10연대에게 진지를 인계하고 충주로 철수하였다.

이날밤, 충주에 있던 제6사단장 김종오(군영, 대장 예편) 대령은 장호원에서 철수한 사단헌병대와 강원도 경찰로부터 “북괴군이 장호원에 침입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게 되었다. 당시 제6사단은 육군본부의 지시에 따라 7월 1일에 제19연대를 이천에 파견한 바 있었는데, 이 연대는 적과 접촉을 유지하면서 남으로 철수중에 있었고, 제2연대는 충주 방어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제7연대는 원주-단양 축선의 방어임무를

제8사단에게 인계하고 충주로 철수중에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이 이천과 충주의 중간에 있는 장호원에 침입하였다는 것은 사단이 곧 양분될 위기에 있음을 의미하므로 사단장 김종오 대령은 제7연대를 장호원에 투입하기로 결심하고 제7연대장에게 “장호원을 탈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장호원 탈환명령을 받은 제7연대장 임부택(육사 1기, 소장 예편) 중령은 적정을 모르는 상황에서 야간이동이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우선 1개 대대로 적정을 확인한 후 연대주력을 투입하려는 복안을 사단장에게 건의하여 승인을 받은 다음 다음과 같이 명령하였다.

제7연대장의 명령(요지)

1. 적은 오늘(7월 3일) 장호원에 침입하였다.
2. 연대는 장호원에 침입한 적을 격퇴하고 장호원을 탈환하려 한다.
3. 제2대대는 명일(7월 4일) 09:00에 장호원 방면으로 진출하여 적과 접촉을 유지하고 그들의 병력 규모와 진출선을 보고하라.
4. 제1대대 및 제3대대는 출동태세로 대기하라.
5. 부대이동은 차량으로 한다.

연대장의 명령에 따라 각 대대는 출동준비를 서둘렀는데 출동에 앞서 확인된 병력은 장교 88명, 사병 1,626명으로서 부상자

등 환자를 제외하면 소총 중대는 대체로 장교 2~3명, 사병 90명 내외였다. 그리고 연대의 주요장비는 지원부대인 제16포병대대 제2중대의 105mm 곡사포 5문과 연대의 57mm 대전차포 4문, 대대의 81mm 박격포 12문, 중대의 60mm 박격포 17문, 구경 50기관총 10정, 기관총 26정 등이었다.(출처:제7연대 전투상보)

7월 4일 09:00에 충주중학교(DR 005905)를 출발한 제2대대(대대장:소령 김종수, 육사 3기, 중장 예편)는 침병소대인 제5중대 제1소대로 하여금 적정을 탐색하도록 하면서 전진중이었는데, 동락리 교량(CR 835950) 부근에서 침병소대가 적의 기동정찰대와 조우하였다. 침병소대는 즉각 사이드카와 장갑차로 구성된 적 기동정찰대와 교전에 들어갔으나 화력의 열세로 1/4톤 차량 1대를 방치한 채 뒤로 물러섰다. 침병소대가 교전하자 뒤따르던 제5중대(중대장:중위 최익영, 육사 7기, 중령 예편) (-1)가 즉각 하차하여 전투전개를 하면서 박격포 지원하에 적 정찰대를 공격하였는데 그들은 장갑차 1대와 사이드카 2대를 유기하고 도주하였다.

적의 장비를 노획했을 뿐만 아니라 빼앗겼던 차량 1대마저 되찾은 제5중대는 사기가 충천하여 도주하는 적을 뒤쫓아갔으나 모도원(CR 8195)에서 약 1개 대대 규모의 적이 나타나자 추격을 중단하였다. 제2대대는 병력을 약간 철수시켜 저녁때에는 신덕저수지(CR8595)에 연하여 진지를 점령하였다.

이날 획득한 포로(장교)의 진술에 의하면 장호원에 진출한 북괴군 제15사단은 음성 점령을 기도하고 있으며, 동락리로 진출한 부대는 북괴군은 제15사단 예하 제48연대이고 제49연대는 무극리로 향하였다는 것이었다. 이 정보에 따라 이날밤 제7연대장 임

부택 중령은 음성방어가 긴급하다고 판단하여 개방되어 있는 무극리-음성 축선에 연대주력을 투입하기로 결심하고 다음과 같이 명령하였다.

제7연대장의 명령(요지)

1. 연대는 사단명에 의거, 장호원을 탈환하려 한다.

2. 제1대대

가. 7월 5일 08:00 충주출발, 음성으로 이동하여 무극리를 공격, 점령하라.

나. 의명, 장호원을 공격하라.

3. 제2대대

가. 제3대대에게 진지를 인계하고 음성으로 이동하여 제1대대의 공격을 지원하라.(연대예비)

나. 의명, 장호원을 공격하라.

4. 제3대대

가. 7월5일 08:00 충주 출발, 제2대대 진지를 인수하고 생극(CR 7698)을 공격, 점령하라.

나. 의명, 장호원을 공격하라.

상기 명령에 따라 제1대대(대대장: 소령 김용배, 육사 5기, 1951. 7.2 전사, 준장)는 7월 5일 08:00에 충주를 출발, 음성으로 이동하여 무극리로 진출하기 시작하였고, 제2대대(대대장: 소장 김종수)는 제3대대에게 진지를 인계하고 음성으로 이동, 사정고개(CR

810910) 일대에 전개하였으며, 제3대대(대대장:소령 이남호, 육사 3기, 대령 예편)는 08:00에 충주를 출발, 제2대대 진지를 인수한 후, 생극을 향하여 전진하였다. 이처럼 3개 대대가 모두 음성지역에 전개하자 제7연대장은 연대본부를 충주에서 음성으로 이동하였다. 음성으로 이동한 제7연대장은 음성 북쪽 4km의 중요한 감제고지인 가엽산에는 춘천경찰서장 조규홍 총경이 지휘하는 1개 중대 규모의 전투경찰대를 배치하여 능선 접근로에 대비하였다.

한편, 제6사단장 김종오 대령도 예하의 3개 연대가 각각 진천, 음성, 충주에 전개함에 따라 지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사단사령부를 충주에서 증평으로 이동하였다.

나. 무극리 공격전

(1) 기름고개 조우전

“무극리를 점령하라”는 명령을 받은 제1대대는 제3중대(중대장:중위 김명익, 육사 7기, 대령 예편)를 선두로 13:00부터 음성에서 무극리 방향으로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침병소대인 제3소대(소대장:중위 이상우, 육사 8기, 중령 예편)는 중대가 299고지(CR 811888) 남방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동안에도 본대의 전방 500m에서 정찰임무를 계속하고 있었다. 제3소대가 소여리를 지나 기름고개(유현) (CR 7989)로 접어들고 있을 때 그 고개를 넘어오고 있는 일단의 무리를 발견하고 소대장은 재빨리 병력을

도로가에 산개하여 은폐하도록 하였다. 그 무리는 1개 소대 규모의 병력으로서 전투모를 쓰고 배낭을 짊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북괴군임을 쉽게 알게 되었다. 이 무리의 얼마쯤 뒤에는 좀더 많은 병력이 따르고 있었는데 적의 규모가 1개 중대 이상인 것을 확인한 소대장은 그들의 침병소대를 공격하기로 하고 연락병을 중대장에게 급히 보내어 지원을 요청하였다.

잠시 후 적의 침병소대가 제3중대 제3소대가 은폐하고 있는 지역에 진입하자 소대장의 사격명령에 따라 일제사격이 실시되었고, 적은 제대로 저항해 보지도 못한 채 무참히 쓰러졌으며, 일부병력은 오던 길을 되돌아서 도주하였으나 얼마 가지 못해 죽어넘어졌다. 이리하여 기름고개에서의 조우전은 교전 15분 만에 제3중대 제3소대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다.

한편, 휴식중에 있던 중대장은 침병소대가 교전을 하게 되자 전투준비를 서두르고 있었는데, 이때 제3소대장이 보낸 연락병이 당도하였다. 제3소대의 상황을 알게 된 중대장은 60mm 박격포를 기름고개 넘어로 사격하도록 하면서 제2소대를 이끌고 기름고개로 달려갔다. 제3중대장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엔 이미 상황이 끝나 있었다. 제3소대가 제2소대의 엄호하에 현장을 수색한 결과 2대의 자전거를 비롯하여 30여 정의 소총, 40여 구의 시체와 1명의 민간인 부상자를 확인하였다. 이 민간인은 “장호원에서 북괴군에게 징집되어 탄약운반점 길을 안내하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앞장섰다.”고 말하였다.

이때, 적의 본대인 약 1개 대대의 병력은 기름고개 북서쪽인 보현산(CR 7889) 북쪽 1.5km의 430고지(CR 7890)에 전개하여

차후작전에 대비하는 듯하였다. 제3중대장은 이러한 상황을 대대에 보고하고 기름고개 북동쪽의 385고지(CR 8090)에 진지를 점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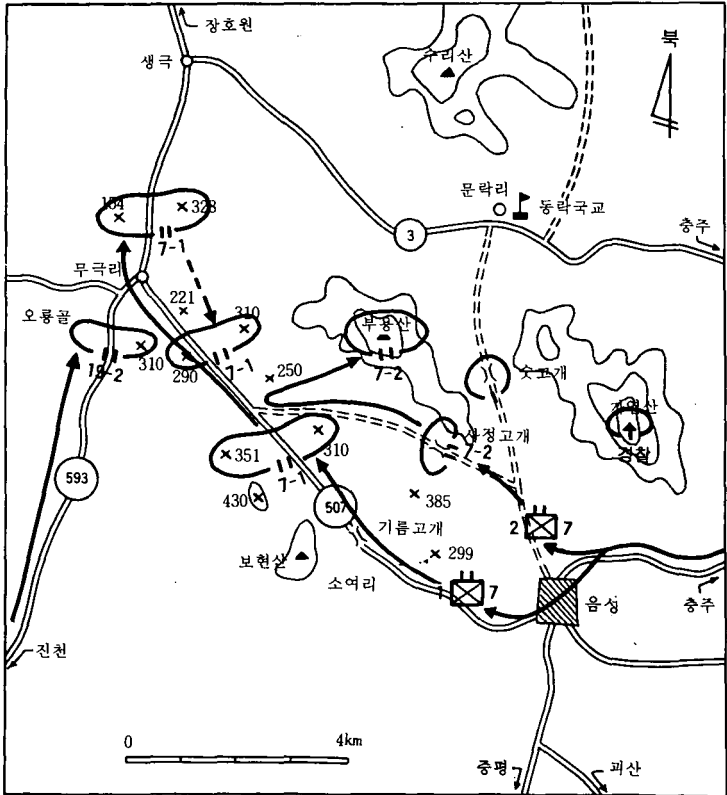
(2) 무극리 공격

이로부터 약 3시간 뒤, 385고지 일대에 전개한 제1대대장 김용배 소령은 연대를 지원하고 있는 제16포병대대 제2중대(중대장: 대위 이만호, 육사 6기, 대령 예편, 105mm 곡사포 5문)의 지원을 받으면서 제2중대(중대장: 중위 오윤석, 육사 7기, 대령 예편)를 좌, 제1중대(중대장: 중위 이대용, 육사 7기, 준장 예편)를 우로 하여 고개 북서쪽의 430고지를 공격하였다. 제1대대가 공격을 개시하자 적은 전투준비가 미흡했던지 완강한 저항을 하지 않고 무극리 방향으로 물러서는 것이었다. 이에 제1대대는 이들을 추격하였으나 적이 250고지(CR 7792)에서 완강히 저항하자 351고지(CR 7691)와 310고지(CR 7891)에 진지를 점령하였다. 이날 밤에는 제1대대가 351고지-310고지 선에 배치되고 제2대대는 사정고개(CR 808911)와 숫고개(CR 823921)에 배치되었다.

다음날인 7월 6일 05:00, 제1대대는 제16포병대대 제2중대와 대전차포중대(중대장: 중위 박철원, 육사 7기, 대령 예편, 57mm 대전차포 4문)의 지원하에 공격을 재개하였다. 적은 250고지에서 완강한 저항을 하였지만 제1대대의 공격을 저지하지 못하고 무극리 북방으로 철수하였다. 이리하여 제1대대는 11:00경에 무극리를 점령하고 그 북방 2km의 154고지(CR 7495)-328고지(CR

요도18

무극리 공방전 (7.5~6)



7695)에 진지를 점령하여 적의 역습에 대비하였다.

무극리를 빼앗긴 북괴군은 3시간 후인 14:00경에 강력한 화력 지원하에 우세한 병력으로 역습을 감행하였다. 154고지의 제3중대는 적에게 포위되어 악전고투하다가 겨우 포위망을 뚫고 철수하였으며, 328고지의 제2중대도 우세한 적에게 밀리어 물러나야

했다.

적의 공격을 저지하지 못한 제1대대는 결국 154고지-328고지 선에서 물러나 무극리 남동쪽 2km의 290고지(CR 764927)-310고지(CR 776937) 선에 진지를 점령하여 507번 도로를 통제하면서 적의 진출을 저지하였다.

제7연대장은 14:00에 시작된 북괴군의 공세로 제1대대가 진지를 지탱하기 어렵게 되자 사정고개에서 안말(CR 7892)에 진출해 있던 제2대대를 부용산에 배치하여 능선 접근로를 통제하도록 하는 한편, 동락리에서 생극으로 진출하려던 제3대대가 임의 철수함으로써 공백지대가 된 동락리 일대의 적정을 수집하도록 하였다.(제3대대 철수상황은 “다”항 참조).

한편, 제6사단장 김종오 대령은 무극리에서 전투가 가열되자 이천에서 죽산을 경유, 진천으로 철수한 제19연대장 민병권 대령에게 “제7연대를 지원하라”고 명령함으로써 제19연대 제2대대(대대장:소령 김용기)가 무극리 남방 2km의 오룡골(CR 735930)-310고지(CR 754919)에 긴급히 투입되어 593번 도로를 통제하면서 이 선에서 적의 남진을 저지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제7연대 제1대대와 제19연대 제2대대는 무극리 남동쪽과 남쪽에서 연결된 진지를 형성하고 적의 공격을 격퇴하면서 이 방어진지를 7월 8일까지 지탱하였다.

다. 동락리 기습전*

(1) 동락리 부근의 교전

제2대대로부터 진지를 인수한 제3대대(대대장:소령 이남호)는 7월 5일 13:00부터 생극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전진하고 있었다. 침병소대는 중원군 신니면 문락리의 동락부락(CR 8395)을 통과하고 있을 때 사이드카를 선두로 한 1개 중대의 적군이 접근하는 것을 발견하고 즉각 본대에 경고하였다.

이에 대대장은 제9중대(중대장: 중위 정재갑, 육사 7기, 중령 예편)와 제11중대(중대장:대위 인성훈, 육사 6기, 대령 예편)를 도로변에 긴급히 전개하도록 하였으며 그들이 사정거리에 들어오자 일제사격을 가하였다. 기습공격을 받은 북괴군은 크게 당황하여 도주하기 시작하므로 양중대는 233고지(CR 8095) 부근까지 적을 추격하였는데, 그들이 생극에서 진출한 대부대와 합류하여 반격을 퍼자 곧 철수하여 동락리 좌·우측 1km 대화리(CR 8295) - 427고지(CR 8296) 선에서 적을 저지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적이 17:00경에는 모도원(CR 8195)에서 강력히 공격하는 한편, 1개 중대 규모의 기마병력이 모도원에서 대화리(CR 820940)로 향하고 있어 제3대대를 포위하려고 하는 것 같았다.

* 동락리 기습전 : 동락리 기습전은 지금까지는 동락국민학교 및 그 주변에 집결되어 있는 북괴군 1개 연대(제48연대)를 부용산에 투입되고 있던 제7연대 제2대대가 발견(여교사 제보에 의거)하고 이를 제2대대가 단독으로 주간에 포위 섬멸한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제7연대 전투상보와 당시 참전했던 제2대대 및 제3대대 장교중 다수의 증언에 따라 재정리했다.

이에 제3대대장 이남호 소령은 적에게 포위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대대장 독단으로 철수하기로 결심하고 대대주력은 제9중대의 엄호하에 동락리 일대에서 차량에 탑승하여 철수하였고 제9중대도 어둠을 이용하여 철수하였다. 이러한 관계로 동락리 주민들이 보기에는 국군이 차를 타고 멀리 철수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때의 상황에 관하여, 대대장 이남호 소령은 “연대로부터 전투지원이 별로 없는데다 적의 대부대가 포위공격하면 대대는 전멸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연대본부가 있는 음성 부근으로 철수하였으며, 이는 대대장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었다.”라고 말하였다. 제3대대는 7월 1일의 황성 전투에서 적에게 포위되어 분산철수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이남호 소령은 이 이후부터 제3대대를 지휘해 왔다.

제3대대는 야음을 이용하여 철수를 계속하여 자정에는 신양리 3거리(CR 9391) 전방 2km인 유천(CR 9091)에 진지를 점령하였다가 다음날인 7월 6일 아침에는 290고지(CR 8889) 일대에 진지를 점령하였다.

(2) 제3대대의 용원리 공격

7월 6일, 제1대대가 무극리를 공격하고 있을 때, 제3대대는 290고지에서 적정을 살피고 있었다.

동락리 일대에서 국군이 철수해 버린 것을 알게 된 북괴군은 국군의 행방을 쫓아 신덕저수지 동쪽 10km인 신양리에 정찰대

를 내보냈다. 이날 오전, 제3대대는 1개 소대 규모의 북괴군 정찰대가 제3대대 배치지역 북동쪽 5km 지점인 신양리 3거리에서 음성을 출발, 충주로 가고 있던 연대보급차량 1대를 빼앗아 끌고 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무렵 연대장 임부택 중령은 제3대대가 임의로 상당한 거리를 철수해 버린 것을 알고 대대 진지를 방문하여 대대장을 질책하고 “적을 공격하라”고 명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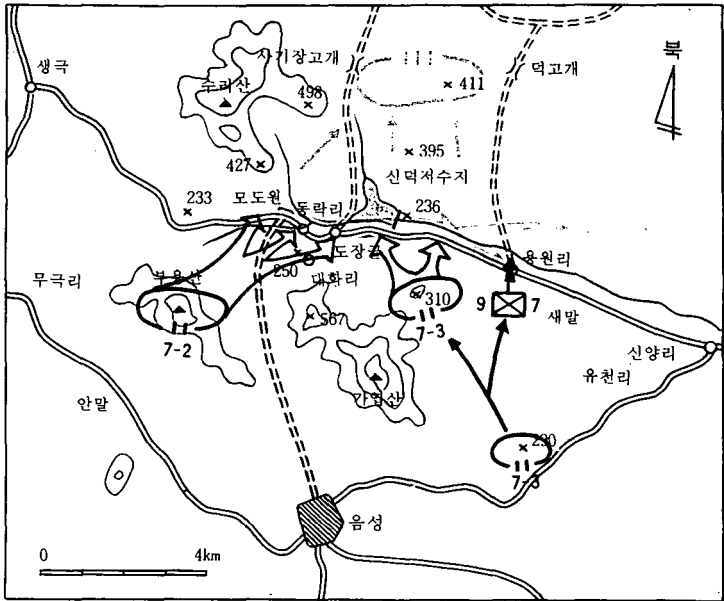
북괴군 제48연대는 “국군이 차를 타고 도망쳤다”는 동락리 주민의 말과 신양리까지 수색한 결과 국군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안심한 듯, 동락리에 진출한 야포 엄호하에 신양리 경유 음성으로 진출하기 위해 야음을 이용하여 주력부대가 차량으로 생극을 출발하였으며, 7월 7일 05:00경에는 동락리를 통과하고 있었다.

한편, 정찰대의 활동으로 적이 동락리와 신덕저수지 부근에 있음을 확인한 제3대대장은 제9중대장 정재갑 중위에게 “야음을 이용하여 저수지 옆의 적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제10중대(중대장:중위 김성배)와 제11중대에게도 가업산의 310고지(CR 8693)로 이동하도록 하였다.

제9중대는 03:00부터 행동개시하여 04:00경에는 대대수색대가 활동하고 있는 새말(CR 8893)의 130고지(CR 887938)에 도착하여 공격준비에 착수하였는데 잠시 후에는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얼마 후 3번 도로에 적의 차량대열이 나타나자 제9중대가 그 선두를 공격함으로써 교전이 벌어졌다.

적 이동대열의 선두인 침병중대가 교전에 들어가자 후속부대

요도19 동락리 기습전 (7.7.05:00~12:00)



들은 제3대대가 있는 310고지 정면에 밀집대형으로 정지하였다. 별로 높지도 않은 고지에서 소규모의 국군이 저항하는 것으로 판단한 듯, 그들은 그곳에 포격을 가하면서 침병중대로 하여금 이를 소탕하도록 하고 주력부대는 별로 경계도 하지 않고 차량에 탑승한 채 대기하고 있었다. 적의 이러한 행동은 전장에서는 일어나기 어려운 비전술적 행동이었는데 제7연대 전투상보에는 “승세에 도취하여 아군을 경시한 행동”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무렵, 310고지에 도착하여 적 차량중대의 집결을 기다리고 있던 제3대대의 제10중대와 제11중대가 대대장의 명령에 따라

06:00경 공격을 개시, 합성을 지르며 저수지 방향으로 진격해 들어갔다. 행군대열의 선두가 공격을 당하였는데도 방심하고 있던 북괴군은 측방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크게 당황하여 혼란에 빠졌으며 살기에 급급한 나머지 차량과 장비를 버리고 뿔뿔이 흩어졌다. 완전히 혼란에 빠진 그들은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저수지를 피하여 북쪽의 411고지(CR 860985)와 덕고개(CR 8798) 방향으로 도주하였고 일부는 급한 나머지 저수지에 뛰어들기도 하였는데 도주과정에서 상당수가 격멸되었다.

그들이 버린 차량에는 박격포, 기관총 등 많은 공용화기와 탄약 등이 탑재된 채 있었다. 대대는 연대의 지원을 받아 노획장비를 후송하도록 하였다. 제3대대는 우왕좌왕하는 적을 격멸하면서 추격하였는데 11:30경부터는 이들이 험한 지형을 이용하여 조직적인 저항을 하므로 연대장 명령에 따라 12:00경 철수하여 가염산 북사면의 310고지(CR 8693) 일대에 방어진지를 편성하였다.

제3대대가 신덕저수지 주변에서 북괴군을 섬멸하고 있을 때, 그 옆의 동락리 일대에서는 부용산에서 출격한 제2대대가 적을 섬멸하고 있었다.

(3) 제2대대의 동락리 공격

7월 6일 15:00경에 “부용산을 점령하라”는 명령을 받은 제2대대는 안말에서 부용산으로 진출하여 진지를 점령하였다.

다음날인 7월 7일 05:00경, 부용산 정상에 있던 제2대대는 신덕저수지 쪽에서 포성과 교전하는 총성이 들려오자 제3대대가

교전하는 것으로 알고 그쪽을 내려다보았더니 동락리 앞의 도로에는 수십 대의 차량이 병력을 가득 태운 채 서있는 것이 보였다. 이를 본 대대장은 중대장 등을 불러 의견을 물어본 바 “적을 공격하자”는 의견이 우세하였다.

이에 대대장은 대대의 임무가 부용산을 방어하는 것이지만 적을 격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가 없어 공격하기로 결심하고 05:30경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렸다.

제2대대장의 공격명령(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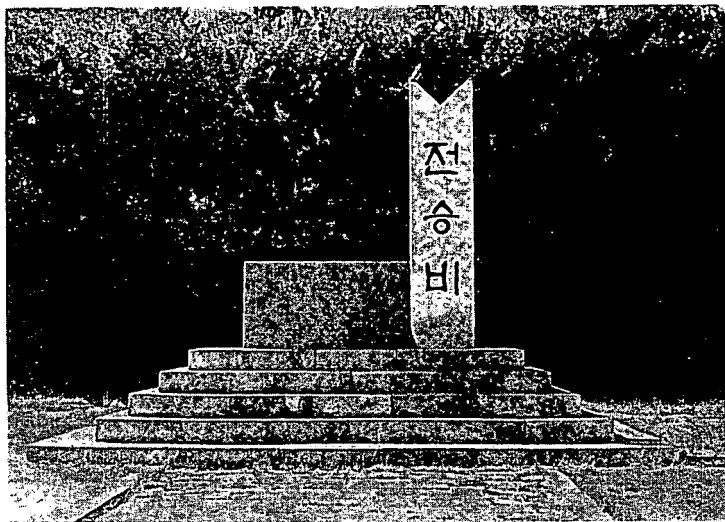
1. 대대는 동락리의 적을 공격하려 한다.
2. 제5중대는 동락리 방향으로 공격하라.
3. 제6중대는 도장골(CR 840950) 방향으로 공격하라.
4. 제7중대는 모도원 방향으로 공격하라.
5. 제8중대는 220고지(CR 831945)에서 대대를 지원하라.
6. 공격개시 시간은 06:00이다.
7. 이동간 기도비닉에 유의하라.

제2대대 진지에서 공격목표까지는 3~4km였으나 중대장으로 부터 공격명령을 받은 병사들은 유리한 상황에서 모처럼의 공격을 하게 된 탓인지 또는 고향에 침입한 적을 무찌른다는 자부심 때문인지(제7연대는 청주에서 창설되었으며 제2대대 병사들의 약 80%는 고향이 충청북도였다.) 사기가 충천하여서 고지 아래로 신속히 내려가 잠시 후에는 공격위치에 당도하였고 06:00에는 중대

장의 신호에 따라 공격해 나아갔다.

제2대대의 기습공격을 받은 북괴군은 제3대대에서와 마찬가지로 저항을 포기한 채 차에서 뛰어내려 북쪽의 498고지(CR 8298)와 사기장고개(CR 8498) 방향으로 도주하였고, 일부는 민가나 담배밭에 숨었으며, 일부는 왔던 길로 되돌아 도주하려 하였다. 이 도주과정에서 상당수가 사살되었고 민간에 숨은 자는 사살 또는 생포되었으며 모도원 쪽으로 도주하려던 자는 제7중대에 의하여 격멸되었다.

한편, 대대는 사용가능한 81mm 박격포는 1문 뿐이었는데 대장과 제8중대장 겸 박격포 반장인 신용관 중위가 220고지에



〈동락리 전승비〉

도착하여 보니 포신만 도착해 있고 포관이 도착되지 않아서 사격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때 동락국민학교 교정에서 제3대대 방향으로 사격하던 적의 야포가 포구를 제2대대 쪽으로 돌리고 있었다. 잠시 후 포관이 도착하자 위기감을 느낀 대대장은 신용관 중위에게 “네가 직접 사격하라”고 명령하였다. 신용관 중위는 신속히 제1탄을 발사하였는데 이것이 적의 포진지 중앙에 떨어지는 것이었다. 이윽고 제2탄, 제3탄도 포진지에 명중함으로써 적의 포진지가 파괴되었고, 잠시 후에는 야적한 포탄상자에 명중되었는지 요란한 폭음과 함께 연쇄폭발을 하였다.

제2대대는 적의 저항이 별로 없자 제7중대(중대장:중위 이진옥, 육사 7기, 1950.10.29 실종중 전사, 소령)를 모도원 서쪽 1km의 233고지(CR. 8095)에 배치하여 적의 증원을 차단하도록 한 다음 제5중대(중대장: 중위 최익영)와 제6중대(중대장:소위 윤수용, 육사 9기, 대령 예편)로 잔적소탕을 하였다. 잔적소탕시 제2대대는 소좌계급인 북괴군 제48연대 군수참모를 생포하였는데, 그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우리는 주민들에게 속았습니다. 동락리 부락에 도착해서 주민들에게 국방군의 행방을 물었더니 ‘간밤에 모두 차를 타고 도망쳤다’고 해서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민들의 거짓말 때문에 방심하고 있다가 기습을 당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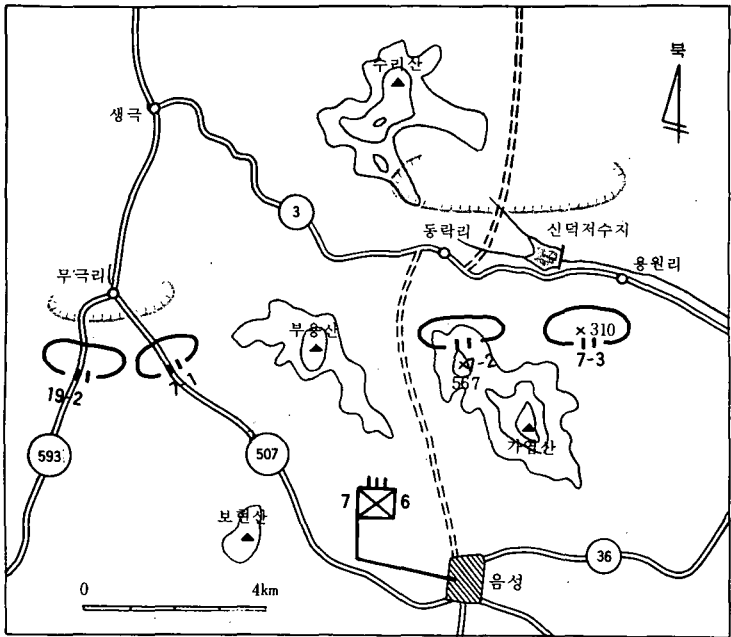
북괴군이 유기한 차량에는 82mm 박격포와 기관총 등 수많은 공용화기는 물론 다발총 등의 개인화기도 있었는데, 이는 이들이

너무나 당황하여 황급히 도주했다는 증거였다. 이는 전투에서 포로가 된 이 부대(북괴군 제48연대) 군수참모의 진술에서 알 수 있듯이 전장에서의 방심과 이에 따른 기습공격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전례이다.

제2대대가 공격해 들어간 동락리 일대에는 북괴군 제48연대의 지휘부, 포병중대 및 치중대가 있었던 듯, 주로 그와 관련된 수많은 장비가 있었는데, 이를 빠른 시간 내에 후송시키는 것이 큰 과제가 되기도 하였다. 노획장비 후송책임을 맡은 부대대장 허용우(육사 5기, 대령 예편) 대위는 일부 탄약과 보급품은 현지 소각 처리하고 수많은 차량과 장비를 후송하기 위하여 연대 전 차량과 운전병 지원을 긴급 요청하는 한편, 대대병사들중 운전경험이 있는 자를 차출하였는데 서북청년단 출신 사병들이 상당수가 지원함으로써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였다.

북괴군은 기습을 당한 지 5시간 후인 11:30경, 생극 방향과 411고지 등 2개 방향에서 역습을 시도하였다. 북괴군 제15사단의 예비대로 보이는 일부부대가 생극에서 3번 도로를 따라 동락리 방향으로 접근하고, 신덕저수지 일대에서 분산되어 버린 북괴군 제48연대의 잔존자들이 험준한 지형을 이용하여 저항을 계속하다가 사기장고개-덕고개 선에서 병력을 수습하여 411고지-395고지(CR 8597)-236고지(CR 8595) 방향으로 진출하고 있었다. 북괴군의 역습기도를 간파한 연대장은 노획장비가 대부분 후송된 것을 확인하고 12:00경에 제2대대는 가엽산 북사면의 567고지(CR 8392)에, 제3대대는 310고지(CR 8693)에 철수하도록 하였다. 이리하여 양대대는 이날 오후에는 567고지-310고지 선에

요도20 제 7 연대의 방어 배치 (7. 7. 17 : 00)



방어진지를 점령하였다.

제7연대는 이날 저녁때에 “제1사단이 음성지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이곳으로 진출중에 있다. 제1사단이 음성지구에 투입되면 연대는 제1사단의 작전통제를 받으라.”는 제6사단장의 명령을 받았다.

(4) 전투결과

동락리의 기습전은 차량으로 이동중인 북괴군 제15사단 제48

연대를 동락리(CR 830954)－신덕저수지(CR 850950)－용원리(CR 870948)를 연하는 4km의 지역에서 제7연대 제3대대 1개 중대가 선두를 공격하여 정지시킨 다음 전반부는 제3대대가, 후반부는 제2대대가 거의 동시에 공격하여 이를 크게 격파하고 대부분의 장비를 노획한 전투였다. 그러나 양대대의 긴밀한 협동작전에 의해 수행된 것이 아니라 우연의 일치로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 공격전투의 결과이었다. 이에 대하여 제3대대장 이남호 소령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제2대대와 제3대대는 계획적으로 협동공격한 것이 아니고 우연히 같이 공격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는 대대별로 전투를 했기 때문에 나는 제2대대가 어디에 있다가 어떻게 공격했는지 모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대대가 야간철수한 것이 적을 유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제2대대와 제3대대가 거의 같은 시각에 공격한 것이 큰 전과를 올리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어떻든 이날 양대대가 올린 전과는 대단하였다. 인명살상은 사살이 2,186명, 포로가 132명이었고, 노획장비로서는 122mm 곡사포 6문, 76mm 곡사포 4문, 직사포 7문, 반전차포 5문, 82mm 박격포 14문, 61mm 박격포 18문, 구경 50 기관총 6정, 중기관총 12정, 경기관총 14정, 자동소총 37정, 소총 919정(기관단총 38정, M-1 80정, 쏘식 장총 291정, 따발총 184정, 기타 소총 326정), 장갑차 4대, 2 1/2톤 트럭 60대, 1/4톤 짚차 15대, 사이드카 7대, 무전기 4대, 전화기 12대 등이었으며 그밖에도 마필 24두와 상당

량의 탄약(포탄, 수류탄, 소총탄 등)이 있었다. 아군의 손실은 전사 9명, 부상 53명 뿐이었다.(출처:제7연대 전투상보)

현품을 확인하여 집계한 이 엄청난 노획장비는 거의 적 1개 연대분의 장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연대급 단일전투에서 거두기 어려운 것이었다. 이 막대한 장비는 작전후 곧 대전에서 일반 국민에게 전시함으로써 국군이 지고만 있지 않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렸다. 그리고 이 장비들에는 소련제품이라는 표시가 있어 소련이 이 전쟁에 개입했다는 증거로서 이 장비중의 일부를 유엔에 보내었다. 왜냐 하면 이 당시 소련은 북한의 김일성을 사주하여 전쟁을 일으켰으면서도 자기들은 전쟁에 개입하지 않은 것처럼 허위선전을 하면서 유엔군의 한국파병을 극력 반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승과 장비노획을 기뻐하기에 앞서 가슴아파하지 않을 수 없는 또다른 사건이 이 전투에 뒤이어 일어났으니, 제7연대가 이날 오후에 작전상 동락리에서 가엽산 북사면으로 철수하자 뒤따라 마을에 들어온 북괴군 제48연대장 김치구 중좌와 제48연대의 생존자들이 “주민들이 거짓말을 해서 우리 부대가 망했다”고 하면서 패전에 대한 분풀이를 하는 바람에 이날밤에 많은 부락민이 집단학살당하였다. 이를 두고 어찌 비극이라 아니하리.

한편, 제7연대의 전승보고를 받은 이승만 대통령은 “이 전과는 표창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무궁토록 기념되어야 합니다.”라고 말함으로써 제7연대 전 장병에게 최초로 1계급 특진의 영예가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격려금 50만 원이 하사되었다. 그런데 연

대 전 장병의 1계급 특진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소대장, 중대장의 직책을 수행했던 육사 6기생과 8기생이 1년에 2계급씩 진급한다는 것은 곤란하다는 이유로 진급에서 누락되었다. (이들은 전쟁발발전에 1계급씩 진급되었었다.)

제7연대의 “적 1개 연대 섬멸”이라는 승전소식은 연전연패하여 사기가 저하된 국군에게 용기와 사기를 북돋우어 주는 쾌거였다.

2. 음성 전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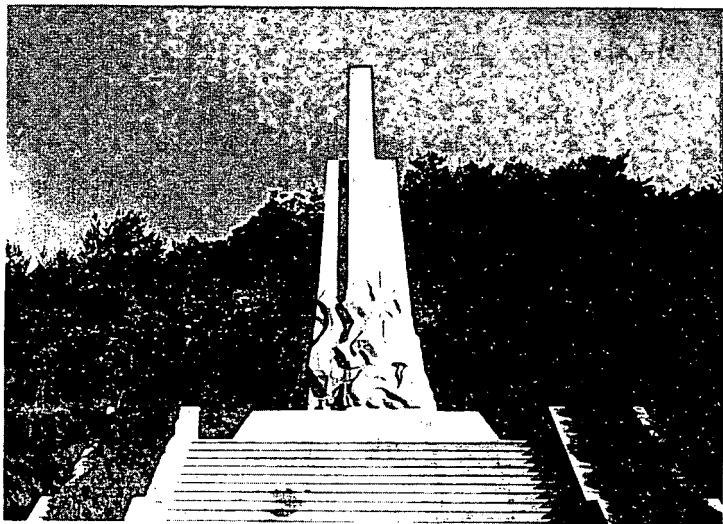
가. 제1사단의 음성전개

개전초, 문산 일대에서 적을 저지하다가 6월 28일 한강을 도하한 제1사단은 도하장비가 없어 중장비를 두고 온데다가 병력마저 분산철수한 관계로 전투력이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제1사단은 육군본부의 재편성 명령에 따라 제3사단 제22연대와 제5사단 제15연대*를 흡수통합하게 되었으나 급박한 전황으로 인하여 재편성을 하지 못한 채 7월 6일에 음성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7월 6일, 성환에서 예하부대를 열차, 차량, 도보행군 등으로 출

* 제15연대는 국일명(육) 제2호(1950.7.5, 국군재편성계획)에 의거 제1사단 제13연대에 흡수통합되었으나 연대장 최영희 대령의 건의에 따라 국일명(육) 제54호(1950.8.25)에 의거 제13연대가 제15연대로 개칭됨으로써 오늘날까지 그 역사가 이어져 오고 있다.

발시킨 제1사단장 백선엽(군영, 대장 예편) 대령은 제6사단 제7연대가 음성지역에서 작전중일 뿐만 아니라 사단은 전투태세가 미비하기 때문에 일단 증평에 부대를 집결시켜 부대정비를 하기로 하였다. 이리하여 증평의 각급 학교나 공공시설에 부대를 집결시킨 제1사단은 그간 전사했거나 부상 또는 행방불명된 중대급 이상의 공석을 장교중 선임자로 임명하고 부족되는 소대장은 하사관으로 충당하여 지휘체제를 보강하고 병력이 부족되는 부대는 통폐합을 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비록 병력과 장비의 부족으로 전투력은 미흡했으나 전투부대로서의 면모를 갖추어나갔다. 제1사단은 증평에서 국군재편성 계획에 따라 제5사단 제



< 음성지구 전적비 >

15연대를 제13연대에 흡수통합하였으나 제3사단 제22연대는 육본지시에 의거 통합을 하지 못했다. 당시의 연대별 실정은 다음과 같았다.

제11연대(연대장:대령 최경록, 군영, 중장 예편): 그 동안의 전투로 많은 병력과 장비의 손실을 입었으나 집결된 병력은 장교 60명, 사병 946명으로 3개 대대 편성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대대는 250여 명, 중대는 60~70명으로 전전에 비하면 절반도 못되는 수준이었다. 그래도 이 연대는 사단 내에서 자체병력으로 3개 대대를 유지한 유일한 부대였으며, 어느 정도의 장비도 갖추고 있어 전투력이 가장 강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제12연대(연대장:중령 김점근, 육사 1기, 소장 예편): 개전 당시 예성강 서쪽의 연안, 청단지역에 배치되었던 병력이 어선을 이용하여 인천, 군산 등지로 철수함으로써 병력분산이 심하였으며, 집결된 병력은 600여 명이었으나 비무장 병력이 상당수여서 전투가용 병력은 1개 대대 규모였다. 연대는 음성에 있는 동안 군산으로 철수한 2개 중대 규모의 병력이 복귀함으로써 병력수는 증가했으나, 이들은 대부분 비무장이므로 전투가용 병력으로 잠정 제1대대를 편성하여 음성 전투에 투입하였다.

제13연대(연대장:대령 김익열, 군영, 중장 예편): 그 동안의 전투로 많은 손실을 입었으며 집결된 병력은 1개 대대 규모인 600여 명으로서 선임장교인 제1대대장 김진위(육사 3기 특별, 소장 예편) 소령이 지휘하고 있었는데, 이는 수원에서 미 공군기의 오폭으로 연대장 김익열 대령이 부상당하고 부연대장이 전사했기 때문이었다.

제15연대(연대장:대령 최영희, 군영, 중장 예편) : 예하 3개 대대와 전투중에 배속되었다가 연대와 행동을 같이하여 온 제20연대 제1대대의 2개 중대(부대대장 오대영 대위 지휘) 등의 병력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실병력은 1,300여 명으로서 2개 대대 규모였다.

제13연대와 제15연대의 통합작업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통합연대의 연대장에는 최영희 대령이 임명되었으며, 제13연대 전체병력은 통합연대의 제1대대(대대장:소령 김진위)로 재편성하고, 제15연대 제2대대와 제3대대는 그대로 통합연대의 제2대대(대대장:소령 안광영, 육사 3기, 소장 예편)와 제3대대(대대장:소령 최병순, 육사 3기, 대령 예편)로 명명하여 3개 대대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그 나머진 제15연대 제1대대(대대장:소령 이준일, 육사 2기, 소장 예편)와 제20연대의 2개 중대 병력은 신편 3개 대대와 연대 본부에 보충되었다.

통합연대는 제13연대로 명명되었으며, 이로써 연대는 장교 106명, 사병 1,991명, 81mm 박격포 13문, 60mm 박격포 16문, 2.36인치 로켓 18문, 기관총 20정으로서 상당한 전투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재편성작업이 진행중인 7월 7일, 제1사단장 백선엽 대령은 증평에 와 있는 제6사단 사령부를 방문하여 제6사단장 김종오 대령으로부터 음성지역의 적정에 관한 설명을 듣고 7월 8일 15:00부로 제1사단과 제6사단 제7연대가 임무교대함과 동시에 제1사단이 제7연대와 이를 지원하던 포병중대를 작전통제하기로 합의하였다. 백선엽 대령은 음성의 제7연대도 방문하여 적정을 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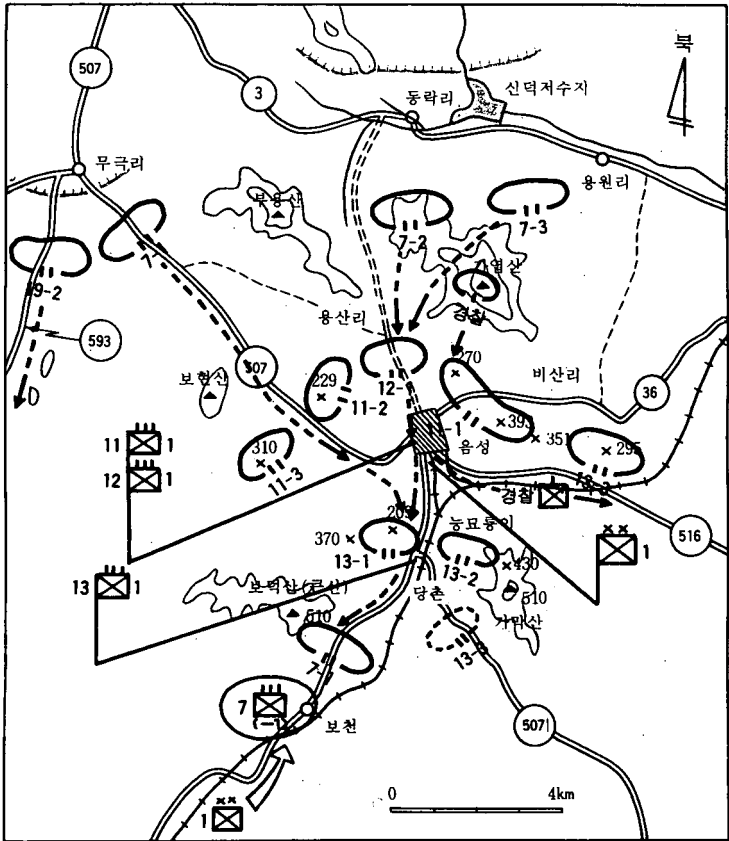
하였으며, 연대장 임부택 중령에게 “우리 사단은 보다시피 피로에 지쳐 있을 뿐만 아니라 야포도 없고 중화기도 없다. 그러니 나를 좀 도와달라.”고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임부택 중령은 “힘껏 돕겠습니다.”라고 흔쾌히 답변하였다.

제1사단장은 사단의 전투력이 미약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제7연대의 배치선에서 6~7km 후방인 음성 외곽에 방어진지를 편성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요지의 명령을 하달하였다.

제1사단의 명령(요지)

1. 사단은 7월 8일 15:00부로 음성지구 방어임무를 제6사단 제7연대로부터 인수함과 동시에 동 연대를 작전통제한다.
2. 제11연대: 사단의 제1선 부대로서 7월 8일 15:00까지 음성 외곽인 310고지(CR 7987) - 299고지(CR 8188) - 270고지(CR 8489) - 351고지(CR 8587) 간에 진지를 편성, 방어하라.
3. 제12연대: 제1대대를 제11연대에 배속하라.
4. 제13연대: 사단의 제2선 부대로서 7월 8일 15:00까지 음성 남쪽의 370고지(CR 8185) - 430고지(CR 8584) 간에 진지를 편성, 방어하라.
5. 제7연대: 현진지에서 사단의 전개를 엄호한 후 7월 8일 18:00에 보천(CR 8081)으로 철수하여 사단 좌측방을 방호하라.
6. 제16포병대대 제2중대: 사단을 일반지원하라.
7. 사단지휘소: 음성.

요도21 제 1사단의 음성 전개 및 배치 (7. 8. 24 : 00)



사단 방어명령을 받은 제11연대(연대장:대령 최경록)는 7월 7일 18:00경에 음성에 진입하였으며 다음날인 8일 오전중에 진지를 점령하였는데, 가용한 4개 대대를 무극리 방향에 2개 대대,

음성 북쪽의 계곡 접근로에 1개 대대, 충주 방향에 1개 대대를 아래와 같이 배치하였다.

제11연대의 방어배치

1. 제1대대

가. 연대의 우전방 대대.

나. 270고지(CR 843890) - 393고지(CR 850883, 수정산) - 351고지(CR 859878)에 배치.

2. 제2대대

가. 연대의 중앙좌측대대.

나. 299고지(CR 812888) 일대의 능선에 배치.

3. 제3대대

가. 연대의 좌전방 대대.

나. 310고지(CR 7987) 일대의 능선에 배치.

4. 제12연대 제1대대

가. 연대의 중앙우측대대.

나. 용산리(CR 8289) 일대에 배치.

5. 연대지휘소: 음성역(CR 835869).

제11연대가 음성 주변에 진지를 점령하는 동안 제13연대(연대장: 대령 최영희)도 음성 남쪽에 진지를 점령하였는데, 대대별 배치는 다음과 같았다.

제13연대의 방어배치

1. 제1대대
 - 가. 연대의 좌전방 대대.
 - 나. 209고지(CR 832857) 일대의 능선에 배치.
2. 제2대대
 - 가. 연대의 우전방 대대.
 - 나. 능모룽이(CR 8485) - 430고지 간의 능선에 배치.
3. 제3대대
 - 가. 연대의 예비.
 - 나. 당촌(CR 8384) 일대에 집결대기.
4. 연대지휘소 : 당촌(CR 833848).

이와 같이 제1사단은 음성 주변에 전개하여 음성방어에 임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날(7월 8일) 아침에 우측의 제6사단 제2연대가 충주를 빼앗기고 수안보로 철수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사단은 우측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13연대에게 “1개 대대를 295고지(CR 8787)에 배치하여 충주 방면에서 남하하는 적을 엄중히 경계하라.”는 명령과 함께 제7연대의 대전차포 중대(중대장:대위 박철원)를 제13연대에 배속하였다. 사단의 명령을 받은 제13연대는 16:00경 예비인 제3대대와 배속받은 대전차포 중대를 295고지 일대에 배치하여 충주 방향을 예의 경계하도록 하였다.

한편, 제6사단 제7연대는 제1사단의 전개가 완료되자 주력부

대는 15:00경에 철수하고 후위부대는 18:00 전후에 철수하여 제1대대는 보천역 북동 1.5km의 보덕산 동측 줄기인 행태고개 일대(CR 805834~CR 820825)에 배치하고 연대본부, 제2대대, 제3대대 등은 보천리(CR 8081)에 집결하였다. 제7연대의 철수와 함께 가엽산에 배치되었던 강원도 전투경찰대도 철수하여 상주 방면으로 향하였다.

무극리 남쪽에 배치되었던 제6사단 제19연대 제2대대는 이날 새벽부터 충주 상황이 불리하게 전개됨에 따라 취해진 사단의 조치로 08:00경에 철수를 단행하여 수안보로 달려갔다.

나. 소여리 전투

7월 8일 15:00를 전후하여 진지편성을 완료한 제11연대는 사단으로부터 “철수하는 제7연대와 긴밀히 협조하고 적이 추격할 지도 모르니 경계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무극리 쪽에 배치되었던 제7연대 제1대대의 후위부대가 18:00경에 507번 도로를 따라 음성 쪽으로 철수하자 사단이 예견했던 대로 그 뒤를 따라 북괴군이 접근하고 있었다.

507번 도로를 책임진 제11연대 제2대대장 정영홍(육사 3기, 준장 예편) 소령은 제8중대장 홍정표(육사 8기, 중령 예편) 중위에게 “기름고개에서 경계임무를 수행하라”는 명령을 내렸었다. 홍중위는 20여명뿐인 중대의 지휘를 중대 인사제인 최상린 상사에게 위임하고 자신은 4명의 병사를 선발하여 약 2km 전방의 기름고개에 경계초소를 설치하였으며 대대와는 TS-10 전화기로 통신

을 유지하였다. 제7연대 제1대대가 철수한 후 홍중위는 대대장으로 부터 “제7연대 병력은 다 철수하였다. 지금부터 나타나는 병력은 적군이니 경계를 철저히 하고 적 발견시는 즉각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대대장의 지시를 받은 직후인 18:20경, 홍중위는 기름고개 너머에서 접근하는 일단의 병력을 발견하였는데 그 규모는 1개 대대였다. 홍중위로부터 보고를 받은 제2대대장 정영홍 소령은 이적을 진전으로 끌어들이어 공격하기로 결심하고 경제조를 철수시키고 각 중대를 도로변 가까이로 재배치하는 한편, 연대장에게 상황을 보고하면서 “대대의 사격개시와 동시에 지원포병으로서 적의 퇴로가 될 기름고개 일대를 포격해 주십시오.” 하고 포사격 지원을 요청하였다.

대대장은 중대의 재배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6중대(중대장:대위 양봉직, 육사 6기, 중장 예편) 지역으로 갔다. 대대 중앙에 배치된 제6중대는 70여 명으로서 병력이 혼성되지 않고 중대장이 교체되지 않은 유일한 중대였으나 장교가 부족하여 소대장은 모두 하사관으로 충원되어 있었다. 제2대대장이 제6중대에 당도하였을 때는 일몰 직후였는데 2열중대로 적이 접근하고 있는 것이 보였으며 잠시 후에는 그 선두가 100m까지 접근하였는데 적은 경제에 대하여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듯하였다. 대대장은 중대장들에게 “나의 사격개시 명령이 있을 때까지는 절대로 사격하지 말라”고 엄명을 내리고 적이 더욱 접근하기를 기다렸다. 이윽고 적 행군대열의 절반 가량이 대대의 화망 안에 들어섰고 그 선두가 제7중대(중대장:중위 조문석) 지역을 막 벗어나려 할

때 대대장은 권총 1발을 발사하여 사격개시 명령을 내렸다.

제2대대의 일제사격을 받은 북괴군은 우왕좌왕하다가 쓰러져 갔고 일부병력은 길옆의 논으로 뛰어들었으나 곧 격멸되었다. 살상지대에 미처 들어오지 않은 적들은 재빨리 방향을 바꾸어 제3대대(대대장:소령 김재명, 육사 2기, 중장 예편) 지역과 기름고개 쪽으로 도주하였는데, 이들은 제3대대로부터 사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22고지(CR 824877) 남쪽에 포진해 있던 제16포병대대 제2중대의 105mm 포탄세례를 받았다. 제11연대 제2대대 및 제3대대와 포병중대의 사격으로 삼시간에 어두워지던 벌판은 불바다가 되었으나 얼마 후에는 어둠에 휩싸여 조용해졌다. 다음날 제2대대는 교전지역에서 100여 구의 북괴군 시체를 확인하였고 많은 장비를 노획하였을 뿐만 아니라 13명의 포로를 획득하였는데 이들은 대부분 나이 어린 소년들이었다. 이 포로들을 심문한 결과 이곳에 침입하였던 적군은 북괴군 제15사단 제49연대 병력이 확인되었다.

제2포병중대장 이만호 대위는 이때의 상황에 대하여 “보병부대에서는 조명탄 사격을 요구하였으나 그 탄약이 없어 조명지원을 하지 못했다. 만약 조명지원만 할 수 있었다면 거기 나타난 적을 전멸시킬 수 있었다.”라고 하였다. 작일의 공격에 실패한 북괴군은 다음날인 7월 9일 05:00경부터 포격을 계속하다가 09:30경부터 기름고개에서 1개 대대의 병력으로 공격을 하였다. 적이 공격하자 제2대대는 제3대대(대대장:소령 김재명)와 협조하여 야포, 박격포 등으로 일제사격을 퍼부었다. 불의의 사격을 받은 적은 당황하여 보현산으로 퇴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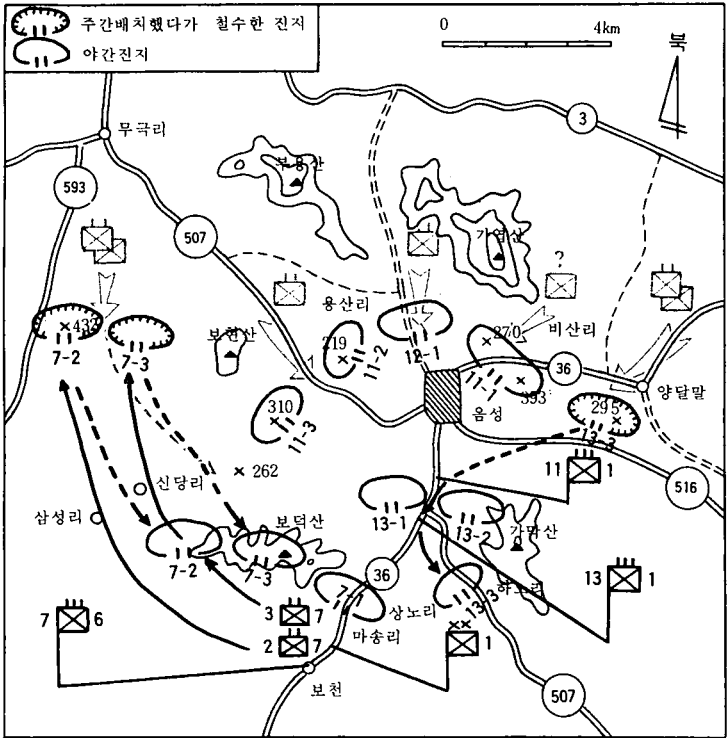
다. 제 7 연대의 공격

북괴군이 기름고개에서 공격준비를 서두르고 있을 즈음, 사단 좌측방 방호임무를 부여받은 제6사단 제7연대는 제1대대로 하여금 현진지를 계속 확보토록 하고 제2대대와 제3대대로서 무극리에서 기름고개를 경유, 음성으로 진출하려는 적의 후방을 차단할 목적으로 08:00에 보천에서 북서쪽으로 공격, 무극리 방향으로 나아갔다. 제2대대는 적의 완강한 저항을 물리치고 보천-삼성리(CR 7684)-432고지(CR 7489) 방향으로 진출하고, 제3대대는 보천-신당리(CR 7785)-346고지(CR 7689) 방향으로 진출하여 15:00에는 보현산 서쪽의 432고지-346고지 선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제7연대의 사단 좌측방으로의 공격으로 무극리 방향으로부터 적의 압력은 다소 완화되었으나 사단은 중앙인 용산리 계곡과 우전방인 비산리(CR 8888) 방향으로부터 적의 강한 압력을 받고 있었다. 제48연대와 교대한 것으로 판단되는 북괴군 제50연대의 2개 대대는 야포와 장갑차의 지원을 받으면서 동쪽에서 36번 도로를 따라 음성으로 진출하고 있었고 1개 대대는 가엽산에서 용산리로 진출함으로써 제13연대 제3대대와 제12연대 제1대대 등이 고전을 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음성에 대한 적의 압력이 격증하자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사단장은 사단방어지역 좌측방으로 진출한 제7연대를 철수하도록 하였다. 제7연대는 16:00에 철수를 단행하여 보덕산 서측능선에 제2대대를 좌, 제3대대를 우로 하여 진지를 점령하였다. 이로써 제7연대는 이날 저녁때에는 좌로부터 제2대대, 제3대

요도22

상황 개요 (1950. 7. 9)



대, 제1대대 순으로 연결된 진지를 점령하게 되었다.

이날의 제7연대 공격에 대하여 제1사단장 백선엽 대령은 “7월 9일 적이 사단 좌측방으로 공격함으로써 사단이 고전하고 있었는데 임부택 대령의 공격으로 살아났다.”고 하였고, 제7연대장 임부택 대령(7월 9일부터 대령으로 진급)은 “당시의 제1사단은 아마 내 연대(제7연대) 보다도 전투력이 약했을 것이다. 그런데 적

이 제1사단의 좌익을 우회하기 시작했으므로 보다못해 독단으로 공격한 것이다. 이 공격으로 제1사단장으로부터는 감사의 말을 들었으나 그후에 우리 사단장인 김종오 대령으로부터는 꾸중을 들었는데 그때 제6사단은 어려운 상황에 있었으며 우리 연대의 복귀를 요청중이었다.”라고 말하였다.

제7연대가 432고지-346고지 선에서 물러서자 제7연대와 대치하고 있던 북괴군 제49연대의 주력인 2개 대대의 병력이 제7연대를 뒤따라 오다가 보현산 남서쪽인 제11연대 제3대대의 서측방으로 진출하려고 하였다.

507번 도로 좌·우측에 배치되어 있던 제11연대 제2대대와 제3대대는 19:00경부터 보현산에서 도로를 따라 재공격을 시도하는 적을 각종 사격을 집중하여 격퇴시켰으나 19:30경부터 3대대 서측방으로 진출하려는 적을 저지하지는 못했다. 이 적은 어둠이 깔리는 시각에는 보덕산의 제7연대와 310고지(CR 7987)의 제11연대 제3대대 사이에 있는 262고지(CR7886)를 점령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북괴군은 음성을 점령하기 위하여 가용병력으로 압력을 가하면서 아침 일찍부터 음성 주변에 치열한 포격을 가하였다. 제11연대와 제12연대는 음성역사에 지휘소를 설치 운용하고 있었는데 7월 9일 06:00경에 적 포탄 1발이 음성역사에 명중하였기 때문에 한때 소동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사단장은 연대지휘소가 피격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사단 및 연대지휘소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사단지휘소는 06:30경에 음성 남쪽 7km의 마송리(CR 8081)로 이동하고 제11연대의 지휘

소도 음성역 남쪽 1km의 교량(CR 836861) 밑으로 이동하였다.

라. 용산리 전투

병력 부족으로 잠정 제1대대로 재편성한 제12연대는 제1중대를 용산리의 삼차로(CR 825904) 일대에 소대별로 경계배치하고 3차로에는 대전차 지뢰를 매설하였으며, 제2중대, 제3중대, 제4중대 등 3개 중대를 용산리 계곡 좌우측의 능선에 배치하였다.

7월 9일 15:00경, 사정고개와 가엽산 방향에서 적이 1개 대대 규모의 병력으로 공격하여 왔다. 이들이 공격하자 경계임무를 수행하던 전초중대가 철수하였다. 경계부대가 철수한 지 얼마 뒤에 이들은 가엽산 아래의 제11연대 제1대대의 1개 중대가 배치된 용추리의 270고지(CR 843890)를 공격하면서 용산리 계곡에 있는 도로 좌우측의 제12연대 진지에도 공격을 가하였다.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제12연대 제1대대와 제11연대 제1대대의 일부병력은 상황이 불리해지자 음성까지 후퇴하였다. 그러나 18:00경, 제12연대는 전투배치하지 않았던 병력까지 동원하고 좌·우측에 배치되었던 제11연대 제1대대 및 제2대대의 지원을 받아 역습을 단행하여 19:40경에는 원래의 진지를 회복하였다.

이날의 제12연대 제1대대의 철수상황에 관하여 잠정 제4중대장이었던 김영선(육사 7기, 중장 예편) 중위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개전시 제7중대장으로 싸웠으나 증평에서 재편성시에

는 연대병력이 고작 800여 명 뿐이고 화기가 없는 병사가 상당히 많아 행정병까지를 포함하여 잠정 1개 대대를 편성했는데, 장교중 선임자가 중대장에 임명되었고 나는 최초에는 후임자여서 중대장이 되지 못했다. 그런데 음성 북쪽의 계곡에 병력을 배치한 날 밤에 김두열(육사 5기, 대령 예편) 대위가 지휘하는 중대를 인수하라는 지시가 갑자기 내려왔다. 김두열 대위는 연대 인사주임으로 보직되어 왔고 내가 야밤에 중대장이 되었는데 그 다음날에 나는 중대진지를 겨우 한 번 둘러본 상태에서 적의 공격을 받아 우리 중대가 무너졌다. 당시 우리 중대에는 사단공병대대에서 20여 명이 대전차 지뢰 매설을 위하여 파견나와 있었는데 이들은 전투배치되지 않고 어느 민가에 있었다. 그런데 우측의 제11연대 병력이 있었던 능선에서 적이 박격포 공격을 가하고 사방에서 총소리가 들리자 공병들이 음성 쪽으로 뛰기 시작했고 이를 본 중대병력이 철수명령이 내린 줄 알고 덩달아 뛰어나감으로써 중대진지는 삼시간에 무너져 버렸으며, 이 여파로 인접중대도 음성으로 철수하게 되었다. 나는 병사들을 세우려고 했지만 그들은 얼굴도 모르는 나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서 이들을 저지할 수가 없었다. 이 문제로 제11연대장 최경록 대령이 제12연대장 김점곤 중령에게 항의하는 바람에 나는 즉결처분을 받을 뻔했는데 참모들의 도움으로 겨우 처벌을 면하였다.”

제12연대장 김점곤 중령은 이렇게 말하였다.

“음성에서의 연대병력은 그간 많은 병력이 복귀하여 비무장을 포함 1,000여 명이었는데 배치된 다음날에 1개 중대가 명령 없이 철수하여 제11연대와 간격이 생겼다. 그래서 이 문제로 한때 논란이 되기도 하였으나 그날로 다시 공격하여 진지를 회복하였다.”

마. 비산리 전투

음성 동쪽 충주 방향으로 4km 지점인 비산리의 295고지 일대에는 제13연대 제3대대(대대장:소령 최병순)가 제7연대의 대전차포 중대(중대장: 대위 박철원)를 배속받아 36번 도로를 따라 접근하는 적에 대비하기 위하여 배치되어 있었고, 음성 외곽인 270고지(CR 843890) - 393고지(CR 850883, 수정산) 간에는 제11연대 제1대대(대대장:대위 장근술)가 배치되어 있었다.

북괴군은 야포사격을 계속하다가 15:00경 음성 쪽으로 포격을 전환하면서 8대의 장갑차를 앞세워 제50연대의 2개 대대 병력으로 신양리(CR 9391)에서 36번 도로를 따라 295고지로 공격하여 왔다. 그러나 북괴군의 공격은 비산리 양달말(CR 8888) 일대에서 제13연대 제3대대의 57mm 대전차포에 의해 2대의 장갑차가 파괴되고 제11사단 지원포병의 포탄세례를 받아 저지되었다. 일차 공격이 저지되자 북괴군은 일부병력을 은밀히 295고지 동측 방으로 침투시키면서 정면으로 재공격을 시도하였다.

어둠이 깃들 무렵, 사단에서는 동측방 경계 임무차 배치된 제13연대 제3대대를 철수시키도록 하였다. 연대의 철수명령을 받

은 제3대대장 최병순 소령은 각 중대장들에게 “현진지에서 철수하여 295고지 후사면에 집결하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 무렵 295고지 동측방으로 우회 침투한 적의 일부병력이 295고지 후방에서 충북선 철로를 따라 음성으로 진출하고 있었다. 이러한 적정을 모르고 있던 제3대대는 집결이 끝나자 음성천 북쪽에 철로와 병행하여 있는 516번 도로를 따라 음성으로 철수하기 위하여 도로로 접근중 침투하는 북괴군과 맞부딪치게 되었다. 어둠 속에서 피아를 분간할 수 없게 된 양측부대는 격투를 벌이게 되었으나 제3대대는 수적 우세에 힘입어 적을 제압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혼전중에 일부 병력은 개별적으로 음성천을 도하하여 집결지로 향하기도 하였다. 이때 북괴군은 기도가 폭로되자 24:00경에는 공격을 중단하고 철수하였다.

02:00경, 제3대대는 집결지에서 병력을 점검한 결과 2개 소대 병력과 대전차포 중대가 도착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다. “대전차포 중대가 철수하지 못했다.”는 보고에 접한 사단장은 “대전차포를 즉각 회수하라”는 엄명을 내렸고 연대장도 “대전차포 중대를 구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제3대대는 04:00경에는 음성천을 재도하하여 침투해 들어갔다. 날이 밝아올 무렵에 철수시 격투했던 장소에 당도하였는데 그곳에는 적군은 물론 아군이나 아군장비 등 아무것도 없었다.

제3대대는 격투장 일대를 한참동안 수색하고 있을 때, 연대로부터 “대전차포 중대가 복귀했으니 제3대대는 철수하라”는 명령을 받고 다시 철수하였으며, 상노리(CR 8382)－하노리(CR 8484)간의 준비된 진지를 점령하였다. 한편, 지난밤 대전차포 중대는

제3대대 후미에서 철수하다가 대열의 선두에서 갑자기 육박전이 벌어지자 다른 통로로 진입하여 연대로 철수하였던 것이다.

3. 철수작전

가. 철수계획

작일(7월 9일)의 음성진입에 실패한 북괴군은 날이 밝자 포격을 가하며 사단의 좌측, 중앙, 우측 등 3개 방향에서 공격함으로써 사단은 점차 불리한 상황에 빠져들고 있었다.

제11연대의 좌측인 삼성리에서는 작야의 침투기도에 이어 북괴군 2개 대대 병력이 이날(10일) 새벽부터 262고지에서 하당리 방향으로 진출을 기도하고 있으며, 07:00경에는 북괴군 1개 연대 병력이 야포지원하에 전차와 장갑차를 앞세워 비산리(CR 8888)에서 공격함으로써 제11연대 제1대대는 힘겨운 전투를 하고 있었고, 용산리의 제12연대 제1대대도 2개 대대 규모의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고전하고 있었다.

사단의 좌측방 방호임무를 부여받고 보덕산 능선에 배치된 제6사단 제7연대는 04:00에 제2대대로 262고지에서 하당리로 진출하려는 적을 공격하도록 하였다. 제2대대는 보덕산 진지에서 공격을 개시, 12:00에는 적의 저항을 물리치고 352고지(CR 8086)를 점령하였다.

이와 같이 제7연대 제2대대가 공세를 취하고는 있지만 전반적

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져들고 있을 때 제1사단은 군단장 김홍일(특임 7기, 중장 예편) 소장으로부터 “제1사단은 적을 최대한 지연시키면서 괴산, 미원(CR 7954) 지구로 철수하라”는 철수명령을 받았다. 이때 군단장은 제6사단 제2연대가 이미 충주에서 음성 남동쪽 40km인 수안보로 물러났기 때문에 제1사단이 퇴로를 차단당할까 염려하여 철수명령을 내렸으며, 같은 날 진천 남서쪽 40km의 전의가 위협받게 되자 진천의 수도사단에게도 청주지구로 철수하도록 명령하였던 것이다.

열세한 병력과 장비로서는 더이상 음성지역을 지탱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던 제1사단장 백선엽 대령은 군단으로부터 철수명령을 받고 다음과 같은 요지의 철수명령을 하달하였다.

제 1 사 단 의 철 수 명 령 (요 지)

1. 사단은 적을 최대한 저지하면서 7월 10일 12:00에 현진지에서 괴산(CR 9273)-미원(CR 7984) 지구로 철수하려 한다.
2. 철수순서는 사단사령부 및 직할부대, 제11연대, 제12연대, 제7연대, 제13연대 순이다.
3. 제11연대
 - 가. 현진지에서 12:00에 철수하여 괴산에 집결하라.
 - 나. 12:00부로 제12연대 제1대대를 배속해제한다.
 - 다. 의명, 적을 저지할 준비를 하라.
4. 제12연대
 - 가. 제11연대에 배속한 제1대대를 장악하여 12:00에 철수하라.

나. 제11연대를 후속하여 괴산에 집결하라.

다. 의명, 적을 저지할 준비를 하라.

5. 제13연대

가. 현진지에서 사단 주력부대의 철수를 엄호하라.

나. 의명, 철수하여 괴산 경유, 미원에 집결하라.

6. 제7연대

가. 현진지에서 사단의 철수를 엄호하라.

나. 의명, 철수하여 원대복귀하라.

7. 제16포병대대 제2중대

가. 사단의 철수를 엄호하라.

나. 의명, 괴산으로 철수하라.

8. 사단지휘소: 괴산(7월 10일 12:00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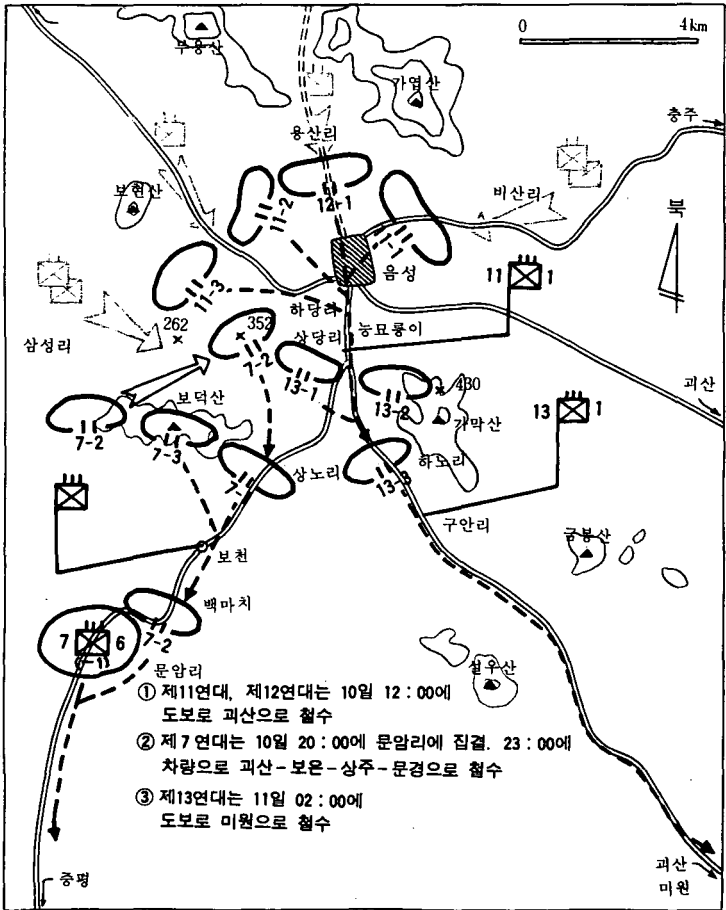
나. 주력부대의 철수

(1) 제11연대 및 제12연대의 철수

사단의 철수명령에 따라 제11연대는 352고지(CR 8086)-209고지(CR 8385)-430고지(CR 8584) 선에 배치된 제7연대 제2대대와 제13연대 제1대대 및 제2대대의 엄호하에 12:00부터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제11연대는 제1대대가 음성 동쪽의 393고지 일대에서 적을 저지하는 동안 제2대대, 제3대대, 제12연대 제1대대 순으로 연대주력을 철수시키고 제1대대는 이들 부대가 음성을 이탈한 후인 14:00에 철수시켰다. 연대주력은 이날 석양 무

요도23

제 1 사단의 음성 철수



럼에 괴산에 도착하였고 제1대대는 밤이 되어서야 집결지에 당도하였다.

제12연대는 제11연대에 배속하였던 제1대대가 12:00에 전투지역을 이탈하자 잔여병력까지 장악하여 제11연대의 뒤를 따라 철수하였으며 저녁때에 괴산에 도착하였다.

(2) 제 7 연대의 철수

제6사단 제7연대는 제11연대가 음성지역을 이탈한 후인 16:00경, 제2대대를 352고지에서 철수시켜 백마치(CR 7979) 일대에 배치하여 연대주력의 철수를 엄호토록 한 다음 20:00에 연대본부 및 직할대와 보덕산의 제1대대 및 제3대대를 철수시켜 문암리(CR 7778)에 집결토록 하였다. 이때 제1사단으로부터 배속해 제된 제7연대는 23:00에 연대주력은 문암리에서, 제2대대는 백마치에서 차량으로 괴산-보은-상주를 경유하여 문경으로 철수하여 제6사단에 복귀하였다. 그러나 제7연대를 직접 지원하던 제16포병대대 제2중대는 옥현리(CR 8380)로 진지를 이동하여 사단철수를 엄호해야 하였다.

다. 엄호부대의 철수

사단주력의 철수를 엄호하게 된 제13연대는 당촌에서 구안리(CR 8581)로 지휘소를 이동하여 209고지(CR 8385)-430고지(CR 8584) 선에서 적의 남진을 저지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으며, 제3대대도 제2선인 상노리(CR 8382)-하노리(CR 8483) 간에 배치되어 있었다.

사단의 주력부대가 음성을 철수하자 전차와 장갑차를 앞세운 2개 연대 규모의 북괴군이 음성 시내로 진입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부대정비가 더 급한 듯, 철수하는 국군을 추격하지 않고 제13연대 진지에 포격만 가할 뿐 공격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었다. 적의 포격에 연대도 포격으로 맞섬으로써 한때 포격전이 전개되기도 하였다.

19:00경, 북괴군은 아군의 방어강도를 탐색하려는 듯, 제1대대 및 제2대대 지역에 1개 중대 규모의 병력으로 공격해 왔으나 이들은 곧 격퇴되었다. 그러나 북괴군은 22:00경에는 209고지의 제1대대 진지에 포격을 가하면서 대대 규모의 병력으로 재공격해 왔다. 209고지 일대는 험하지 않은 낮은 지형으로서 36번 도로를 끼고 있어 적이 괴산이나 증평으로 남진하려면 반드시 장악해야 할 중요지형이었다. 적의 공격을 받은 제1대대는 지원포병과 대대의 가용한 화기를 총동원하여 적을 저지하였다.

한편, 사단주력이 괴산으로 철수완료하자 더이상 음성지역을 지탱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사단장은 제13연대장에게 미원지역으로의 철수를 명령함으로써 연대는 11일 02:00에 제1대대를 먼저 철수시키고 뒤이어 제2대대를 철수시켰으며, 제3대대는 제1대대 및 제2대대의 철수를 엄호한 후 마지막으로 철수하도록 하였다. 제13연대는 괴산을 경유, 11일 오후에는 미원 북동 3km의 쌍이리(CR 8156)에 집결하여 차후작전에 대비하였다.

제 5 장 괴산-미원 전투

1. 괴산 전투

가. 방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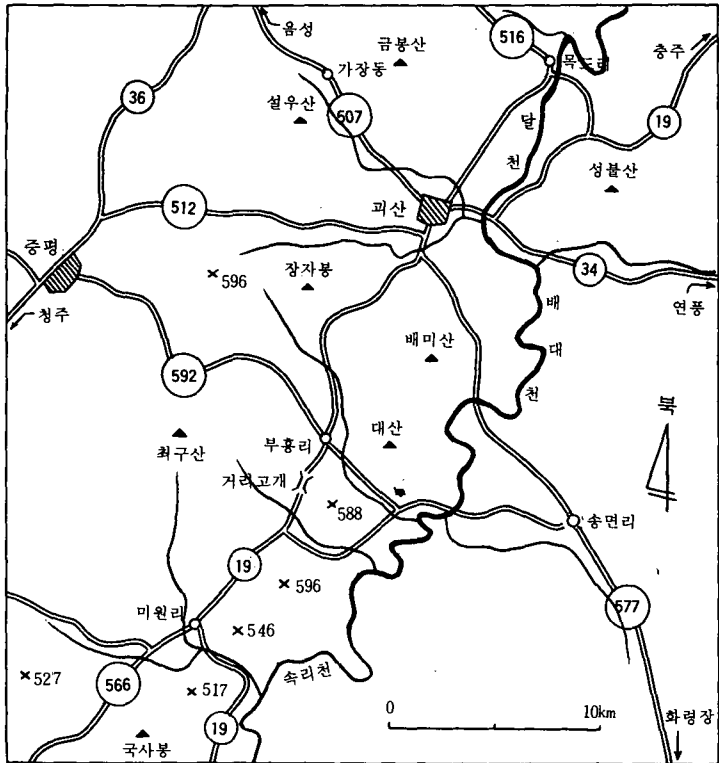
괴산(충청북도 괴산읍)과 미원(충청북도 청원군 미원면 미원리)은 소백산맥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일대는 400~500m의 고지군으로 둘러싸여 있다. 괴산읍은 군청소재지로서 지방행정 및 교통의 중심지이고 미원도 면사무소 등 지방행정기관과 국민학교, 중학교 등 교육기관이 있는 곳이다.

지대 내의 도로망으로서는 음성-가장동(CR 8878)-괴산을 잇는 507번 도로, 음성-목도리(CR 9780)-괴산을 잇는 516번 도로, 충주-괴산-미원-보은을 잇는 19번 도로, 괴산-연풍(DR 1068)을 잇는 34번 도로, 증평-괴산을 잇는 512번 도로, 미원-고은리(CR 6646)-신탄진을 잇는 566번 도로, 증평-부흥리(CR 8662)-화령장(DR 0633)을 잇는 592번 도로, 청주-산성리(CR 6965)-미원을 잇는 무명도로 등이 있다.

주요 고지로서는 설우산(CR 8678, 530m), 금봉산(CR 8980, 482m), 배미산(CR 9266, 546m), 장자봉(CR 8670, 585m), 성불산(CR 9874, 530m), 대산(CR 8963, 648m), 최구산(CR 8063, 657m), 588고지(CR 8759), 596고지(CR 8456), 546고지(CR 8254), 국사봉

요도24

괴산-미원 지역 지형



(CR 7749, 587m), 517고지(CR 8050), 527고지(CR 7252)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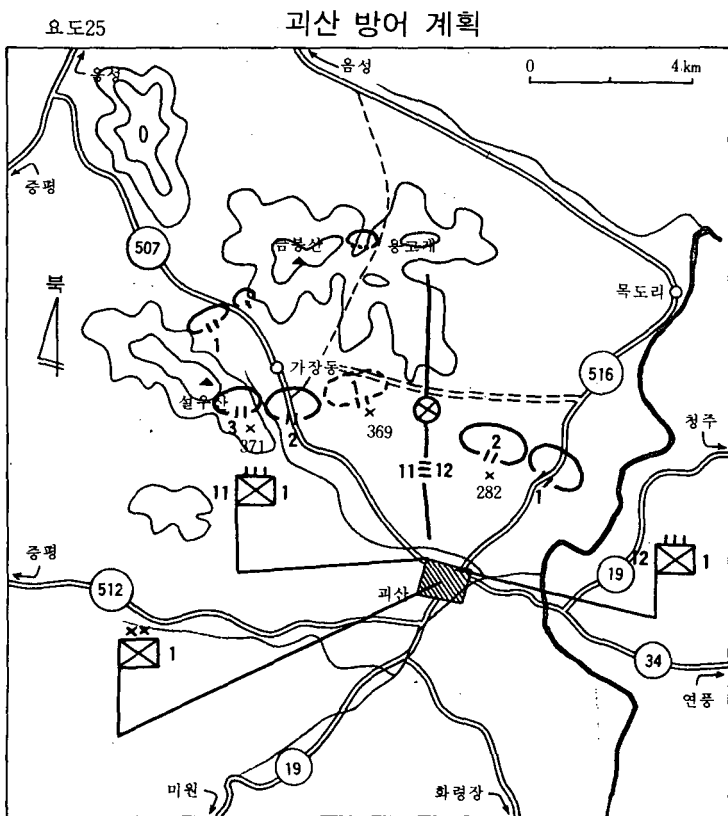
주요 하천으로는 속리산(CR 9944, 1058m)에서 발원하는 속리천이 미원 남동쪽 5km 지점과 괴산 동쪽 2km 지점을 지나 남에

서 북으로 흐르며 배대천과 달천으로 하천명이 바뀌어 충주에서 남한강에 합류하고 그 지류인 동심천, 성황천, 미원천 등 소하천들이 북서쪽의 고지에서 남동으로 흘러 속리천이나 달천에 합류한다.

7월 10일 아침, 북괴군 제15사단의 맹렬한 공격으로 음성을 지탱하기가 어렵게 되자 제1군단장 김홍일 소장은 제1사단장에게 “최대한의 저항을 시도하면서 괴산을 경유, 미원 방면으로 후퇴하라. 특히 괴산 부근에서의 방어를 중시하라.”고 명령하였다. 군단의 철수명령에 따라 제1사단은 제11 및 제12연대에 이날 12:00부로 철수하도록 하였으며, 이들 양연대는 제13연대의 엄호하에 음성을 철수하여 해질 무렵에 괴산에 집결하게 되었고, 제13연대는 적의 진출을 저지하다가 11일 02:00에 엄호진지를 철수하였다. 한편, 이날 12:00에 괴산으로 먼저 지휘소를 옮긴 제1사단장은 소백산맥의 험준한 지형을 이용하여 괴산 북방에서 적의 전진을 최대한 지연시키기로 하였는데, 그 계획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제 1 사 단 의 괴 산 방 어 계 획 (요 지)

1. 사단은 음성-괴산 방향으로 남진하려는 적을 괴산 북방에서 저지하려 한다.
2. 제11연대
 - 가. 사단의 좌일선 부대로서 371고지(CR 8777)-369고지(CR 9077) 선에서 507번 도로를 따라 접근하는 적을 저지하라.



나. 제13연대의 철수를 엄호하라.

3. 제12연대 : 사단의 우일선 부대로서 282고지(CR 9376) 일대에서 516번 도로를 따라 접근하는 적을 저지하라.

4. 제13연대

- 가. 의명 철수후 미원(CR 7954) 부근에 집결 대기하라.
 - 나. 차후 임무를 수행할 준비를 하라.
5. 제16포병대대 제2중대:사단 일반지원.
6. 사단지휘소:괴산

나. 가장동 공방전

7월 10일 20:00경, 괴산중학교에 집결한 제11연대는 “제13연대의 철수를 엄호하고 사단 좌전방을 방어하라”는 명령에 따라 우선 각 대대에서 1개 소대(1/20)씩을 차출하여 3개 소대로 잠정 전초중대를 편성하고 연대정보주임 박용운 대위로 하여금 이를 지휘, 차량으로 이동하여 길동(CR 8580)에 경계배치하도록 하는 한편, 제1대대에서 다른 1개 소대를 차출하여 용고개(CR 9080)에 경계배치하도록 하였다. 이들 경계부대는 23:30에는 배치완료되어 507번 도로와 사단 우전방에서 산간 소로를 따라 접근하려는 적에 대비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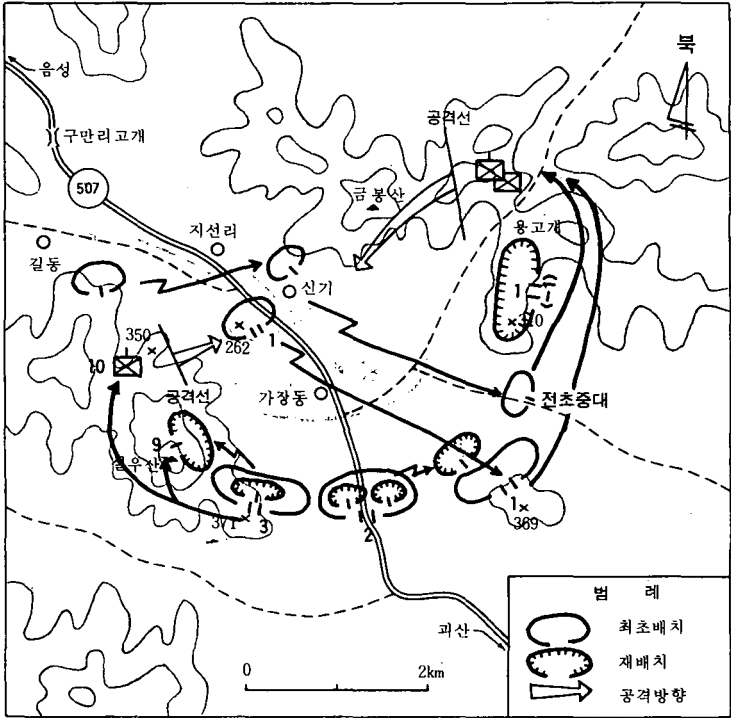
다음날인 11일 아침, 제13연대가 507번 도로를 따라 철수하자 그 뒤를 따라 북괴군이 접근하여 왔다. 09:50경, 이들의 정찰대가 구만리고개(CR 8581) 일대에 출현하자 전초중대는 구경 50기 관총으로 사격을 가하여 이들의 전진을 저지시키려 하였으나 이들이 계속 진출하자 10:00경에는 신기리(CR 8780)로 물러났다. 한편, 적이 계속 진출하고 있다는 보고에 접한 제11연대는 제1대대를 급거 출동시켜 14:00에는 신기리 맞은편인 262고지(CR 8779)에 배치하였다.

적은 그동안 아군의 공중공격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음인지 구간에는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 않더니 20:00경에 이르러 1개 대대 병력으로 262고지를 공격하였다. 북괴군은 야포와 박격포 지원하에 맹렬히 공격하였으나 제1대대와 전초중대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쳐 공격에 실패하였다. 그러나 첫번째 공격에 실패한 북괴군은 증원을 받아 재공격을 실시함으로써 262고지 일대에서는 전투가 계속되고 있었다. 제1대대와 전초중대가 힘겨운 전투를 계속하자 제11연대는 7월 12일 02:00에 피산중학교에서 정비를 하고 있던 제2대대를 가장동(CR 8878) 남쪽 1km의 507번 도로 좌우측에 긴급 투입하였고, 04:00에는 제3대대를 제2대대 좌측의 371고지에 투입하는 한편 대전차포중대를 제2대대 지역에 배치하여 도로를 따라 남하하는 적 전차에 대비하였다. 그리고 같은 시각인 04:00에 262고지에서 교전중이던 제1대대를 철수시켜 제2대대 우측의 369고지에 재배치하고 05:00에는 신기리의 전초중대도 제1대대 우측으로 철수시켰다. 이로써 06:00경에는, 제11연대는 371고지-369고지를 연하는 방어선을 형성하였는데 좌로부터 제3대대, 제2대대 및 대전차포중대, 제1대대, 전초중대 순이었다.

7월 12일 10:00경, 가장동으로 진출한 북괴군은 1개 대대 병력으로 도로 좌우측에 배치된 제2대대를 공격하였으나 연대의 집중사격을 받고 가장동 뒤편으로 물러났다. 일단 물러난 북괴군은 증원을 받아 14:00경에는 2개 대대 병력으로 가장동 일대에 전개하여 야포 및 박격포 사격을 하는 등 재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요도26

가장동 공방전



적의 움직임을 파악한 제11연대는 이 적을 포위격멸할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제11연대의 공격계획(요지)

1. 연대는 가장동에 침입한 적을 포위 격멸하려 한다.

2. 제1대대

가. 현진지를 2대대에 인계하고 12일 16:30에 용고개-369고지(CR 9079) 선에 재배치하라.

나. 의명, 금봉산-신기리(CR 8780) 방향으로 공격하라.

3. 제2대대

가. 현진지를 고수하라.

나. 16:30에 1개 중대를 제1대대 진지였던 369고지(CR 8077)에 재배치하라.

4. 제3대대

가. 1개 중대로 현진지를 확보하고 16:30에 대대주력은 설우산(CR 8678)-350고지(CR 8679) 선에 재배치하라.

나. 의명, 350고지-262고지 방향으로 공격하라.

각 대대는 연대의 공격계획에 따라 16:30부터 재배치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국군의 기도를 간파한 북괴군은 18:00경에 가장동에 진출한 병력중 일부를 길동(CR 8580) 쪽으로 이동시켜 포위되는 것을 피하도록 하는 한편 잔여병력으로는 262고지-신기리(CR 8780) 선에 저지진지를 점령하였다.

제11연대는 19:20에 공격을 개시하였다. 제1대대는 대대 주력으로 용고개-369고지 선을 확보하고 제1중대와 전초중대 등 2개 중대병력으로 금봉산에서 신기리로 공격해 내려갔고, 제3대대는 제9중대로 설우산을 확보토록 하고 제10중대로 350고지에서 262고지로 공격해 내려갔다.

북동과 남서측으로부터 국군의 공격을 받은 북괴군은 진지를

고수하려고 하였으며 한차례의 격전 끝에 북쪽으로 물러섰다. 제11연대는 어둠 속에서 근접전까지 치르면서 적을 지선리(CR 8780) 북쪽으로 격퇴시키고 262고지-신기리 선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이 무렵 제1사단은 좌측인 청주의 수도사단, 우측인 이화령의 제6사단과 전선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진지인 미원지역으로 철수할 것을 결정하고 제11연대와 제12연대에게 “미원으로 철수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 이에 따라 제11연대는 13일 03:00에 제2대대의 엄호하에 제1대대와 제3대대를 괴산 경유, 미원으로 철수시키고 뒤이어 제2대대도 철수하도록 하였다. 이리하여 제11연대는 이날(13일) 저녁때에는 미원에 집결하게 되었다.

한편, 제12연대는 사단 우전방인 282고지(CR 9376) 일대에서 음성-목도리-괴산을 잇는 516번 도로를 따라 접근하는 적에 대비하고 있었으나 북괴군이 이 접근로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접적도 하지 않고 있다가 사단명에 의거 제11연대에 앞서 미원으로 철수하였다.

사단주력인 제11연대와 제12연대가 괴산을 철수할 때 제6사단 제7연대 지원포병으로서 지금까지 제1사단을 지원해 온 제16포병대대 제2중대도 배속해제되어 문경의 제6사단으로 복귀하였다. 그대신 제1사단은 이날(13일) 군단으로부터 포병 1개 중대(105mm 4문)를 배속받았다.

2. 미원 전투

가. 방어계획

제13연대는 11일 02:00에 음성을 철수하여 오후에는 미원 북동 3km의 쌍이리(CR 8256)에 집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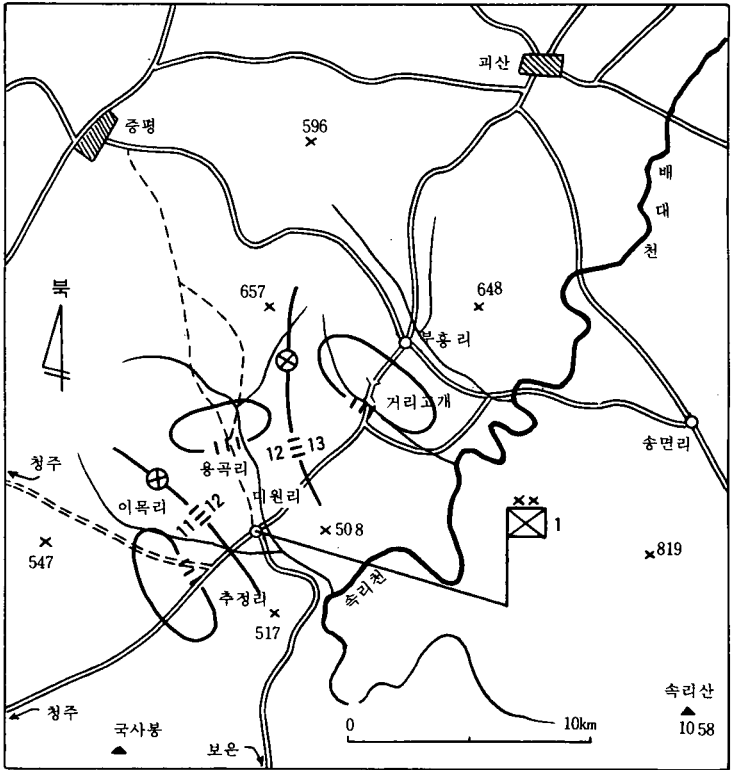
제1사단장은 괴산 북방 가장동에서 전투가 전개되고 있던 12일 12:00에 지휘소를 괴산에서 미원으로 옮기고 제11연대와 제12연대를 괴산에서 철수시켜 미원을 방어할 계획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은 요지의 미원지구 방어명령을 12일 20:00에 하달하였다.

제1사단의 미원지구 방어명령(요지)

1. 사단은 미원 일대에서 적의 전진을 저지하려 한다.
2. 제11연대
 - 가. 괴산에서 13일 03:00 철수.
 - 나. 사단 좌전방 연대로서 추정리(CR 7649)－이목리(CR 7554) 선에서 청주로부터 접근하는 적을 저지하라.
3. 제12연대
 - 가. 괴산에서 12일 22:00 철수.
 - 나. 사단 중앙 연대로서 용곡리(CR 7959) 일대에서 증평－용곡리－미원으로 접근하는 적을 저지하라.

요도27

미원지구 방어 계획



4. 제13연대

가. 사단 우전방 연대로서 거리고개(CR 8560) 일대에서 괴산 및 증평에서 부흥리 경유, 미원으로 접근하는 적을 저지하라.

나. 12일 22:00까지 부흥리 전방에 경계부대를 배치하고 제

11연대 및 제12연대의 철수를 엄호하라.

5. 사단지휘소 : 미원(CR 7954) (12일 12:00 개소).

상기와 같은 사단의 명령에 따라 제11연대는 13일 03:00에 괴산지구에서 철수하였으며, 14일에는 추정리-이목리 선에 병력을 배치하여 청주-미원의 506번 도로와 청주-산성리(CR 6956)-미원의 무명도로를 따라 접근하는 적에 대비하였다.

제12연대도 12일 22:00에 괴산에서 철수하여 13일 오전에는 미원에 도착하였고 14일 오후에는 배치에 앞서 재편성을 단행하였는데, 그 내용은 불완전한 3개 대대를 완전한 2개 대대로 축소 조정하는 것이었다. 재편성 결과 병력 규모는 제1대대(대대장:소령 신현홍)가 600명, 제2대대(대대장:소령 이무중)는 691명이었다. 제12연대는 재편성이 끝나자 15일에는 용곡리 일대에 병력을 배치하여 적이 증평에서 구녀산(CR 7661, 499m)-최구산(CR 8063, 657m) 간의 능선을 넘어오는 것에 대비하였다.

한편, 쌍이리(CR 8256)에 집결하고 있던 제13연대는 사단명령을 받고 7월 12일 22:00에 우선 제3대대(대대장:소령 최병순)를 전초대대로서 미원 북동 10km의 부흥리*(CR 8662) 일대에 전개하여 제11연대 및 제12연대의 철수를 엄호하고 적의 접근을 경고, 저지할 준비를 하도록 하였고, 제2대대(대대장:소령 안관영)는 부흥리 남방 2km의 거리고개(CR 8560)에 배치하였으며 제1대대

*부흥리 : 제13연대 전투상보에는 기산 또는 기산리(CR 8662)로 기록되어 있으나, 현지주민의 말에 의하면 옛부터 부흥리라 불렀고 기산리는 모른다고 하므로 현 행정구역인 부흥리로 표기하였다.

(대대장:소령·김진위)는 연대예비로서 쌓이리에 집결대기토록 하였다.

전초임무를 부여받은 제3대대장은 제10중대를 부흥리 북방 10km의 굴티재(CR 8768)에, 제11중대를 부흥리 북서쪽 4km의 백산리(CR 8565)에 전개하고 제9중대는 부흥리(CR 8662)의 대대 본부와 중화기 중대 주위에 배치하였다.

제1사단은 상기와 같이 미원지역 방어준비를 하는 동안 연대장 1명과 작전참모를 교체하는 인사이드가 있었다. 지금까지 제11연대를 지휘하였던 최경록 대령과 사단 작전참모인 김덕준 소령이 수도사단 참모장과 작전참모 요원으로 전출되고 제11연대 부연대장인 권동찬(육사 2기, 50.12.30 전사, 준장) 중령이 연대장 직무대리로서 연대를 지휘하게 되었고, 제7사단 작전참모였던 문형태(육사 2기, 대장 예편) 중령이 사단 작전참모로 부임하였다. 이러한 인사이드는 수도사단장 김석원 준장이 야인에서 현역으로 복귀시 신성모 국방부장관과 갖은 면담에서 참모장이나 연대장 등 중요직책의 인사권을 사단장이 행사하기로 한 약속에 따라, 김석원 준장이 최경록 대령과 김덕준 소령을 참모장 및 작전참모 요원으로 지명했기 때문이었다.

나. 거리고개 공방전

7월 13일 오후, 괴산을 철수한 제11연대와 제12연대가 통과하자 굴티재의 제13연대 제10중대는 뒤따라온 북괴군 정찰대와 접촉하게 되었다. 그리고 14일에는 백산리의 제11중대 정면에도

적정이 나타나자 제3대대는 양개 전초중대를 철수시켜 부흥리에서 19번 도로를 중심으로 대대방어진지를 편성하여 적의 공격에 대비하였는데 북괴군은 15일에도 정찰활동만 계속하는 것이었다.

7월 16일 06:00경 북괴군 제15사단은 1개 연대로는 정면과 우측방에서, 다른 1개 연대로는 좌측방에서 공격하는 등 2개 연대 병력으로 제13연대 제3대대를 3개 방향에서 포위공격하였다. 제3대대는 이날 06:00경에 1개 분대 규모의 적이 짙은 안개를 이용, 은밀히 침투하여 대전차포를 파괴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이들을 모두 사살하였는데, 06:30경에는 대대정면과 좌·우측 등 3개 방향에서 공격을 받았다. 제3대대는 제2대대의 지원하에 3시간 동안 완강히 저항하였으나 중과부적이어서 결국 포위되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제3대대는 09:00경에 활로를 찾아 분산 철수하게 되었는데 이때 대대보급차량 1대와 81mm 박격포 4문을 철수시키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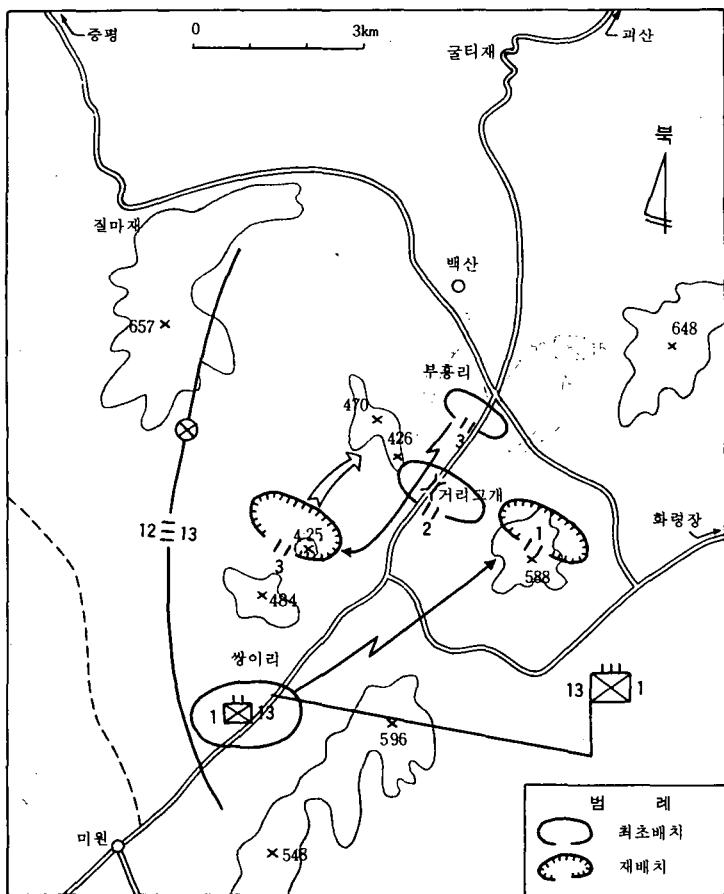
10:00경, 북괴군은 제3대대 진지를 유린한 여세를 몰아 거리고개의 제2대대 진지를 공격하였으나 고개 위에서 완강히 저항하는 제2대대를 격파하지 못하자 일단 부흥리로 물러서는 것이었다.

제13연대는 거리고개에서 전투가 가열되자 예비인 제1대대를 출동시켜 15:00에 거리고개 동쪽 2km의 588고지(CR 8759)에 배치하였고, 제3대대 병력을 수습하여 거리고개 남서쪽 2km의 425고지(CR 8359)에 배치하여 적의 차후공격에 대비하였다.

한편, 81mm 박격포를 적에게 빼앗긴 것을 알게 된 연대장은 제3대대장에게 “빼앗긴 박격포를 되찾아오라”고 명령하였다. 제3

요도28

거리고개 공방전



대대장 최병순 소령은 대대원들에게 “패전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바쳐 적을 격멸하여야 한다.”라는 요지로 결의를 다지고

부하들과 함께 은밀히 부흥리로 침투하였다. 최병순 소령이 어느 작은 고지에서 부흥리를 내려다보니 북괴군 2개 중대 규모의 병력 약 250여 명이 집결된 상태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으며 그들 옆에는 차량 1대가 있는 것이었다. 이 차량은 아침에 공격받았을 때 미처 철수시키지 못했던 대대 보급차량(2 1/2톤)이었는데 그들은 보급차량에 있던 식량으로 저녁식사를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였다. 21:00경, 제3대대는 식사중인 적을 기습공격을 하였다. 불의의 기습공격을 받은 북괴군은 약간의 저항을 하다가 40여 구의 시체를 버리고 황급히 분산 도주하였다. 제3대대는 부흥리 일대를 수색하여 30여 정의 소총과 박격포 3문을 찾아 철수를 서둘렀다. 제3대대가 철수를 시작하자 북괴군은 반격을 감행함으로써 어둠 속에서 수류탄전을 전개하는 등 근접전이 벌어지게 되었다. 제3대대는 제2대대의 엄호하에 겨우 거리고개로 철수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제10중대장 이능식(육사 7기, 1950.7.17, 전사 처리, 대위) 중위가 전사하고 많은 병사들도 전사 또는 부상당하였다.

다음날인 7월 17일 06:00, 북괴군은 전차 3대와 장갑차 12대를 앞장세워 어제의 공격실패를 만회하려는 듯, 연대 좌전방인 470고지(CR 8462) 방향에 주공, 연대 우전방인 588고지 방향에 조공을 두어 재공격해 왔다. 적의 공격을 받은 제13연대는 제2대대 제5중대(중대장:대위 정점봉)로 하여금 19번 도로를 따라 진출하려는 적 전차 및 장갑차를 저지하도록 하고 제2대대(-1)는 426고지(CR 8561)를 방어하고 제1대대는 588고지를 고수하도록 하였다.

공격을 개시한 북괴군 주력 부대는 470고지를 무혈점령한 후 426고지(CR 8561)와 거리고개를 점령하려고 하였다. 제2대대(-1)는 426고지에서 근접전을 전개한 끝에 북괴군의 공격을 저지하였다. 제1대대도 완강한 저항을 하여 588고지를 방어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에 제13연대장은 제3대대장에게 “470고지를 탈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제3대대는 계속되는 격전으로 병사들이 피로함에도 불구하고 주도면밀한 화력계획을 세워 470고지로 육박해 들어갔다. 이때 426고지의 제2대대도 북괴군의 측방을 공격하자 470고지의 북괴군은 19:00경 부흥리로 철수하였다.

470고지에서 북괴군과 제2대대 및 제3대대 간에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을 즈음인 17일 17:00경, 북괴군 일부병력이 전차와 장갑차를 앞세워 거리고개로 진출하고 있었다. 도로를 담당한 제5중대장 정점봉 대위(육사 8기 특별, 중령 예편)는 특공대원 13명을 선발하여 수류탄, 박격포탄, 휘발유, 톱밥, 화염병 등을 이용한 적 전차 파괴요령을 훈련시켜 놓고 대기하고 있었다. 북괴군의 보전조가 접근하자 제5중대장은 60mm 박격포탄을 퍼부었다. 이에 적 보병들이 뿔뿔이 흩어져 달아났고 전차와 장갑차도 뒤로 물러나고 있었다. 이때 제3소대장 김희진 중위(육사 8기)가 지휘하는 특공조가 공격을 가하여 전차 2대를 파괴하였다. 이 전공으로 특공대원은 1계급씩 특진하고 적 전차에 직접 뛰어올라가 전차 2대를 파괴한 김재일 1등중사(제3소대 제1분대장)는 2계급 특진하였다. (출처:정점봉 대위 및 김재열 중사 증언록, 제1군단 전투상보)

7월 17일 21:00경, 제13연대는 사단으로부터 “미원 남쪽 3km

의 운암리로 철수하여 517고지(CR 8050)－점말(CR 8151) 간에 진지를 점령하라.”는 명령을 받고 제3대대의 엄호하에 이날밤에 운암리로 철수하였으며, 다음날인 18일에는 517고지－점말 간에 진지를 점령하여 19번 도로를 따라 미원에서 보은 방향으로 남진하려는 적에 대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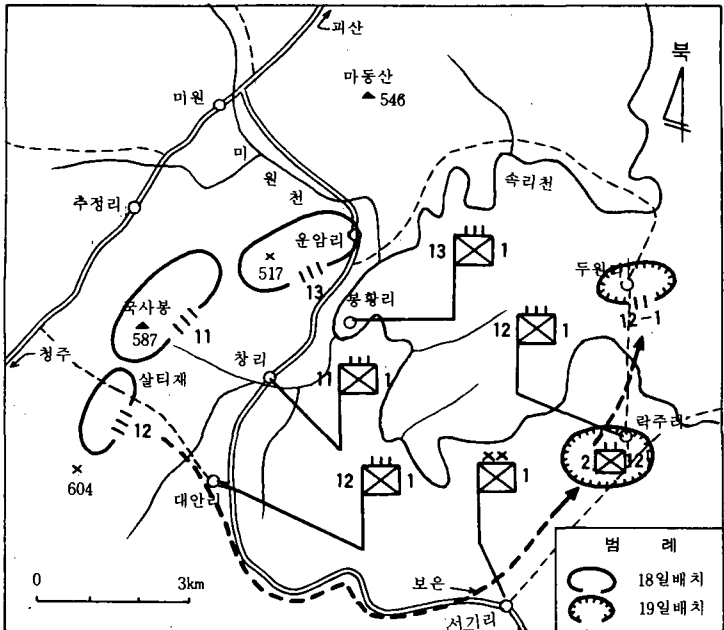
다. 장갑소대의 미원 교전

7월 16일, 제1사단은 “의명 국사봉(CR 7749, 587m)－마동산(CR 8254, 546m) 선을 점령 방어하라”는 군단명령(제1군단 작전명령 제12호, 1950.7.16부)에 따라 이날(16일) 23:00에 먼저 접적이 없는 제12연대를 미원 북쪽의 용곡리(CR 7959)에서 남쪽의 대안리(CR 7949)로 철수시켜 604고지 동쪽의 살티재(CR 7648)를 점령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17일 21:00에는 제13연대를 운암리로 철수시켜 517고지를 점령하도록 하였으며, 18일에는 제11연대를 미원 서쪽의 추정리(CR 7751)에서 미원 남쪽의 창리(CR 8048)로 철수시켜 국사봉 일대를 점령하도록 하였다. 이때 제11연대는 일부병력으로 추정리에서 곧바로 남쪽 1.5km의 국사봉을 점령하였다. 이렇게 하여 제1사단은 7월 18일에는 살티재－국사봉－517고지 선에 전개하였으며, 19일에는 접적이 없는 제12연대가 10km 동쪽의 두원리(CR 8750)로 이동, 산간 소로인 두원리－탁주리(CR 8847) 축선에 진지를 점령하였다.

한편, 제1사단을 공격하던 북괴군 제15사단은 부흥리(CR 8662)에서 송면리(CR 9858)－갈령(DR 0340)－화령장(DR 0633)으로 방

요도29

제1사단의 재배치 (7.18~19)



향을 전환하였으며 수도단을 공격하던 북괴군 제2사단은 수도사단이 16일 밤에 철수하고 18일에는 제1사단 제11연대마저 국사봉으로 철수하자 이날 저녁때에는 그들의 선두부대가 미원에 나타나 제13연대 정찰대와 조우하기도 하였다.

7월 19일 아침, 제1사단에는 군단에서 보낸 기갑연대 소속 2대의 장갑차가 도착하였다. 기갑연대의 장갑차에는 SCR-506 무전기가 장착되어 있었는데 군단의 미 고문관은 “장갑차에는 무

전기가 장착되어 있으므로 전투용으로 사용하지 말고 지휘통신용으로 사용하십시오.” 하고 건의하였으나 군단장 김홍일 소장은 고전하고 있는 제1사단의 전투를 지원하기 위하여 장갑차 2대를 보냈던 것이다.

제1사단장 백선엽 대령과 작전참모 문형태(육사 2기, 대장 예편) 중령은 작전지도를 펴놓고 적이 출몰하고 있는 미원지역을 지적하면서 “이 지역에 위협사격을 가하라”고 장갑차 소대장에게 명령하였다. 이리하여 2대의 장갑차는 적이 출몰하고 있다는 미원으로 전진하였다.

이때 제1사단 공병대대의 임상철 중위는 적 전차가 미원 부근까지 전진해 왔다는 연락을 받고 부하 3명을 인솔하여 미원교(CR 798543) 폭파를 준비하고 있었다. 장갑차가 미원교 부근에 도착하자 임중위는 장갑차 소대장에게 “미원교에는 폭파장치가 되어 있으며 미원부근에는 적 전차가 출몰하고 있다”고 상황을 알려 주었다. 이에 장갑차는 전진을 멈추고 위장을 한 후 적 전차가 접근하기만을 기다리게 되었다.

이날(19일) 13:00경, 적 전차 3대가 미원교를 통과하기 위하여 서서히 전진해 왔다. 적 전차가 미원교에 도착했을 때 임중위가 다리를 폭파했고 장갑차는 적 전차에 집중사격을 가하였다. 교량이 폭파되어 전진이 어렵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집중사격까지 받게 된 적 전차는 되돌아가려고 방향을 전환하고 있었는데 이때 장갑차에서 발사한 37mm 철갑탄이 1대의 적 전차 궤도에 명중되어 궤도가 절단되었다. 기동력이 상실되어 철수하지 못한 적 전차는 한동안 주변에 포격을 하더니 탄약을 모두 소모하였는지

마침내 조용해졌고 잠시 후에는 전차병 4명이 전차에서 탈출하기 위하여 해치를 열고 밖으로 나왔으나 집중사격을 받고 곧 사살되었다. 적 전차 안에는 민가에서 약탈한 값진 물건들이 많이 들어 있었으며, 이 전차는 곧 소각 처리되었다. 이렇게 하여 장갑차는 공병과의 협동으로 적 전차 1대를 파괴하는 전공을 세웠다.

3. 철수작전

가. 제1사단의 철수

북괴군은 그간의 격전과 미 공군의 활발한 공격으로 재정비 및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듯 미원을 점령한 후부터 7월 21일까지는 정찰활동만 강화할 뿐 공격행동은 없었다.

이 무렵, 제1사단장은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57호(1950.7.20)에 의거 군단장으로부터 “춘양(DR 9388, 영주 북동 30km)으로 이동하라.”는 명령을 받았다.(육본 작명 제57호 내용은 제6장에서 언급). 이에 사단장은 부대를 일단 보은에 집결시켜 그곳에서는 차량으로 이동할 북안하에 7월 21일에 제13연대 엄호하에 제11연대 및 제12연대를 철수하도록 하였다. 사단의 철수명령에 따라 제12연대는 동일 17:00에 탁주리(CR 8847)를 출발하여 20:00에 보은에 도착하였고, 제11연대는 동일(21일) 20:00에 창리(CR 8048)를 출발하여 보은으로 철수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예하부대가 보은으로 철수하고 있을 때 제1사단은 군단으로부터 “제1사단은 즉각 화령장으로 이동하라”는 수정명령을 받게 되었다. 제1사단이 춘양으로 이동하지 않고 화령장으로 이동하게 된 까닭은 화령장에 예상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였기 때문이었다.

국군 제17연대는 제1군단에서 제2군단으로 배속전환 명령을 받고 선발대인 동 연대 제1대대가 7월 17일 아침에 보은에서 함창으로 이동중 적이 괴산-갈령-화령장(DR 0633) 통로로 이동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화령장 동쪽 4km 상곡리에서 북괴군 제15사단 제48연대(-1)를 매복 공격하여 대타격을 가하였고 뒤이어 제17연대 주력부대가 투입되었는데, 7월 20일 새벽녘에는 제2대대가 화령장 북쪽 4km 갈령부근에서 남하중인 북괴군 제15사단 제49연대를 매복 공격하여 섬멸적인 타격을 가하였다.(제17연대의 공격상황은 다음 장에).

두 차례에 걸쳐 큰 타격을 받은 북괴군 제15사단은 7월 21일에는 제17연대 진지를 포격하면서 갈령 일대에 병력을 전개하였다. 북괴군 제15사단의 화령장 전개는 국군 제2군단의 서측방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북괴군이 국군과 미군을 분리하면서 상주-대구로 진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군은 보다 강력한 부대로서 이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될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군은 철수중인 제1사단을 급히 화령장에 투입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이다.

제1사단은 “화령장으로 급히 이동하라”는 수정명령을 받고 철수중에 있는 제11연대를 화령장으로 직행하도록 하였고 제12연

대는 다음날 아침에 이동하도록 하였다. 제11연대는 행군을 계속한 끝에 다음날(22일) 07:00에 화령장에 도착하였고 오후에는 화령장 동쪽 4km의 상곡리(DR 0933) 일대에 진지를 점령함으로써 전투태세를 취하였다. 그리고 21일 20:00에 보은에 도착한 제12연대는 익일(22일) 09:00에 보은을 출발, 17:00에 화령장 서쪽 5km의 평온리(DR 0234)에 도착하여 전투준비를 서둘렀다.

한편, 사단엄호부대로서 517고지에 있던 제13연대는 22일 아침에 공격을 감행해 온 북괴군과 교전을 펼치다가 사단의 철수 명령을 받고 12:00에 봉황리(CR 8149)를 출발하여 보은으로 향하였다. 보은에 도착한 제13연대는 얼마간의 휴식을 취한 후 20:00에 보은을 출발하여 다음날인 23일 08:00에 화령장 남쪽 2km의 봉촌리(DR 0531)에 집결하였었다.

화령장에 이동완료한 제1사단은 제11연대를 우, 제12연대를 좌, 제13연대를 예비로 하여 23일부터 화령장 일대에서 북괴군 제15사단과 전투를 재개하였다. (전투상황은 다음 장에).

나. 엄호부대의 강산리 교전

제1사단이 미원지역에서 보은으로 철수하고 있던 7월 22일 오후, 제1군단의 통제를 받아 보은 외곽에 배치되어 있던 제22연대(연대장:중령 강태민)는 보은 북방 3km의 강산리(CR 8440)에 침투한 일단의 북괴군과 교전하게 되었다.

제22연대 전면에 나타난 적은 대부분 아군 복장으로 위장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무기도 아군 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처음

에는 이들을 아군으로 오인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이들이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판단한 연대장 강태민 중령이 수색대를 보내어 이들의 소속을 파악해 오라고 함으로써 얼마 후 이들이 적의 선발대임이 밝혀졌다.

이에 제22연대는 전투준비를 하면서 제1사단에 지원요청을 하였으나 제1사단은 화령장으로 철수중이어서 지원을 받을 수가 없었다. 이에 제22연대는 연대 단독으로 공격을 개시, 약 1시간에 걸친 치열한 교전 끝에 강산리의 무명고지를 점령하였다. 그런데 일단 물러난 북괴군은 후속부대의 증원을 받았음인지 더 많은 병력으로 공격해 옴으로써 교전이 재개되었다. 연대는 이들의 공격을 저지하다가 야음을 이용하여 보은으로 철수하였다. 제22연대는 제1사단 병력이 보은을 완전히 철수하자 보은을 철수, 본대인 제3사단이 있는 영덕으로 향하였다. (제22연대는 국일명 제20호에 의거 7월 24일까지 제3사단에 편입하게 되어 있었다.)

제 6 장 화령장 전투

1. 화령장 부근의 작전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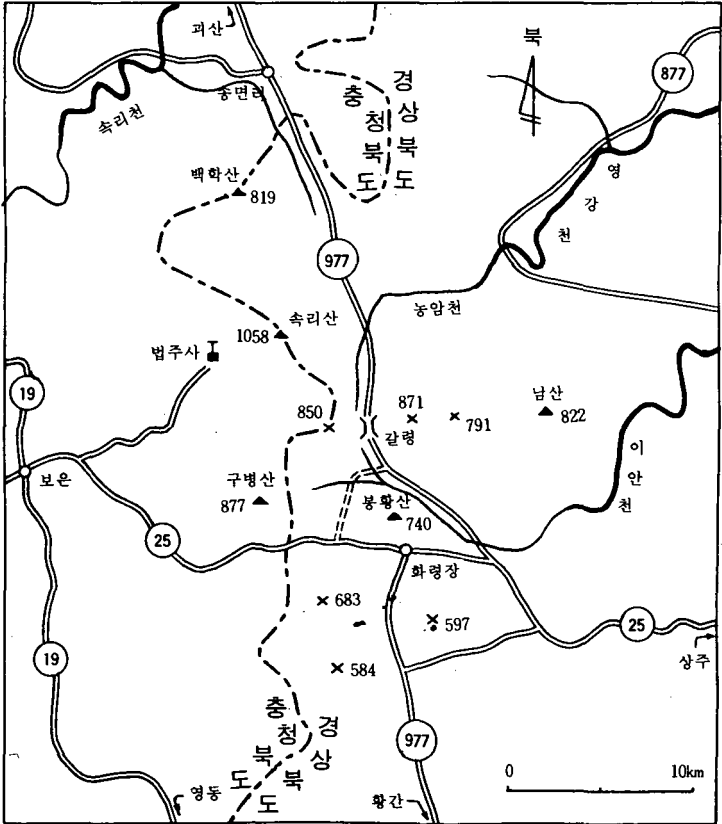
가. 북괴군의 작전기도

경상북도 상주군 화서면의 화령장은 면사무소, 국민학교, 경찰지서가 있는 소백산맥중에 있는 산간 마을이다. 화령장 주변에는 속리산(CR 9846, 1058m), 구병산(CR 9835, 877m), 봉황산(DR 0535, 740m), 871고지(DR 0540), 형제봉(DR 0240, 850m), 650고지(DR 0837), 585고지(DR 1035), 천택산(DR 0130, 683m), 597고지(DR 0730) 등 500~1,000m 안팎의 험준한 산들이 산재해 있고, 보은-화령장-상주를 잇는 25번 도로와 괴산-송면리(CR 9858)-화령장-황간(DR 0208)을 잇는 977번 도로 등 2개 도로망이 있는데, 이 두 도로는 화령장 동쪽 4km에서 교차한다.

977번 도로는 속리산 동쪽에서 소백산맥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산간도로로서 노퍽은 좁고 교통량이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도로이다. 이 도로상의 화령장 북쪽 10km 지점에는 갈령이라는 별로 험하지 않은 고개가 있는데, 이 고개에서 도로와 병행하여 소하천(이안천)이 남으로 흘러 낙동강에 합류하고 북으로 흐르는 소하천(농암천)은 영강천에 합류하여 역시 낙동강에 이른다. 따라서, 갈령에서부터 977번 도로와 25번

요도30

화령장 부근의 지형



도로가 만나는 상곡리(DR 0933)까지의 10여 km는 도로와 하천이 병행해 있는 협소한 골짜기로서 도로연변에 마을과 소규모의 논과 밭이 산재해 있었다.

화령장 서쪽 6km 지점에는 남북으로 이어진 경상북도와 충청북도의 도계가 지나고 있는데, 이의 서쪽은 충청북도 보은군에, 동쪽은 경상북도 상주군에 속한다.

7월 중순, 남진을 계속하고 있던 북괴군은 험준한 소백산맥을 신속히 돌파하려고 안간힘을 다하고 있었다. 그들은 7월 12일에 중동부에서는 단양에서 2개 연대로서 버티고 있는 국군 제8사단을 공격하여 죽령을 점령함으로써 소백산맥을 넘어섰으나, 중부에서는 이화령과 조령을 지키고 있는 국군 제6사단을 격퇴시키지 못하여 소백산맥을 넘지 못하고 있었고, 중서부인 괴산, 청주와 서부인 금강선에서는 국군 제1사단, 수도사단 및 미 제24사단과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하고 있었다.

괴산 남쪽의 제1사단과 이화령의 제6사단 간의 약 30km는 소백산맥의 험준한 산악지대로서 국군은 여기에 병력을 배치하지 않았으므로, 이곳을 관통하는 977번 도로가 개방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이 도로가 개방된 이유에 대하여 제1군단장 김홍일 소장은 “당시에는 국민학교에서 쓰던 궤도(대한민국 지도)로 작전을 지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로가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증언하였다.(한국전비사 하권 169쪽)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간파한 북괴군은 이 공백지대를 돌파하여 상주를 점령하고 김천, 대구 방향으로 진출한다면 국군 제1군단과 제2군단을 분리하면서 국군과 유엔군을 혼란에 빠뜨리고 그들의 작전목표 달성에 호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이 접근로에 1개 사단(제15사단)을 투입하기로 하였다.

이에 7월 13일에 괴산을 점령한 북괴군 제15사단은 1개 연대

를 괴산-송면리-화령장 축선에 은밀히 투입하고 사단주력으로는 괴산 남쪽 거리고개의 국군 제1사단을 공격하여 이를 미원 쪽으로 밀어붙인 다음 후속하기로 하였다. 이리하여 먼저 진로를 바꾼 북괴군 제15사단 제48연대는 7월 15일에 갈령 부근까지 진출하였고, 16일 밤에는 그들의 선두인 1개 대대가 977번 도로를 따라 화령장 동쪽 4km 지점의 상곡리(DR 0933)를 통과하여 상주로 진출하였다.

나. 군단정보대 활동

(1) 제1군단 정보대 활동

7월 15일 오전, 제1군단 정보참모 보좌관 겸 정보대장 방원철(현임, 대령 예편) 소령은 군단장 김홍일 소장으로부터 “적이 갈령 북쪽인 화북면 일대에 나타났다는 첩보가 있으니 이를 확인하고 가능하면 이를 포착 섬멸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방원철 소령은 정보대원 60명과 경찰병력 100여 명을 차량화하여 피난민으로부터 적정을 수집하면서 화령장-갈령 방향으로 천천히 나아갔다. 이들은 이튿날(16일)에도 갈령 남쪽에서 적정을 수집중에 있었으며, 적의 선두부대로 보이는 일단의 병력이 갈령에서 내려와 동관리(DR 0436)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이들은 점심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듯, 얼마 후에는 마을에서 연기가 피어 오르는 것이 보였다.

방원철 소령은 경찰병력은 엄호부대로 배치하고, 정보대원은 1

개조 7명씩 8개조로 편성, 부락으로 은밀히 침투시켜 포로를 획득하기로 하였다. 이 정보대원들은 침투에 성공하여 12명의 포로를 획득하기는 하였으나 대원 1명이 총격을 가함으로써 작전이 폭로되어 적과 교전하게 되었다. 이 정보대원들은 교전중 2명의 손실을 입었는데 철수하여 보니 엄호부대로 배치했던 경찰병력은 벌써 철수하고 없었다. 방원철 소령은 보은으로 달려가 “적의 정규부대가 이미 갈령까지 진출했습니다. 전투부대의 투입이 요망됩니다.” 하고 그간의 정보수집 경과를 군단장에게 보고하였다.(출처: 방원철 소령 증언록, 화령장지구 전적비 비문)

(2) 제2군단 정보대 활동

제1군단 정보대가 화령장에서 활동하는 기간에 제2군단 정보대의 1개 조도 화령장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7월 14일, 제2군단장 김백일 준장(7.12부로 진급)은 북괴군이 소백산맥을 따라 침투하여 상주를 점령한다면 군단의 퇴로가 차단당하여 큰 혼란이 올 것이라 판단하고 “소백산맥 내의 화령장에 정보대를 보내어 적정을 수집하라”고 정보참모 신재식(육사 2기, 소장 예편) 중령에게 지시하였다. 이에 정보참모는 1개 조(김정숙 대위 조)를 화령장에, 또 다른 1개 조(배상록 대위 조)를 상주에 파견하였다.

배상록(육사 6기, 대령 예편) 대위가 정보대원 18명을 2 1/2톤 차량에 탑승시켜 상주경찰서에 당도하여 보니 그곳에는 김정숙(육사 5기, 대령 예편) 조가 먼저 와 있었다. 이에 배대위가 “왜 화

령장에 가지 않고 이곳에 왔습니까?” 하고 묻자 김대위는 “화령장은 지형이 험하여 적이 들어올 수 없는 곳이다. 나하고 근무지를 바꾸자.”라고 하는 것이었다. 배대위는 선배인 김대위의 제의를 거절할 수가 없어 근무지를 바꾸기로 하고 자신이 화령장(상주군 화서면)으로 갔다.

배대위는 화령장에 있는 상주경찰서 화서지서의 지서장 윤씨(성명 미상)와 합의하여 정보대원 18명, 경찰 8명, 청년단원 20여 명으로 2개조를 혼합편성하여 적의 통과가 예상되는 곳에 잠복 근무하도록 하였다. 7월 16일, 이 잠복근무조는 화북면 광정리(DR 0448)에 거주하는 이재선 씨로부터 “갈령 북쪽인 화북면 일대에 북괴군이 침입하였다”는 제보를 받았다. 이재선 씨는 “이 사실을 화북지서에 알리려고 갔더니 그곳에는 아무도 없어서 화서지서가 있는 화령장으로 가는 중”이라고 하였다. 이 제보를 받은 배대위는 청년단장 김기영을 대동하여 갈령 부근까지 나아가 관찰해 보니 적이 갈령을 넘어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이에 그는 부대지휘를 선임하사인 윤복원(고하 2기, 중령 예편) 상사에게 말하고 자신은 함창으로 달려가 이 사실을 군단에 보고하였다. 이에 군단 정보참모는 “상주에 나가 있는 놈이 어떻게 화령장 부근의 일을 아느냐?”고 다그쳤으며, 임의로 근무지를 교대한 사실을 알고는 호된 꾸지람을 하는 것이었다. 배대위의 보고에 접한 군단장 김백일 준장은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려 하였으나 가용한 병력이 없어 육군본부에 상황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협의하였다. 이때 육군본부에서는 “제17연대가 제2군단에 배속되어 명일 아침에 함창으로 이동한다”는 사실을 알

려주었다.

7월 17일 아침, 배상록 대위는 “빨리 돌아가서 제17연대가 기습당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고 차량으로 복귀중. 화령장 동남방 10km인 낙서리(DR 1228)에서 마주오는 북괴군 대열과 마주치게 되었다. 다가오는 병력이 북괴군임을 알아챈 배대위는 급히 진로를 서쪽으로 바꾸어 우마차나 다니는 좁은 도로로 접어들었다. 북괴군은 배대위의 차량에 충격을 가하기는 했으나 차량 1대 정도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그대로 행군을 계속하였다. 배대위는 낙서리에서 화령장 남쪽 7km의 마평리를 경유, 화령장



〈 화령장지구 전적비 〉

으로 복귀하였는데, 지서장으로부터 “제17연대가 화령국민학교에 와있다”는 보고를 받고 국민학교에 가보았다. 그곳에는 제17연대 제1대대 병력이 식사준비 중에 있었는데, 대대 간부들은 정찰나갔다는 것이었다.

2. 봉황산 매복 전투

가. 제17연대의 이동

이당시, 제2군단 제6사단은 북괴군의 강력한 공격을 받고 고전하고 있었는데, 15일에는 소백산맥 마루턱인 이화령(DR 1367)과 조령에서 북괴군 제1사단과 격전을 벌였으나 결국 조령을 빼앗겼고 16일에는 북괴군 제13사단마저 공격에 가담하는 바람에 문경마저 빼앗겨 이날(16일) 밤에는 소백산맥에서 물러나 문경-점촌 간의 영강선으로 철수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상황이 불리해지자 제2군단은 육본에 병력 증파를 요청하게 되었고, 육본은 유일한 예비로서 제1군단에 배속되어 청주 전투에 투입된 제17연대를 7월 16일 24:00부(육본작명 제47호)로 제1군단에서 제2군단으로 배속 전환하였다. 육본작명 제47호(1950.7.16. 24:00)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47호(요지)

1. 적 주력의 일부는 문경에 침입, 계속 남하를 기도중에 있다.
2. 국군 제6사단은 차적에 대하여 맹렬한 반격을 가하고 있다.
3. 군은 보병 제17연대를 제2군단에 배속시켜 차 전투를 지원하려 한다.
4. 제1군단장은 보병 제17연대를 명조 06:00까지 합창에 도착시켜라.

제2군단으로 배속전환 명령을 받은 제17연대는 진천 전투에서 철수하여 보은에서 정비중에 있던 제1대대를 먼저 출발시키고 청주 전투에서 철수중에 있는 제2대대와 제3대대는 집결되는 대로 후속하도록 조치하였다.

연대 선두부대로서 17일 04:00경 제2군단에서 동원한 차량(제6사단 차량과 민간차량)으로 보은을 출발한 제1대대(대대장 : 소령 이관수, 육사 3기, 대령 예편)는 보은과 화령장 중간지점인 관기리(CR 9432)를 지날 무렵, 뒤쫓아온 제1군단 작전참모 김종갑(군영, 중장 예편) 대령으로부터 “적이 괴산에서 갈령으로 진출했으며 이미 화령장을 지나갔을지도 모르니 조심해서 행군하라”는 주의를 받았다. 그런데 07:00경 제1대대가 화령장을 막 지나고 있을 때, 50세쯤 되어 보이는 시골노인 한 분이 두 손을 번쩍 들어 차량행렬을 저지시키면서 “나는 중달리(DR 0835)에 사는 엄봉림입니다. 어젯밤에 북괴군이 밤새도록 우리 마을을 지나 상주 쪽으로 내려갔는데, 나는 지금 이 사실을 신고하러 화서지서로

가는 중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이에 괴산-화령장-상주를 연결하는 977번 도로가 있는 것을 모르고 있던 대대장은 처음에는 이를 믿으려 하지 않았으나 그 노인이 진지하게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군단 작전참모로부터 경고를 받은 바 있어, 이를 확인하기로 하고 행군을 중지시킨 다음 노인과 함께 화령장에 있는 화서지서로 갔다. 그런데 지서장은 “어젯밤에 상당수의 북괴군이 상주 쪽으로 내려갔다. 지금도 군·경·청년단으로 구성된 정보팀이 적이 지나간 통로를 계속 감시하고 있다.”고 하면서 제2군단 정보대가 화령장에 와서 활동한 내용과 “배상록 대위가 어제 상부에 보고차 함창으로 갔다”고 하면서 그간의 사정을 소상히 설명하였다.

이에 대대장 이관수 소령은 북괴군의 뒤를 따라 부대이동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적의 행군대열 중간에 끼어 포위될 수도 있다는 판단하에 우선 적이 지나갔다는 지형을 정찰하여 적정을 확인한 후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이리하여 부대를 일단 화령국민학교에 집결시킨 후 이장 김종열 씨 등 주민의 도움을 받아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자신은 청년단장 김기영의 안내를 받아 중대장과 경계병을 대동하여 상곡리(DR 0933)로 나아갔다.

나. 상곡리 전투

(1) 제1대대의 공격준비

대대장 일행이 적이 통과하였다는 중달리(DR 0835) - 상곡교(DR 100330) 일대를 정찰하고 있을 때 자전거를 탄 병사 1명이 상주 쪽에서 977번 도로로 접어들고 있었는데, 이 병사를 상곡교에서 붙잡고 보니 그는 어젯밤 상주 쪽으로 진출한 북괴군 대대장이 그의 연대로 보내는 전령이었다. 이 전령의 몸을 수색하였던바 “대대는 지난밤 소수의 국방군으로부터 사격을 받았으나 그들을 물리치고 17일 08:00에는 상주를 바라볼 수 있는 고지를 점령하였음”이라는 통신문이 나왔고 그를 신문한 결과, 그의 소속은 북괴군 제15사단 제48연대이고, 연대의 임무는 상주를 점령하는 것이며, 연대의 주력부대는 이날 오후에는 선발대를 후속하여 상주로 진출하며, 금곡리(DR 0934) 일대에서 휴식할 예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로써 적의 기도와 상주로 내려간 부대의 병력 규모를 알게 된 대대장 이관수 소령은 적의 뒤를 따라 상주 쪽으로 행군할 것이 아니라 휴식 예정지역인 이곳에서 매복하고 있다가 제48연대의 주력부대를 공격하기로 결심하였다. 대대장은 이 결심을 차후에 연대에 보고하기로 하고, 우선 12:00경에 중대장들에게 다음과 같은 요지의 명령을 하달하였다.

제1대대장의 명령(요지)

1. 적은 상주를 점령할 목적으로 1개 대대를 이미 상주 방향으로 침투시킨 데 이어 후속부대를 계속 남하시킬 예정이라 한다.
2. 대대는 즉각 이동하여 상곡리 일대에서 매복, 차적을 격멸시키려 한다.
3. 제1중대 : 390고지(DR 0833)에 배치, 의명 남하하는 적을 공격하라.
4. 제3중대 : 410고지(DR 0835)에 배치, 의명 남하하는 적을 공격하라.
5. 제4중대
 - 가. 기관총 소대는 제1 및 제3중대에 1개 반씩 배속하라.
 - 나. 박격포 소대는 390고지에서 대대를 지원하라.
6. 제2중대 : 대대 예비로서 390고지에 배치(8부능선), 의명 투입될 준비를 하라.
7. 협조지시
 - 가. 각 중대는 3부능선에 진지를 편성하고 위장을 철저히 하라.
 - 나. 사격군기를 엄수하라.
8. 대대장은 390고지에 위치한다.

대대장의 명령에 따라 화령장에 대기하고 있던 각 중대는 즉시 이동하여 전투배치하기 시작하였으며 15:00경에는 진지구축

및 위장 등 전투준비를 완료하였는데, 도로 서측 급경사면의 병력배치선에서 도로까지는 100~200m 이고, 병력배치선과 도로 사이에는 산밑을 연하여 작은 시냇물(이안천)이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이 하천에서 도로까지는 논(모내기가 끝난 상태)이고, 도로 동쪽에는 밭과 마을이 있어서 기습하기에는 알맞은 장소였다.

병력배치중에 연대고문관 스카레키 소령이 대대에 당도하였는데, 대대장이 계획을 설명하자 그는 두 눈이 둥그래지면서 “그 계획이 가능하나?”고 물었고 대대장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자 “그럼 나는 이 계획을 연대장한테 보고하겠다”고 하면서 보은으로 되돌아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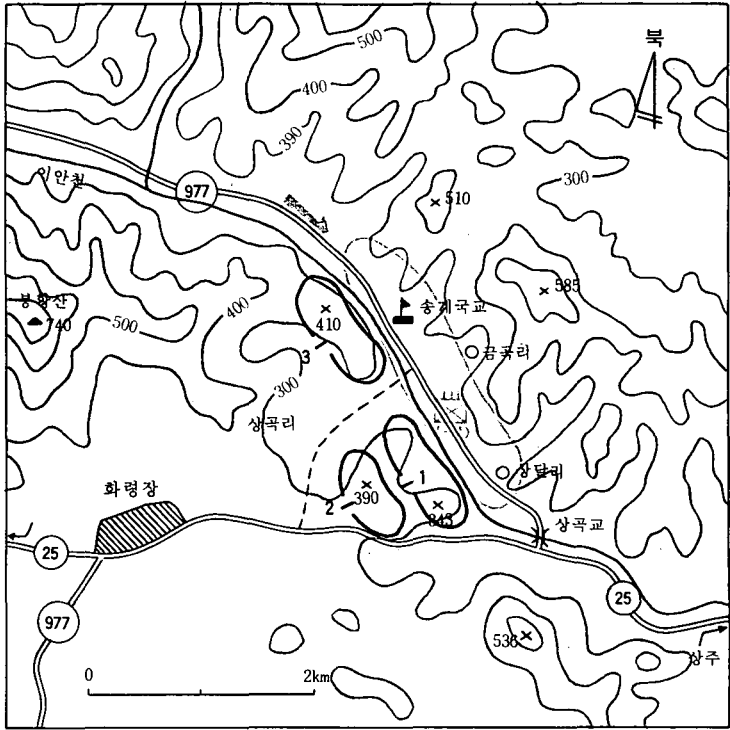
(2) 상곡리 기습전

16:00가 조금 지나자 갈령에서 남하하는 북괴군 행군대열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그들은 도보부대에 뒤이어 각종 포와 탄약을 실은 것으로 보이는 40여 대의 우마차를 끌고 왔으며 예측했던 대로 매복지역 정면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었다.

이들의 일단은 하송리의 송계국민학교(DR 086352) 부근에서 휴식하고, 다른 일단의 병력은 상곡리(DR 0933) 일대에서 휴식하였는데, 이들은 학교 교정과 도로가에 사총을 한 후 경계는 소홀히 한 채 일부는 더위를 못견디겠다는 듯 옷을 벗어 던지고 개울에 들어가 목욕을 하는가 하면, 일부는 낮잠을 자거나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또 다른 일부는 마을에 들어갔는데 잠시 후 마을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으로 보아

요도31

상곡리 기습전



이들은 식사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이들이 휴식하는 동안 2명의 경계병이 제1중대와 제3중대 사이의 등외도로에 있는 독립가옥(DR 083343)에 배치되는 것이 목격되었으나 이들은 낮잠을 자는지 가옥 안으로 들어가서 나오지를 앓고 있었다.

하천 위쪽의 3부능선에 배치되어 있는 제1대대 장병들은 코밑에서 일어나고 있는 북괴군의 목욕 광경 등을 숨을 죽이며 지켜

보면서 사격명령이 빨리 하달되기만을 초조히 기다리고 있었다.

한편, 390고지에서 쌍안경으로 북괴군의 행동을 예의 주시하고 있던 대대장 이관수 소령은 적이 목욕을 하는 등 무방비상태 이기는 하나 흠어져 있으므로 좀더 좋은 여건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해질 무렵인 19:30경, 흠어져 목욕하던 북괴군 병사들이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하여 집결하기 시작하였고 일부병사들은 식사를 하기 시작하였다. 이때가 공격하기에 가장 좋은 시점이라고 판단한 대대장은 대대작전장교 김희재(육사 8기) 중위로 하여금 적색 오성신호탄을 발사토록 하여 사격명령을 하달하였다. 대대장의 사격명령에 따라 400여 명의 총구에서 일제히 불을 뿜었고 박격포와 기관총도 쉴사이 없이 쏘아댔다.

저녁식사를 하려고 집결하거나 식사를 하고 있던 북괴군은 불의의 집중사격을 받고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한 채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쓰러져 갔고, 그때까지도 하천에서 목욕하던 자들은 옷을 입지도 못한 채 쓰러졌으며, 다행히 살상을 면한 자들은 부락으로 숨어들거나 삼밭에 몸을 숨겼으며 일부는 산으로 도주하였다. 이러한 와중에서 40여 필의 말과 소들이 포성에 놀라 날땀으로써 혼란을 가중시켰다. 제1대대가 1시간 가까이 적을 섬멸하는 사이, 연락을 받은 연대장 김희준 중령이 전투현장에 도착하였는데, 대대장이 소탕작전을 건의하자 연대장은 “날도 이미 저물었으니 소탕작전은 명일 아침 본대가 도착한 후에 하고 우선은 적이 야음을 이용하여 도주하지 못하도록 퇴로를 차단하라”고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대대장은 예비인 제2중대(중대장 : 중위

한 력)를 제3중대 북쪽으로 우회시켜 977번 도로를 차단하고 적의 증원에 대비하도록 하였는데, 제2중대가 행동개시했을 때는 이미 날이 어두워진 다음이었다. 연대장은 제1대대장에게 “적의 퇴로를 차단한 후 명일 아침에 소탕작전을 하도록” 지시한 후 어제(16일) 밤에 청주 전투에서 철수하여 보은에 집결하고 있는 제2대대와 제3대대를 긴급히 화령장으로 이동하도록 조치하였다. 연대장의 이동명령에 따라 양대대는 제3대대, 제2대대 순으로 21:30에 이동하여 18일 02:00-03:00 간에 화령장에 도착하였다.

(3) 잔적소탕

7월 18일 아침, 연대장 김희준 중령은 제1대대는 상곡리 일대의 잔적을 소탕하고 제3대대(대대장 : 소령 오익경)는 상주 방향으로 진출한 1개 대대의 적을 포착, 격멸하며, 청주전투에서 손실이 컸던 제2대대(대대장 : 소령 송호림)는 연대에비로서 화령장에 집결대기하도록 하였다.

제3대대장 오익경 소령은 화령장에 도착하자마자 연대장으로부터 “상주 방향으로 남하한 적을 포착 격멸하라”는 명령을 받고 아침 일찍부터 행동을 개시하였다. 07:00경, 제3대대는 갈방리(DR 1427, 화령장 남동 12km)에 이르렀을 때 미 제25사단 예하의 포병대대를 만났는데 이들은 “상주에서 이곳으로 진출시 적으로부터 사격을 받았으나 마침 그곳에 출동한 국군 제6사단 예하의 보병 1개 대대가 적을 격퇴하였기 때문에 큰 손실이 없었

다”고 하면서 동 포병대대는 “곧 화령장으로 진출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제3대대장 오익경 소령은 이러한 상황을 연대장에게 무전보고를 하였는데, 상주로 진출한 적에 대해서는 제2군단에서 조치중인 것을 알게 된 김희준 중령은 상주 쪽에 연대병력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제3대대는 즉시 상곡리로 되돌아와서 제1대대와 함께 잔적소탕을 하라. 제3대대는 585고지(DR 1035)를 공격하여 잔적을 소탕하고, 의명 510고지(DR 0936, 585고지 북서쪽 2km)를 공격할 준비를 하라.”고 명령하였다. 이리하여 제3대대는 즉각 행군방향을 되돌려 상곡리로 향하였으며 제1대대와 함께 잔적소탕을 하게 되었다.

제3대대가 상주를 향해 남동진하다가 되돌아오는 사이, 제1대대는 소탕전을 전개하고 있었다. 대대장 이관수 소령은 제2중대가 적의 퇴로를 차단하면서 증원에 대비하고 있는 가운데 제1중대와 제3중대가 잔적소탕을 하도록 하였다. 이 양개 중대는 마을과 삼밭을 살살이 뒤져 숨어 있는 적을 사살 또는 생포하였는데, 이때 마을 주민들의 많은 협조를 받기도 하였다.

적이 식사를 하기 위하여 집결하고 있던 곳에는 그들의 시체가 지면을 메울 정도였고 장비 또한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대대장은 버려진 장비에 비하여 시체가 적은 것으로 보아 아직 많은 적이 마을 주변이나 인근 산속에 숨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색을 계속하게 하였는데 동측 고지로부터 사격을 받았다. 이들은 야음을 이용하여 산으로 도주한 패잔병들이었는데, 적의 정치장교는 바위 뒤에서 “미 제국주의 앞잡이들아, 부산은 벌써

함락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저항하느냐……”고 속임수의 선동을 하다가 국군의 공격을 받아 585고지 방향으로 도주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마을 뒤편의 한 지점에서는 기관총탄이 계속 날아오고 있었다. 이곳은 바위틈으로서 박격포 사격으로도 제압이 되지 않자 특공대를 투입하여 수류탄으로 제압하고 보니 기관총 사수가 도망하지 못하도록 발목이 쇠사슬에 묶여 기관총에 연결된 채 죽어 있었다. 이들은 기습을 받고 도주하면서까지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무자비하게 독전하였던 것이다.

이 전투에서 제1대대는 포로 30명, 사살 250명, 박격포 20문, 45mm 대전차포 7문, 소총 1,200여 정 그리고 수 점의 통신장비와 많은 군수품을 노획하는 전과를 올렸다.

포로신문 결과 이들은 북괴군 제15사단 제48연대의 보병 2개 대대와 통신중대, 대전차포중대 및 기마대인 것이 밝혀졌으며, 도주한 병력은 대부분 비무장이며 부상자가 상당히 많다고 하였다. 그리고 포로와 전사자들을 점검한 결과 병사들 대부분은 17~18세 정도의 젊은이들이었고, 하사관급 간부들은 중공군의 팔로군 메달을 소지하고 있었다. 이 메달은 이들이 중공군에 있다가 북괴군에 편입된 자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물증이였다.

한편, 585고지를 공격한 제3대대는 10여 명의 포로와 수십 명의 잔적을 소탕하였을 뿐 지형이 험한데다 소규모 단위로 도주하는 적을 포착하기가 어려워 더이상 전과를 올리지 못하였다. 제3대대 제9중대(중대장 : 중위 한홍) 제3소대장 홍순원 중위는 동굴 속에 숨은 10여 명의 적을 발견하고 이들에게 위협사격을 하면서 투항하라고 권고하였으나 이들은 욕설을 퍼부으면서 총

격으로 응수하는 것이었다. 이 충격으로 흥중위가 쓰러지자 소대원들이 동굴 속에 수류탄 공격을 가하여 모두 소탕하였는데, 이들을 조사해 보니 북괴군 대위 1명이 권총을 손에 쥔 채 쓰러져 있었다.

한편, 제17연대 제1대대가 화령장에서 북괴군을 크게 격파하자 육군본부는 제17연대 제1대대의 전장병에게 1계급 특진 조치를 검토하면서 제1군단 예비인 수도사단을 화령장에 투입하여 이곳의 위기를 해소하려고 하였는데, 이때 하달된 육본작명 제51호(1950.7.18. 17:00)의 요지는 다음과 같았다.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51호(요지)

1. 괴산에 집결한 적은 계속 남진을 기도하고 있으며 그 일부는 화령장에 당도하였다.
2. 군은 일부병력을 이동시켜 남하하는 적을 포착 격멸하려 한다.
3. 제1군단장은 예하 수도사단을 화령장-입석리(DR 0153)로 진출시켜 적을 괴산 방면으로 격퇴시켜라.
4. 수도사단은 공격전진시 제6사단과 긴밀히 협조하라.

상기 명령을 받은 수도사단은 19일에 제1연대를 화령장으로 진출하도록 하였으나 뒤이어 하달된 육본작명 제55호(1950.7.19)에 의거, 7월 20일에 제2군단 지역으로 이동함으로써 이 전투에 참전하지 못하였다.

다. 동관리 전투

(1) 제2대대의 공격준비

7월 18일 10:00경, 연대장 김희준 중령은 상곡리의 격전지를 돌아보고 잔적소탕을 하고 있는 제1대대와 제3대대를 격려하는 한편, 적의 후속부대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연대 정보주임 유창훈(육사 5기, 소장 예편) 대위에게 “수색대를 이끌고 갈령으로 나아가 적정을 수집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리하여 유창훈 대위가 인솔하는 수색대가 갈령으로 진출하였는데, 이날(18일) 12:30경 자전거를 타고 갈령을 넘어서는 적병 2명을 생포하였다. 이들은 북괴군 제15사단장 박성철 소장이 제48연대장 김치구 중좌에게 보내는 전령(장교)으로서 2통의 문서를 휴대하고 있었는데, 1통은 사단장이 연대장에게 보내는 사신으로 “왜 중간보고를 하지 않는가? 무전기와 전령은 무엇에 쓰려는 것이냐?” 하고 엄하게 질책하는 내용이었고, 다른 1통은 작전명령서로서 “제49연대(연대장 : 중좌 이철영)가 곧 제48연대를 후속할 예정이다. 제48연대는 제49연대와 합세하여 국군 제6사단을 공격하고 김천-대구 방면으로 진출할 준비를 하라.”는 내용이였다. 북괴군 제15사단 제49연대와 제50연대는 17일 저녁때까지도 거리고개(CR 8560)에서 국군 제1사단 제13연대와 격전을 벌이고 있었으며, 이날밤에 제13연대가 미원으로 철수함으로써 18일에는 소강상태에 들어가 있었다.

이 노획문서로 인하여 북괴군이 그들의 제48연대가 격멸된 사

실을 아직 모르고 있다는 것과 제49연대도 곧 이곳을 통과할 것 이란 것을 알게 된 김희준 중령은 후속하게 될 북괴군 제49연대 마저 포착 섬멸하기로 결심하고 예비인 제2대대를 봉황산 북사 면으로 진출시켜 후속하는 적을 매복 공격하도록 하고, 제1대대는 상곡리의 원위치를 확보토록 하여 잔적준동에 대비하였으며, 보은에서 야간이동 하자마자 설사이 없이 동분서주한 제3대대를 연대 예비로서 화령장에 집결하도록 하였다.

제2대대(대대장 : 소령 송호림)는 화령국민학교에서 부대정비를 하고 있던 중인 15:00경에 연대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요지의 구두명령을 받았다.

제17연대의 명령(요지)

1. 포로진술에 의하면 적 제15사단 예하 제49연대가 이 지역 을 통과할 예정이라고 한다.
2. 제2대대는 7월 18일 20:00까지 봉황산 북사면을 점령하고 북괴군 제49연대를 포착, 격멸하라.
3. 통신은 유선으로 하되 상황이 전개되면 무선 사용을 허용한 다.

당시 제2대대는 대대장 송호림 소령이 청주 전투에서 철수시 발생한 차량전복사고로 인하여 몸이 몹시 불편하여 누워 있었고, 부대대장 이동호 대위가 청주 전투에서 전사하였기 때문에 대대 작전장교인 이형주 중위가 대대를 통제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

러한 상황에서 출동명령을 받은 대대장은 참모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차량에 올라 지형정찰을 마치고 그를 수행한 청년단원들의 조언을 받아 동관리(DR 0436) - 하송리(DR 0636) 간의 3km 어간에 진지를 선정하였다.

제2대대장이 선정한 진지는 봉황산 북동쪽의 와지선으로서, 진지 아래로는 소하천(이안천)이 그 바로 동쪽의 577번 도로와 병행하여 흐르며, 도로 동쪽으로는 얼마간은 논이고 그 다음은 산이었다. 그리고 진지 주변은 잡목이 우거져 있거나 뽕나무 또는 담배밭이기 때문에 은폐에 안성맞춤이었고, 진지와 도로까지의 거리는 보통 20~50m이고, 먼곳이 100m 정도여서 기습사격하기에 알맞은 거리였다.

송호립 소령은 후에 정찰소감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연대장으로부터 출동명령을 받았을 때는 나는 전혀 싸울 의욕이 없었다. 왜냐 하면 청주 남쪽의 고은리 전투에서 80여 명의 병력을 잃은 충격이 큰데다 나 자신이 차량전복사고로 인한 전신타박상으로 기동하기가 곤란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적의 대부대가 이곳을 통과할 예정이라는 말을 듣고 이를 좌시할 수 없어서 부자유스러움을 무릅쓰고 참모들의 부축을 받으며 지형정찰을 하였는데, 나는 동관리 계곡을 보는 순간 적이 이 안으로 들어서기만 하면 1개 연대병력쯤은 문제없이 격멸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느꼈다. 그래서 이곳에 진지를 점령하기로 하였다.”(출처 : 송호립 증언록)

대대장의 지시에 따라 제2대대 병력은 화령장에서 봉황산 등측능선을 넘어 동관리로 진출하여 20:00경부터 제7중대(중대장: 중위 조경학)를 좌, 제5중대(중대장: 대위 이일수)를 중앙, 제6중대(중대장: 중위 광성범)를 우로 하여 3개 중대를 와지선을 따라 배치하고 제7중대의 1개 소대를 746고지(DR 0538) 와지선에 배치하여 이곳으로 도주하는 적을 섬멸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중화기 중대의 기관총 소대는 중대간의 간격을 메우도록 하였고, 81mm 박격포는 갈령 쪽에 사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대관측소는 대대 전지역을 내려다볼 수 있는 봉황산 5부능선에 설치하였다.

다음날인 7월 19일 06:00, 야간 진지 점령으로 미비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 대대장은 각 중대장들에게 “전투준비 태세를 재점검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아울러 지역내의 주민을 소개시켜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각 중대장들은 경계병의 위치, 개인호의 구축상태, 공용화기의 위치, 탄약 보유량, 위장상태, 화력계획 등을 점검하여 미비점을 보완하였고, 제7중대 지역의 동관리(DR 0436)와 제6중대 지역의 송원(DR 0636) 마을을 수색하여 주민들은 대피하도록 하였다.

제7중대장 조경학 중위는 중대진지의 좌단부에 있는 동관리 마을을 제1소대장 오병진 중위에게 수색하도록 지시하였다. 도로가에 위치한 20여 호의 이 마을에는 주민들은 모두 피난 나가고 노인 2~3명이 있었는데, 이 노인들은 피난가기를 거부하였다. 오병진 중위는 어느 집을 수색하다가 북괴군 복장을 한 시체 3구가 보릿대로 가리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악

취가 심하게 풍기고 있었다. 오중위는 시체의 연유를 노인들에게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였다.

“며칠 전에 이 마을에 북괴군들이 들어와서 가가호호를 돌아다니면서 쌀, 보리 등 식량을 거두어갔는데 이때 이 마을에 사는 고창근이가 그들중 3명을 차례로 죽인 후 달아났으며 마을 사람들도 보복이 두려워 그날로 모두 피난하였다. 그러나다 늙은 우리는 피난갈 힘도 없으려니와 가보았자 얼마나 더 살겠는가? 그런 일이 있는 뒤 그들 대부분이 이곳을 통과하였으나 아무일도 없었다.”

(2) 적치중대 격멸

제7중대장은 동관리 마을 앞의 갈령 쪽에 있는 굴곡진 도로가에 경계병을 배치해 두고 있었다. 경계병이 배치된 곳은 장자동(DR 0237)으로 들어가는 삼차로 부근으로서 그곳에는 독립가옥이 한 채 있었고, 갈령 쪽으로 800m 정도는 잘 보이는 장소였다.

19일 14:00경, 경계초소에 나가 있던 복진세 병장이 제1소대장 오병진 중위에게 뛰어와서 “말을 탄 군인 2명이 우마차 10여대를 이끌고 이쪽으로 오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오중위가 복진세 병장이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니 말을 탄 장교 2명이 선두에서고 20여 명의 병사들이 달구지를 끌고 있는 소와 말을 몰면서 그 뒤를 따르고 있었는데, 이들은 북괴군의 보급대열로 보였다.

제1소대장이 이들을 관찰하는 사이 그들은 제7중대 진지 정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는데, 이때 어느 병사가 사격을 가하여 선두에서 말을 타고 있는 장교 1명을 쓰러뜨렸고, 이 총성을 계기로 제7중대원이 집중사격을 가하여 이들을 모두 쓰러뜨렸다. 이 교전에서 제7중대는 민간인 2명을 포함 적병 19명, 소 2마리, 말 3마리를 사살하고, 소 2마리와 말 9마리를 생포하였으며, 우마차에 실려 있는 많은 양의 탄약과 식량 등을 노획하였다. 제7중대는 노획한 보급품과 죽은 소는 우마차에 실어 연대로 후송하고 적 시체와 죽은 말은 도로에서 떨어진 곳에 옮겨 위장을 하였으며 도로의 핏자국도 흙으로 덮어 보이지 않도록 한 후 다시 적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이때 대대장 송호림 소령은 명령 없이 사격한 점을 중시하고 각 중대장들에게 “앞으로 내 명령 없이 사격할 경우에는 해당 중대장을 엄중 문책하겠다”고 사격군기를 강조하였으며, 대대관측소를 제7중대 지역으로 옮겼는데, 이는 일선 중대를 좀더 확실히 장악하기 위함이었다.

한편, 이날(19일) 18:00경, 제17연대를 방문한 제1군단장 김홍일 소장은 “제17연대는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55호(1950.7.19)에 따라 당 군단 지휘하에 화령장으로 침입하는 적을 계속 저지 격퇴하라”고 명령하였고, 뒤이어 “화령장에 투입될 예정이었던 수도사단이 제2군단 지역으로 이동하게 된다”라고 작전계획의 변경을 통보하였다.(육군본부 작전명령 제55호 내용은 제3절에서 언급)

(3) 동관리 기습전

7월 20일 05:00경, 제17연대장 김희준 중령은 이때까지도 전방대대로부터 “적발견” 보고가 없자 “놈들에게 속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왜냐 하면 포로의 진술이나 노획문서에 따르면 그들 주력부대가 977번 도로를 따라 상주 쪽으로 통과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들의 문서가 허위이거나 아니면 국군의 배치상황을 알고 진로를 바꾸었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리하여 연대장이 새로운 대책을 구상하고 있을 때에 봉황산 너머에서 교전하는 듯한 총성과 폭음이 들려왔다. 연대장은 즉각 통신장교 김기주 대위에게 전방상황을 확인하게 하였던바 “제2대대와는 유무선이 불통이고 제1대대 지역은 이상이 없다”는 보고를 받고는 제2대대가 적과 교전 중인 것을 알게 되었다.

한편, 제2대대장 송호림 소령은 날이 밝아올 무렵에 연대장에게 “이상 없음”이라는 보고를 하였는데, 얼마 후에 좌측의 제7중대장 조정학 중위로부터 “피아를 식별할 수 없는 부대가 갈령에서 진전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에 대대장은 “우군일지도 모르니 피아식별을 철저히 하고 변동되는 사항은 수시로 보고하라. 그리고 나의 명령 없이는 절대 사격하지 말라.”고 지시한 다음 제5중대와 제6중대에게도 현상황을 알려주면서 “경계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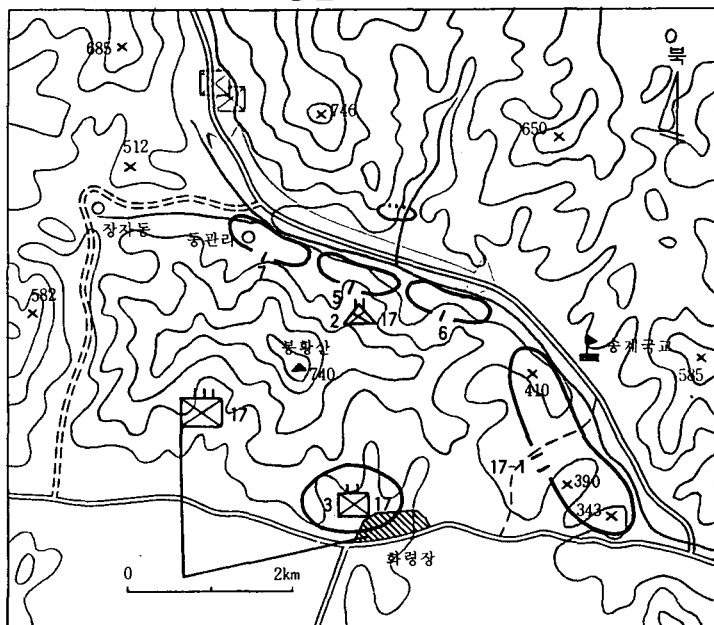
당시 경계병으로서 경계초소에 나가 있던 복진세 병장은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가 배치된 곳은 중대진지에서 200m쯤 떨어진 977번 도로상의 독립가옥이었는데, 그곳은 도로가 굽커브진 곳으로서 갈령 쪽에 대한 관측이 양호한 곳이었다. 우리의 임무는 적을 발견하면 즉시 중대에 보고하고 철수하는 것이었다. 이곳에는 4명이 2명 1개 조로 교대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교전이 있던 날 새벽, 날이 밝아오고 있었으나 계곡에는 안개가 자욱이 깔려 있어 지척을 분간하기가 어려웠는데 수레 구르는 소리와 발자국 소리 등이 멀리서부터 점점 가까스로 들려와 이는 어떤 집단이 접근하는 소리로 판단하였다. 이에 경계조장 한갑석 상사가 TS-10전화기로 중대에 상황을 보고하는 사이 그 집단이 지척에 다다랐으므로 우리들은 미리 선정한 통로를 따라 철수하였는데 이때 보니 이들은 4열 밀집중대로 도로를 꽉 메운 채 내려오고 있었다. 그들은 태연스럽게 우리 중대의 20여 m 앞을 통과하였는데 우리는 ‘명령 없이는 절대 사격하지 말라’는 엄한 지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격하지 못하고 있었다. 사격명령은 상당히 많은 병력이 지나간 뒤에 내려졌다.”

한편, 대대장으로부터 “피아의 식별을 확실히 하라”는 명령을 받은 제7중대장 조경학 중위는 “배낭같은 것을 등에 메고 있다.” “총에 송곳 같은 것을 꽂았다.” “바퀴 달린 기관총을 끌고 가고 있다.”는 등의 보고를 받고 이 대열이 북괴군인 것을 짐작은 했으나 확인할 수가 없었다. 당시 국군은 한강철수시 배낭을 거의 모두 잃었으며, 배낭이 있는 부대도 부대이동시는 이를 차량에 적재하고 병사들은 간편한 무장을 한 채 이동하는 것이 통례였다.

요도32

동관리 기습전



대대장 송호림 소령도 피아 식별을 못하고 망설이고 있기는 제7중대장과 다를 게 없었다. 예하 중대로부터 보고되는 상황으로 봐서는 대대진전을 통과하고 있는 부대가 북괴군이라는 심증은 가고 있으나 만약의 실수에 대비하기 위하여 “적”이라고 확인될 때까지 사격명령을 보류하고 있었다. 그런데 06:30경 우측의 제6중대장 박성범 중위가 “이들의 선두가 중대정면을 지나가고 있으니 이에 대한 조치가 시급합니다” 하고 보고하여 왔는데, 이는 빨리 사격명령을 내려 달라는 독촉이나 다름없었다. 이에

더이상 망설이고 있을 수도 없고 지금 와서 연대장에게 보고하고 조치를 받기는 너무 늦었다고 판단한 송호림 소령은, 만약 이 병력이 적이라면 대전과를 올리는 것이고 아군이라면 자결하겠다는 결심하에 “사격개시” 명령을 하달하였다.

대대장의 사격명령에 따라 적색오성신호탄 3발이 발사되었고 이를 신호로 대대의 모든 화기가 불을 뿜기 시작함으로써 동관리 계곡은 순식간에 불바다로 변하면서 아비규환이 되었다. 대대는 갈령 방향에는 81mm 박격포로 사격하고 중대간에는 중기관총으로 교차사격하며 도로 건너의 개활지와 산에는 중대의 60mm 박격포로 제압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개인화기는 977번 도로를 최저표척사 할 수도 있도록 지가를 설치하였기 때문에 안개로 인하여 표적이 잘 보이지 않더라도 사격만 하면 화망 안에 걸려든 적은 살아 남을 수가 없었다.

기습사격을 받은 북괴군은 숨을 곳을 찾아 이리저리 뛰었으나 은폐물이 없는데다 근거리에서 사격을 받았기 때문에 대부분 쓰러져 갔고, 일부병력은 논바닥에 엎드려 저항을 하였으나 오래가지는 못하였다. 08:00경 안개가 걷힌 후 977번 도로 위와 논바닥에는 시체와 장비가 즐비하였고 아직도 숨을 찾아 헤메는 자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북괴군임이 곧 확인되었다.

09:00경, 제2대대장 송호림 소령은 제6중대로 하여금 잔적소탕을 하도록 하였고, 자신은 대대관측소에서 빨간 수기로 적의 도주 방향을 제6중대에게 지시하면서 부대를 지휘하고 있었다. 제6중대가 소탕작전을 전개하자 이때까지 죽지 않고 논바닥에 엎드려 있던 북괴군들은 상당한 저항을 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소탕되었고 산으로 도주한 자들은 미리 746고지(DR 0538) 와지선에 배치된 1개 소대에 의하여 쓰러져 갔다.

이당시 제5중대에 탄약추진차 갔다가 전투상황을 목격한 하송리의 박무진(22세) 씨는 “적이 길 위와 논바닥에 새까맣게 쓰러져 있었는데 7~8명의 적군이 도로에 묻혀 있는 직경 70cm의 배수관 속으로 기어들어가자 소탕작전 중이던 군인 1명이 배수관 속에 사격하는 것을 보았다. 국군들은 참으로 용감하였다.”고 당시의 상황을 증언하였다. 이때 제7중대 화기소대장 김삼만(육사 8기) 중위는 진전에서 도망치는 적을 발견하고 경기관총을 집어들어 사격하면서 적을 쫓아가다가 적이 난사한 총탄에 두부관통상을 당하여 전사하였다.

한편, 화령장에 있던 김희준 중령은 전투를 벌이고 있음에도 아무 보고도 하지 않는 제2대대장을 힐책하고 전투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참모와 미 고문관 스카레키 소령을 대동하고 제2대대 지역으로 달려갔다. 연대장 일행이 제2대대 지역에 당도하여 보니 동관리 계곡에는 시체가 즐비하게 쓰러져 있었고 1개 중대가 소탕작전을 벌이고 있었으며, 대대장은 산 위에서 빨간기를 흔들면서 지휘하고 있었다.

이를 바라본 스카레키 소령은 입을 딱 벌리면서 “내가 30년간의 군대생활을 하면서 세계 제1차 대전과 제2차 대전을 다 겪었고 서부활극도 많이 보았지만 이처럼 통쾌한 전투는 처음 보았다”고 하면서 “wonderful”이란 감탄사를 연발하였다. 연대장은 제2대대장에게 권총을 들이대고 “왜 보고하지 않느냐?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고 힐책했으나 대대장이 “연대장님, 저 아

래를 보십시오. 그동안 보고드릴 틈이 없었습니다.”라고 변명하자 더이상 꾸짖을 수가 없었다. 이때의 상황을 김희준 중령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송호림이가 연락도 안하고 새벽부터 그냥 치는 것이었다. 그래서 미 고문관 스카레키 소령과 같이 올라가 보니까 송호림이가 큰 기를 흔들면서 죽여라, 죽여라 하는데 운동회 때 응원하는 것 같이 하고 있었다. 적은 4열중대로 들어왔는데 2개 대대 정도는 섬멸되었다. 그때 고문관이 하는 말이 서부영화에서도 이런 장면은 못봤다고 하면서 감탄을 하였다.”

제2대대는 14:00에는 소탕작전을 끝냈는데 이 전투에서 사살 356명, 포로 26명, 박격포 16문, 반전차포 2문, 기관총 53정(수냉식 경기관총 : 15, 체코식 경기관총 : 23, 중기관총 : 15), 소총 186정(장총 : 167, 다발총 : 6, 기타 : 15), 무전기 1대, 전화기 1대 등의 전과를 올렸고 전사 4명, 부상 30명의 피해를 입었다. (출처 : 제1군단 전투 경과보고서) (제2대대장은 도로 및 논에서 주민들이 묻은 적 시체가 600여 구이었고, 산에서 죽은 숫자까지 포함하면 사살된 적은 더 많은 숫자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대대는 노획장비중 박격포, 기관총 등 공용화기와 소총 등을 2 1/2톤 차량 3대로 후송하였고, 탄약과 기타 군수품은 폐기 또는 소각처리하였다.

제2대대가 전장 정리를 대충 끝내고 노획장비의 후송을 서두르고 있을 때인 15:00경부터 갈령 너머로부터 북괴군의 포탄이

날아왔다. 이에 제2대대는 적이 역습을 시도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대대진지를 고지대(봉황산 주능선 우반부)로 옮겼으며, 제6중대와 제7중대를 전방, 제5중대를 예비로 하여 진지를 편성하였다.

제17연대가 화령장의 상곡리와 동관리 등 2개소에서 북괴군을 크게 격파한 데에는 “적이 접근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전투대대가 훌륭히 싸웠기 때문이지만, 연대의 전투근무지원 노력과 주민들의 협조가 큰 도움이 되었다.

연대는 개전초 웅진반도에 있다가 철수하여 대전에 집결하였는데 이때 1,000여 명을 모병하였으나 무기가 없어 이들을 보급추진 업무에 활용하였으며, 전투병력 손실시 보충병으로도 활용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화령장에서도 탄약보급 등 어려운 임무를 수행하여 전투병력의 짐을 크게 덜어 주었다. 그리고 화령장 주민들은 배상록 대위가 화령장에 파견될 때부터 국군에 적극적인 협조를 하였는데, 대한청년단원들은 단장 김기영을 중심으로 적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마을을 경비하며 보급추진업무를 도와주었고, 이 지역 주민들은 “탄약운반이나 취사업무 등은 우리가 맡을 터이니 군인은 한사람이라도 더 많이 전장에 나가서 적을 물리쳐 달라”고 하면서 탄약운반, 취사 등을 자원하였으며, 박삼덕(청년단원, 38세) 씨는 자신의 약방을 치료소로 사용하도록 하면서 약품을 지원하고 환자를 치료하기도 하였다.

라. 포격전

북괴군 제15사단은 그들의 예하인 제49연대가 7월 20일 미명

에 동관리 일대에서 기습을 받고 괴멸적인 타격을 받게 되자 이날 14:00경부터 동관리의 제2대대 지역에 포격을 가하더니 이튿날(21일) 아침에는 봉황산 일대에 포격을 계속하면서 977번 도로 좌우측인 장자동(DR 0237) - 청계(DR 0637) 선에 병력을 전개하는 것이었다. 이에 제17연대장은 예비인 제3대대를 장자동 - 평은리 축선에 투입하고 제1대대를 상곡리에서 화령장으로 철수시켜 연대예비로 전환하였다. 제3대대는 즉시 이동하여 제10중대(중대장 : 중위 유치문)를 490고지(DR 0236)에, 제9중대(중대장 : 중위 한홍)를 450고지(DR 0336)에, 제11중대를 대대 예비로서 제10중대 후방인 582고지(DR 0235)에 배치하였다.

제3대대가 진지에 투입되자 이 지역에도 적의 포탄이 떨어지기 시작하였으므로 제3대대는 진지 후사면으로 대피하여 적 포격으로부터 피해를 줄이려고 하였다.

이날(21일) 저녁때에 상주 정면의 방어임무를 받은 미 제25사단(사단장 : 소장 William B. Kean) 제24연대*(연대장 : 대령 Horton V. White) 제2대대가 상주에서 화령장으로 북상하고 있었으므로 제1군단은 미군부대와 제17연대와의 합동작전을 계획하고 있었다. 미군이 투입됨에 따라 제3대대는 고지대(봉황산 주능선 좌반부)로 진지를 옮겼다.

7월 22일 아침, 적이 제17연대 지역에 포격을 하고 있을 때, 미 제24연대 제2대대는 평은리에서 582고지 방향으로 전진하면서 155mm 곡사포로 적진지를 포격하였다. 이리하여 전개된 포

*미 제24연대 : 연대장과 몇 명의 장교만 백인이고, 나머지는 흑인으로 편성된 부대였다.

격전으로 582고지-봉황산 일대는 지축이 진동하였으며 피아간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평온리-장자동 계곡에서는 미군의 피해가 심하였다.

평온리에서 582고지로 전진하고 있던 미 제24연대 제2대대 병사들은 포격을 받아 피해가 속출하자 분산 철수하였는데, 이들은 전쟁공포증에 걸린 듯 공용화기는 물론 개인화기까지도 팽개치고 무질서하게 평온리로 철수하여 버렸다.

이와 같이 미 제24연대 제2대대가 포격전으로 고전하고 있을 때, 제1사단(사단장: 대령 백선엽)이 화령장에 집결하고 있었다.

3. 갈령 공격전투

가. 제1사단의 화령장 전개

(1) 육군의 전선조정계획

전 전선이 남으로 밀리고 있던 7월 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한반도에서의 공산군의 침략을 격퇴하기 위하여 유엔군 사령부 창설을 결정하였고, 사령관에는 미국동군 총사령관 맥아더(Douglass MacArthur) 원수가 지명되었다. 맥아더 원수는 일본에 있던 미 제8군을 한반도에 보내어 공산군의 침략을 저지하고 제8군사령관을 통하여 유엔군사령관으로서의 지상군 지휘권을 행사하기로 하였다. 이리하여 7월 13일에는 미 제8군지휘소가

대구에 개소되고 미 제8군사령관 워커(Walton H. Walker) 중장이 도착하였다.

이 무렵 이승만 대통령은 국군도 유엔군사령관 지휘하에서 유엔군과 함께 싸워야 한다고 판단하고 7월 14일부로 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하였다. 유엔군사령관이 이중 한국 육군의 작전지휘권을 제8군사령관에게 위임함으로써 이후부터 미 제8군사령관은 한반도 내의 전 유엔지상군은 물론 한국 육군을 작전지휘하게 되었다. 워커 장군의 부임 당시 한반도에는 지상군으로서 한국 육군 외에 유엔군이라는 이름으로는 미 제24사단과 미 제25사단 등 미군 2개 사단이 있었다. 이중 개전초에



〈갈령〉

투입된 미 제24사단은 금강선에서 북괴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으며, 7월 12일~15일 간에 부산에 상륙한 미 제25사단은 국군의 후방인 상주에 제24연대(-1), 안동에 제27연대(-1), 김천에 제35연대(-2), 그리고 예천에 1개 대대(증강), 포항비행장에 1개 대대를 전개하여 국군을 지원하면서 뒤에서 받치고 있었다.

워커 장군은 미군 2개 사단과 한국군으로 금강-소백산맥선에서 연합전선을 형성하여 북괴군의 남진을 일단 저지한 다음 공세이전하려는 복안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 선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북괴군의 저지가 최우선 과제로 제기됨에 따라, 인천에서 상륙작전을 전개함과 아울러 금강-소백산맥선에서 공세이전하려는 유엔군 전략이 수정되었는데, 이에 따라 인천상륙작전에 운용하려던 미 제1기병사단이 7월 18일 포항에 도착하게 되었다. 미 제8군사령관은 이 사단이 상륙하는 대로 영동으로 전개시켜 추풍령 북쪽에서 경부축선을 방어함과 아울러 미 제24사단의 철수를 엄호하게 하고, 상주에서 포항에까지 국군의 전선후방에 흩어져 있던 미 제25사단을 집결시켜 상주 정면을 담당토록 하는 한편, 상주 정면의 국군 제1군단을 동부지역으로 이동시켜, 먼저 한·미군간의 전선을 조정한 후 공세이전하려고 하였다.

7월 14일에 대구로 이동한 육군본부는 이러한 전선조정계획에 따라 화령장-괴산 방향으로 투입하려던 수도사단을 계획을 바꾸어 제2군단 지역인 안동, 예천, 함창 등지로 1개 연대씩 파견하여 미 제25사단 예하 부대와 교대하도록 하였다(육군본부 작전 명령 제55호, 1950.7.19). 그리고 다음날에는 이른바 전선조정 및

부대 재편성 계획이라 불리는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57호(1950.7.20)를 하달하여 제1군단 사령부를 의성으로 이동시키고 제1사단을 춘양으로 이동시키며 제2사단을 해편하는 등 주요부대를 이동 및 재편성하도록 하였다. 육본작명 제55호와 제57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55호(1950.7.19. 16:00) (요지)

1. 적은 제2군단 정면으로 맹렬한 공격을 하고 있다.
2. 연합군의 일부는 금일 밤부터 제1군단 지역으로 이동할 계획이다.
3. 군은 일부병력을 이동시켜 연합군과의 협동작전을 긴밀하게 하려 한다.
4. 제1군단장은 예하의 수도사단 및 야전포병 1개 중대를 이동시켜 제2군단장에게 배속하는 동시에 제17연대를 통합지휘하여 화령장 지구로 남하하는 적을 포착 섬멸하라.
5. 제2군단장은 전항의 병력을 통합지휘하여 남하하는 적을 섬멸하고 연합군의 이동을 엄호하라.
6. 부대별 행선지 및 이동경로

구 분 부 대	행선지	이동완료 시 간	이 동 경 로
수도사단사령부 및 제 8 연대	안 동	7.20. 08:00	화령장-상주-철항-불리 기장-예천
제 1 연대	함 창	7.20. 08:00	화령장-상주-함창

구 분 부 대	행선지	이동완료 시 간	이 동 경 로
제 1 군단 포병 1개 중대	예 천	7.20. 12:00	화령장-상주-철항-불리 기장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57호(1950.7.20. 01:10)

1. 적정 및 아군 상황 : 생략
2. 군은 다음과 같이 일부부대의 개편 및 배비를 변경, 차기공세 이전의 준비를 하려 한다.
 - 가. 수도사단 : 현임무를 계속 수행하면서 안동지구로 이동하여 장차 군의 예비가 된다.
 - 나. 제17연대
 - (1) 현임무(화령장 전투)를 완수하면 안동지구로 이동할 준비를 하라.
 - (2) 의명, 안동지구로 이동후 수도사단에 배속한다.
 - 다. 제2사단 : 미 제25사단이 도착하면 즉시 임무교대후 다음과 같이 해편한다.
 - (1) 제5연대 및 제20연대는 두평리(보은 북방 8km)로 이동후 제1사단에 배속한다.
 - (2) 제16연대는 영주로 이동하여 제8사단에 배속한다.
 - (3) 제22연대는 대구로 이동후 제3사단에 배속한다.

(4) 제2사단 사령부 및 직할부대는 대구로 이동후 육군본부에 배속한다.

라. 제1사단(제5, 제20연대 포함) : 미 제25사단과 임무교대후 춘양으로 이동하여 차기공세 이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

마. 독립기갑연대 : 대구로 이동하여 제3사단에 배속한다.(현 위치 : 영동)

바. 제3사단(제22연대, 독립기갑연대, 제1독립대대, 제2독립대대 포함) : 현전선에서 적의 남침을 철저히 저지하라.

사. 제6사단 및 제8사단(제16연대 및 제25연대의 1개 대대 포함) : 현임무를 계속 수행하는 동시 공세이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

아. 제1군단 사령부 및 직할부대 : 의성(안동 남방 25km)으로 이동, 제1 및 제3사단을 통합 지휘하라.

상기 육본작명 제55호에 의거, 수도사단은 7월 20일에 함창, 예천, 안동지구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육본작명 제57호에 의거, 미 제25사단과 임무교대하게 되어 있는 제1사단은 7월 21일부터 미원에서 보은으로 철수하고 제2사단은 회인에서 원남(CR 8628) 경유, 황간 방향으로 철수하고 있었다.

(2) 제1사단의 화령장 전개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57호(1950.7.20)에 의거, 춘양으로 이동하

게 된 제1사단은, 미원지구에 배치된 예하부대들을 7월 21일 17:00부터 철수시켜 보은에 집결시키고 있었다. (철수상황은 제5장 제3절 참조)

7월 21일에 북괴군은 아침부터 화령장 북쪽 4km의 장자동-동관리 선에 병력을 전개하면서 제17연대 진지에 포격을 가하고 있었다. 이러한 적의 움직임은 예의주시하고 있던 육군본부는 화령장에 발생한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더욱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보은에서 춘양으로 이동준비를 하고 있는 제1사단을 계획을 바꾸어 화령장에 투입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리하여 제1사단은 보은에서 화령장으로 이동하였는데 제11연대는 22일 07:00에, 화령장에 도착하였고, 제12연대는 동일 17:00에 평온리(DR 0234)에 집결했으며, 제13연대는 23일 08:00에 화령장 남쪽 2km의 봉촌리(DR 0531)에 집결하였다. 이 당시 제1사단의 병력은 장교 276명, 사병 4,112명, 도합 4,300여 명으로서 이중 비무장 병력이 상당히 많았고, 주요장비는 105mm 곡사포 4문(배속), 81mm 박격포 24문, 60mm 박격포 20문, 기관총 21정, 자동소총 30정에 불과하여 전투력이 매우 낮은 실태였다.

7월 22일 오전, 화령장으로 이동한 제1사단장 백선엽 대령은 미 제24연대장 화이트(White) 대령으로부터 “투입된 부대를 철수시켜 재정비할 계획이니 엄호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제1사단장은 친밀한 사이인 화이트 대령의 요청을 받고 화령장에 집결한 제11연대를 상곡리(DR 0933)로 이동시키되 1개 대대를 송계국민학교 부근(DR 0835)에 배치하여 미 포병대를 보호하고, 이동중인 제12연대의 선두부대를 도착과 동시 장자동 계곡에 투

입하였다. 이리하여 이날 15:00경에는 제11연대 제1대대가 송계 국민학교 부근(DR 080350-DR 095350)에 배치되었고 제12연대 제1대대가 582고지(DR 0235)에 투입되었다.

(3) 제1사단의 공격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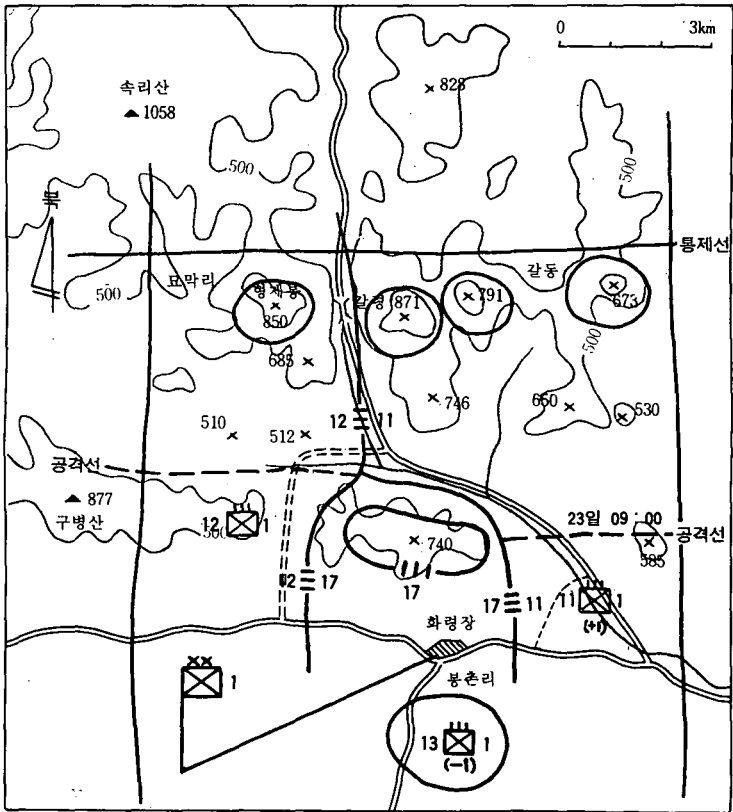
이와 같이 화령장 일대에 전개한 제1사단은 제17연대로부터 적정을 확인한 후 제17연대 지원하에 갈령고개 북방으로 적을 격퇴시키기로 방침을 세우고 다음과 같은 요지의 공격명령을 하달하였다.

제1사단의 공격명령(요지)

1. 사단은 봉황산의 제17연대 엄호하에 제12연대를 좌, 제11연대를 우, 제13연대를 예비로 하여 23일 09:00에 공격, 묘막리(DR 0040)-갈령(DR 0340)-갈동(DR 0740) 선을 점령, 확보하려 한다.
2. 공격간 미 포병대(155mm 1개 중대)가 사단을 지원한다.
3. 제11연대(배속: 제13연대 제3대대)
 - 가. 사단의 우일선 제대로서 23일 09:00 공격.
 - 나. 871고지(DR 0440)-673고지(DR 0940) 선을 점령, 확보.
4. 제12연대
 - 가. 사단의 좌일선 제대로서 23일 09:00에 공격.
 - 나. 형제봉(DR 0240, 850m)을 점령, 확보.

요도33

제 1 사단의 공격 계획



5. 제13연대

가. 사단예비로서 봉촌리(DR 0531)에 집결대기.

나. 제3대대를 이동과 동시 제11연대에 배속.

6. 사단지휘소 : 화령장(화서 지서).

나. 하송리 전투

(1) 제11연대의 공격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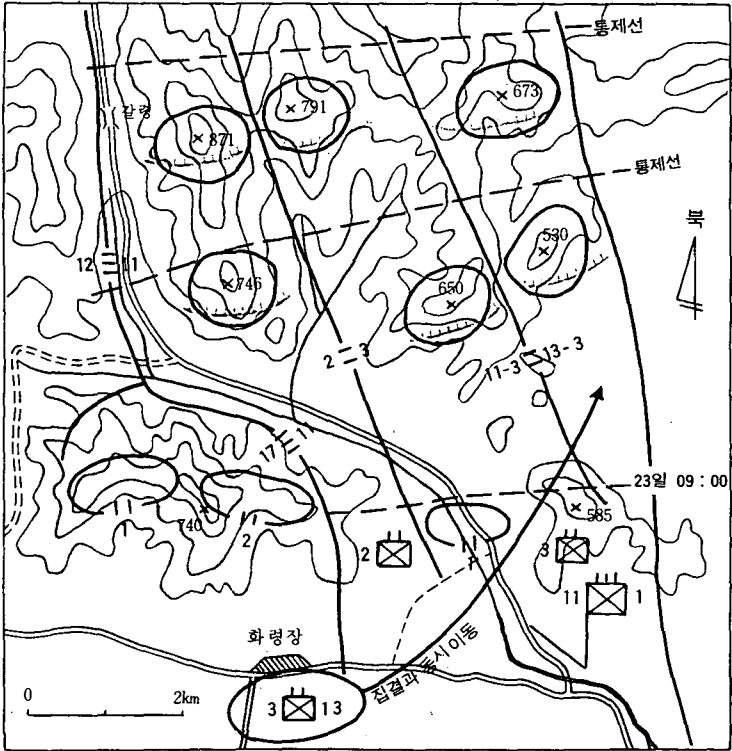
제11연대장(중령 권동찬)은 제1대대를 송계국민학교 일대에 배치하고 연대(-1)를 상곡리에 집결시키고 있다가 사단공격명령을 받고 다음과 같은 요지의 연대공격계획을 하달하였다.

제11연대의 공격계획(요지)

1. 연대는 제2대대를 좌, 제3대대를 중앙, 제13연대 제3대대를 우, 제1대대를 예비로 하여 7월 23일 09:00에 공격, 746고지(DR 0538) - 650고지(DR 0837) - 530고지(DR 0938) 선을 확보하고, 의명, 871고지(DR 0440) - 673고지(DR 0940) 선을 점령하려 한다.
2. 제2대대
 - 가. 연대 좌일선 제대로서 23일 09:00에 공격.
 - 나. 746고지(DR 0538)를 점령하고, 의명, 871고지(DR 0440)를 점령.
3. 제3대대
 - 가. 연대 중앙 제대로서 23일 09:00에 공격.
 - 나. 650고지(DR 0837)를 점령하고, 의명 791고지(DR 0640)를 점령.

요도34

제11연대의 공격 계획



4. 제13연대 제3대대

가. 연대 우일선 제대로서 공격.

나. 530고지(DR 0938)를 점령하고, 의명 673고지(DR 0940)를 점령.

5. 제1대대

가. 연대예비.

나. 제2대대 및 제3대대의 전진을 지원.

(2) 하송리 공격전

송계국민학교 부근의 도로 좌우측에 대대주력을, 470고지(DR 0934)에 제1중대를 배치하고 있던 제11연대 제1대대(대대장 : 대위 장근술)는 전방 대대의 공격을 지원하기 위하여 준비중에 있었다. 23일 08:00경, 제1중대(중대장 : 중위 이덕빈)는 1개 소대 규모의 북괴군이 북동 1km의 585고지(DR 1035)에 나타난 것을 발견하고 이를 공격하였으나 적으로부터 박격포와 기관총 사격을 받는 등 완강한 저항을 받았다.

이에 연대장은 공격준비중에 있는 제3대대(대대장 : 대위 김소)를 585고지 남동쪽에서 공격하게 하고 제1대대는 남서쪽에서 공격하도록 하는 한편, 사단에 야포사격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리하여 얼마 후에는 사단 포병중대와 미 포병대에서 발사한 105mm 및 155mm 포탄이 585고지 일대에 집중되는 가운데 이 고지 남동쪽과 남서쪽 등 2개 방향에서 제3대대와 제1대대가 공격하였다. 2개 방향에서 공격을 받은 1개 대대로 추산되는 585고지의 적은 더이상 버티지 못하고 510고지(DR 0936) - 650고지(DR 0837) 방향으로 물러섰다. 적이 철수하자 지원포병이 이들에게 포격을 계속하는 가운데 제3대대가 추격하였다.

제3대대는 하송리의 650고지에서 적으로부터 완강한 저항을 받았으나 미 포병대의 지원사격에 힘입어 이날 오후에는 이 고

지를 점령하였다. 이날의 진출선인 650고지를 점령한 제3대대는 일단 전진을 멈춘 채 좌측부대인 제2대대의 746고지 공격을 지켜보고 있었다.

연대의 좌일선 제대인 제2대대(대대장 : 소령 정영홍)는 제17연대 제2대대의 지원하에 09:00에 공격을 개시, 순조롭게 전진하여 12:00경에는 370고지(DR 0636)를 점령하였으나 746고지에서는 적의 완강한 저항을 받게 되었다. 이 지역은 바위가 많고 급경사 지역이어서 공격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바위 때문에 포격으로도 쉽사리 제압이 되지 않아 일몰시까지도 이날의 목표인 746고지를 점령하지 못하고 7부능선(DR 055377)에서 공격이 둔화되어 있었다.

한편, 제13연대 제3대대(대대장 : 소령 최병순)는 봉촌리에 집결하자마자 작전지역으로 출발(23일 08:00 출발), 17:00경에 예의리(DR 1037)에 당도하여 야간공격을 감행, 23:00경에 이날의 목표인 530고지(DR 0938)를 무난히 점령하였다.

7월 24일 04:00, 연대장의 명령에 따라 3개 대대는 일제히 공격을 재개하였다.

좌측의 제2대대는 특공대를 편성, 바위틈에서 저항하는 적을 수류탄 공격으로 제압한 후에야 746고지를 겨우 점령하였다. 이 고지를 점령한 제2대대는 능선을 따라 전진을 계속한 끝에 23:00경에는 최종목표인 871고지를 점령하였다.

중앙의 제3대대도 04:00에 공격을 재개, 완강한 적의 저항을 물리치고 23:00경에 최종목표인 791고지(갈동 서측 1km)를 점령하였다.

우측의 제13연대 제3대대도 04:00에 530고지에서 공격을 재개, 673고지를 향해 전진하고 있었다. 05:20경, 이 대대는 전진 중 경계부대로 보이는 약 2개 분대의 북괴군이 잠자고 있는 것을 발견, 이들 18명 전원을 사살하고 기관총 1정을 노획하였으나 곧 적의 사격을 받아 고전하게 되었다. 673고지는 좌측의 791고지와 3km 정도 떨어져 있어 이 대대는 좌인접 부대와는 상호지원이 어려웠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면과 좌·우측 고지대로부터 사격을 받은 제13연대 제3대대는 점차 적에게 포위되어 가자 대대장은 상황이 불리하다고 판단하고 부대를 철수시켰다. 제3대대는 재정비한 다음 25일의 여명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때 미 제24연대와 교대하려는 사단의 계획을 알고 있던 제11연대장은 도로에서 멀리 떨어져 전투하고 있는 제13연대 제3대대장에게 철수를 명령하였으므로 이 부대는 24일 22:00경에 야간철수를 단행하여 금곡리(DR 0934)에 집결하였다.

다. 장자동 전투

(1) 제12연대의 공격계획

7월 22일 17:00에 화령장 서쪽 4km의 평온리(DR 0233)에 도착한 2개 대대 편성인 제12연대(연대장: 중령 김점곤, 육사 1기, 소장 예편)는 사단명령에 따라 제1대대를 장자동 일대에 투입하였다. 연대 선발대로서 평온리-장자동 계곡에 투입된 제1대대(대대장: 소령 신현홍, 육사 3기, 전사)는 대대관측소를 582고지

(DR 0235)에 두고, 제1중대를 좌전방인 510고지(DR 0136)에, 제2중대를 우전방인 490고지(DR 0236)에 배치하고, 제3중대를 예비로서 582고지 후사면(DR 025356)에 집결하도록 하였다. 제1대대는 진지 진입시 점마(DR 0234) 부근에서 이날 아침에 미군들이 적으로부터 포격을 받고 무질서하게 철수하면서 버리고 간 소총(M-1, CAR, BAR), 기관총, 60mm 박격포 등 각종 화기와 1/4톤 및 3/4톤 차량 그리고 각종 보급품 등을 수집하였으며, 이때 수집한 무기로 많은 비무장 인원을 무장시켜 전투력을 보강하기도 하였다.

연대본부와 같이 이동한 제2대대(대대장 : 소령 이무중)는 제6중대를 평은리에 설치한 연대본부 경계를 위하여 차출하고, 대대(-1)는 상용리(DR 0333)에 집결하였는데, 이날 20:00에 연대본부가 상용리로 이동함으로써 연대본부와 함께 있게 되었다.

포병으로 증강된 북괴군 약 1개 대대는 510고지(DR 0137) - 512고지(DR 0337) 선에 배치하고 일부병력으로는 아군의 기도를 탐지하기 위하여 정찰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었다.

16:00경, 연대 및 제1대대 정보과 요원들이 적정수집차 평은리에서 장자동으로 도로를 따라 진출하다가 582고지 북방 1km 지점에서 적의 포격을 받았다. 이를 계기로 피아간에 약 30분간 포격전이 전개되었는데 17:00경에 장자동 뒷산(DR 030372)에서 사격하고 있는 적의 직사포 3문을 발견한 제1대대는 81mm 박격포 사격을 가하여 이를 완전 무력화시켰다.

이와 같이 진지 투입과 동시에 한바탕 사격전을 전개한 제12연대는 사단으로부터 “23일 09:00에 공격하여 형제봉을 점령하

라”는 명령을 받고 제17연대 제3대대와 협동작전을 하기로 합의한 후 다음과 같은 요지의 공격계획을 하달하였다.

제12연대의 공격계획(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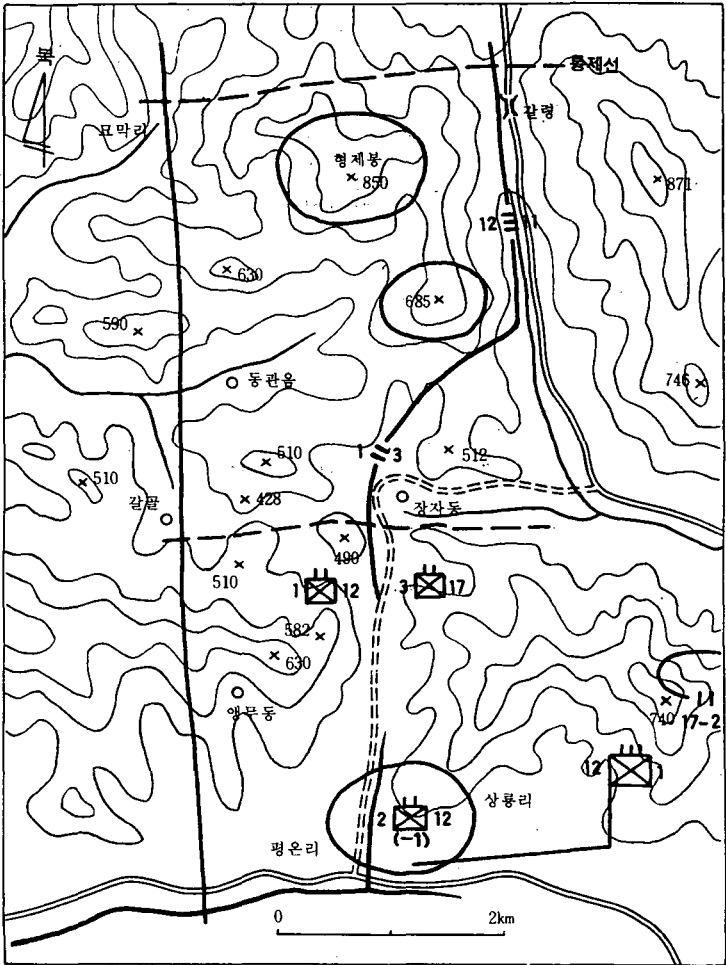
1. 연대는 제1대대를 전방, 제2대대를 예비로 하여 7월 23일 09:00에 공격, 685고지(DR 0338)를 확보하고, 의명 형제봉(DR 0240, 850m)를 점령하려 한다.
2. 공격간 제17연대 제3대대가 연대 우측에서 512고지(DR 0337)를 공격한다.
3. 제1대대
 - 가. 연대 전방대대로서 7월 23일 09:00에 공격.
 - 나. 510고지(DR 0137) 및 685고지를 점령하고, 의명 형제봉을 점령.
4. 제2대대
 - 가. 연대에비.
 - 나. 제1대대 공격을 지원하고, 의명, 투입될 준비.
 - 다. 1개 중대를 연대본부에 파견(연대본부 경계임무).

(2) 장자동 공격전

연대에비인 제2대대(-1)는 05:00에 제5중대와 제7중대를 상용리에서 앵무동(DR 0135) 북방 고지인 630고지(DR 0135) 일대로 이동시켜 제1대대의 공격을 지원할 준비를 하였고, 대대

요도35

제12연대의 공격 계획



81mm 박격포도 점마의 제1대대 81mm 박격포 진지(DR 025350) 부근에 위치하여 제1대대를 지원할 준비를 하였다.

이와 같이 제2대대가 공격지원 준비를 끝마치자 공격을 담당 한 제1대대는 제1중대로 510고지를 먼저 공격하여 이를 점령하도록 하고, 제2중대는 정면인 장자동의 적에 대비하면서 제1중대의 공격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제1중대는 09:00를 기하여 510고지를 공격하였으나 적은 유리한 지형을 이용하여 완강히 저항하였다. 이 공격은 특히 장자동-갈골(DR 0036) 간의 안부에 있는 428고지(DR 014369)에서의 적의 완강한 저항으로 인하여 돈좌되고 말았다.

1차공격이 실패하자 대대장 신현홍 소령은 “당면의 적을 격퇴시키지 못한다면 국가의 존립이 위태롭고 부모형제가 무사할 수 없다”고 강조하여 장병들의 침체된 사기를 고취시킨 후 재공격을 하도록 하였다. 이리하여 제1중대는 13:00에 재공격하여 저항하는 적을 제압하고 안부의 428고지를 점령하였으나 510고지 점령에는 성공하지 못하였다.

제1대대의 우측에서 공격하는 제17연대 제3대대는 미군의 155mm 야포지원하에 512고지(DR 0337)를 공격하였다. 이 대대는 포탄이 무수히 작렬하는 가운데 미군의 포사격 지원에 힘입어 목표를 점령하였으나 대대장 오익경(육사 2기, 대령 예편) 소령이 적 기관총에 부상당하고 부대대장 강은덕 대위가 포격에 전사하는 등 전사 16명, 부상 20여 명의 피해를 입었다. 이에 연대장은 지휘체제의 유지가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제1대대 부대대장 안재징 대위를 제3대대장 직무대리에 임명(구두)하여 이 대

대를 수습하려 하였으나 현지에 도착한 안대위의 “보다 적극적 인 대책이 요망된다”라는 건의에 따라 예비인 제1대대와 교대하도록 하였다. 이리하여 제3대대는 화령장으로 철수하고 제1대대가 제3대대 진지였던 봉황산 좌측능선에 투입되었다. 제3대대가 화령장으로 철수하자 512고지는 적의 수중에 들어갔다.

화령장으로 철수한 제3대대 장병들은 “우리가 많은 피해를 입게 된 것은 적 포격이 치열했던 탓도 있으나 아군의 오폭에 의한 손실이 더 컸다”고 하면서 분개하였다. 이에 연대장 김희준(육사 2기, 준장 예편) 중령은 좌인점의 제1사단 제12연대가 512고지를 점령한 제17연대 제3대대를 적으로 오인하고 그곳에 포격을 요청했다고 판단하고 제12연대장 김점곤 중령에게 거세게 항의하기도 하였다. (출처: 김점곤, 김희준 증언록)

연대의 공격상황이 지지부진하고 우측의 제17연대 제3대대마저 공격이 중단되자 제12연대장은 제1대대장에게 야간공격으로 510고지 및 512고지를 점령하라고 하였고 제1대대장은 22:30에 제1중대는 510고지, 제2중대는 512고지를 공격하도록 하였다. 제1 및 제2중대는 22:30에 공격, 수차에 걸쳐 치열한 근접전을 전개하였으나 적의 저항이 완강하여 다음날인 24일 05:00까지도 목표를 점령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제1대대장은 예비인 제3중대를 510고지 서측방인 갈골(DR 0036) 방향으로 우회공격하도록 하였다. 제3중대는 갈골 서쪽의 510고지(CR 9937)를 점령하고 제1중대의 공격목표인 갈골 동쪽의 510고지를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한편, 제1대대의 공격이 진전되지 않자 제12연대장은 24일

10:00경에 제2대대 제5중대(-1)를 갈골에 투입하여 제1중대를 지원하고 제5중대의 1개 소대를 장자동에 투입하여 제2중대를 지원하도록 조치하였다. 연대장의 조치로 510고지는 3개 중대, 512고지는 1개 중대(중강)가 공격하였으나 13:00가 되어도 공격 부대들은 최종목표는커녕 최초목표조차 점령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초조해진 제12연대장은 제7중대마저 510고지에 투입하는 한편, 제1 및 제3중대로 하여금 510고지 후방으로 진출하여 512고지와 형제봉 중간에 있는 685고지(DR 030389)를 서쪽에서 공격하도록 하였다. 이리하여 제5중대(-1)와 510고지 공격임무를 교대한 제1중대는 제3중대와 합세하여 갈골에서 동관음(DR 0138)으로 우회, 15:00경부터 685고지를 공격하게 되었고 630고지의 제7중대도 갈골로 진출하여 제5중대(-1)와 함께 510고지를 공격하게 되었다.

510고지에서 완강하게 저항하던 북괴군은 정면에서 제5중대(-1)와 제7중대 등 2개 중대의 공격을 받고 있을 때 후방인 동관음에 제1중대 및 제3중대 등 2개 중대가 전개하자 포위되는 것을 피하여 685고지 방향으로 퇴각하였다.

512고지를 공격하던 제2중대는 제5중대의 1개 소대가 장자동 계곡으로 진입하여 적의 측방에서 기습적인 공격을 가함에 힘을 얻어 공격에 박차를 가하던중 적이 동요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놓치지 않고 정면에서 돌격을 감행함으로써 16:00경에 이고지를 점령하였다. 512고지를 점령한 제2중대는 북방의 685고지로 물러나는 적에게 계속 압력을 가하였다.

한편, 685고지를 서쪽에서 공격한 제1중대 및 제3중대는 남쪽

에서 제2중대가 공격하는 데 힘입어 17:00경에 동 고지를 점령하였다. 685고지를 점령하고 재보급을 받은 제1대대는 “24:00까지 목표를 점령하라”는 사단의 명령에 따라 20:00에 공격을 재개하였으나 형제봉의 적은 증원을 받은 듯 완강한 저항을 하다가 역습을 시도함으로써 공격은頓挫되고 말았다. 이에 제1대대는 23:00경에는 685고지로 철수하여 재공격을 준비하게 되었다.

4. 철수작전

가. 제1사단 철수

상주 정면인 화령장 일대를 인수하도록 되어 있던 미 제25사단 제24연대는 선발대로 먼저 왔던 제2대대가 7월 22일 아침의 적의 포격으로 많은 피해를 입어 재편성하고 있었고, 상주 북쪽에서 국군 제6사단을 지원하고 있던 잔여 2개 대대는 예정보다 늦은 24일 석양 무렵에서야 화령장에 진입하고 있었다.

제1사단은 육본작명 제57호(1950.7.20)에 따른 제1군단 작명 제27호(1950.7.24)에 의거, 미군에게 진지를 인계하고 안동지역으로 이동하려고 하였는데, 군단명령의 요지는 다음과 같았다.

제1군단 작전명령 제27호(1950.7.24. 12:40) (요지)

1. 적은 영주를 점령하였으나 춘양 방면에서는 아군의 공격으

로 후퇴하였다.

2. 군단은 육군본부 지시에 의거 다음과 같이 안동 및 대구로 이동하려 한다.

가. 제1사단장은 미군과 교대 즉시 예하 1개 연대를 상주, 김천, 왜관 경유, 안동으로 선발시키고 주력은 상주에 집결, 별도 수송계획에 의하여 안동으로 이동한다.

나. 제2사단장은 미군과 교대후 황간에 집결하여 수송계획에 의거, 대구로 이동, 배속포병은 군단에 복귀시키고 국방부 일반명령 제20호*를 실행하라.

미 제24연대와 진지교대 명령을 받은 제1사단장 백선엽 대령은 미군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제12연대 제2대대 작전장교인 전자열 중위를 연락장교로 임명, 화령장에 도착한 미 제24연대와 진지교대에 대한 세부사항을 협조하도록 하였는데 양부대 교대 일시는 25일 05:00로 합의하였다.

한편, 제1사단은 이날밤 제1군단장 김홍일 소장으로부터 “제1사단은 화령장 진지를 미 제25사단에 인계하고 육본작명 제66호(1950.7.24. 24:00)에 의거 함창으로 이동하라”는 부대이동 정정 명령을 받았다. 육본작명 제66호의 요지는 다음과 같았다.

* 국방부 일반명령 제20호 : 제5 및 제20연대는 제11 및 제12연대에 각각 편입하고 제2사단 사령부 및 직할부대는 육군본부에 배속시키라는 내용이다.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66호(1950.7.24. 24:00) (요지)

1. 군은 침투한 적을 섬멸하고 1950년 7월 25일 05:00를 기하여 공세이전하려 한다.
2. 상주에 집결중인 제1사단은 1950년 7월 24일 야간을 이용하여 함창으로 전진, 1950년 7월 25일 05:00를 기하여 함창 일대의 적을 소탕하고 문경을 탈취 점령하라.

이 당시 제1사단은 7월 24일에 교대할 예정이었으나 미 제24연대의 진출이 늦어져 교대를 못하였는데, 이런 사정을 모르고 있던 육군본부는 제1사단이 이미 교대한 줄 알고 상기와 같은 명령을 내린 듯하였다. 하여튼 이 명령으로 중동부 전선인 춘양, 안동지역으로 이동하려던 제1사단이 갑자기 계획을 바꾸어 중부전선인 함창으로 이동하여 제2군단 통제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제1사단이 함창지역으로 이동하게 된 것은 이당시 미 제24연대가 빠져나간 상황에서 수도사단 제1연대를 배속받아 문경-점촌 간의 영강천에서 방어하고 있던 국군 제6사단이 북괴군 제1사단 및 제13사단 등 전차를 동반한 2개 사단의 강력한 압력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제1군단으로부터 “제1사단은 미군과 교대후 함창으로 이동하여 제2군단의 지시를 받으라”는 명령을 받은 제1사단은 미 제24연대에게 진지를 인계하고 일단 상주로 이동하여 육본작명 제57호(7.20)에 의거 제2사단의 제5 및 제20연대를 흡수통합, 재편성을 할 계획하여, 사단예비인 제13연대를 25일 아침에 상주로 먼

저 출발시키고, 제11연대는 미군에게 진지를 인계하고 05:00에 철수하여 상주로 이동하며 제12연대는 13:00에 철수하여 상주로 이동하도록 하였다.

사단의 철수명령을 받은 제11연대는 확보중인 871고지와 791고지를 미 제24연대에게 인계하고 08:00-11:00간에 상곡리에 집결하여 11:30에 상주로 출발하였고, 제12연대는 13:00에 진지에서 철수하여 상룡리에 집결하였다가 19:00에 화령장 경유 상주로 이동하기 시작하였다.

제1사단은 상주에서 제20연대를 제12연대에 흡수통합하고 포병 제17대대(대대장: 소령 박영시)를 배속받았으며, 총이 없는 병사들에게는 소총이 지급됨으로써 이때 비로소 병력 7,000여 명에 포병대대를 갖춘 전투사단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재편성을 마친 제1사단은 함창 전투에 투입되었으며 제5연대를 제11연대에 통합하는 작업은 며칠후 함창에서 이루어 졌다.

나. 제17연대 철수

봉황산에 포진하여 제1사단의 공격을 엄호했던 제17연대는 제1군단으로부터 “제17연대는 7월 25일에 미군과 진지교대후 함창 경유, 예천에 도착하여 제3사단의 지시를 받으라”는 명령을 받았다.

봉황산 우반부에 있었던 제17연대 제2대대장 송호림 소령은 7월 25일 아침에 대대관측소까지 올라온 미군 대대장(흑인)에게 진지를 인계하였는데, 이때의 일을 송호림 소령은 “제1사단 제

11연대가 우리를 초월공격했는데 그후 미군 흑인대대장이 고지까지 올라와서 나는 그에게 진지를 인계하고 철수하였다. 우리가 나오면서 보니 제1사단 병력이 집결하고 있었다.”고 말하였다. 봉황산 좌반부에 있던 제1대대는 미군과의 교대 없이 화령장으로 철수하였는데, 이는 미 제24연대가 977번 도로 좌우측에 병력을 중점배치한 때문인 듯하였다. 화령장에 집결한 제17연대는 상주로 일단 이동했다가 안동지역으로 출발하였다.

다. 제1군단 사령부 이동

“작전지역을 미 제25사단에게 인계하고 군단사령부는 안동으로 이동하라”는 명령을 받은 제1군단은 보은-황간축선을 제2사단(사단장 : 대령 이한림)이 7월 23일에 미 제25사단 제27연대(연대장 : 대령 John H. Michaelis)에게 인계하고, 보은-상주축선을 제1사단이 7월 25일에 미 제25사단 제24연대(연대장 : 대령 Horton V. White)에게 인계함으로써 작전지역을 인계 완료하였다.

군단직할부대들을 7월 24일 19:30에 상주에서 김천 경유 안동으로 출발시킨 제1군단장은 25일에는 제1사단과 제17연대 등이 진지교대후 출발하는 것을 확인하고 15:00에 상주에서 안동으로 향하였다.

안동으로 이동한 제1군단 사령부는 이날부로 하달된 국방부 일반명령 제22호(1950.7.25. 00:00)에 따라 제1사단을 제2군단에, 제3사단을 육군본부에 배속하고 수도사단과 제8사단을 배속받아

지휘하였다.

이와 같이 7월 17일~24일까지 8일 동안 싸운 화령장 전투에서 북괴군 제15사단은 2개 연대가 괴멸되는 등 참패를 당하여 병력과 장비의 태반을 상실하였고 소백산맥의 험준한 지형을 뚫고 상주를 점령, 일거에 대구로 진출하려는 북괴군 전선 사령부의 야심찬 계획도 좌절되었다.

북괴군 제15사단은 이로 인하여 사단장 박성철이 면직되었으며, 약화된 전투력을 만회할 수 없어 이후에 펼쳐진 낙동강선 전투에서 제대로 전투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반면에 이 전투에서 결정적인 전공을 세운 제17연대는 연대장 김희준 중령 이하 연대 전장병이 1계급씩 특진하는 영예를 안았다. 개전 이래 연대 전장병의 1계급 특진은 동라리에서 전승한 제6사단 제7연대(연대장: 중령 임부택)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였다.

1950년 7월 5일부로 창설된 제1군단은 예하부대인 수도사단, 제1사단, 제2사단을 주축으로 하고 기갑연대, 제7연대, 제17연대 등을 배속받아 진천-청주-음성-화령장 전투를 전개하였다. 제1군단은 미 제8군의 전선조정계획에 따라 수도사단이 7월 20일에 안동지역으로 이동하였고, 제2사단이 7월 23일부로 작전지역을 미 제25사단 제27연대에게 인계하고 해체된 데 이어 제1사단이 7월 25일부로 작전지역을 미 제 25사단 제24연대에 인계하고 상주로 이동하자 군단사령부도 7월 25일 15:00에 상주에서 중동부의 안동으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제1군단이 창설되자마자 중서

부지역에서 20여 일간 펼친 지연전이 끝나게 되었다.

제1군단은 기간중 고전을 겪으면서 상당한 지역을 적에게 내어주기는 하였으나 지연전을 전개하여 많은 전과를 올림으로써 국군이 전투력을 회복하고 재편성하며 미군이 증원하는 데 필요한 귀중한 시간을 획득하게 하였다.

부 록

1. 전투일지
2. 참고문헌
3. 증언 인명록

부록 1

전 투 일 지

일자(요일)	주요상황
7월 3일(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육군주력: 한강방어선 붕괴로 수원으로 철수 ○북괴군 제2사단: 인천에서 진천 방향으로 남진 ○북괴군 제15사단: 원주에서 장호원으로 진출
7월 4일(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육군주력: 수원에서 평택으로 철수 ○제7연대 제2대대: 충주에서 장호원으로 진출중 동락리에서 북괴군 제15사단 선두부대와 조우
7월 5일(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육군주력: 육본 재편성 계획에 의거, 평택 일대의 육군주력을 수도사단, 제1사단, 제2사단 등 3개 사단으로 통폐합하고 제1군단을 창설 ○제7연대: 음성에 전개, 기름고개 및 동락리 일대에서 북괴 제15사단과 교전 ○미 스미스 특수임무부대 및 제17연대: 오산 전투에서 패퇴
7월 6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군단: 다음과 같이 이동, 수도사단 → 진천, 제1사단 → 음성, 제2사단 → 증평 ○제7연대: 음성-무극리에서 교전
7월 7일(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도사단 제1연대: 진천 북방에서 북괴군 제2사단 선두부대와 교전 ○수도사단장이 이준식 준장에서 김석원 준장으로 교체

일 자	주 요 상 황
7월 8일(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사단: 증평에서 부대정비, 제13연대는 육본 재편성 계획에 의거 제15연대를 흡수통합 ○ 제7연대: 동락리 일대에서의 기습공격으로 대승 ○ 수도사단 제1연대: 북괴군 제2사단의 공격으로 진천 피탈 ○ 제2사단 제20연대: 진천에 투입되어 교전 ○ 기갑연대 및 제17연대: 수도사단에 배속 ○ 제1사단: 음성전개 및 제7연대 진지 인수, 제11연대는 소여리에서 접근하는 적 1개 대대를 섬멸 ○ 제7연대: 진지인계후 제1사단에 배속
7월 9일(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사단: 문안산 및 봉화산을 피탈당하자 배속부대 및 지원부대를 포함 7개 연대를 동원하여 진천 탈환작전을 전개, 문안산 및 봉화산을 탈환 ○ 제1사단: 북괴군 제15사단의 공격을 소여리, 용산리, 비산리에서 격퇴 ○ 제7연대: 제1사단 서측방을 공격하여 북괴군의 음성에 대한 공격력을 완화시킴
7월 10일(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사단: 적의 야간공격으로 문안산이 피탈되었으나 제1연대 및 제17연대의 공격으로 재탈환하였으며 군단의 명령으로 진천에서 오근장으로 철수 ○ 제1사단: 적의 공격을 저지하다가 군단의 명령으로 음성에서 괴산으로 철수
7월 11일(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사단: 청주시 북쪽 8km의 오근장에 진지 점령 및 방어준비, 팔결교 폭파. 제1연대는 육본 재편성

일 자	주 요 상 황
7월12일(수)	<p>계획에 의거 제9연대를 흡수통합</p> <p>○ 제1사단: 제11연대 및 제12연대는 괴산 외곽에 방어진지 편성하였고, 제11연대 제1대대는 괴산 북서쪽 10km의 가장동에서 적과 교전</p> <p>○ 수도사단: 미호천 도하 준비중인 북괴군 제2사단을 포격, 청주시가전 포기 결정</p> <p>○ 제1사단 제11연대: 가장동에서 북괴군 제15사단 1개 연대와 공방전 전개</p>
7월13일(목)	<p>○ 수도사단: 북괴군 제2사단의 미호천 도하공격으로 오근장선 방어선이 돌파되어 청주 남쪽 8km의 고은리 일대로 철수</p> <p>○ 제1사단 제11연대 및 제12연대: 괴산에서 미원으로 철수</p> <p>○ 제1사단 제13연대: 미원 북동 10km의 거리고개 일대에 진지 점령</p>
7월14일(금)	<p>○ 수도사단 제1연대 및 제18연대: 고은리에서 공방전 전개</p> <p>○ 수도사단 제8연대: 국사봉에서 공방전 전개</p>
7월15일(토)	<p>○ 제17연대: 효촌리 및 장암리로 공격</p>
7월16일(일)	<p>○ 수도사단 및 제17연대: 적의 공격으로 국사봉-고은리 일대에서 공방전을 전개하다가 군단 명에 따라 보은으로 철수</p> <p>○ 제2사단: 봉무산 일대에서 공방전을 전개하다가 군단 명에 따라 회인 북방의 피반령 일대로 진지 변환</p>

일 자	주 요 상 황
7월17일(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사단 제13연대: 거리고개에서 공방전 전개 ○ 수도사단: 보은에 집결하여 군단 예비가 됨 ○ 제1사단 제13연대: 거리고개에서 공방전을 전개하다가 미원 남쪽으로 철수 ○ 제17연대: 제2군단으로 배속 전환되어 선발대인 제1대대가 보은에서 합참으로 이동중 화령장 동쪽 4km의 상곡리에서 북괴군 제15사단 제48연대 주력을 매복공격하여 대승
7월18일(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사단 제11연대: 미원 남쪽에 진지 점령 ○ 제17연대: 상곡리 일대에서 잔적소탕 및 제2대대를 동관리에 투입
7월19일(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7연대 제2대대: 적 치중대 섬멸 ○ 수도사단 제1연대: 화령장으로 진출
7월20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사단: 육군의 전선 조정계획에 따라 제1연대는 합참, 제8연대는 안동, 제18연대는 예천으로 이동 ○ 제17연대 제2대대: 동관리에서 적 제15사단 제49연대를 매복공격하여 대승
7월21일(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7연대: 북괴군이 갈령 일대에 전개하자 제3대대를 장자동에 투입 ○ 제1사단: 육군전선 조정계획에 따라 보은으로 철수하여 이동준비중, 육본의 수정명령에 따라 화령장으로 이동
7월22일(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사단: 화령장에 이동 전개 ○ 미 제25사단 제24연대 제2대대: 장자동 계곡에 투

일 자	주 요 상 황
7월23일(일)	<p>입중 적의 포격으로 분산 철수</p> <p>○ 제1사단 제11연대: 갈령 동측으로 공격, 650고지 점령, 746고지 점령 실패</p> <p>○ 제1사단 제12연대: 갈령 서측으로 공격, 510고지 점령 실패</p> <p>○ 제17연대 제3대대: 제12연대와 함께 공격중 많은 피해를 입어 공격중지, 제1대대와 진지교대</p> <p>○ 제2사단: 미 제25사단 제27연대에 진지를 인계</p>
7월24일(월)	<p>○ 제1사단 제11연대: 갈령 동측의 871고지 및 791고지 점령</p> <p>○ 제1사단 제12연대: 갈령 서측의 685고지를 점령했으나 850고지(형제봉) 점령에는 실패</p>
7월25일(화)	<p>○ 제1사단: 미 제25사단 제24연대에게 진지를 인계하고 상주로 철수</p> <p>○ 제17연대: 미 제24연대에게 진지를 인계하고 상주로 철수</p> <p>○ 제1군단 사령부: 작전지역은 미 제25사단에게 인계하고 상주에서 안동으로 이동, 중동부전선 담당</p>

부록 2

참 고 문 헌

- 제1군단 전투상보 및 역사일지(한국전쟁사료 제41권, 육군본부)
- 수도사단 전투상보(한국전쟁사료 제41권, 육군본부)
- 제1연대 전투상보(한국전쟁사료 제42권, 육군본부)
- 제7연대 전투상보(한국전쟁사료 제54권, 육군본부)
- 제11연대 전투상보(한국전쟁사료 제43권, 육군본부)
- 제12연대 전투상보(한국전쟁사료 제44권, 육군본부)
- 제15연대 전투상보(한국전쟁사료 제45권, 육군본부)
- 제16연대 전투상보(한국전쟁사료 제57권, 육군본부)
- 한국전쟁사 제1권(북괴의 남침과 서전기) (국방부)
- 한국전쟁사 제2권(지연작전기) (국방부)
- 미 제8군 정기작전 보고서(미 제8군)
- 낙동강에서 압록강까지(유엔군전사 제1집) (육군본부)
- 제1군단 전투경과 보고서(전사편찬위원회 소장)
- 참전자 증언록(소장 김홍일의 75명) (전사편찬위원회 소장)
- 제1군단 부대역사 보고서(전사편찬위원회 소장)
- 수도사단 부대역사 보고서(전사편찬위원회 소장)
- 제1사단 부대역사 보고서(전사편찬위원회 소장)
- 제1연대 부대역사 보고서(전사편찬위원회 소장)
- 제16연대 부대역사 보고서(전사편찬위원회 소장)
- 제18연대 부대역사 보고서(전사편찬위원회 소장)
- 맹호사(수도기계화 보병사단)

- 전진역사(보병 제1사단)
- 청성전사(보병 제6사단)
- 민족의 증언 제1권(중앙일보사)
- 한국전 비사, 하권(반격과 휴전) (佐佐木春陸저, 강찬구역, 병학사)
- 오성장군 김홍일(박경석저, 서문당)
- 노병의 한(김석원 자서전) (육법사)
- 전쟁과 휴전(정일권 회고록) (동아일보사)
- 군과 나(백선엽 회고록) (대륙연구소)
- 백마고지(김종오 일대기) (유현종저, 울지출판공사)
- 역서(천문우주과학연구소)

부록 3

증언인명록

소 속	직 책	계 급	성 명	비 고
제 1 군 단 사 령 부	군 단 장	소 장	김홍일	
제 1 군 단 사 령 부	작 전 참 모	대 령	김종갑	
제 1 군 단 사 령 부	정보보좌관	소 령	방원철	
제 1 군 단 사 령 부	정 찰 대 장	대 위	김충량	
제 2 군 단 사 령 부	병 참 부 장	중 령	김정무	
제 2 군 단 사 령 부	정보보좌관	대 위	배상록	
제 2 군 단 사 령 부	정보대선임하사	상 사	윤복원	
수 도 사 단 사 령 부	사 단 장	준 장	김석원	
수 도 사 단 사 령 부	참 모 장	중 령	김용조	
수 도 사 단 사 령 부	작 전 참 모	소 령	박경원	
수 도 사 단 사 령 부	작 전 보 좌 관	중 위	선우길영	
수 도 사 단 사 령 부	작 전 장 교	중 위	권태일	
수 도 사 단 사 령 부	인 사 장 교	중 위	고동철	
기 감 연 대 도 보 대 대	박 격 포 사 수	상 사	이해중	
제 1 연 대 본 부	부 연 대 장	소 령	김황목	
제 1 연 대 제 1 중 대	중 대 장	중 위	윤홍정	
제 1 연 대 제 2 중 대	중 대 장	중 위	박규화	
제 1 연 대 제 2 중 대	소 대 장	중 위	박종희	
제 5 연 대 본 부	연 대 장	대 령	김동빈	
제 7 연 대 본 부	연 대 장	중 령	임부택	

소	속	직	책	계	급	성명	비고
제 7 연 대 제 2 대 대	대 대 장	소	령	김종수			
제 7 연 대 제 2 대 대	부 대 대 장	대	위	허용우			
제 7 연 대 제 3 대 대	대 대 장	소	령	이남호			
제 7 연 대 제 3 대 대	작 전 장 교	중	위	이홍우			
제 7 연 대 제 3 중 대	중 대 장	중	위	김병익			
제 7 연 대 제 3 중 대	소 대 장	중	위	이상우			
제 7 연 대 제 5 중 대	중 대 장	중	위	최익영			
제 7 연 대 제 6 중 대	중대장(대리)	소	위	윤수용			
제 7 연 대 제 11 중 대	중 대 장	대	위	인성훈			
제 8 연 대 본 부	연 대 장	중	령	이현진			
제 8 연 대 제 2 대 대	대 대 장	대	위	정승화			
제 8 연 대 제 5 중 대	중 대 장	중	위	안태갑			
제 8 연 대 제 8 중 대	박격포분대장	하	사	김부경			
제 11 연 대 본 부	연 대 장	대	령	최경록			
제 11 연 대 제 2 대 대	대 대 장	소	령	정영홍			
제 11 연 대 제 2 중 대	중 대 장	중	위	이정호			
제 11 연 대 제 6 중 대	중 대 장	대	위	양봉직			
제 11 연 대 제 8 중 대	중 대 장	중	위	홍정표			
제 12 연 대 본 부	연 대 장	중	령	김점곤			
제 12 연 대 제 3 중 대	소 대 장	중	위	강윤장			
제 12 연 대 제 6 중 대	소 대 장	중	위	홍재희			
제 12 연 대 제 7 중 대	중 대 장	중	위	김영선			
제 13 연 대 본 부	연 대 장	대	령	최영희			
제 13 연 대 제 1 대 대	대 대 장	소	령	김진위			

소 속	직 책	계 급	성 명	비 고
제 13 연 대 제 3 대 대	대 대 장	소 령	최병순	
제 13 연 대 제 5 중 대	중 대 장	대 위	정점봉	
제 13 연 대 제 5 중 대	분 대 장	일등중사	김재열	
제 13 연 대 제 11 중 대	중 대 장	중 위	김은욱	
제 16 연 대 본 부	연 대 장	대 령	문용채	
제 16 포 병 대 대 제 2 중 대	중 대 장	대 위	이만호	
제 17 연 대 본 부	연 대 장	대 령	백인엽	오산에서 부상
제 17 연 대 본 부	부 연 대 장	중 령	김희준	연대장직무대리
제 17 연 대 본 부	보 급 관	중 위	선우요	
제 17 연 대 제 1 대 대	대 대 장	소 령	이관수	
제 17 연 대 제 1 대 대	작 전 장 교	중 위	김희재	
제 17 연 대 제 2 대 대	대 대 장	소 령	송호림	
제 17 연 대 제 3 대 대	대 대 장	소 령	오익경	
제 17 연 대 제 1 중 대	화 기 소 대 장	중 위	백경석	
제 17 연 대 제 3 중 대	소 대 장	중 위	윤종한	
제 17 연 대 제 4 중 대	박격포소대장	중 위	이홍근	
제 17 연 대 제 4 중 대	기관총소대장	중 위	정득만	
제 17 연 대 제 4 중 대	기관총소대선임하사	상 사	김진국	
제 17 연 대 제 4 중 대	기 관 총 사 수	2등상사	김홍철	
제 17 연 대 제 7 중 대	중 대 장	중 위	조경학	
제 17 연 대 제 7 중 대	소 대 장	중 위	오병진	
제 17 연 대 제 7 중 대	분 대 원	하 사	복진세	
제 17 연 대 제 8 중 대	박격포소대선임하사	상 사	홍영표	
제 17 연 대 제 10 중 대	중 대 장	중 위	유치문	

소 속	직 책	계 급	성 명	비 고
제 18 연 대 본 부	부 연 대 장	중 령	한 신	
제 18 연 대 본 부	인 사 과 장	대 위	이병형	
제 18 연 대 제 2 대 대	대 대 장	소 령	장춘권	
제 18 연 대 제 3 대 대	정 보 장 교	중 위	박자진	
제 18 연 대 제 6 중 대	중 대 장	중 위	김정운	
제 20 연 대 본 부	연 대 장	대 령	박기병	
제 20 연 대 제 1 중 대	분 대 원	상 병	김현경	
진 주 특 립 대 대	소 대 장	중 위	정규화	

□ 執筆委員：羅 鍾 三

鎮川—化寧場 戰鬥

韓國戰爭戰鬥史

1991年 12月 20日 印刷

1991年 12月 26日 發行

發行人 具 本 重

發行處 서울特別市 龍山區 龍山洞1街8番地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

印刷處 서울特別市 龍山區 龍山洞 2-12
軍人共濟會 第1印刷事業所

고유번호 : 91-18-4-57

〈비매품〉

韓國戰爭戰鬪史 目錄

多富洞戰鬪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1981年 刊
長津湖戰鬪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1981年 刊
38도선初期戰鬪 (中·東部戰線篇)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1982年 刊
仁川上陸作戰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1983年 刊
龍門山戰鬪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1983年 刊
新寧·永川戰鬪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1984年 刊
白馬高地戰鬪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1984年 刊
38도선初期戰鬪 (西部戰線篇)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1985年 刊
清川江戰鬪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1985年 刊
平壤奪還作戰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1986年 刊
安康·浦項戰鬪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1986年 刊
丹陽－義城戰鬪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1987年 刊
金城戰鬪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1987年 刊
狙擊稜線戰鬪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1988年 刊
縣里戰鬪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1988年 刊
楊口戰鬪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1989年 刊
首都高地·指形稜線戰鬪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1989年 刊
月比山·351高地戰鬪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1990年 刊
白石山戰鬪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1990年 刊
臨津江戰鬪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1991年 刊
鎮川－化寧場戰鬪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1991年 刊